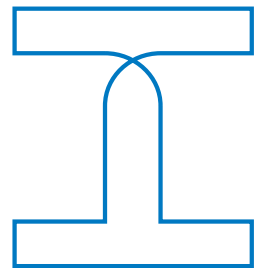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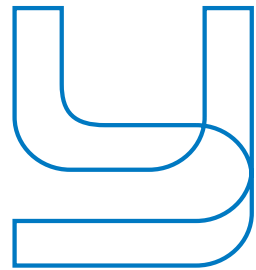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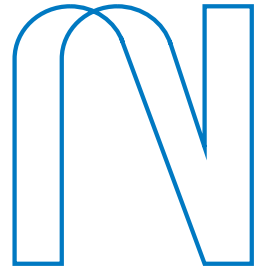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책임연구원 김현철

공동연구원 백혜정 이지연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김선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최근 몇 년 사이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관련 법과 기본계획이 제정되고, 전문인력, 전문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빠른 속도로 구축되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진로교육이 진학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오던 것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로체험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의 기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냥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 들여오기 바빴던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과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쟁점은 어떻게 하면, 더 체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체험이 가능하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노동시장의 악화로 진로교육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로교육을 위시한 많은 정책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들여오는 데 집중되다보니, 아시아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벤치마킹 대상으로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급변하는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으며,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은 연구 성과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 아시아 각국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로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연구과제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성공적으로 국제회의가 개최되길 바라며, 아시아 각국 진로교육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민경석 교수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협력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이지연 선임연구위원	-
	아시아 진로개발학회 (ARACD,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미무라 타카오 교수 (와세다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카베 아츠시 교수 (삿포로오타니대학교 지역사회학과)
	아시아 저출산·교육·고용 연구회	마츠다 시게키 교수 (중경대학)	심 춘키앗 교수 (쇼와여자대학) 배지혜 교수 (오비린대학) 와타나베 히데끼 교수 (테이쿄대학) 아케노시타 히로히사 교수 (조치대학) 오자와 히로유키 교수 (도쿄학예대학)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각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현황 비교를 통해 한국의 진로체험 활동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2017년에 개최될 아시아 진로교육 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연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에 의하면, 전문가의 개입,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가 있을 때 진로체험활동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 PISA 2012 진로교육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직업역량도 상대적으로 높고, 아시아국가간 비교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각국 사회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이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흥미 있는 분야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수록 진로성숙도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낮으며, 진로체험활동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고등학교 진로담당교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진로체험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외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며,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다. 질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체험활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상의 난점도 드러나고 있지만,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연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선 및 진로상담교사의 역량강화 방안,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활성화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아시아 국가비교,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진로체험활동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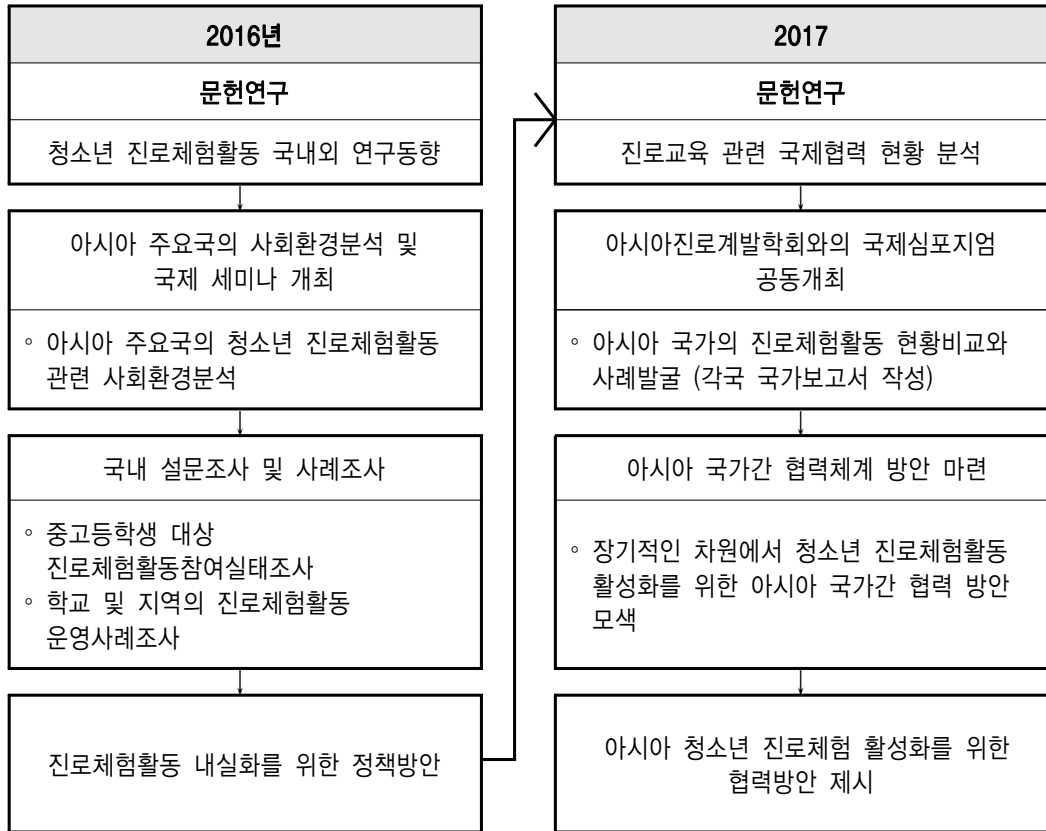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아시아 각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정책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함.
- 2017년에 ARACD(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와 공동으로 개최할 국제회의의 준비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함

2. 연구방법

-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탐색을 통한 진로교육이론의 종합
- 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사회환경분석 및 PISA 2012 등 2차 자료 분석
- 국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실태조사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파악을 위한 학교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례조사
-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 존 듀이와 콜브의 경험학습의 원리는 이론과 실천 또는 경험과 반성적 사고로 축약될 수 있지만, 경험은 지식이나 사고로 전이되는 과정이 중요하며, 모든 체험활동이나 경험학습 또는 진로체험활동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전이가 이루어진다.
- 이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을 간접체험활동과 직접체험활동으로 구분하고, 간접체험활동에는 진로상담활동을 포함시키고, 직접체험활동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금노동을 포함시켰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금 노동은 다른 진로체험활동과 달리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로체험활동의 하나일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활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활동에 포함시켰다.

-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사회학습이론으로 중심으로 진로교육이론을 검토한 결과,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나 정보, 진로의사결정력, 진로적응력, 반성적 관찰, 초인지 기술, 과제접근기술, 능동적 참여, 우연기술의 습득,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업체험, 자기효능감의 향상, 전문가의 개입과 같은 핵심개념들이 도출되었다. 이 개념들은 진로체험활동이 어떻게 진로교육목표나 효과로 전이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진로체험활동의 내용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적응력, 반성적 고찰, 과제접근기술, 초인지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경험되고,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성숙과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 단, 보다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진로교육이론의 특징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로체험활동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분석

- 2010 PISA조사에서 부가적으로 실시한 진로교육조사결과는 진로체험활동의 양은 직업역량과 비례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나라 청소년들이 진로체험 활동으로부터 습득된 직업역량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해준다.
- 2010 PISA 자료 중 핀란드와 아시아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는 진로체험활동 이외의 변인(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관계)은 직업역량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각 국가내 비교에서는 상하이를 제외하곤 모든 변인들이 직업역량과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직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만, 각국의 비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가설에 머물러 있다.

3)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 실태

- 전국의 중고등학생 6,754명과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담당교사)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은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심리검사를 받아 본 경우(76.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및 체험(68.1%),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참석 및 대화나누기(52%), 진로상담(49.5%) 순으로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이 경험한 진로체험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을 활용한 체험은 학교 밖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이 대체적으로 개인의 진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성별이나 학교급, 성적, 거주지역의 규모 등 청소년이 속한 하위 집단에 따라 진로체험 정도 및 도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 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소에 흥미가 있는 분야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업체험일수록 그 효과성이 뛰어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에 흥미가 없는 분야에서의 체험이라 하더라도 경험자의 64~73%의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에서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체험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41.1%)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90.1%)에게서 높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가 해당분야의 지식을 넓히는 데 보다 효과적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더라도 직업체험 그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기회로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전체 응답자 중 최근 일 년 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121%에 불과하였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아르바이트의 목적은 진로체험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노동과 사회경제 생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 숙고해 보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성숙정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과 진로 독립성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이에 비해 진로행동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별, 학교급, 고등학교 유형,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진로성숙도 전체의 점수 또는 일부 하위 영역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의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진로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향상되었다.

-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로체험활동으로서 진로상담이나 검사,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 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 상급학교 설명회 및 견학 등을 실시하는 반면 진로 및 직업 체험시설 방문이나 직업현장 체험, 직업현장실무체험, 원격화상진로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학교는 적었다.
-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모든 체험활동을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정도는 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높지 않아 교사-학생간 도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규모가 작을수록 그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교사 10명 중 4명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으며, 10명 중 3명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각 학교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 서비스 및 시설은 커리어넷이며 그 다음으로 워크넷, 관공서 및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시설, 꿈길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외부 서비스 및 시설이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질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다.

4) 사례조사

- 설문조사결과로부터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방문기관은 학교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고, 인터뷰대상자는 교사, 장학사,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등이다.
-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와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학교·교사의 긍정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 나타났다. 대체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자유학기제가 전체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이 중학교보다 저조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 자유학기제 도입과 진로교육법의 시행 등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학교를 충분히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례들은 지역사회연계, 마을연계 등의 사업과 연계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활발한 지역사회연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진로멘토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대응하거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연계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4. 정책제언

- 학교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선 및 진로담당교사의 역량강화
 - 홀랜드 검사 등 진로심리검사는 단순검사에 그치지 않고, 진로검사를 통해 자기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맥락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제공터나 기관을 발굴해야 한다.

-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상담교사들의 진로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역량계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교사들이 지역사회자원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적정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자원 연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하고,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농산어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역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떻게 지역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에 기여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10
4. 연구추진체계	13
II. 이론적 배경	15
1. 진로체험활동의 개념정의와 범위	17
2.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22
3.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34
4. 소결	45
III.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분석	47
1.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 분석	49
2.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비교: PISA 2012 진로체험활동 조사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70
3. 소결	114
IV.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 실태	117
1. 설문조사의 개요	119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40
3.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89
4. 사례조사 결과	211
5. 소결	220

V. 결론 및 정책제언	221
1. 결론	223
2. 정책제언	224
참고문헌	233
부 록	243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245

표 목차

〈표 Ⅰ-1〉 청소년 조사 개요	11
〈표 Ⅰ-2〉 교사 조사 개요	12
〈표 Ⅱ-1〉 진로체험 유형 및 활동 내용(Ⅰ)	20
〈표 Ⅱ-2〉 진로체험 유형 및 활동 내용(Ⅱ)	22
〈표 Ⅱ-3〉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문헌 분석	40
〈표 Ⅲ-1〉 총 인구와 면적 그리고 청소년 인구(아시아 9개국)	52
〈표 Ⅲ-2〉 인구 추이와 중위연령(아시아 8개국)	54
〈표 Ⅲ-3〉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아시아 10개국)	55
〈표 Ⅲ-4〉 출생률과 사망률(아시아 8개국)	56
〈표 Ⅲ-5〉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가임기 여성의 일인당 출산율(아시아 6개국) ·	57
〈표 Ⅲ-6〉 세대 인원 별 세대수(아시아 4개국)	58
〈표 Ⅲ-7〉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2013년 기준 아시아 10개국)	60
〈표 Ⅲ-8〉 경제활동 인구비율과 실업률(아시아 10개국)	61
〈표 Ⅲ-9〉 노동시간(2007년 기준 아시아 6개국)	62
〈표 Ⅲ-10〉 교원 1인당 학생수(2012년 기준 아시아 6개국)	63
〈표 Ⅲ-11〉 남녀별 재학률(아시아 7개국)	64
〈표 Ⅲ-12〉 평균 취학 년수와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아시아 5개국)	64
〈표 Ⅲ-13〉 재학생 1인당 학교교육비(2011년 기준 아시아 3개국)	65
〈표 Ⅲ-14〉 국내 총생산 대비 학교 교육비의 비율(2011년 기준 한국, 일본) ···	66
〈표 Ⅲ-15〉 남녀별 문자 해독률(아시아 5개국)	66
〈표 Ⅲ-16〉 텔레비전 보유 가구 비율(아시아 7개국)	67
〈표 Ⅲ-17〉 영화제작 관람 횟수(2011년 기준 아시아 8개국)	67
〈표 Ⅲ-18〉 전화와 이동전화 보급률(2013년 기준 아시아 9개국)	68
〈표 Ⅲ-19〉 자동차 보유 대수와 여행경비(아시아 5개국)	69
〈표 Ⅲ-20〉 PISA 2012 진로체험활동참여 문항: EC03	71

〈표 III-21〉 PISA 2012 직업관련역량 문항: EC04	72
〈표 III-22〉 진로체험활동 참여 문항응답 비율	83
〈표 III-23〉 직업역량 문항응답 비율	84
〈표 III-24〉 진로 관련 척도의 국가 간 상관계수	85
〈표 III-25〉 진로 관련 척도의 국가 내 상관계수의 평균	86
〈표 III-26〉 표본의 설명(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90
〈표 III-27〉 PISA 2012 진로체험 관련 조사 변수 설명	93
〈표 III-28〉 직업역량의 국가 간 평균 비교	97
〈표 III-29〉 독립변수 별 국가 간 평균 비교	98
〈표 III-30〉 국가별 상관관계 분석	111
〈표 III-31〉 직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3
〈표 IV-1〉 설문조사 방법	120
〈표 IV-2〉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121
〈표 IV-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121
〈표 IV-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122
〈표 IV-5〉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122
〈표 IV-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123
〈표 IV-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123
〈표 IV-8〉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124
〈표 IV-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124
〈표 IV-10〉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126
〈표 IV-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127
〈표 IV-12〉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127
〈표 IV-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128
〈표 IV-1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128
〈표 IV-1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문항	135

〈표 IV-16〉 아르바이트 효과 문항	136
〈표 IV-17〉 진로성숙도 문항	137
〈표 IV-18〉 직업지식 문항	138
〈표 IV-19〉 교사 조사 개요	139
〈표 IV-20〉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141
〈표 IV-21〉 자유학기제 참여 경험	142
〈표 IV-22〉 자유학기제 경험 시기	143
〈표 IV-23〉 진로심리검사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144
〈표 IV-24〉 진로상담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146
〈표 IV-25〉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 수집 여부 및 도움 정도	148
〈표 IV-26〉 인터넷 활용 여부 및 도움 정도	150
〈표 IV-27〉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이나 대화 나누기 여부 및 도움 정도	152
〈표 IV-28〉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154
〈표 IV-29〉 상급학교 입학설명회 참석 또는 학교 탐방 견학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156
〈표 IV-30〉 직업 및 진로 체험시설 방문 여부 및 도움 정도	158
〈표 IV-31〉 직업현장 체험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160
〈표 IV-32〉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여부 및 도움 정도	162
〈표 IV-33〉 직업체험 결과 (1)	167
〈표 IV-34〉 직업체험 결과 (2)	168
〈표 IV-35〉 평소 흥미도에 따른 기타 진로체험 태도	169
〈표 IV-3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아르바이트 기간	170
〈표 IV-37〉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태도	173
〈표 IV-38〉 하위 집단별 진로 성숙도의 정도	175
〈표 IV-39〉 진로 성숙도(회귀분석 결과)	176
〈표 IV-40〉 하위 집단별 진로 계획성의 정도	177

〈표 IV-41〉 진로 계획성(회귀분석 결과)	178
〈표 IV-42〉 하위 집단별 진로 독립성의 정도	179
〈표 IV-43〉 진로 독립성(회귀분석 결과)	180
〈표 IV-44〉 하위 집단별 진로 태도의 정도	181
〈표 IV-45〉 진로 태도(회귀분석 결과)	182
〈표 IV-46〉 하위 집단별 진로 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의 정도	183
〈표 IV-47〉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회귀분석 결과)	184
〈표 IV-48〉 하위 집단별 진로 행동의 정도	185
〈표 IV-49〉 진로 행동(회귀분석 결과)	186
〈표 IV-50〉 하위 집단별 직업 지식의 정도	187
〈표 IV-51〉 진로 지식(회귀분석 결과)	188
〈표 IV-52〉 설문조사 참여 교사 현황	190
〈표 IV-53〉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1)	195
〈표 IV-54〉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2)	196
〈표 IV-55〉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3)	197
〈표 IV-56〉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4)	198
〈표 IV-57〉 지역사회 내 외부기관 및 전문 인력 여부에 따른 협력 정도 및 네트워크 운영 정도	201
〈표 IV-58〉 자원 인력 활용의 도움 정도	204
〈표 IV-59〉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도움 정도	206
〈표 IV-60〉 현장방문 기관 및 인터뷰 대상자 일람	211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Ⅱ-1】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	17
【그림 Ⅱ-2】 존 듀이의 학습과정	17
【그림 Ⅱ-3】 레빈의 피드백 과정	18
【그림 Ⅱ-4】 콜브의 경험학습 과정	19
【그림 Ⅱ-5】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진로정보처리 피라미드와 CASVE 순환모형	24
【그림 Ⅱ-6】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모형	29
【그림 Ⅱ-7】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종합모형	32
【그림 Ⅲ-1】 진로체험활동 참여	75
【그림 Ⅲ-2】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중간 값 및 표준 편차	76
【그림 Ⅲ-3】 인식된 직업역량	77
【그림 Ⅲ-4】 진로체험 활동 참여와 직업역량 인식	77
【그림 Ⅲ-5】 직업역량의 자원으로 인식된 학교와 학교 외의 자원	79
【그림 Ⅲ-6】 인식된 직업역량의 습득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교내 대 교외)	80
【그림 Ⅲ-7】 진로체험활동 참여 및 인식된 직업역량의 습득에서의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81
【그림 Ⅲ-8】 진로체험활동 참여 항목별 국가 간의 차이	82
【그림 Ⅲ-9】 분석틀	96
【그림 Ⅲ-10】 직업역량(전체/교내/교외) 평균	97
【그림 Ⅲ-11】 독립변수 별 국가 간 평균 비교	99
【그림 Ⅲ-12】 진로체험활동 참여 평균점수	100
【그림 Ⅲ-13】 진로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역량(전체/교내/교외)	101
【그림 Ⅲ-14】 방과후 공부시간 평균	102
【그림 Ⅲ-15】 방과후 공부시간에 따른 직업역량	102

【그림 Ⅲ-16】 수학점수 평균	103
【그림 Ⅲ-17】 수학평균점수에 따른 진로개발활동 참여	104
【그림 Ⅲ-18】 문제해결 개방성 평균	105
【그림 Ⅲ-19】 문제해결력에 대한 개방성에 따른 직업역량	105
【그림 Ⅲ-20】 학교에 대한 소속감 평균	106
【그림 Ⅲ-21】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107
【그림 Ⅲ-22】 학생-교사 관계 평균	108
【그림 Ⅲ-23】 학생-교사 관계에 따른 직업역량	108
【그림 Ⅳ-1】 청소년용 설문지 개발 절차	133
【그림 Ⅳ-2】 교사용 설문지 개발 절차	139
【그림 Ⅳ-3】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	163
【그림 Ⅳ-4】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	164
【그림 Ⅳ-5】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업무환경에서의 체험 분야	165
【그림 Ⅳ-6】 아르바이트 체험 분야	172
【그림 Ⅳ-7】 아르바이트 이유	172
【그림 Ⅳ-8】 (하위영역별) 진로성숙도 및 직업지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174
【그림 Ⅳ-9】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별 실시 정도	191
【그림 Ⅳ-10】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학생-교사 비교)	191
【그림 Ⅳ-11】 학교8에서 역점을 두는 진로체험활동	192
【그림 Ⅳ-12】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학교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193
【그림 Ⅳ-13】 학교유형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학교 환경에 대한 교사의 긍정응답률	194
【그림 Ⅳ-14】 자유학기제 관련 중학교 교사의 인식	199

【그림 IV-15】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200
【그림 IV-16】 중고등학교 자원 인력 활용 정도	202
【그림 IV-17】 고등학교 유형별 자원 인력 활용 정도	203
【그림 IV-18】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정도	205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년 고용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직업역량을 계발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여러 아시아 국가들도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은 기존 능력개발체제의 개편을 모색하면서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듀얼시스템, 도제교육, 인턴십 제도와 같은 직업교육은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몇몇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今野, 2005), 최근 10년 사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이지연, 2015; 김현철, 2013). 진로교육에 있어서 일본은 여전히 벤치마킹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싱가포르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진로교육의 벤치마킹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¹⁾. 만일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는 별다른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 더욱이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서 각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정책모델의 차이가 어떤 정책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발달수준만큼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편차가 크다. 따라서 각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간 비교연구로부터 아시아 내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비교 국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진로교육 수준의

1) 일례로 인도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career'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무색하리만큼 진로교육 및 고용 관련 상황이 좋지 않다(Arulmani, 2015). 아시아 내 국가들 간에는 진로 및 직업교육 및 관련 환경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심하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PISA 조사결과는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조사가 부가적으로 이루어진 2012년 PISA자료를 이용한 국가간 비교결과를 보면, 진로계발활동 참여의 정도와 직업관련역량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Sweet, R., Nissinen, K. & Vuorinen, R., 2014). 그러나 2012년 PISA자료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기에는 비교대상국이 극히 제한적이다.²⁾ 이에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간의 비교를 한다면 각국의 진로교육 모델의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³⁾ 다시 말해 ‘진로체험활동 참여의 정도가 직업관련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례로 국가 간 비교연구는 진로체험활동의 양적 증가는 역량계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지, 또는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은 역량계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아시아 내에서 보편적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진로체험활동 참여의 정도와 직업관련역량 간 정적관계가 아시아 국가 내에서 보편타당한 경향인가?’라는 질문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진로 관련 역량에 있어서 결국 국가 간의 차이와 국가 내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진로교육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학습의 기회를 확장해갈 수 있다. 일본은 한 때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커리어 액션(이후 청진기사업)은 일본 동경도의 ‘Work Work Week Tokyo’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고, 자유학기제 도입과 진로교육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몇 가지 정책은 보다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진로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벤치마킹할 것도 많다. 이와 더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2) 분석대상 국가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 중국(상하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 한정되어 있다.

3) 2012년 PISA 자료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진로계발활동 참여의 정도가 직업관련역량 계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PISA 자료를 이용한 국가간 비교를 보면, 진로계발활동 참여가 높은 나라들은 직업관련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진로계발활동 참여가 낮은 나라들은 직업관련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싱가포르, 중국)들이 후자에 속하는 반면, 참여의 정도가 높고, 역량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서구국가들이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중간그룹 속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은 그룹에 속하지만, 전체 비교대상국의 평균을 웃도는 정도이며, 역량수준도 중간 정도이다(Sweet, et al., 2014).

속단 할 수 없다. 특히 신흥개발국의 경우에는 교육과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9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직면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직업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빈곤이나 문맹률에서는 우리나라에 크게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의 수준이나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으며(Simon, 2014), 장기적으로는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에서 경쟁하는 모델이 더 많아진다면, 상호협력과 상호학습의 기회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아직 진로교육에 있어서 후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진로교육 선진모델이 필요할 것이며, 신흥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모델은 이들 국가들에게 주목할 만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지만,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이제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진로교육과 관련된 ODA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ODA 사업 참여는 2014년 현재 650억원 규모에 이르렀으며(최창욱·한도희, 201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교육부는 비ODA 국가들과의 양자·다자간 교육협력도 강화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교육부, 2016).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과 같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언제까지나 수원국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협조하거나 상호 학습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다. 향후 아시아 국가들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여국의 입장에서 타 국가들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 간 정책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진로교육모델이 보편타당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미는 아시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도 가능해 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와 공동으로 2017년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향후 아시아국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⁴⁾ 2017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부와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5년 3월 31일에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17년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단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2017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수집되고, 향후 아시아 국가 간 비교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공통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1차년도인 2016년에는 2차년도인 2017년에 열릴 국제심포지엄의 준비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국내현황을 분석하고, 국제비교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2차년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한국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올해 작성된 보고서는 2017년에 개최될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될 각국 국가보고서의 틀이자, 국가 간 비교의 틀이 될 것이다.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각국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ODA 사업 등 한국이 공헌하거나 관여해야 할 국제협력사업의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1) 연도별 연구내용

(1) 1차년도(2016년) 연구

가. 선행연구고찰 및 이론적 배경 연구

먼저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진로체험활동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문헌 분석에서는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자료와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조사, 예를 들어, 2012년 PISA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본 과제에서 실시할 설문조사 분석 및 아시아 국가간 비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사회환경분석

2016년에는 2012년 PISA 자료로부터 비교가능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사회환경 중 ‘인구 및 가족’, ‘경제 및 고용상황’, ‘교육 및 진로교육’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자료는 OECD, ILO, World Bank, IMF 그리고 각국의 통계연감자료 등이다. 2012년 PISA 조사에서 진로교육관련 문항에 응답한 국가/지역(홍콩, 상하이, 마카오, 싱가포르, 한국)를 중심으로 사회환경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되, 아시아 국가 이외의 핀란드와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2016년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비교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로 설문조사를, 질적연구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PISA 조사에 포함된 진로교육관련 문항과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문항 등을 참고하여,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로서 국내 진로체험활동의 실태를 학교 및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학교사례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사례를 포함시켰으며, 지역사례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된 지역사회 협력사례 등을 포함시켰다.

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사회환경분석과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6년에는 국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2차년도 연구

가. 진로교육 국제협력을 위한 자원분석

진로교육 관련 아시아 국제기구 및 관련 학회 현황 자료와 진로교육 관련 아시아 지역 ODA 사업, 그리고 그 밖의 진로교육 관련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나.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제시

국제심포지엄 참가국(ARACD 회원국)의 진로교육의 배경, 진로교육 시스템, 진로교육의 성과와 평가, 진로교육의 과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현황을 비교할 것이며, 이로부터 각국의 전망과 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다. 아시아 국가 간 청소년 진로교육 협력 체계 방안 제시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해 추진해야 할 협력방안과 아젠다를 설정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가. 진로체험활동의 범위

진로체험활동의 범위는 직업관련 체험에서부터 진학지도까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PISA 조사에서 조사된 항목 범주 내의 활동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012년도 PISA 조사에서 실시한 진로체험활동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조지민, 2012).

- a) 인턴십 참여
- b) 직업체험(job Shadowing) 또는 일터 방문 참여
- c) 직업박람회 참여

- d) 학교에서 진로상담교사와 대화
- e) 학교 밖에서 진로상담사와 대화
- f) 흥미와 능력 탐색위한 설문지 작성(검사)
- g) 진로 관련 정보 탐색을 위한 인터넷 활용
- h) 상급 교육기관의 조직화된 투어 참여
- I) 상급학교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인터넷 탐색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항목에 ‘아르바이트’경험을 추가하였다.

나. 비교국가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인 ‘아시아’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1995)』에서 강조하는 서구에 대비되는, 그리고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시각에서의 아시아는 문화적·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다. 언어적으로는 아라비아어, 무수한 인도방언, 헤브루어, 페레비어, 몽고어, 중국어, 버마어, 메소포타미아어, 자바어 등 오리엔탈리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언어학적인 저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Said, 1995: 94). 따라서 ‘동양적이다’라고 말하거나 ‘아시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는 애매하고, 또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2017년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는 ARACD 회원국에 한정짓고자 한다. 2017년도에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 10여개 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기 위해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사회학습이론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외 청소년 진로교육관련 조사자료를 분석한 자료로는 PISA 2012의 진로교육 부가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의 사회환경 요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1) 청소년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진로발달의 경향을 살펴보고 동시에 성별, 나이,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진로체험 및 그 효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6월~8월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0명(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2015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및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유형별(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년별에 따라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변형비례배분방식을 사용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며,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복수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지난 일 년 간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진로체험 활동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도움 정도, 진로체험을 통한 효과성, 공동체 의식,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에 따른 효과성, 진로성숙도, 학업성적 정도, 가정 및 학교생활 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및 나이, 가족구성형태, 부모님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표 I -1 청소년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표집틀	2015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16년 6월~8월	
조사진행방법	본원 통합조사(본원에서 수행하는 복수의 연구과제가 통합하여 조사 실시)로 조사의 규모와 질을 확보함.	

(2) 교사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진로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즉 진로상담교사나 진로담당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기간은 청소년 조사 실시와 동일한 2016년 6월~8월이며, 전국 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진로담당 교사 220명(중학교 교사 117명, 고등학교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교사는 청소년 표집과정에서 표본으로 선발된 중고등학교 내 진로업무 담당 교사이다.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 학교 내 자유학기제 등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현황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활용 정도, 진로체험활동에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등 청소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얻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였다.

표 1-2 교사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담당교사	
표집틀	2015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17명,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02명	
표집방법	청소년조사 학교표본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담당교사	
조사시기	2016년 6월~8월	
조사진행방법	본원 통합조사(본원에서 수행하는 복수의 연구과제가 통합하여 조사 실시)로 조사의 규모와 질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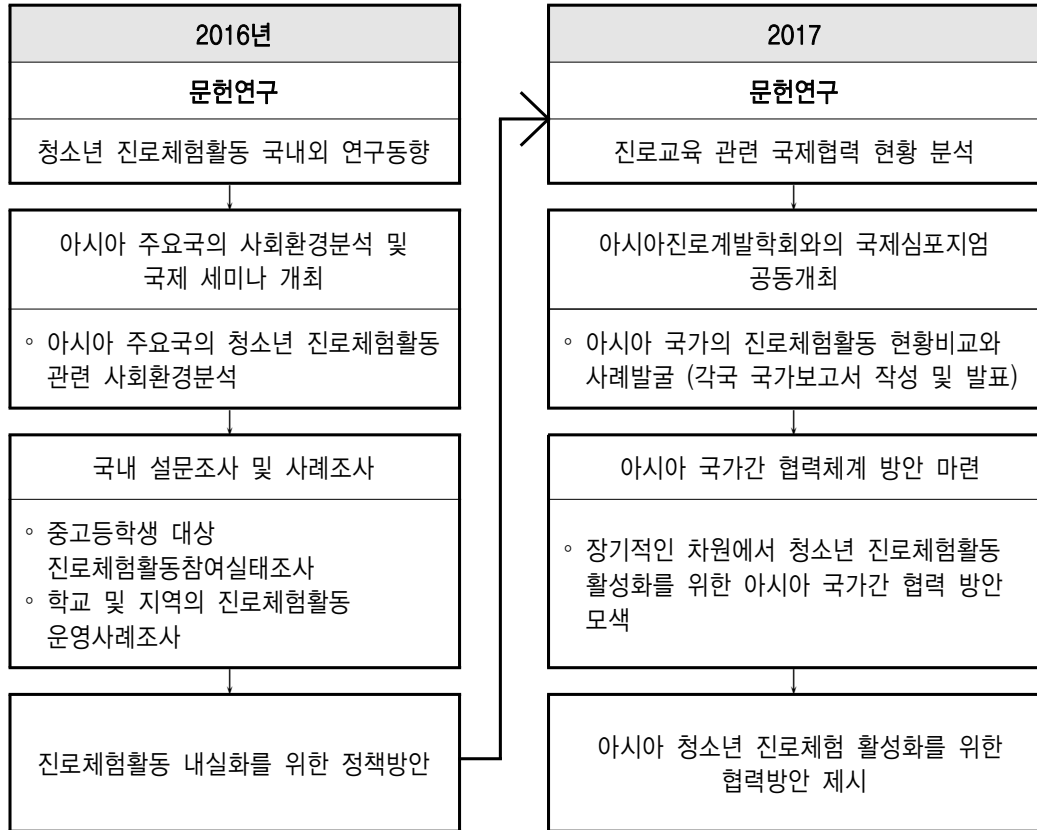
3) 사례조사

사례조사대상은 지역이지만, 지역사례에 학교사례가 포함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으며, 지역사례로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례를 조사하였다. 지역사례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참여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4)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협의회 · 세미나

기타 연구추진 방법으로는 연구방향 설정, 이론적 배경, 설문지 제작 등과 관련한 전문가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사회환경 배경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고용문제, 교육문제 등의 사회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내의 진로체험활동 활성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아시아 각국이 작성할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연구결과의 일부를 일본캐리어교육학회(日本キャリア教育学会)에서 발표하고, 2017년도에 개최될 국제심포지엄을 홍보하였다.

4.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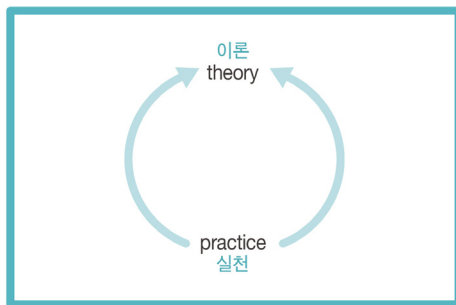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

1. 진로체험활동의 개념정의와 범위
2.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3.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4. 소결

제 II 장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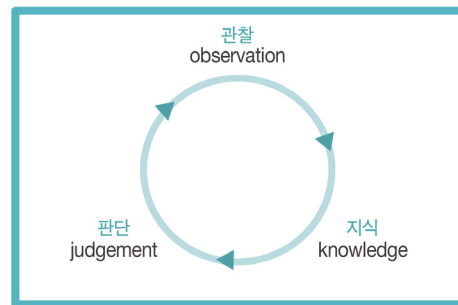
1. 진로체험활동의 개념정의와 범위

최근 몇 년 사이 진로체험활동이 매우 보편화되었지만,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이론의 계보는 코메니우스, 루소, 딜타이, 페스탈로치, 존듀이와 같은 경험주의 교육론이나 교육철학의 계보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경험’ 또는 ‘경험학습’ 또는 ‘체험활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오랜 학문적 계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한 개념이다. 존 듀이(John Dewey)도 경험(Experience)이라는 개념을 애매한 개념(Slipperiness), 심지어 교활한 개념이라고까지 했을 만큼(Beard & Wilson, 2006), 정의하기 힘든 개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경험(Experience)과 학습(Learning)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서 경험학습을 동어반복(Tautology)이나 같은 개념의 중복사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Beard & Wilson,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듀이(John Dewey)는 체험활동이나 경험학습을 논할 때 여전히 가장 많이 인용된다. 듀이는 경험을 학습의 도구로 봤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전이(Transform)가 일어난다. [그림 II-1]과 같이 이론과 실천 간의 전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다.



※ 출처: Beard & Wilson (2006). p.18.

【그림 II-1】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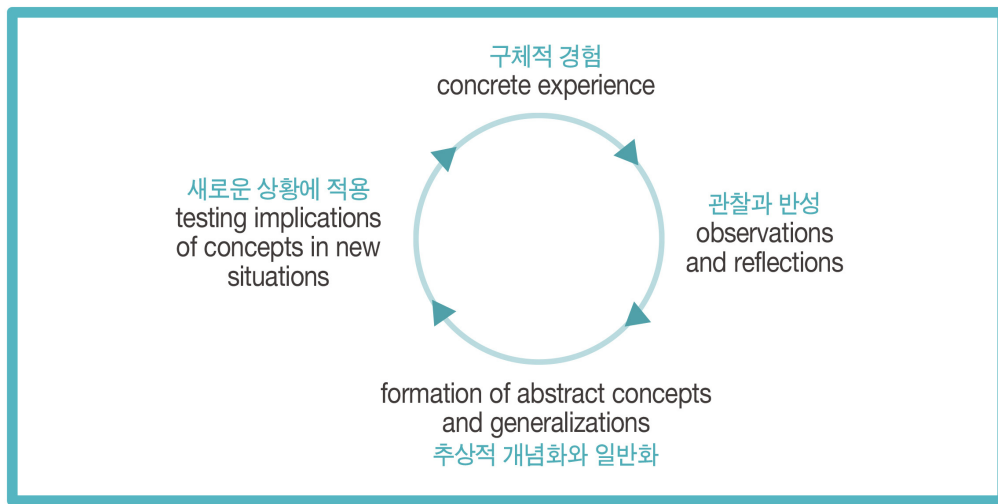


※ 출처: Beard & Wilson (2006). p.32.

【그림 II-2】 존 듀이의 학습과정

[그림 II-1]을 존 듀이의 학습과정의 개념으로 다시 그리면, [그림 II-2]와 같다. 지식과 관찰과 판단의 순환 또는 전이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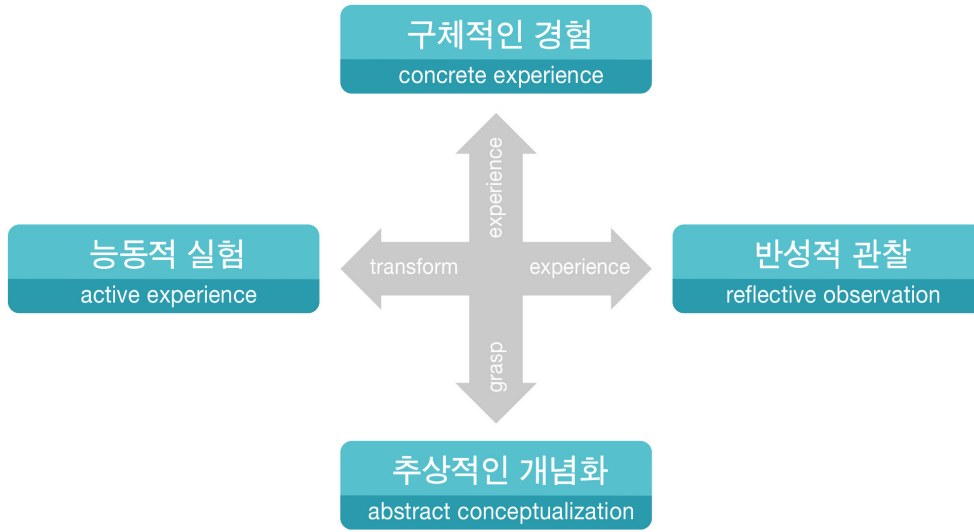
레빈(Lewin)의 피드백과정(그림 II-3)은 존 듀이의 학습과정(그림 II-2)과 비슷하지만, 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관찰과 반성이 이루어진 후, 추상적으로 개념화하고, 일반화한 다음,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이다.



※ 출처: Beard & Wilson (2006). p.32.

【그림 II-3】 레빈의 피드백 과정

콜브(Kolb, 2015)는 존 듀이 이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장 피아제(Jean Piaget), 커트 레빈(Kurt Lewin), 비고츠키(Lev Vygotsky), 칼 로저스(Carl Rogers),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칼 융(Carl Jung) 계보를 거쳐 레빈(Lewin)의 피드백 과정과 매우 유사한 경험학습의 순환과정 (그림 II-4)을 제안했다. 이 개념을 경험학습개념으로서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 출처: Kolb(2015). p.51.

【그림 II-4】 콜브의 경험학습 과정

콜브(Kolb) 이후에도 허니와 머퍼드(Honey & Mumford)의 학습스타일 과정 등 유사한 모델들이 등장하지만, 각 모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Beard & Wilson, 2006),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그림 II-1]의 이론과 실천의 순환과정이다. 이후 개발된 더 복잡한 모델들도 결국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Transform)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험활동은 체험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나 추상적 개념화와 같은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체험활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 이후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작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사전 사후활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험활동은 사전활동-체험-사후활동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개념이 아닌 순환과정이라는 점이 존 듀이(John Dewey)를 비롯하여 콜브 그리고 콜브(Kolb) 이후에 이르기까지 경험론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진로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은 경험학습의 특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로체험활동 개념의 토대 위에 진로체험활동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먼저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진로체험 매뉴얼」에서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대체할만한 이론적인 토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체험의 유형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진로체험 유형 및 활동 내용(1)

매뉴얼상 분류		활동 내용	교과부 분류
간접 체험 형	영상미디어 자료활용	- 시청각 자료 활용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강연형 (대화형)
	전문직업인 초청	- 기업 CEO, 현직자,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을 청강하여 이를 통해 직업과 인생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함.	
현장견학형		-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이나 박물관, 공공기관 등을 견학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직업이나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습 활동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 학과체험을 통해 폭넓은 직업 탐색의 기회 및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학습 기회 제공 (예) 대학 학과(직업)체험, 특성화고를 활용한 직업체험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 2~5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간단한 업무를 체험하며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일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	현장직업 체험형
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단기간에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1일 6시간 이상 운영)	캠프형
위탁형		- 대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탁하고, 위탁기관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진로 체험 방법 및 기관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교1 社 등 추진 - 기업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학습지원, 복지제공, 채용 등이 가능하도록 협약하여 운영(특성화고)	1교1社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3).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 및 교육청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표 II-1>의 유형분류는 비교적 최근의 진로교육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다른 항목들은 진로체험의 내용과 관련된 반면, 마지막 위탁형(1교1사형 포함)은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방식과 관련되어 있어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진로상담활동이 빠져 있어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활동을 간접체험으로 분류한다

면, 진로체험활동은 크게는 간접체험과 직접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체험활동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금노동이다. Smith 등(2001)이 직업체험활동을 직업체험(Work experience), 직장체험(Vocational placement), 임금 노동(Paid work)으로 나누고 있듯이 아르바이트는 직접체험활동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같은 일의 경험은 다른 진로체험활동과 달리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지만(문혜진, 2002;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 김현희, 박현수, 조주연, 2005; 김기현, 유성렬, 2006; 이경상, 유성렬, 2007;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조혜영, 박민경, 2013;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서, 2014;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이미영, 안시영, 2015),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Smith et al., 2001: 3). 더욱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중등교육취학율이 높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즉, 중등교육취학율이 저조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임금노동의 경험에 대한 항목이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자료인 2012년 PISA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진로체험활동의 범주에 넣고 있지 않지만, 임금노동과 임금을 받지 않는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을 개인적인 수준이나 학교 또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직업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임금노동이나 아르바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활동을 더 폭넓은 개념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다룰 2012 PISA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이나 태평양연안국가들에 비해서 대체로 진로체험활동 참여율이 저조한데,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알루마니(Arulmani, 2015)에 의하면 인도에서 진로는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일 정도로 진로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친숙하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의 범위를 <표 II-2>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 II-2 진로체험 유형 및 활동 내용(II)

매뉴얼상 분류	활동 내용
간접체험	영상미디어 자료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상담
직접체험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캠프형, 아르바이트 등 임금노동, 농업 및 상업 등 가내노동

2.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진로이론의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진로교육이 최근 몇 사이 크게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기회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최윤정, 2012).

최근까지 진로체험활동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일 것이다. 최근 진로체험활동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정책추진 차원에서 진로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 보고서가 출간되고(김승보, 2010; 이지연, 2007; 최상덕 외, 2015), 학술연구논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이 절에서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관련 이론들이 진로체험활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뤄야 할 진로이론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대부분 심리학이나 교육학 이론들을 ‘진로’의 관점에서 조망하거나 재해석한 이론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을 크게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사회학습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진로선택이론으로는 홀랜드 이론과 진로정보처리이론을, 둘째, 진로발달이론으로는 슈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과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을, 셋째, 사회학습이론으로는 사회학습 진로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들 이론이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요인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제시하고,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향후에 이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진로선택이론과 진로체험활동⁵⁾

(1) 홀랜드 이론

진로선택이론 중 먼저 홀랜드(John L. Holland)의 이론부터 살펴보자. 홀랜드의 이론은 한마디로 개인-환경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Swanson & Chu, 2000, 이동혁, 2016: 5쪽에서 재인용). 홀랜드(John L. Holland)는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진로선택을 이 두 가지, 즉, 개인과 환경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속한 환경의 특성이 서로 일치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홀랜드는 개인의 성격유형을 6가지, 즉, 실재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그리고 관습형(Conventional)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업환경 또한 같은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6 가지 직업환경이란 결국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성격유형이다. 한마디로 홀랜드의 이론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을 때, 즉, 개인의 성격과 환경의 성격이 일치할 때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업을 대표하는 성격유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성격의 일을 선호하다보니, 하나의 직업에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결국 이들의 성격이 직업의 성격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Holland, 1997, 이동혁, 2016: 6에서 재인용). 물론 한 사람이 하나의 성격유형에만 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의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나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성격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활동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선호가 흥미나 적성으로 발전하여 저마다 다른 직업이나 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논리이다(Holland, 1997, 이동혁, 2016: 6에서 재인용). 결국 홀랜드 검사는 개인의 성격유형과 미래의 직업환경을 연계해주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홀랜드 검사와 같은 진로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로체험활동으로 활용되는 것은 검사활동이 자기의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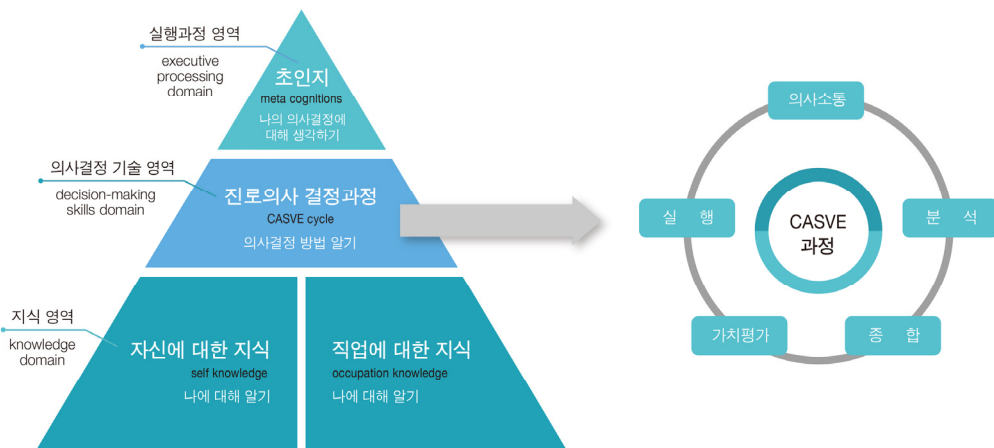
5) 이 절은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중 이동혁의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홀랜드이론 및 진로정보처리이론’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 진로정보처리이론

진로정보처리이론(Career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은 진로의사결정이나 진로문제해결을 학습될 수 있는 기술로 본다. 진로정보처리이론은 진로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문제해결의 방법을 학습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진로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의 내용을 의미하는 진로정보처리영역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CASVE(커사비) 과정이라고 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진로정보처리영역 피라미드는 자기에 대한 지식과 직업에 대한 지식,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과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인 초인지로 구성된다(이동혁, 2016: 7). 결국 자신과 직업에 대한 지식수준의 내용을 습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술을 익혀 자신이 어떤 진로선택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초인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진로체험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정보처리영역의 피라미드가 지식이나 역량 또는 기술의 내용을 나타내는 반면, 진로정보처리이론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인 CASVE(커사비) 과정을 제안한다. CASVE(커사비) 과정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평가(Valuing), 실행(Execution)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Peterson et al., 1991; Peterson et al., 2002, Peterson et al., 1996, 이동혁, 2016: 7에서 재인용).



※ 출처: Sampson, J. P. et al. (1992)와 Peterson, G. W. et al (1991)에서 재구성

【그림 II -5】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진로정보처리 피라미드와 CASVE 순환모형

2) 진로발달이론과 진로체험활동⁶⁾

(1) 슈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

진로발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슈퍼(Super, 1980)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슈퍼(Super)는 진로를 ‘개인이 일생동안 담당하는 일련의 역할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김태선, 2016: 19). 진로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슈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자아개념, 전생애이론, 생애공간이론, 진로성숙 4가지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중요한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개념(self-concept)을 발달시켜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한다. 청소년기의 주요과제는 자신이 만족할만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삶의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은 현재와 자신의 미래의 진로를 개척해나갈 때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김태선, 2016: 19-20에서 재인용).

둘째, 인간은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의 과정을 거치는데, 14세까지가 성장기인 아동기이고, 15-24세는 탐색기인 청소년기이다. 이 두시기, 즉 아동·청소년기 동안 주어지는 발달과업은 놀이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희망을 설정한다. 구체화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특정한 직업선호를 갖게 되고, 원하는 직업을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자신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슈퍼의 전생애이론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셋째, 개인은 각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직업인’으로서 뿐 아니라 자녀, 부모, 여가인, 시민 등 다양한 역할을 포함하게 되며(Super, 1980, 김태선, 2016: 21에서 재인용), 삶의 특정 시기마다 더 중요시 되거나 집중해야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이 생애공간이론이다. 생애과정을 통해서 역할의 정의 자체가 변한다. 이를 보면, 아동기때의 자녀역할과 성인이 된 이후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넷째, 진로성숙은 개인이 달성해야하는 진로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얼마나 가졌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은 다음 다섯 가지 항목으로

6) 이 절은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중 김태선의 ‘진로발달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측정된다(김태선, 2016: 21-22).

- ① 직업선택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 ②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가
- ③ 직업관련 선호도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 ④ 흥미, 적성 등의 특성이 얼마나 구체화되었는가
- ⑤ 직업선택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슈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자아개념은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진로자아개념은 삶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환경적 요인이 강조된다는 것은 결국 진로자아개념 발달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흥미를 탐색하는 기회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김태선, 2016: 23). 따라서 자아개념발달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진로체험활동 지원정책에서 중요하다. 국가간의 차이도 명백히 드러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 간의 차이도 명백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간의 차이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의 차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

슈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이 진로발달의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사비카스(Savickas)는 슈퍼(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을 수정하고, 확장하여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을 제안하였다. 구성주의의 기본개념대로 사비카스(Savickas)는 개인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현실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진로발달이 내적 성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이나 직업의 특성-요인이론인 기존의 발달이론과는 달리 흥미나 적성과 같은 특성을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가능한 잠재력으로 본다(김태선, 2016: 25). 직업적 성격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처해진 사회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흥미는 흥미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직업환경 속에서 발현되고 의미를 갖는 상대적인 개념이며(김태선, 2016: 25),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진로성숙 개념보다는 자신의 직업환경에 대처하는 준비도를 뜻하는 '진로적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Savickas, 1997: 김태선, 2016: 26에서 재인용).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의 진로발달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 고유의 주제를 갖는다. 특성-요인이론이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요인에 관심을 가졌다면(예를 들어, 홀랜드의 이론),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둘 사이의 매칭에 주목한다. 여기서 매칭이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거나,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직업적 성격은 검사보다는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진로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직업인과 접촉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교과교육만으로 습득하기 힘든 생애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비카스(Savickas)의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체험활동이 개인의 직업성격을 파악하고, 진로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일과 관련된 경험을 넓혀줌으로써 생애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김태선, 2016: 27), 다른 진로이론들 보다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3) 사회학습이론과 진로체험활동⁷⁾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한 진로이론은 크게 사회학습진로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이론은 사람은 타인을 관찰하면서 학습하며, 학습은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 등 세 가지 결정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반두라(Albert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부터 새롭게 진로학습이론이 등장했다. 크롬볼츠(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포함한 사회학습진로이론과 렌트, 브라운, 해켓(Lent, Brown & Hackett)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이다(정애경, 2016: 36).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은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 세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정된다는 반두라(Bandura, 1999)의 삼각 상호작용 모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렌트, 브라운, 해켓(Lent, Brown & Hackett)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에 주목한다. 두 이론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경험과 진로행동에 관심을 보인다(정애경, 2016: 36).

7) 이 절은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중 정애경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사회학습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 사회학습진로이론

사회학습진로이론은 크롬볼츠(Krumboltz)가 제안한 이론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행동과 인지를 중요하게 다룬다(Sharf, 2014, 정애경, 2016: 37에서 재인용). 유전적 자질, 환경적 여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 등이 중요개념이다(Krumboltz, 1994, 2009; Mitchell & Krumboltz, 1996, 정애경, 2016: 37에서 재인용).

유전적 자질은 신체적인 조건, 특별한 재능과 같은 선천적·유전적 개인적인 특성을 말한다. 환경적인 여건과 사건은 다른 이론들이 말하는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연재해, 기술적인 발전, 사회 인프라 및 경제구조, 정치적 안정, 교육환경, 직업의 수요 등과 같은 외부 여건 뿐 아니라 부모 등 양육자, 또래 집단과 같은 관계적인 여건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크롬볼츠(Krumboltz)는 계획된 우연학습이론(Heppenstance Learning Theory: Krumboltz, 2009, 정애경, 2016에서 재인용)을 통해 개인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적 사건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둔다.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진로이론은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보다도 더 거시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습경험의 조장에 관심을 둔다.

학습경험은 도구적 학습경험과 연합적 학습경험으로 나뉘는데, 도구적 학습경험은 선행사건, 행동, 결과로 이어지는 학습경험으로 행동 자체가 학습활동인 경험을 의미하는 반면, 연합적 학습경험은 관찰이나 고전적 조건형성 등과 같이 중립적인 상황이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선호 등과 연합이 되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정애경, 2016: 38).

과제접근기술은 목표설정, 가치 명료화, 대안생성, 직업정보습득 등 진로탐색과 결정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을 처리하는 기술로, 계획된 우연학습이론에서는 과제접근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와 사건을 진로탐색 및 전환의 기회로 이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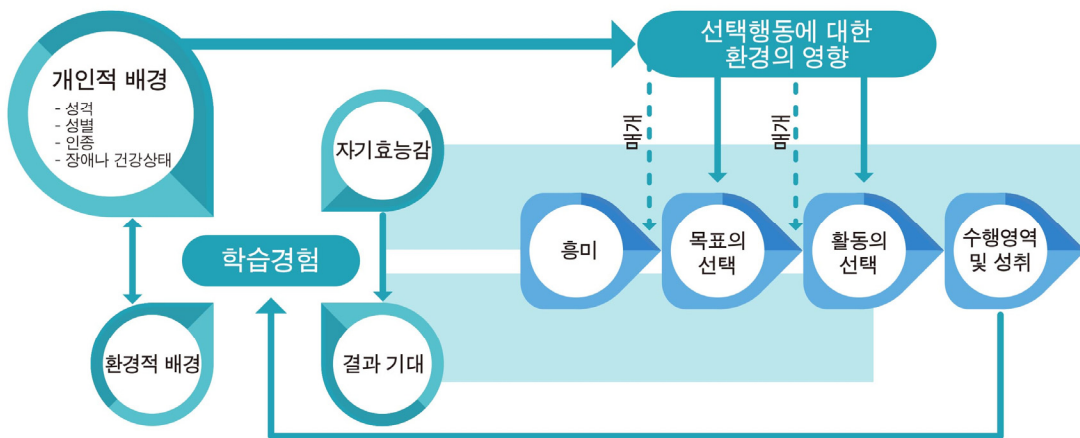
요약컨대, 사회학습진로이론은 개인이 환경적 여건과 사건의 영향력 아래서 학습경험과 유전적 자질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한 일반화된 진술, 세상에 대한 일반화된 인지도식을 형성하며, 과제접근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정애경, 2016: 38). 따라서 사회학습진로이론의 입장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은 과제접근기술의 숙련도를 높여주고,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일반화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크롬볼츠(Krumboltz)가 강조하는 진로체험활동은 시뮬레이션과 같은 직업체험활동이다. 크롬볼츠(Krumboltz) 등이 고등학생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뮬레이션

직업체험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책과 같은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서 직업정보를 접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흥미를 보였다. 직접적인 진로체험활동을 할 때에는 상담자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고 진로체험활동은 일방적으로 처방되기보다는 내담자와의 브레인스토밍 후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정애경, 2016: 39).

(2) 사회인지진로이론

렌트, 브라운, 해켓(Lent, Brown, & Hackett, 1996; 2002)은 반두라(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진로이론에 도입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제안했다. 예컨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발달모형은 [그림 II-6]과 같다.



※ 출처: 정애경, (2016).

【그림 II-6】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모형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수행성취,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와 같은 학습경험을 통해 발달한다(Lent, et al., 1996). 결과기대는 학습 활동의 결과나 기대에 관한 믿음이나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결과기대도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사회학습진로이론이 진로행동을 강조한다면,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인지적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Sharf, 2014, 정애경, 2016: 43에서 재인용). 즉, 학습경험보다는 학습경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기대나 자기효능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여학생이나

소수인종 학생들의 STEM분야 진로에 관한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국가 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영향이다(White House, 2016). 최근에는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장애와 같은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배경이나 맥락적 요인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경향이다(Thompson & Dahling, 2012).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은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정애경, 2016: 44).

4) 종합적 논의

홀랜드의 이론은 성격유형과 직업유형의 매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홀랜드 검사는 진로교육에 있어서 매우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홀랜드 검사를 실시할 때는 홀랜드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유형이 정말 자신의 성격유형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콜브(Kolb)가 말하는 반성적인 관찰(Kolb, 2015)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반성적인 사고의 필요성은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더욱 강조된다. CASVE(커사비) 과정은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반성적 사고의 방법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활동을 기획하거나 구성할 때는 또는 평가할 때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선택이론은 공통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이 다뤄야 할 내용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체험을 강조한다. 그리고 초인지(Meta Cognition) 기술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한다. 홀랜드 이론이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했다면, 진로정보처리이론은 진일보한 진로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선택이론이 개인의 성격, 직업의 성격, 정보 또는 정보처리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 등과 같은 특성요인이나 정보처리과정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진로발달이론은 진로 및 진로개발의 개념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거나, 청소년을 능동적 존재로 봄으로써 진로발달을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진로체험활동은 진로발달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 직업탐색활동은 다양해야 하고, 연령 또는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발달과업과 연동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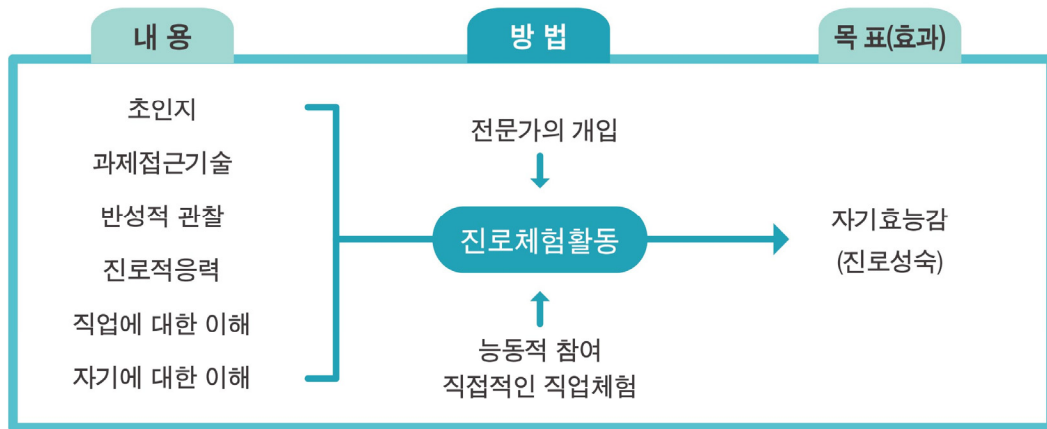
한다. 또한 검사나 정보의 처리를 넘어 체험이나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인지이론은 거시적인 사회환경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진로체험활동, 특히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시뮬레이션)을 통한 과제접근기술의 습득이나 이를 이끌어줄 전문가의 개입 등이다. 경험이 중요하지만, 잘 기획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경험이나 체험의 결과요인, 즉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즉,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결국은 크롬볼츠(Krumboltz)가 제안하는 잘 기획된 직접적인 직업체험이나 전문가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도 중요시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이론을 통해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 | |
|-----------------|------------------|
| ① 자기에 대한 이해 | ⑦ 과제접근기술 |
| ② 직업에 대한 이해나 정보 | ⑧ 능동적 참여 |
| ③ 진로의사결정력 | ⑨ 우연기술의 습득 |
| ④ 진로적응력 | ⑩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업체험 |
| ⑤ 반성적 관찰 | ⑪ 자기효능감의 향상 |
| ⑥ 초인지 기술 | ⑫ 전문가의 개입 |

이상의 12가지의 키워드는 진로체험활동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면, [그림 II-7]과 같다.



【그림 II -7】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종합모형

첫째, 진로체험활동은 내용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적응력, 진로의사결정력, 반성적 고찰, 과제접근기술, 우연기술, 초인지기술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대상자의 발달수준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인지나 과제접근기술, 반성고찰은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변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방법론적으로는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이 강조하는 능동적 참여활동이나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이 될 것이다.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전문상담가 등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끝으로 진로체험활동의 목표는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성숙이 될 것이다. 많은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연구들이 목표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목표변인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진로체험활동은 이와 같이 내용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목표에 있어서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진로이론들은 체험이 어떤 경우에 더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진로체험활동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잘 기획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현단계에서는 직업체험터의 발굴과 체험이 기계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실천적인 한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진로이론의 토대가 아직 진로체험활동이라는 실천적 행동을 충분히 뒷받침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직업세계를 탐색 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진로설계와 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로교육과 같이 학생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집단교육이나 프로그램 실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체험활동이 얼마나 잘 기획되었느냐이다. 다양한 직업탐색활동은 중요하다. 하나의 역할에만 집중할 때, 장기적인 진로설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입사한 직장에서 그 직업 이외의 다른 삶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원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송지혜, 이상원, 2016; 신혜정, 2016)는 다양한 체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반드시 진로체험활동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진로결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로체험활동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진로체험활동이 반드시 특정 직업에 대한 흥미의 증가나 직업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흥미나 직업적 선택이나 진로결정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에 무게를 둔다면(정애경, 2016: 41),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다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진로교육(상담)이론은 대체로 경험의 축적이 진로성숙도를 높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축적이 반드시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인지, 즉, 진로선택경험이 직업선택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는 것인지, 경험을 축적해서 특정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직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직업적 선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진로체험활동이 비연속적인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성숙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 직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답하기 위한 더 폭넓은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진로선택 및 결정에 따른 노력과 탐색과 같이 선형적 진로발달에 국한된 전통적인 진로교육의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Blustein, 2001; Blustein et al., 2002, 정애경, 2016: 45에서 재인용), 황매향(2016: 54)이 지적한 대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흥미이기보다는 장벽일 수도 있다. 진로체험활동 참여를 통해서, 진로장벽은 모든 직업에 존재하며, 서로 다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고, 운이 좋은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역할모델도 만날 수도 있지만,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재의 직업세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되지도 않는다. 미국이나 서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학계에서는 기존 이론들이 사회주류계층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진로이론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경험이나 문화권 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Heppner & Jung, 2013; Flores, 2014, 정애경, 2016: 39에서 재인용). 아시아 각국의 진로체험활동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진로체험활동 관련 메타분석 연구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정책보고서들이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지만(김승보, 2010; 이지연, 2007; 진미석, 2013; 최상덕 외, 2015), 진로체험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갖는지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최윤정, 2012).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국내문헌들을 중에는 진로체험활동이 노동시장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주섭, 2003)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다. 반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업체험활동이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발달, 진로의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들이다(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진로체험활동이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은 단기적인 경험의 효과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든 장기적인 효과든 일경험이나 진로체험활동은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일의 경험이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연구들도 있으나(김기현, 유성렬, 2006; 김우영, 2002),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일경험이란 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실제 노동경험이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는 진로체험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금을 받는 일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국내 연구물들이 거의 일관되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국외 연구들 중에는 부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들도 있다(Smith et al., 2001). 즉, 아르바이트의 효과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체험활동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 여러 연구물로부터 결과치를 종합하기 위해서는 메타분석이 유용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휘스톤(Whiston, 2003) 등 진로발달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메타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몇 편의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송헌순과 정성봉(1988)은 진로성숙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다뤄진 것은 독립변수는 학년, 학업성취도, 지능, 지역, 성, 가정배경, 자아관련 특성 등으로 진로체험활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유준상, 서우석(2013)의 메타분석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등의 심리적 변인들로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를 다루지는 않았다. 끝으로 정미나, 노자은의 메타연구(2016)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 진로체험활동은 고려되지 않았고,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요인 등이 고려되었다. 개인변인 중 청년활동경험 이외의 하위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등 심리적 변인들이다. 진로변인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지도경험, 진로지도 만족도로 진로지도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진로지도경험이 진로체험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개인변인 중 청소년활동경험 변인에 진로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정미나, 노자은(2016)의 메타분석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면서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물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진로체험활동 경험을 독립변수로 한 메타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에 난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메타분석 연구들이 다룬 변인들은 개인의 배경(성격, 학업성취, 학년), 지역적 배경, 가정배경 그리고 심리적 변인들로 통계치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쉬운 변인들이지만, 진로체험활동은 변인의 다양성이 너무 커서 메타분석이 통계치를 종합하는 분석기법이라고는 하지만 통계량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심리적 변인 대부분 공인된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타분석을 통해서 종합이 용이하지만,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이 가능하려면, 독립변인이든 연구대상이나 투입된 프로그램이든 어느 정도 유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투입요인 다양성의 폭이 너무 넓다. 따라서 연구대상이나 투입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균질적인 연구물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분석대상 연구물이 너무 제한된다. 표본(연구대상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어느 정도 유사한 집단으로 좁혀야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일반청소년에서 위기청소년까지 다양해서 연구대상을 좁히게 되면, 표본(연구대상물)은 더욱 제한된다. 이점 때문에 진로체험 활동의 효과크기 검증을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물들이 축적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된 메타분석보다 고도화된 기법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결과

(1) 선행연구 분석 자료의 수집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은 중고등학생에 한정시켰다.

둘째,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6년에 수행된 연구로 제한하였으며,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한정하였으며,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진로체험(활동)’, ‘진로상담’, ‘진로성숙’,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으며, 총 23편의 연구물을 수집하였다(표 II-3).

셋째, 진로체험활동효과와 관련한 연구의 패턴은 크게 3가지이다. 하나는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 등 진로발달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종속변수는 진로체험활동이지만, 독립변수가 진로성숙과 같은 진로관련 변인이 아니라 기타 심리적인 변인들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관우 등(2011)의 연구는 직업체험활동경험의 효과변인으로 공동체의식,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등의 변인을 설정하였다.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2009)의 연구에서도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투입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효과변인은 성취동기로 설정하였다. 최윤정, 김지은(2012)은 독립변인을 진로체험활동으로, 종속변인을 학습태도로 설정하였다. 나머지 한 가지 유형은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체험활동, 즉 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되, 효과변인을 진로성숙 등 진로관련변인으로 설정한 경우이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이와 같은 연구는 드물지만, 향후 진로교육관련 이론 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연구물이다. 진로체험활동효과로서 진로성숙 등 진로관련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이 함께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 투입 프로그램 요인 및 집단유형별 효과

<표 III-3>의 모든 문헌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①~⑦의 문헌은 종단조사, 실태조사 등 대규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따라서 조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효과변인은 주로 진로성숙도이고, 진로선택준비도, 진로개발성과 등이다. ⑧~⑩의 3개 문헌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⑪~②⑩의 10개 문헌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프로그램 참가자 조사 및 실험집단 대상 조사를 활용한 연구 간의 차별성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연구 ③, ④, ⑥에서는 실험집단 또는 투입프로그램의 차이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③(최윤정, 2012)에서는 어떤 유형의 진로체험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유형의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교육형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며, 텍스트 위주의 진로교육 참여집단과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참여집단은 소극적 참여집단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높였다. 그런데, 텍스트 위주의 진로교육 참여집단과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참여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이라거나 우위가 있는 진로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즉, 질적으로 우수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체험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진로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시사받을 수 있다.

연구 ④(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에서는 진로체험활동 내용 중 간접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보다 직접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연구 ⑥(김신영, 최운실, 2014)에서는 학생주도성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그리고 교사주도형보다는 학생주도형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체험활동이라도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좋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연구 ③, ④, ⑥의 결과를 종합하면, 체험의 유형에 따라서 진로발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간접체험보다는 직접체험이 진로발달에 더 긍정적이며, 교사주도형보다는

학생주도형이 진로발달에 더 긍정적이다.

연구 ⑩(어윤경, 2015)는 유일하게 자유학기제 실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미실시 중학교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진로계획성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기타 직업태도, 자이이해역량, 독립성, 진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하나만으로 자유학기제가 진로발달에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자유학기제 운영 자체가 진로발달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는 연구로, 많은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일회적인 체험활동이거나 진로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진로준비행동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조성심, 주석진, 2010)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 자체보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3) 진로체험활동 기간의 효과

⑪~⑳의 실험집단 연구를 보면, 투입된 프로그램은 모두 2일 이상 또는 3회기 이상이며, 대부분 10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된 프로그램에 일회성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과 일회성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단기 프로그램이나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간의 차별성은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집단이든 진로체험활동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험집단 연구의 특성상 일회성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진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선호되지 않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연구에서 진로체험활동 기간별 차이를 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체험활동 기간별 효과의 차이를 검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진로체험활동의 기간별 요인을 도입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김현철 등(2013)의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질적인 메타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효과를 강화하는 중요요인으로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요인이 도출된 바 있다. 진로체험활동 연구에서도 향후 진로체험활동의 지속성이라는 요인이 가져오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진로체험활동 효과변인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변인일 것이다. ①~⑳의 논문 중 11편(진로성숙의 하위요인 일부 측정 포함)은 효과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 그 중 5편은 진로자기효능감도 효과변인으로 함께 측정하였고, 2편은 진로자기효능감 이외의 심리적인 변인(학업성취도, 자기주도성, 학습태도, 자아개념 등)을 효과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을 효과변인으로 측정한 5편의 연구 중 1편은 진로성숙도 이외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을 효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기타 연구물들이 효과변인으로 설정한 변인들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선택준비도, 진로개발성과, 직업의 이해, 자기이해, 직업의식 등이다. 이들 연구 중에는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2차 자료문항의 제약으로 유사한 진로발달변인들을 설정한 경우도 있다.

결국, 대부분의 진로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물들은 효과변인으로 진로성숙과 진로자기효능감을 효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을 검토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진로교육 관련 이론들이 목표 또는 효과변인을 진로성숙도나 진로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①~⑳의 연구에서 진로체험활동의 목표행동이나 효과는 큰 틀에서는 진로성숙이나 진로자기효능감으로 귀결되고,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성숙과 진로자기효능감을 목표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진로체험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이 필요할지 모른다.

연구 ㉒, ㉓은 진로체험활동이 진로발달 관련 변인 이외의 변인, 예를 들어, 성취동기, 자기주도, 학습태도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재철 등(2011)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진로체험활동 이외의 체험활동(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긍정적 자아관이나 직업적 가치관 같은 변인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성숙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또는 궁극적으로는 그 효과가 진로성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이 가져오는 보다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진로체험활동은 반드시 직업의 이해나 진로성숙과 같은 진로발달변인이 아닌 중간목표들, 예를 들어, 성취동기, 자아정체감 등의 다양한 목표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 II-3 진로체험활동 효과 관련 문헌 분석

문헌	연구대상	투입 요인 및 프로그램	처리 방법	측정도구	연구방법	효과
① 송병국, 박정배 (2006)	한국청소년 패널2차년도 데이터 (중학교 3학년 3,209명)	진로관련 활동 아르바이트경험	-	진로활동관련문항 및아르바이트경험 문항,진로준비 선택도(=진로성숙도) (한국청소년패널, 2004)	t검증	진로관련활동→진로선택준비도(+) 아르바이트→진로선택준비도(0)
②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고등학교 3학년 2,967명 (한국청소년패널 5차년도 데이터)	진로관련 활동 경험(+)	-	※ 통제변수: 성별,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조절회귀 분석	진로관련활동→진로성숙(+) 진로관련활동→조절변수(부모 애착(+))→진로성숙(+)
③ 최윤정 (2012)	서울교육종단연구 1, 2차년도 데이터 중학생 3,335명	진로교육 개입 유형별 (적극적 진로교육형) 텍스트위주형≠ 체험위주형) 진로교육 부진형)	-	진로교육경험 목표의식 자기주도학습태도 자아개념 진로성숙도	일원 분산분석, 공분산분석	목표의식(+) 자기주도(+) 학습태도(+) 자아개념(+) 진로성숙도(+) ※ 통제변수:부모의 교육지원, 부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④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13) 중학생 4,961명 고등학생5,518명	진로체험참여 (간접체험, 직접체험 참여)	-	진로발달검사 학업성취도 (안선영 외, 2013)	회귀분석	진로성숙도(+)(간접체험<직접체험) 학업성취도(+)(간접체험≠직접체험)
⑤ 김소라, 황영준 (2016)	2013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자료 (고등학생 총 4,127명)	진로체험 여부, 진로체험에 대한 평가	-	-	위계적 회귀분석	진로성숙도: 계획성역량(+), 자기이해역량(+), 독립성역량(+), 직업태도(+), 진로탐색행동(+)
⑥ 이지연 (2007)	한국교육공용패널 1차자료	학습경험(학교 진로지도경험, 가정 진로지도경험)	-	-	구조방정식	학습경험→진로개발 성과(+)

문헌	연구대상	투입 요인 및 프로그램	처리 방법	측정도구	연구방법	효과
⑦ 김효선, 양승호 (2012)	서울교육종단 연구 1,2차 자료	진로지도(별도과목 편성/교과에 포함/상담교사/ 직업체험활동/ 초청강연/ 진로컨설턴트) 진학프로그램 운영 여부	-	-	다층모형 분석	진로성숙도(+) (*조사차년도 별 차이 있음.)
⑧ 한상근 (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16개 시도의 중고등학생 (중학생 772명, 고등학생 616명, 총 1,387명)	직업체험프로그램 (현장견학/직업 현장체험/직업인 초청/시청각자료 활용)	-	-	카이제곱 검정	직업체험프로그램 만족정도(+) 직업체험프로그램이 해당 직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본인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⑨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초중고) 625명 대상	직업체험활동	3~20회 기, 8개월 이상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인증수련활 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직업체험활 동성(임영식 외, 2009) *직업체험활동성= 경제의식, 직업이해, 자기이해, 실천의지	교차분석, t검증, F검증(Sche ffe 사후검증)	직업체험활동 효과성 전체(+), 직업체험활동 하위영역: 경제의식 효과성(+), 자기이해 효과성(+), 실천의지 효과성(+), 직업이해 효과성(0)
⑩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실시 5개 기관 및 시설 이용 청소년 108명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중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인증수련활 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임영식 외, 2008)	Mann -Whitney U검증, 교차분석	직업체험활동 전체(+), 직업체험활동 효과성 하위요인: 자기이해(+), 실천의지(+), 경제의식(0), 직업이해(0)

문헌	연구대상	투입 요인 및 프로그램	처치 방법	측정도구	연구방법	효과
⑪ 박가열 (2008)	청소년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 참가 중·고등학생 및 비정규중등과정 청소년 1,229명 (비교집단은 프로그램비참가 학생 889명)	직업체험학습	1일차 사전학습, 2일차 현장학습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김아영 외, 2005) 진로결정자기효능 감검사=CDMSES- SF(Betz 외, 1996)	대응표본 t검증,	진로계획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⑫ 신선영, 송명자, 이현림 (2009)	중학교 1학년 45명(실험집단)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험집단 대상 진로탐색 집단상담 12회기 (1회 90분 주 1회), (비교집단: 인간관계 훈련 집단 상담)	자기효능감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1) 진로발달 (Crites, 1978) 내적통제성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1)	공변량분석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진로발달 전체(+), 진로발달 하위영역: 진로결정도(+), 진로성향도(+), 진로타협도(+), 진로관여도(+), 진로독립도(+)
⑬ 조성심, 주석진 (2010)	2개 고등학교 1,2학년 540명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	10회기 (주1회), 6개월 간격 사전사후 조사	진로준비행동 (김봉환, 1997)	t검증	진로준비행동(+) ※ 통제변수: 성별, 연령,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 학생성적
⑭ 이종화, 김현숙 (2012)	중학교 1학년 609명 (실험집단 372명, 통제집단 237명)	진로탐색프로그램 (부산교육청, 2007)	15회기 (1회 45분 주1회)	진로정체감 (조은주, 2001) 자아정체감 (박아청, 1996)	이원변량 분석	진로정체감(+):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존존재의식(+) 자아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0)

문헌	연구대상	투입 요인 및 프로그램	처치 방법	측정도구	연구방법	효과
⑮ 이현림, 손향숙 (2006)	중학교 2학년 실험집단 32명, 통제집단 16명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15회기(1 회 90분, 주 1회)	직업가치관 척도(임인재, 1990) 진로의식성숙 (이현림, 1994)	공변량분석	직업가치관 전체(+): 탐구성(+), 자율성(+), 주도성(+), 질서정연성(+), 사회봉사(+), 실용성(+), 사회적 인정(+), 심미성(+) 진로의식성숙 전체(+): 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 진로타협성(+)
⑯ 김신영, 최운실 (2014)	고등학생 90명 (교사주도집단, 학생주도-1집단, 학생주도-2집단, 각 30명)	교사주도 모형/학생주도 -1모형, 학생주도 -2모형 진로체험학습 과정안	1학기 (주 4~2회 6회기 총 24시간)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척도	일원변량 분석	진로자기효능감(+): (학생주도(高))학생주도(低) >교사주도 진로성숙도(+): (학생주도(高))학생주도(低) >교사주도
⑰ 조은숙 (2011)	고등학생 17명	청소년인턴십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총 40시간 이상 참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성숙도검사	다변량 공분산분석 (MANCOVA)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진로성숙도(+): 독립성(+), 일의 중요성 인식(+), 계획성(+), 자기이해(+), 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준비행동(+)
⑱ 김병숙, 전종남 (2004)	표집집단: 영락고 2,3학년 207명 비교집단: 군포고 2,3학년 235명	진로상담프로그램	1년 이상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대상	진로결정, 직업정보 인지도 척도	t-검정, ANOVA	진로결정유형(+) 직업정보 인지도(0)
⑲ 김정은 (2015)	고등학생 (실험집단 36명, 통제집단 15명)	강점기반 진로상담 프로그램	주1회 90분씩 총 10회기 실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긍정성 척도	윌콕슨 부호 서열 검정, Mann- Whitney U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계획수립(+),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 긍정성(+)

문헌	연구대상	투입 요인 및 프로그램	처치 방법	측정도구	연구방법	효과
⑳ 여윤경 (2015)	자유학기 실시 중학교 258명 자유학기미 실시 중학교 (통제집단) 535명	진로체험중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	-	-	진로성숙도: 진로계획성(+), 직업태도(0), 자기이해역량(0), 독립성(0), 진로행동(0)
㉑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 (2009)	전문계 고등학교 52명 (실험집단 25명, 통제집단 27명)	특성요인에 따른 진로탐색프로그램	8회기 (1회 180분, 2박3일)	성취동기 (McClland, 1965)	공변인분석	성취동기 전체(+), 성취동기 하위영역: 미래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과업지향성(+), 자신감(0), 모험심(0)
㉒ 최윤정, 김지은 (2012)	서울교육중단 연구 1,2차 자료	진로체험활동 (교과, 진로강연, 학교학과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다층모형 분석	자기주도 학습태도(+) (*조사차년도 별 차이 있음.)
㉓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고등학교 3학년 2,332명 (한국청소년패 널데이터,2007)	체험활동 (진로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	매개변수: 내적 직업 가치관 (자율성, 헌신성) 긍정적 자아관 (정서조절감,자아존 중감, 자기신뢰감)	구조방정식	체험활동→긍정적자아관(+) 체험활동→내적직업가치관(+) 체험활동→긍정적자아관(+) +내적직업가치관(+) →진로성숙(+)

4. 소결

진로체험활동의 원리를 소급해 올라가면 경험학습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존 듀이와 콜브의 경험학습의 원리와 만나게 된다. 경험학습이 이론과 실천 또는 경험과 반성적 사고라는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듯이 진로체험활동의 원리 역시 단순하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한 마디로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험이 지식이나 사고로 전이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체험활동이나 경험학습 또는 진로체험활동이 무조건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진로체험활동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 이 연구에서는 크게 간접체험활동과 직접체험활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활동을 포함시켰다. 간접체험활동에는 진로상담활동을 포함시키고, 직업체험활동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금노동을 포함시켰다. 진로상담활동을 진로체험활동에 포함시킨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진로상담 활동이 하나의 진로체험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PISA 2012 조사에서도 진로상담활동을 진로체험활동에 포함시켰다. 아르바이트는 한국에서는 다른 진로체험활동과 달리 대부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진로체험활동의 하나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활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간 비교를 의식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진로체험활동에 포함시켰다.

본 장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은 그간의 진로교육관련 이론들이 진로체험활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다. 아직은 명확한 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사회학습이론으로 중심으로 진로교육이론을 검토하여, ① 자기에 대한 이해, ② 직업에 대한 이해나 정보, ③ 진로의사결정력, ④ 진로적응력, ⑤ 반성적 관찰, ⑥ 초인지 기술, ⑦ 과제접근기술, ⑧ 능동적 참여, ⑨ 우연기술의 습득, ⑩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업체험, ⑪ 자기효능감의 향상, ⑫ 전문가의 개입과 같은 핵심개념들을 추출한 후, 이들 개념과 진로체험활동간의 관련성을 도식화하였다. 이 개념들은 결국 진로체험활동이 어떻게 진로교육목표나 효과로 전이되는가를 보여준다. 진로체험활동의 내용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적응력, 반성적 고찰, 과제접근기술, 초인지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경험되고,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성숙과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 단, 보다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 참여나,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로체험활동 효과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효과를 매개로 하거나 목표로 한 다양한 유형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제 III 장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분석

1.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 분석
2.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비교
: PISA 2012 진로체험활동 조사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3. 소결

제 III 장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분석

1. 아시아 국가의 사회환경 분석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더라도 그 차이와 유사성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일은 매우 난해하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회문화적 배경요인을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비교가능하고, 수집가능한 자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2017년도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환경을 분석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파키스탄, 인도 등이다. 이들 나라는 2017년도 국제심포지엄의 공동개최 기관인 ARACD의 이사회멤버에 속해 있거나, 국제심포지엄에 참가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에 대한 통계자료는 일본총무성이 발간한 「세계의 통계」에 제시된 것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OECD, WHO, ILO, IMF 등 관련 국제 통계자료에서 해당자료를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각 국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불균형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환경을 비교분석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각국의 사회환경요인은, 1) 인구구성(총인구, 청소년인구,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출생률과 사망률, 합계출생률), 2) 경제와 노동환경(경제수준,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 노동시간), 3) 교육과 문화 환경(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비, 문해율, 영화제작과 관람), 4) 생활환경(전화 및 이동전화 보급률, 자동차 보급률과 여행경비) 등이다. 경제와 노동환경 그리고 교육 및 문화환경은 각국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다.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령기 인구저하는 물론 청소년노동시장의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 인구변천은 결국 특정국가가 농촌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Coale, 1973, 이삼식, 김익기, 김효선 외, 2013: 37에서 재인용). 인구변화요인의 변화는 근대화 시기와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각국의 사회변화과정을 비교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여기서 다루는 4가지 환경요인 중 생활환경요인인 전화 및 이동전화보급률, 자동차 보급률과 여행경비 등은 각 국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청소년 진로교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아룰마니(Arulmani, 2015)의 지적대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진로(Career) 교육과 관련한 환경의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도 아시아 국가들 간의 진로교육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인구구성

(1) 국가별 인구(아시아 9개국)

중국의 총 인구는 13억 9천만 명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다는 것은 여전히 불변의 상황이지만, 그 뒤를 인도가 바짝 뒤쫓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12억 6천만명이다. 이 두 나라의 인구의 합은 26억명으로 42억명 아시아 인구의 62%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는 비슷한 인구수 때문에 자주 함께 거론되지만, 인구증가율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류로 간주된다(Simon, 2014: 40). 그러나 인구성장율은 중국, 인도보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대 이슬람 국가들이 훨씬 높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2010년 현재 7억 9,900만명이지만, 2050년이 되면 51% 성장한 12억 1,1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imon, 2014: 37~38). 2014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5천만명, 파키스탄은 1억 8천만 명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명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함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 외에 태국이 6천 7백만 명, 터키 7천 5백만 명, 한국 4천 9백만 명, 말레이시아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인구 수는 5백만 명에 불과하다.

국토의 면적을 보면, 중국이 9백 5십9만km²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인도(3백 2십8만km²), 인도네시아(백 9십1만km²), 파키스탄(7십9만km²) 순이다. 그 외에 터키가 7십8만km², 일본이 3십7만km², 말레이시아가 3십3만km²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한국(십만km²)이며 싱가폴은 국토 면적

역시 7백㎢로 가장 작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인도와 태국을 제외하면 국가별 인구밀도는 싱가포르가 7,541명으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1명으로 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그 다음 일본이 341명, 파키스탄이 232명 순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한국, 일본, 파키스탄이 인구밀도 상위 1~3위를 차지한다.

국가별 총 인구 중 15~24세 청소년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파키스탄이 20.5%로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19.7%, 인도 19.2%, 인도네시아 17.8%, 중국 17%, 터키 16.6%, 태국 15.2%이며 한국은 13.5%이다. 반면 일본은 9.6%로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를 다시 19세 이하(15~19세)와 20세 이상(20~24세)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 인구 대비 15~19세 인구는 파키스탄(11.5%), 인도(10%), 말레이시아(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일본이 4.8%로 가장 낮다. 20~24세 연령대 인구의 비중은 말레이시아(10.2%), 중국(9.6%), 인도(9.2%)가 높은 수준에 속하고 일본은 4.9%로 가장 낮다(표 III-1).

표 III-1 총 인구와 면적 그리고 청소년 인구(아시아 9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파키스탄	인도
총 인구(2014년)	49.5	127.1	1,393.8	67.2	252.8	30.2	75.8	185.1	1,267.4
총 인구(2004년)	46.8	127.8	1,310.4	65.1	221.3	25.4	66.8	155.2	1,110.6
15-24세	6,774 (13.5%) (2013년)	12,251 (9.6%) (2013년)	227,302 (17%) (2010년)	10,304 (15.2%) (2012년)	42,165 (17.8%) (2011년)	5,902 (19.7%) (2013년)	12,695 (16.6%) (2013년)	30,835 (20.5%) (2007년)	231,951 (19.2%) (2011년)
15-19세	3,350 (6.7%)	6,047 (4.8%)	99,889 (7.5%)	5,067 (7.5%)	20,998 (8.9%)	2,842 (9.5%)	6,465 (8.5%)	17,276 (11.5%)	120,526 (10%)
남	1,767 (3.5%)	3,098 (2.4%)	51,905 (3.9%)	2,594 (3.8%)	10,674 (4.5%)	1,464 (4.9%)	3,319 (4.3%)	9,064 (6%)	63,982 (5.3%)
여	1,583 (3.2%)	2,949 (2.3%)	47,984 (3.6%)	2,473 (3.6%)	10,324 (4.4%)	1,378 (4.6%)	3,146 (4.1%)	8,212 (5.5%)	56,544 (4.7%)
20-24세	3,424 (6.8%)	6,204 (4.9%)	127,413 (9.6%)	5,237 (7.7%)	21,167 (8.9%)	3,060 (10.2%)	6,230 (8.1%)	13,559 (9%)	111,425 (9.2%)
남	1,828 (3.6%)	3,182 (2.5%)	64,009 (4.8%)	2,674 (3.9%)	10,745 (4.5%)	1,595 (5.3%)	3,165 (4.1%)	6,825 (4.6%)	57,585 (4.8%)
여	1,596 (3.2%)	3,022 (2.4%)	63,404 (4.6%)	2,563 (3.8%)	10,422 (4.4%)	1,465 (4.9%)	3,056 (4%)	6,734 (4.5%)	53,840 (4.4%)
국토면적 (인구밀도) (2013년)	100,188 (501)	377,962 (341)	9,596,961 (141)	513,120 -	1,910,931 (130)	330,290 (91)	783,562 (97)	796,095 (232)	3,287,263 -

※ 단위: 총 인구: 100만 명당 인구, 연령별 인구: 1,000명당 인구, 국토면적: km²

※ 출처: 総務省統計局 (2015), UN (2013,2014), EUROSTAT,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에서 재구성.

(2) 인구변동과 중위연령

1960년도와 2010년도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 8개국(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 인도)의 인구변동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기준 연평균 인구증가율⁸⁾은 태국 2.9%, 한국 2.7%, 터키 2.6%,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2%이며 중국과 인도가 1.9%이고, 일본이 1.1%이었지만, 한편 2010년 기준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파키스탄 1.9%, 인도 1.5%, 인도네시아 1.4%, 터키 1.3%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도 대부분 2% 미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태국과 중국은 0.6%, 한국은 0.5%로 1%미만의 증가율을, 일본은 0.1%로 가장 낮은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1960년도와 2010년도 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8개국 모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태국이 -2.3%, 한국 -2.2%, 터키와 중국이 -1.3%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인데 비해 파키스탄(-0.1%), 인도(-0.4%), 인도네시아(-0.6%)에서는 완만한 감소율이 나타났다.

인구의 중간연령대인 중위연령⁹⁾을 살펴보면 1960년도에는 아시아 8개국 모두 10대 후반~20대로 중위연령이 젊다. 일본이 25.6세로 가장 높고 태국이 18.7세로 가장 낮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도의 중위연령은 20대 전반에서 40대 중반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45세로 중위연령이 매우 높으며 한국(37.8세), 태국(35.4세), 중국(34.6세)도 30대 중후반으로 중위연령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파키스탄(21.6세), 인도(25.5세), 터키(28.3세)는 여전히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위연령대의 상승수치는 해당 국가의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19.4세로 가장 높고 한국(+18세), 태국(+16.7세), 중국(+13.3세)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나라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연평균 인구증가율: 10년 간의 기하평균으로 산출

9)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 순으로 놓고 2등분하는 경계점에 있는 나이

표 III - 2 인구 추이와 중위연령(아시아 8개국)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파키스탄	인도
1960년	인구(명)	25,074	94,302	650,680	88,693	27,362	27,553	45,541	449,595
	연평균 인구 증가율(%)	2.7%	1.1%	1.8%	2.0%	2.9%	2.6%	2.0%	1.8%
2010년	인구(명)	48,454	128,057	1,359,82	240,676	66,402	72,138	173,149	1,205,63
	연평균 인구 증가율(%)	0.5%	0.1%	0.6%	1.4%	0.6%	1.3%	1.9%	1.5%
1960/2000년 중위연령		19.8/37.8 (+18)	25.6/45.0 (+19.4)	21.3/34.6 (+13.3)	20.2/26.9 (+6.7)	18.7/35.4 (+16.7)	19.1/28.3 (+9.2)	19.8/21.6 (+1.8)	20.3/25.5 (+5.2)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 (2013)에서 재구성.

(3)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아시아 10개국)

아시아 10개국의 2012년도 평균수명을 보면, 6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까지로 나타난다. 일본(84세), 싱가포르(83세), 한국(81세) 세 나라가 80대의 높은 평균수명을 보이며, 중국·태국·터키(75세)와 말레이시아(74세), 인도네시아(71세)의 평균수명은 70세를 넘는다. 이에 비해 인도(66세)와 파키스탄(65세)은 평균수명이 60대 중반에 머문다.

수명은 이전시대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노후에 병석에 누워서 지내는 시간 또한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최대 나이의 평균치인 건강수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단순한 장수시대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여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장수하고자 하는 기대와 바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이 높은 국가가 건강수명도 높게 나타나며,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 비해 10세정도 낮다. 싱가포르(76세), 일본(75세)와 한국(73세)이 아시아 10개국 중에서 건강수명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중국(68세), 태국(66세), 터키(65세), 말레이시아(64세), 인도네시아(62세)는 건강수명이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인도(57세)와 파키스탄(56세)의 건강수명은 5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3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아시아 10개국)

(단위: 세)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폴	파키 스탄	인도	터키
평균수명	81	84	75	75	71	74	83	65	66	75
남자	78	80	74	71	69	72	80	64	64	72
여자	85	87	77	79	73	76	85	66	68	78
건강수명	73	75	68	66	62	64	76	56	57	65
남자	70	72	67	63	61	63	74	56	56	63
여자	75	77	69	68	64	66	77	57	58	67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에서 재구성.

(4) 출생률과 사망률(아시아 8개국)

인구의 증가요인인 출생률(아시아 8개국)을 살펴보면 아시아 8개국 간에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출생률이 가장 높은 파키스탄과 가장 적은 일본은 13.4명의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키스탄의 출생률이 23명으로 가장 높고, 인도가 21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고, 유아사망률도 각각 75명과 42명으로 가장 높다. 출생률이 낮은 국가는 일본(8.2명), 한국(9.6명)과 싱가포르(10.3명)이지만, 이들 국가의 유아 사망률은 2명대에 불과하다. 즉 높은 사망률-높은 유아사망률을 보이는 국가(파키스탄, 인도 등)와 낮은 사망률-낮은 유아사망률을 보이는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로 나뉜다.

한편 인구의 감소요인인 사망률을 살펴보면 출생률에 비해서 나라별 격차가 적다. 일본이 10.1명으로 제일 높고, 중국이 7.2명, 인도가 7명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말레이시아가 4.6명으로 가장 낮다. 한국은 5.3명이다.

표 III-4

출생률과 사망률(아시아 8개국)

(단위: 명)

	한국 (2012년)	일본 (2013년)	중국 (2013년)	인도 (2012년)	싱가폴 (2013년)	말레이시아 (2012년)	파키스탄 (2007년)	터키 (2013년)
출생률	9.6	8.2	12.1	21.6	10.3	17.2	23.5	16.8
유아사망률	2.9	2.1	-	42.0	2.4	6.3	75.2	11.6
사망률	5.3	10.1	7.2	7.0	4.9	4.6	6.3	4.9

※ 출생률, 사망률: 인구 1,000명 당 1년 간의 출생자 수 및 사망자 수

※ 유아사망률: 출생 1,000명 당 1년 미만 유아의 연간 사망자 수

※ 출처: 総務省統計局 (2015), UN (2009,2012,2013), UN (2014)에서 재구성

(5) 연령별 가임기 여성의 합계 출산율(아시아 6개국)

아시아 6개국의 가임기 여성 일인당 합계 출산율¹⁰⁾을 보면, 한국이 1.26명으로 가장 낮으며, 일본이 1.4명, 싱가포르이 1.45명으로 그 다음으로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인다. 반면 파키스탄은 3.79로 아시아 6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인다.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¹¹⁾은 해당 연령대의 여성 중에서 아기를 출산한 사람의 수를 1,000명으로 나눈 수치이다. 한국과 일본, 싱가폴은 30~34세 연령대 산모의 출산율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 터키는 25~29세 연령대 산모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10) 합계 출산율: 출산 가능한 여성의 연령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

11)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의 연령별로 발생한 출생아수 / 당해 연령별 여성인구) × 1,000으로 계산한 값으로, 위의 수치에서 19 세 이하는 15 ~ 19세 여성 인구로, 45 세 이상은 45 ~ 49세 여성 인구로 계산함.

표 III -5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가임기 여성의 일인당 출산율(아시아 6개국)

	한국 (2011년)	일본 (2012년)	싱가폴 (2012년)	말레이시아 (2009년)	파키스탄 (2005년)	터키 (2010년)
합계 출산율(명)	1.26	1.40	1.45	2.17	3.79	2.05
15-19세	1.8	4.4	4.5	14.8	20.3	32.1
20-24세	16.0	32.4	23.5	69.1	157.6	110.9
25-29세	78.3	87.2	86.7	141.7	225.5	123.3
30-34세	115.1	97.9	113.5	119.6	179.9	89.3
35-39세	36.7	49.5	52.9	67.3	106.6	42.5
40-44세	4.8	9.2	9.1	20.4	50.1	10.6
45-49세	0.2	0.2	0.3	2.0	18.1	1.8

※ 연령별 출생률 : 1,000명당 출생자 수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4)에서 재구성

(6) 세대 구성 (아시아 4개국)

한 세대(世帶)를 구성하는 인원 수는 가족생활의 형태를 반영한다. 1인 세대는 독신이거나 일, 학업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이다. 일본은 1인 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아시아 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한국도 24%로 그 비율이 낮지 않다. 이에 비해 중국은 15%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도는 1인 세대가 4%에 불과하다. 2인 세대는 대개 자녀가 없는 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일본이 27%로 가장 높고 한국과 중국이 24%인데 반해 인도는 8%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핵가족의 최소구성인원인 3명 미만의 세대가 각각 48.2%와 59.6%이다. 두 나라 모두 전 세대의 절반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혼과 이혼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로 인해 사별 후 자녀와의 동거가 아닌 혼자 사는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인 세대는 일반적으로 부부와 한 자녀로 구성되어 있거나,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2인일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3인 세대 수를 보면 한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27%로 가장

높고, 한국이 21%, 일본이 18%이며 인도가 12%로 가장 낮다. 4인 세대는 일반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전형적인 세대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비율이 23%로 가장 높고 인도가 19%, 중국이 18%, 그리고 일본이 14%로 가장 낮다. 5인 이상 세대는 대개 부부와 세 자녀 이상인 핵가족이거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3세대(世代)의 대가족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인도는 5인 세대가 57%로 전체 세대(世帯)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그 다음으로 17%이지만 인도와의 격차가 크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5인 이상 세대가 8%에 불과하다.

한 세대의 평균 인원수는 인도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3.3명인데 비해 한국은 2.8명, 일본은 2.4명에 머물러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한 세대의 평균 인원 수가 전통적인 핵가족의 최소 인원이라 할 수 있는 3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만혼, 비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혼인율(1,000명당 혼인하는 비율)이 9.6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6.5명이고 일본은 5.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표 III-6 세대 인원 별 세대수(아시아 4개국)

	한국 (2010년)	일본 (2010년)	중국 (2010년)	인도 (2001년)
총 세대수	17,339 (100%)	51,842 (100%)	401,934 (100%)	192,672 (100%)
1인 세대수	4,142 (23.9%)	16,785 (32.4%)	58,396 (14.5%)	7,564 (3.9%)
2인 세대수	4,205 (24.3%)	14,126 (27.2%)	97,948 (24.4%)	15,871 (8.2%)
3인 세대수	3,696 (21.3%)	9,422 (18.2%)	107,979 (26.9%)	22,473 (11.7%)
4인 세대수	3,898 (22.5%)	7,460 (14.4%)	70,598 (17.6%)	37,022 (19.2%)
5인 이상 세대수	1,398 (8%)	4,050 (7.8%)	67,013 (16.7%)	109,741 (57%)
평균 세대 인원(명)	2.8	2.4	3.3	5.3

※ 세대 인원 별 세대수 : 1,000명당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 (1987,1990,1995), UN, Demographic Yearbook system에서 재구성

2) 경제와 노동

(1) 경제수준 (아시아 10개국)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체제 이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중심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국민(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로 인해 외국에서의 생산과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3년도의 아시아 10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를 살펴보면, 중국(9조 1천억 달러), 일본(4조 9천억 달러), 인도(1조 9천억 달러)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대국들이 상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1조 3천억 달러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터키(8천억 달러), 태국(4천억 달러), 말레이시아(3천억 달러), 싱가포르와 파키스탄(각 2천억 달러 수준)은 경제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2013년도 국내총생산은 각 국가의 경제규모를 의미하지만, 해당 국가의 실제적인 경제수준을 보려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시아 10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보면, 싱가포르가 5만 4천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일본(3만 8천 달러), 한국(2만 6천 달러) 순이다. 한편 터키와 말레이시아의 GNP는 각각 1만 달러 정도이고, 중국과 태국은 각 6천 달러 수준, 인도네시아가 3천 달러 수준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 1천 달러 수준으로 가장 낮다.

한편 같은 해 경제성장률에서는 중국이 7.7%로 가장 높고 파키스탄(6.6%), 인도네시아(5.8%), 인도(5%) 순이다.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가 각각 4% 정도이고, 한국이 3%, 태국이 2.9%이며 일본은 1.6%로 가장 낮았다. 전체 경제규모에서는 중국과 인도, 일본이 앞서가며,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의 수준이 높고, 경제성장률은 중국, 파키스탄 등이 높다.

표 III -7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2013년 기준 아시아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	터키
국내총생산(GDP)	1,3046	4,9207	9,181.2	420.2	225.4	868.3	312.4	295.7	1,937.8	822.1
1인당 국내총생산	26,482	38,644	6,626	6,270	1,238	3,475	10,514	54,649	1,548	10,972
실질경제 성장률	3.0%	1.6%	7.7%	2.9%	6.1%	5.8%	4.7%	4.1%	5.0%	4.1%

※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달러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에서 재구성

(2) 경제활동 인구 비율과 실업률, 노동시간 (아시아 6-10개국)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태국이 71%로 가장 높다.¹²⁾ 나머지 국가들은 대개 50~60%정도이다. 단, 터키(45.9%)와 인도(36.4%)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남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으나, 남녀 간 비율의 차이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파키스탄은 남자(82.4%)에 비해 여자(21.8%)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에서 남녀 간 차이가 낮은 나라는 태국(17.1%), 싱가포르(18.1%)과 일본(18.6%)으로 한국은 남녀 간 경제활동 인구비율의 차이가 22.4%로 이들 나라보다 높다. 15~1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을 보면, 파키스탄이 36.9%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23.8%)와 터키(21.9%), 태국(21.8%)이 그 뒤를 잇는다. 한국이 7%로 가장 낮고 싱가포르(11.3%)와 일본(14.5%)도 낮은 편에 속한다. 15~19세는 중등교육을 받을 시기이므로 중등학교 재학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20~2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보면, 태국이 64.8%로 가장 높고, 일본(64.1%)과 싱가포르(58%)이 그 뒤를 잇는다. 한국은 44.5%로 인도와 터키(44.3%) 다음으로 20~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낮다. 한국의 경우는 높은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로 인해 해당 연령층 인구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졸자 수의 증가로 인해 대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도 한국의 20~24세

12) 중국은 참고문헌의 자료가 오래되어서 설명에서 제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터키가 8.7%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6.2%)가 그 다음으로 높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태국(0.8%)으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터키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표 III-8 경제활동 인구비율과 실업률(아시아 10개국)

	한국 (2012년)	일본 (2013년)	중국 (1990년)	태국 (2013년)	파키 스탄 (2008년)	인도 네시아 (2013년)	말레 이시아 (2012년)	싱가폴 (2012년)	인도 (2012년)	터키 (2013년)
경제활동 인구비율 15세 이상	59.4	56.9	79.2	71.0	52.5	62.7	63.6	64.1	36.4	45.9
남	70.8	67.5	85.0	79.8	82.4	78.5	78.1	73.4	53.0	65.2
여	48.4	47.1	73.0	62.7	21.8	47.0	48.0	55.3	18.8	27.1
15~19세	7.0	14.5	64.8	21.8	36.9	23.8	15.7	11.3	19.1	21.9
남	5.7	14.2	61.5	29.6	53.9	28.4	20.0	13.0	26.1	29.7
여	8.3	14.9	68.3	13.5	17.6	19.0	11.3	9.4	11.1	13.7
20~24세	44.5	64.1	91.2	64.8	52.4	56.1	57.2	58.0	44.3	44.3
남	39.1	62.4	92.6	75.3	85.1	68.7	67.9	60.2	67.0	59.9
여	48.9	66.0	89.6	53.8	21.0	44.0	46.0	55.5	20.1	30.0
실업률	3.2	4.0	4.0 (2013년)	0.8	—	6.2	3.1 (2013년)	2.8	—	8.7
남	3.4	4.3	—	0.8	—	6.0	2.9	2.7	—	7.9
여	3.0	3.7	—	0.8	—	6.4	3.4	3.1	—	10.6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ILO, LABORSTA Internet에서 재구성.

아시아 6개국의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산업에서의 노동시간은 터키가 49시간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39.7시간으로 가장 적는데, 이 두 나라의 노동시간은 9.3시간의 차이가 난다. 196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2일 휴무와 더불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10개국에서 일본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의 노동시간은 모두 주당 40시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日本ILO協会, 2004).

표 III-9

노동시간(2007년 기준 아시아 6개국)

(단위: 시간)

	한국 (2007년)	일본 (2013년)	태국 (2013년)	인도네시아 (2010년)	말레이시아 (2012년)	터키 (2013년)
전체산업	—	39.7	46.0	45.4	48.0	49.0
제조업	45.5	42.2	50.0	47.8	49.5	49.9
건설업	41.2	44.7	48.0	47.6	47.8	52.3
도소매업	41.3	38.4	48.0	51.9	49.4	53.9
서비스업	46.3	32.4	49.0	51.2	49.8	56.2
교육분야	39.2	38.4	38.0	32.3	37.7	37.1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ILO, ILOSTAT Database에서 재구성.

3) 교육과 문화

(1) 교원 1인당 학생 수(아시아 6개국)

2012년도 아시아 6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교육에서는 태국이 16.3명으로 가장 적고 파키스탄이 41.4명으로 가장 많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17~19명이다.

전기 중등교육에서는 일본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3.2명으로 가장 적고, 파키스탄(20.6명)과 태국(20.9명)의 경우는 20명을 넘는다. 나머지 3개국(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17명 선이다. 후기 중등교육에서는 파키스탄이 21.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10.5명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 3개국(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에서의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17명이다.

표 III -10 교원 1인당 학생수(2012년 기준 아시아 6개국)

(단위: 명)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초등교육	17.9	17.1	18.2	16.3	18.6	41.4
전기 중등교육	17.3	13.2	13.8	20.9	16.1	20.6
후기 중등교육	14.8	10.5	15.3	—	17.4	21.7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ESCO, Statistics: Data Centre에서 재구성.

(2) 재학률 (아시아 7개국)

아시아 7개국의 재학률을 살펴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파키스탄 (남 77.2%, 여 67.3%)과 인도(남87%, 여 84.4%)를 제외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초등학교 재학률이 90%를 넘는다.¹³⁾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국(남 96.4%, 여 95.6%)과 일본(남 98.8%, 여 99.5%)의 경우 100%에 가까운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보인다. 반면 태국(남 77.3%, 여 81.7%)과 인도네시아 (남 74.8%, 여 77.5%)의 재학률은 70%를 넘고, 말레이시아(남 67.1%, 여 65.6%)는 70%에 미치지 못한다. 파키스탄은 남학생의 재학률 41.3%, 여학생의 재학률이 30.6%로 아시아 7개국에서 가장 낮은 중등학교 재학률을 보인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한국(남 111.5%, 여 83.6%)의 재학률이 가장 높다¹⁴⁾. 일본(남 64.5%, 여 58.2%)과 태국(남 44.6%, 여 58.2%)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률이 45~64%에 달한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고등교육 재학률이 30%대에, 인도는 20%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은 고등교육 재학률이 남학생 9.7%, 여학생 9.3%로 가장 낮다.

13) 아시아 지역의 의무교육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003년에 초등학교 6년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졌고, 인도네시아는 1994년에 중학교까지 9년간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졌다. 싱가포르의 6년 의무교육제이다(井出和貴, 2014: 2).

14)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남학생의 비율이 100%를 넘는 이유는 재학률의 추출공식이 취학연령을 분모로 하고, 재학생 수를 분자로 하는데, 고등교육에서는 취학연령 이상의 학생들도 분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III -11 남녀별 재학률(아시아 7개국)

		한국 (2012년)	일본 (2012년)	태국	인도네시아 (2012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2012년)	인도
초등 교육	남	99.4	-	96.2 (2009년)	91.7	98.5 (2003년)	77.2	87.0 (2003년)
	여	98.8		94.9 (2009년)	92.8	95.0 (2003년)	67.3	84.4 (2003년)
중등 교육	남	96.4	98.8	77.3 (2012년)	74.8	67.1 (2011년)	41.3	-
	여	95.6	99.5	81.7 (2012년)	77.5	65.6 (2011년)	30.6	
고등 교육	남	111.5	64.5	44.6 (2012년)	31.0	32.7 (2011년)	9.7	26.0 (2011년)
	여	83.6	58.2	58.2 (2012년)	32.1	39.1 (2011년)	9.3	20.3 (2011년)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ESCO, Statistics: Data Centre에서 재구성.

아시아 5개국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취학연수를 보면 파키스탄(4.7년)과 인도(4.4년)는 초등학교 6년에도 미치지 못하며 태국(7.3년), 중국(7.5년), 인도네시아(7.5년)는 초, 중학교 9년보다 낮은 수치이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평균 취학 년 수가 낮은 것은 제도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두 나라의 인구 중에서 빈곤선 이하의 비율¹⁵⁾이 모두 높은 것(인도 33%, 파키스탄 21%)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 -12 평균 취학 년수와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아시아 5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평균 취학 년수 (2012년)	7.5	7.3	7.5	4.7	4.4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2002-12년)	11.8	0.38	16.20	21.04	32.68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DP(2014),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에서 재구성.

15)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인 하루 생활비가 1.25달러(구매력 평가 환산)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ies)란 GDP를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제거하여 서로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환산한 것을 말함. 여기서는 OECD 추계치를 포함한 경우도 있음.

(3) 교육비 (아시아 2~3개국)

학교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모두 합한 후 이를 학생 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아시아 3개국의 1인당 교육비(2011년도)를 살펴보면, 취학전 교육에서는 한국이 6천8백 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5천 5백 달러, 터키는 2천 4백 달러이지만, 초등교육단계에서 대학원교육단계까지는 일본의 교육비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다.

표 Ⅲ -13 재학생 1인당 학교교육비(2011년 기준 아시아 3개국) (단위: 달러)

	한 국	일 본	터 키
취학전 교육	6,861	5,591	2,412
초 등 교 육	6,976	8,280	2,218
중 등 교 육	8,199	9,886	2,736
고 등 교 육	9,927	16,446	8,193
대학원 교육	11,230	18,110	-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OECD (2014)에서 재구성.

2011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에서 학교교육비(사교육비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일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국내총생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7.6%이고 일본이 5.1%이다. 한국의 경우 총 교육비의 비율 7.6%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9%이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와 사교육비의 비율은 2.8%이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공적부담률이 3.6%로 다소 높고 학부모 부담률은 1.6%로 다소 낮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등학교 단계까지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4.1%이고 일본이 2.9%이다. 이 중에서 학부모의 사적인 부담은 한국(0.8%)이 일본(0.2%)보다 4배 많으며, 고등교육비의 사적인 부담에서도 한국(1.9%)이 일본(1%)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표 III -14 국내 총생산 대비 학교 교육비의 비율(2011년 기준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합계	7.6	5.1
공적부담(공공재정 지출 교육비)	4.9	3.6
사적부담(학부모 지출 교육비)	2.8	1.6
초등 - 중등 교육단계 전체	4.1	2.9
공적부담(공공재정 지출 교육비)	3.4	2.7
사적부담(학부모 지출 교육비)	0.8	0.2
고등 교육단계 전체	2.6	1.6
공적부담(공공재정 지출 교육비)	0.7	0.5
사적부담(학부모 지출 교육비)	1.9	1.0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OECD (2014)에서 재구성.

(4) 문자해독률 (아시아 5개국)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5개국의 문자 해독률을 보면, 전체 수치에서는 중국이 95.1%로 제일 높으며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90%를 넘는 문해률을 보인다. 인도의 문자 해독률은 62.8%로 비교국 중에서 가장 낮다. 남자의 경우만을 보면 터키가 98.3%로 가장 높고 인도(75.2%)를 제외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남성 문해률 역시 95%를 넘는다. 여성의 문해률에 있어서는 중국이 92.7%로 가장 높고,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90% 이상인데 비해, 인도만 50.8%에 머문다. 문해률에 있어서 아시아 5개국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보면 대부분 10%를 넘지 않는데, 인도의 경우만 남자 75.2%, 여자 50.8%로 24.4%의 격차를 보인다.

표 III -15 남녀별 문자 해독률(아시아 5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
전체	95.1 (2010년)	92.8 (2011년)	93.1 (2010년)	94.9 (2012년)	62.8 (2006년)
남자	97.5	95.6	95.4	98.3	75.2
여자	92.7	90.1	90.7	91.6	50.8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ESCO, Statistics: Data Centre에서 재구성.

(5) 텔레비전 보유 가구 비율(아시아 7개국)

아시아 7개국의 텔레비전 보유 가구 비율을 보면, 일본(98.9%), 한국(98.8%), 태국(98.1%), 터키(98%), 말레이시아(96.9%)에서는 거의 모든 세대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71.6%)에서도 ⅔이상의 세대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47.2%)에서만 절반 이상의 세대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6 텔레비전 보유 가구 비율(아시아 7개국) (단위: %)

한국 (2012년)	일본 (2008년)	태국 (2011년)	인도네시아 (2009년)	말레이시아 (2007년)	터키 (2007년)	인도 (2011년)
98.8	98.9	98.1	71.6	96.9	98.0	47.2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ITU (2013)에서 재구성.

(6) 영화 제작과 관람(아시아 8개국)

2011년도 아시아 8개국의 영화제작 편수와 1인당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영화제작 편수에서는 인도가 1,255편으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영화산업의 중심인 미국(819편)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584편)과 일본(441편), 한국(216편)도 영화제작이 비교적 활발한 나라에 속한다. 아시아 8개국에서는 말레이시아가 49편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나 제작 편수가 가장 적다.

국민 1인당 영화관람 횟수를 보면 한국이 3.5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도(2.5편)와 말레이시아(2.3편) 순이다. 인도는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높지 않으나 영화관람 횟수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높다. 이에 비해 태국(0.5편), 중국(0.3편), 터키(0.3편)와 인도네시아(0.1편)는 영화관람 횟수가 적다.

표 III -17 영화제작 관람 횟수(2011년 기준 아시아 8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터키	인도
영화제작편수	216	441	584	49	84	49	70	1,255
1인당관람횟수	3.5	1.3	0.3	0.5	0.1	2.3	0.3	2.5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UNESCO, Statistics: Data Centre에서 재구성.

4) 생활환경

(1) 전화와 이동전화 보급률 (아시아 9개국)

2013년도 아시아 9개국에서의 전화가입률과 이동전화 보급률은 다음과 같다. 인구 100명 당 전화회선 가입율에서는 한국이 61.57%로 가장 많고 일본(50.39)과 싱가포르(36.42)로 그 다음이다. 중국(19.27), 터키(18.09), 인도네시아(16.07), 말레이시아(15.26)는 20% 미만 수준이다. 태국(9.04)과 인도(2.31)의 전화보급률은 매우 낮다.

전화에 비해 이동전화 보급률은 아시아 9개국에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인구 100명 당 이동전화 계약률을 보면, 싱가포르가 155.60으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144.69), 말레이시아(144.69), 태국(137.98), 인도네시아(121.54), 일본(115.9), 한국(111.09)은 1인당 1대 이상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터키(92.96)와 중국(88.71)도 이동전화 보급률이 90%대이다.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한국이 84.77%로 가장 높고 일본(82.80%)과 싱가포르(73.04%)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인다. 말레이시아(66.97%)는 절반을 넘으며, 터키(46.25%)와 중국(45.80%)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15.82%)와 인도(15.10%)는 인터넷 이용률이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표 III -18 전화와 이동전화 보급률(2013년 기준 아시아 9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폴	터키	인도
전화회선 가입율	61.57	50.39	19.27	9.04	16.07	15.26	36.42	18.09	2.31
이동전화 계약률	111.00	115.19	88.71	137.98	121.54	144.69	155.60	92.96	70.78
인터넷 이용률	84.77	82.80	45.80	28.94	15.82	66.97	73.04	46.25	15.10

※ 전화, 이동전화 보급률: 인구 100명 당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ITU, ICT Statistics Home Page에서 재구성.

(2) 자동차 보유 대수와 여행경비 (아시아 9-10개국)

자동차 보유 대수와 여행의 정도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물리적 범위를 넓히는 데 영향을 준다. 아시아 10개국의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일본이 589대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378대)와 한국(370대)이 그 뒤를 잇는다. 태국(172대), 터키(164대), 싱가포르(151대)이 비슷한 수준이며, 파키스탄과 인도가 20대 수준이다.

2012년도 아시아 9개국의 국민들이 지출한 여행경비 총액을 보면, 중국이 1천 십억 달러로 가장 많다. 일본이 4백억 달러로 그 다음이며 싱가포르와 한국이 각각 2백2십억 달러 선에 있다. 태국(7십억 달러)과 터키(4십억 달러)가 아시아 9개국 중에서 여행경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III -19 자동차 보유 대수와 여행경비(아시아 5개국)

	한국 (2011년)	일본 (2014년)	중국 (2011년)	태국 (2011년)	파키 스탄 (2011년)	인도 네시아 (2011년)	말레 이시아 (2011년)	싱가폴 (2011년)	터키 (2011년)	인도 (2009년)
자동차 보유대수	370	589	69	172	20	69	378	151	164	18
여행지출 (2013)	22,386	40,967	109,898	7,864	-	9,498	11,545	22,412	4,604	14,107

※ 자동차 보급률: 1,000명 당 자동차 보유 대수, 여행지출: 백만 달러

※ 출처 : 総務省統計局 (2015), IRF (2013),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재구성.

2.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비교:

PISA 2012 진로체험활동 조사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1) PISA 2012자료 진로체험활동과 직업역량의 관계¹⁶⁾

OECD가 2000년부터 3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는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및 과학 성취도의 국가별 비교가 주된 목적이지만, 학생, 학부모, 학교의 배경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업성취도 이외에 부가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2012년에는 부가조사로 진로교육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부가조사는 각국의 진로교육이 공공 정책 이슈와 어떤 연관이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희소한 자료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2006년 PISA 조사에서도 진로교육 또는 진로개발과 관련된 항목이 있었고, 참여한 모든 국가가 부가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그 조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상세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Sweet et al., 2014).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개발과 정책추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2012년 PISA 조사가 의미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로부터 직접 진로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성과 학생이 속한 가족의 특성을 정책 관련 배경 정보 및 조사결과와 상호 참조할 수 있다.

둘째, 진로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세 가지 측면(아래 3항목)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력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력 관리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학생 자신이 직업역량을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항목이 포함된 점이다.

이 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이 참여한 직업박람회, 직업정보의 인터넷 조사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활동(진로개발 활동)(총 9개 문항: 표 III-20)
- ② 직업정보를 어떻게 찾으며 취업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과 같은 직업역량 습득 유형(총 6개 문항: 표 III-21)

16) 이 절의 내용은 Sweet 등(Sweet et al., 2014)이 2014년 PISA의 부가조사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토대로 수정하거나 Sweet 등이 제시한 분석자료를 아시아 국가 비교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임.

③ ②의 6개 직업역량 항목에 대하여, 각각 획득된 경로가 학교 내인지 또는 학교 외부인지를 묻는 문항(표 III-21)

표 III-20 PISA 2012 진로체험활동참여 문항: EC03

문항(영문)	문항(국문)	척도	
EC03: Have you done any of the following to find out about future study or types of work? (Please tick one box in each row.)	EC03: 다음 중 미래의 학업 또는 직업의 유형(types of work)을 알기 위하여 했던 일은? (각 행마다 빈칸에 체크하시오.)	예	아니오
a) I did an internship.	a) 나는 인턴십에 참여하였다.		
b) I attended <job shadowing or work-site visits>.	b) 나는 직업체험(job Shadowing)이나 일터 방문에 참여하였다.		
c) I visited a <job fair>.	c) 나는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였다.		
d) I spoke to a <career advisor> at my school.	d) 나는 학교에서 진로상담교사와 대화하였다.		
e) I spoke to a <career advisor> outside of my school.	e) 나는 학교 밖에서 진로상담사와 대화하였다.		
f) I completed a questionnaire to find out about my interests and abilities.	f) 나는 흥미와 능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g) I researched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about careers.	g) 나는 진로 관련 정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h) I went on an organised tour in an <ISCED 3-5> institution.	h) 나는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 3-5 (후기 중등교육 단계 이상) 교육기관의 조직화된 투어에 참여하였다. ¹⁷⁾		
i) I researched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about <ISCED 3-5> programmes.	i) 나는 ISCED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하였다.		

* 출처 : 1) 영문 문항 출처 OECD (2011). Educational Career Questionnaire for PISA 2012.
2) 국문 문항 출처 이지연 (2015). 학교 진로상담(지도) 종합 지원체제. 2015년 제4차 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 학생들에게 진학 정보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일반대학, 전문대학 또는 후기 중등 및 제3차(tertiary)교육기관에 조직적으로 방문하는 것

표 III -21 PISA 2012 직업관련역량 문항: EC04

문항(영문)	문항(국문)	척도		
EC04: Which of the following skills have you acquired? (Please tick all that apply.)	EC04: 다음 중 귀하가 습득한 능력은?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하시오.)	네, 학교 에서	네, 학교 밖에서	아 니 오
a) How to find information on jobs I am interested in.	a)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b) How to search for a job.	b)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c) How to write a <résumé> or a summary of my qualifications.	c) 나의 이력서나 자격증 요약본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d) How to prepare for a job interview.	d) 취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e) How to find information on <ISCED 3-5> programs I am interested in.	e) 내가 관심 있는 ISCED 3-5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f) How to find information on student financing (e.g. student loans or grants).	f) 학생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 출처 : 1) 영문 문항 출처 OECD (2011). Educational Career Questionnaire for PISA 2012.

2) 국문 문항 출처 이지연 (2015). 학교 진로상담(지도) 종합 지원체제. 2015년 제4차 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문항들은 PISA 2012년 조사의 교육경력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다. 2012년 PISA 조사에서는 PISA 조사에 참여한 총 65개 국가 중 22 개 국가가 교육경력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홍콩-중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중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상하이-중국,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그리고 슬로베니아이다. 이 중 OECD 국가가 아닌 국가는 홍콩, 상하이, 마카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이다. 결국 아시아에서 OECD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결국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만이 참여했다. 다만, 중국은 마카오, 상하이, 홍콩 등 도시별로 조사하였다. 22개국 중 14개 국가는 유럽생애지도정책 네트워크(ELGPN,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소속국이며, 나머지 8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이지만, 이 자료가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을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며, 또한 유럽 및 태평양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자료이다.

ELGPN은 PISA 조사를 주관하는 OECD와 협력하기 위해서 2012년 PISA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이 연구에 Sweet 등이 참여했다. 공공 정책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15세 학생들의 진로개발 활동 참여유형과 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업역량의 각국 간 차이를 탐구하며, 향후 조사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분석에서는 학교, 학생 그리고 가정의 특성과 진로개발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ELGPN의 보고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일반적인 패턴과 추세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여타의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Sweet 등은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각의 문항들을 단순화하였다.

- ① 학생들이 참여한 진로체험활동의 총횟수
- ② ①의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이 습득한 직업역량의 범위 또는 다양성
- ③ ①의 활동 중 학교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습득한 직업역량의 범위 또는 다양성
- ④ ①의 활동 중 학교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습득한 직업역량의 범위 또는 다양성

위의 네 가지 항목을 다음 세 개의 변수와 관련지어 분석하였다.¹⁸⁾

- 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의 유형, 수학 과목 및 문제 해결의 평균적인 성취도, 물적 자원의 정도와 같은 특성 관련 변수들
- ② 학생들의 수학 과목 성취도, 인내심, 학교 내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학습태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관련 변수들
- ③ 학생의 가족과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이민여부 등 사회적 배경 특성 관련 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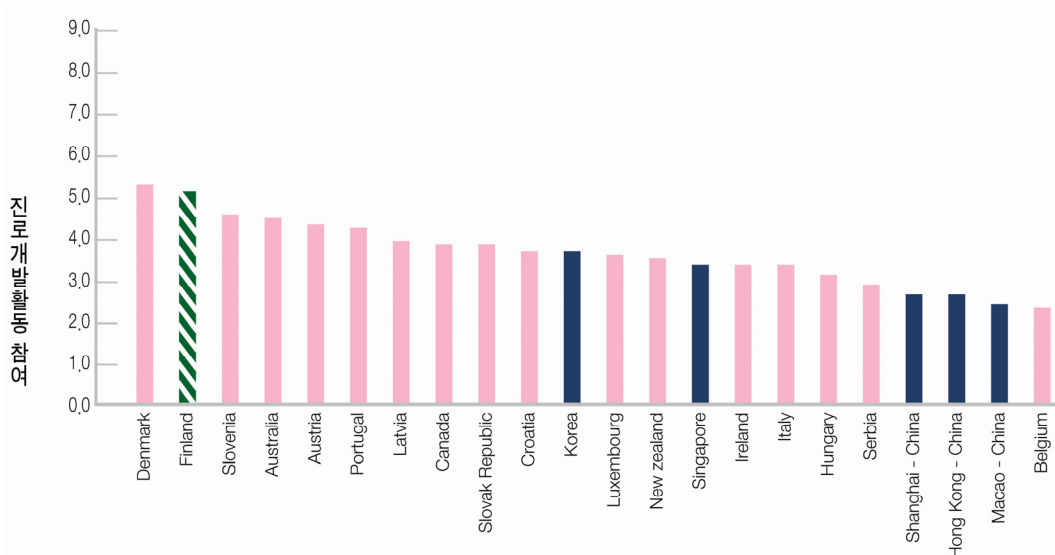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기회 및 교육 결과의 평등 또는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성취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역량개발의 결과가 의사결정 기술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18) 이 변수들에 대한 내용과 각 변수들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Sweet 등(2104)의 부록 2 p.38을 참조할 것!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어떻게 직업역량과 관련되는지를 알아 보는 것 이외에 국가와 학교, 개인과 가정의 특성 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부가적으로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비교하고 있는데, PISA 조사 항목 이외에 두 나라의 진로교육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1) 진로체험활동 참여의 비교

Sweet 등의 PISA 2012 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각국 15세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국가 간 그리고 각국 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덴마크와 핀란드이며, 가장 낮은 그룹은 벨기에, 마카오, 홍콩, 상하이이다. 후자의 그룹은 덴마크, 핀란드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참여를 보이고 있다(그림 III-1). 청소년들이 측정 항목의 절반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덴마크와 핀란드 두 나라 뿐이다. 각 나라 안에서의 참여도의 편차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그림 III-2). 예를 들어, 덴마크는 참여수준이 높은 반면 편차는 상대적으로 낮다. 즉, 덴마크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와 라트비아는 참여가 높은 그룹에 속하지만, 편차는 덴마크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평균 이상의 참여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참여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세르비아와 마카오는 참여도가 낮고, 참여도의 편차는 컸다.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낮지만, 일부의 15세 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도는 평균수준이다. 편차도 중앙치도 평균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참여도에 있어서는 22개국 중 평균수준이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다. 편차 역시 평균수준인데, 마카오와 싱가포르보다는 편차가 큰 반면, 홍콩, 상하이보다는 편차가 적은 편이다. 물론 한국의 진로교육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변한 것을 고려하면, 2012년에 조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최소한 진로체험활동 참여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홍콩, 상하이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참여도와 편차가 낮다. 같은 중국이라도 마카오는 편차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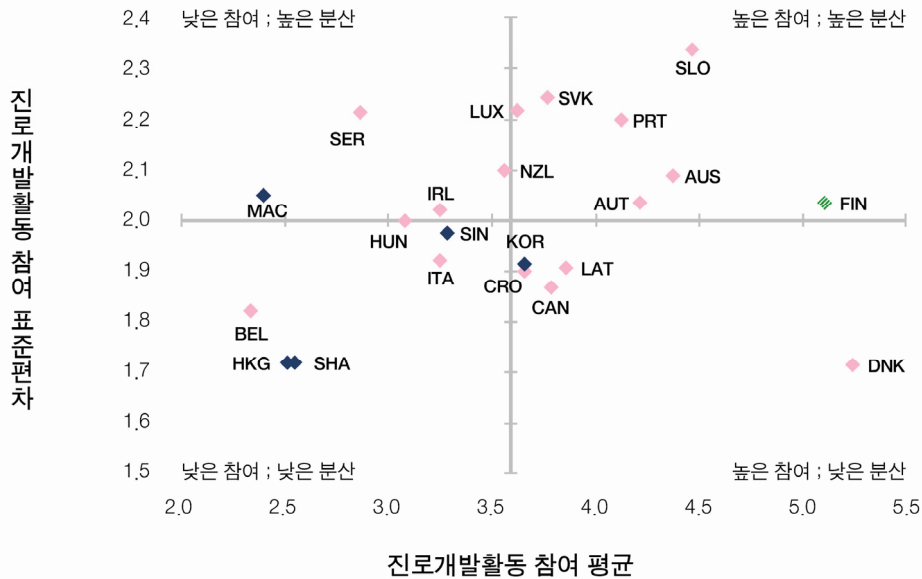


※ 채색된 막대그래프는 22개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이며, 채색되지 않은 막대그래프는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나라임.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Ⅲ -1】 진로체험활동 참여

이러한 차이는 각 국의 교육시스템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학교 내의 참여도의 편차가 학교 간의 편차보다 상당히 높았다. 평균적으로 22개국에서 학교 내의 편차가 학교 간의 편차보다 10배 정도 높았다(그림 Ⅲ-2). 다수의 국가에서 학교의 유형 또는 프로그램 선택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 기간의 종료 전까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여러 유형의 학교와 프로그램을 접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15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많은 편이다. 호주의 경우, 광범위한 사교육 때문에 학생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류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간의 편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데 반해 학교 내의 참여도의 편차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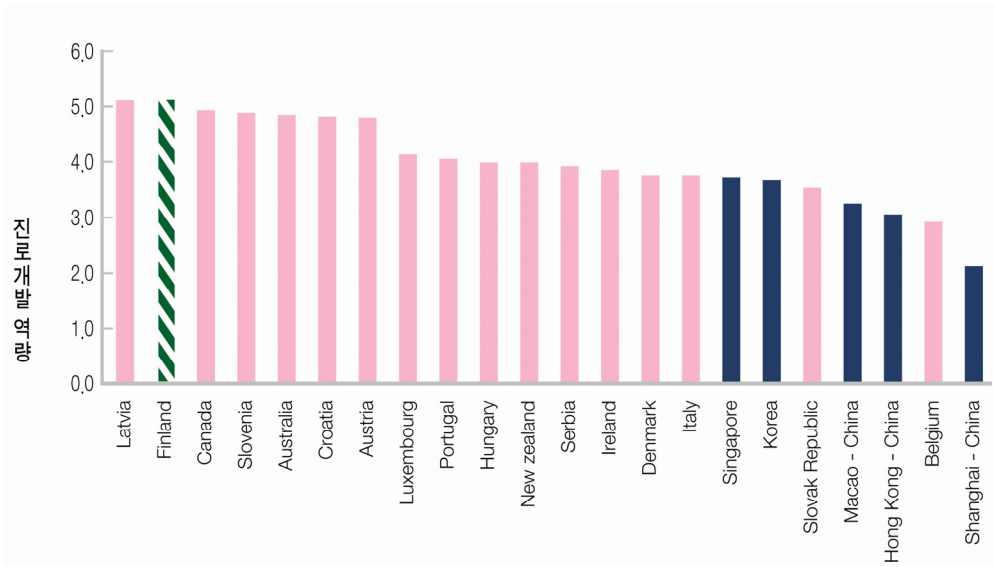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2】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중간 값 및 표준 편차

(2) 인식된 직업역량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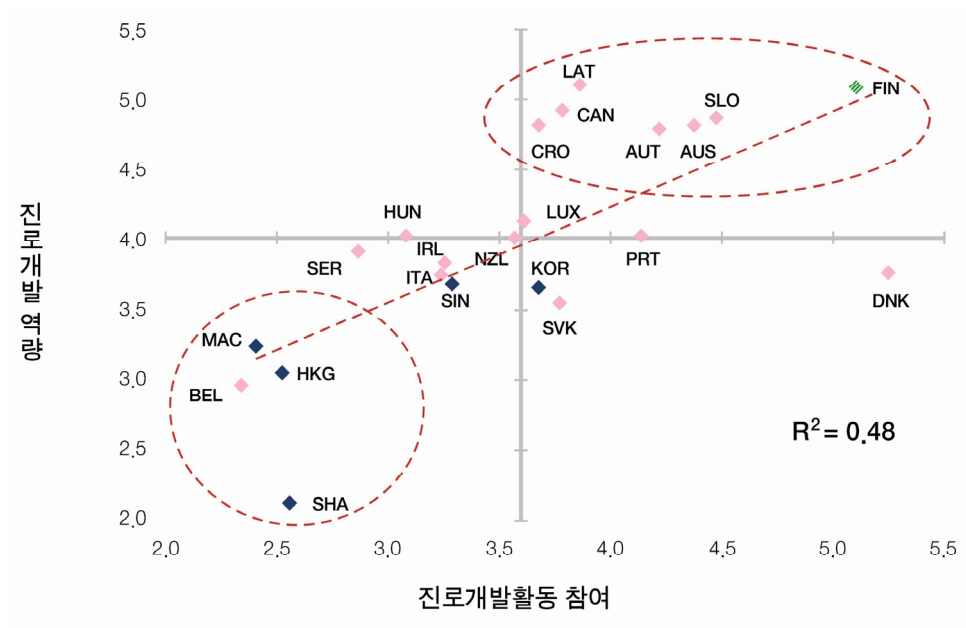
라트비아, 핀란드, 캐나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호주,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15세 학생들은 인지된 직업역량 수준이 높은 반면, 상하이, 벨기에,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과 싱가포르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경험의 정도는 평균인 반면, 인지된 역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그림 III-3).

국가간 비교에서는 직업역량에 대한 인식과 직업체험활동 참여 간에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그림 III-4). 참여가 높은 국가에서는 역량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참여가 낮은 국가에서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역량 인식에 대한 국가간의 편차의 절반 수준의 편차가 참여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절반 이상은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상호연관성이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역량을 많이 습득하였다고 믿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개발 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일터방문, 취업 조언자와의 대화 그리고 취업 정보 검색과 같은 진로개발활동 참여가 직업역량의 획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 채색된 막대그래프는 22개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채색되지 않은 막대그래프는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임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 -3】 인식된 직업역량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 -4】 진로체험 활동 참여와 직업역량 인식

[그림 III-4]에서 두 개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국가 그룹을 볼 수 있다. 라트비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호주, 슬로바키아 공화국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참여도와 인식된 역량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마카오, 벨기에, 홍콩,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참여도와 인식된 역량이 모두 낮다.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두 측정 영역의 중간 값에 모여 있다. 덴마크는 높은 참여도와 평균 정도의 역량 인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각 개별문화에 대한 국가별 응답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자료의 조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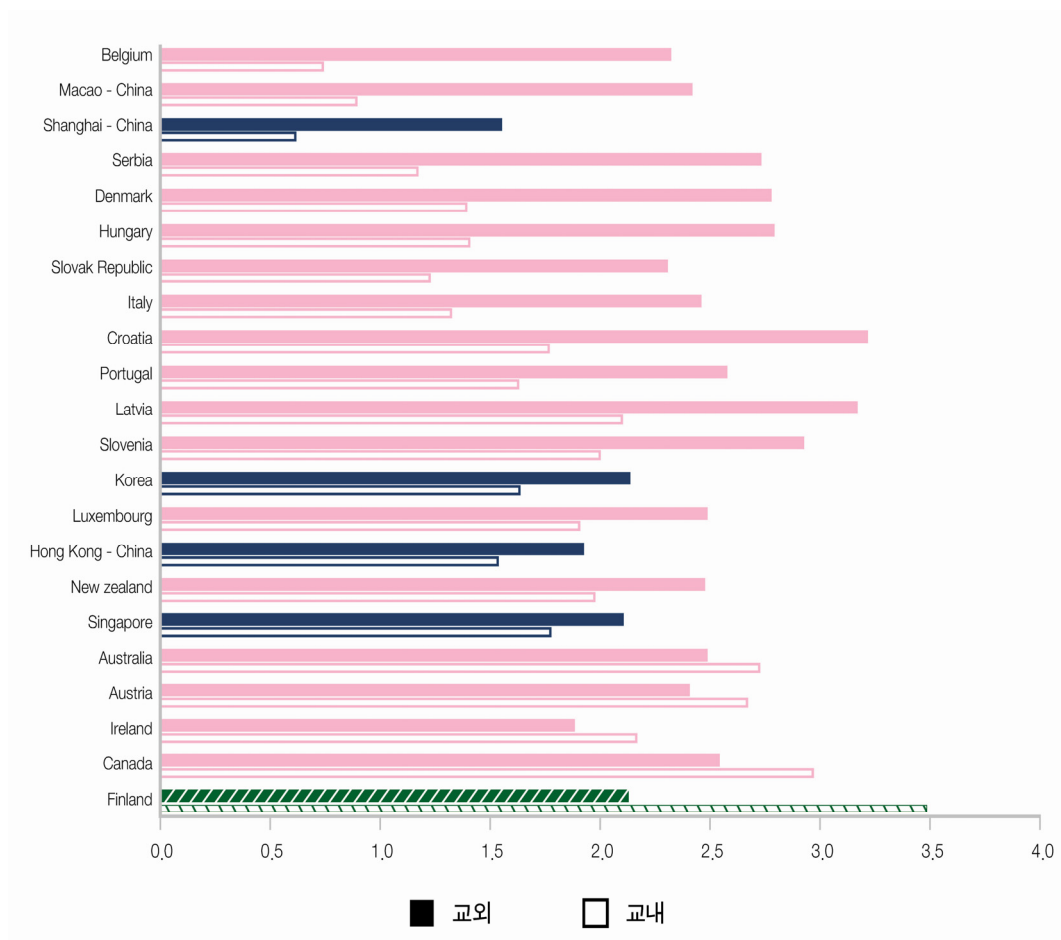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인식된 직업역량 간의 높은 연관성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진로체험활동 참여의 수준은 인식된 직업역량의 폭넓은 편차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교육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정책적인 함의도 크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핀란드는 모두 참여도가 높다. 그러나 인식된 직업역량은 핀란드가 평균 이상인데 반해 덴마크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라트비아는 참여도가 평균에 가까우나, 인식된 직업역량을 보면, 슬로바키아는 평균 이하이고, 라트비아는 평균 이상이다. 상하이와 세르비아는 둘 다 참여도가 낮으나, 역량 인식은 상하이가 매우 낮은 반면 세르비아는 평균 정도이다. 한국은 참여도는 평균이상이지만 역량인식은 평균이하이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낮고 역량인식도 낮다.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성인지,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3) 인식된 직업역량 개발 장소

직업역량의 근원이 어딘지 보면, 핀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호주는 학교가 학교 바깥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5). 특히 핀란드에서는 학교가 학교 바깥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4개국은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의 편차가 상당히 작았다. 또한 헝가리, 덴마크, 세르비아, 상하이, 마카오, 그리고 벨기에의 경우, 학교 바깥이 학교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는 진로 관련 역량의 개발에 있어 학교 바깥보다 더 작은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부 참가국의 경우,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교육 서비스가 학교 내보다는 학교 바깥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학교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점수와 학교 바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점수가 인식된

직업역량에 대한 점수와 대체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학교와의 연관성이 학교 바깥과의 연관성보다 다소 높다(학교와의 연관성은 상관 계수가 0.82인데 반해 학교 바깥의 상관 계수는 0.64). 다수의 국가에서 학교 바깥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학교 내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학교 내의 서비스가 좋은 나라에서는 역량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학교 내의 진로교육이 학교 바깥의 진로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5개국 중 4개국(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및 핀란드)은 참여와 역량 수준이 모두 높은 그룹에 해당한다는 점은 학교내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림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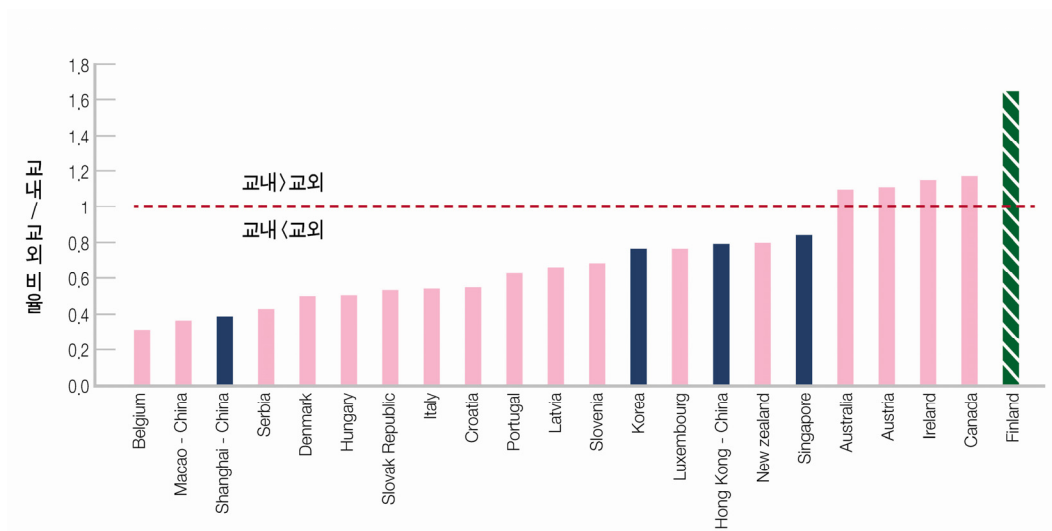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5】 직업역량의 자원으로 인식된 학교와 학교 외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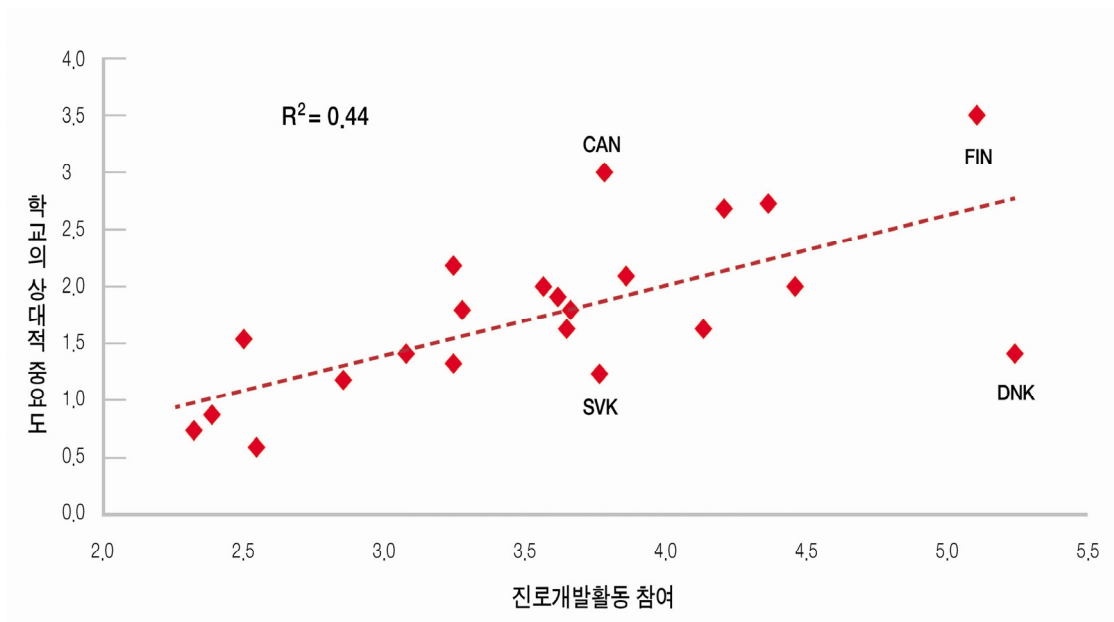
인식된 직업역량은 학교의 중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학교 내의 중요도 점수를 학교 바깥의 중요도 점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핀란드가 가장 높고 벨기에가 가장 낮다(그림 III-6).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상하이와 마카오가 가장 낮다.

진로체험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진로개발 과정에서의 학교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22개국 중 17개국의 학생들이 인식된 직업역량의 습득과 관련하여 학교보다 학교 바깥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 한편, 참가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학교 바깥 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수치(0.530)보다 학교 내의 출처의 중요성에 대한 수치(0.66)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7]은 더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캐나다와 덴마크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매우 근접하게 모여 추세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전제로, 핀란드에서 참여도가 높은 수준에서 학교는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며, 덴마크에서는 덜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전제로, 참여수준이 중간인 경우, 학교는 캐나다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덜 중요하게 평가된다.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 -6】 인식된 직업역량의 습득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교내 대 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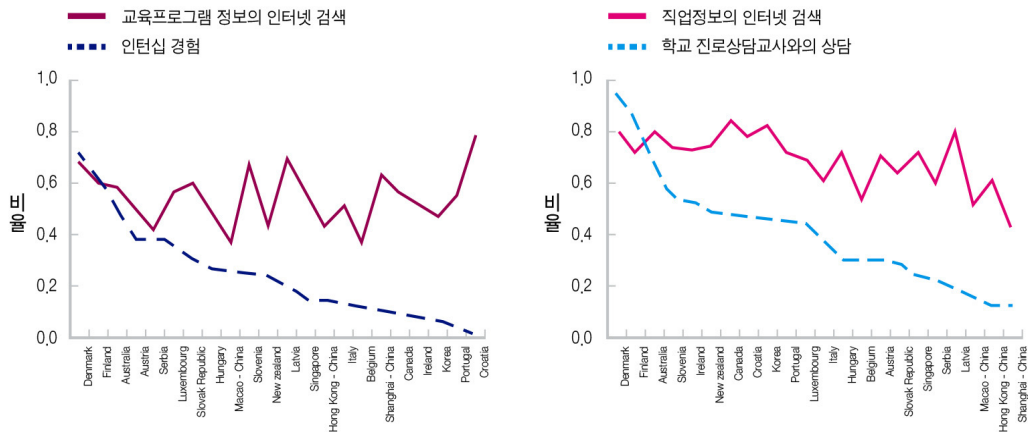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7】 진로체험활동 참여 및 인식된 직업역량의 습득에서의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4) 진로체험활동 내용별 국가 간 차이

[그림 III-4]에 나타난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직업역량에 대한 자가 평가 간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 항목별로 나타나는 국가 간의 차이는 특히 흥미롭다. [표 III-21]와 [표 III-22]의 각 항목에 대한 국가별 응답비율을 보면, 직업 및 과정의 정보에 대한 인터넷 검색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높은 비율로 참가하며, 따라서 국가 간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취업 박람회 참가, 학교 내 진로 상담원과의 상담, 인턴십(internship)과 같이 일반적으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활동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진로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인지된 역량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체험활동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I-8]은 4가지 진로체험활동 참여 항목별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체험활동(정보 검색 등)의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인턴십이나 상담교사와의 상담과 같은 활동 참여율은 낮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상담교사나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상담하는 기회는 많아졌겠지만, 인터넷 참여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다.



※ 출처: Sweet, R., et al. (2014).

[그림 III-8] 진로체험활동 참여 항목별 국가 간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시스템이 직업역량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진로체험활동 항목별 응답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로체험활동 참여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직업 관련 정보검색과 직업탐색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또한 일부 소수 청소년들은 자신들 스스로 취업 활동 능력(이력서 작성, 취업 면접 준비 등) 및 학생 대출에 대한 정보 검색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5) 국가 간 차이와 국가별 특성의 의미와 한계

[표 III-22]와 [표 III-23]은 네 가지 측정 영역이 국가별 경제지표, 사회경제지표, 국가교육제도 구조 관련 지표, 학교 자원에 관한 지표, 학교 분위기 관련 지표, 그리고 개인적 특징에 대한 지표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 -22 진로체험활동 참여 문항응답 비율

	인턴십 참여	직업체험 (jobShadowing) 및 일터 방문 참여	직업 박람회 참여	학교에서 진로상담교 사와 대화	학교밖에서 진로상담사 와 대화	흥미와 능력의 탐색을 위한 설문지작성	진로관련 정보 인터넷 활용	교육기관의 조직화 된 투어참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정보 인터넷 탐색
호주	0.49	0.30	0.52	0.66	0.16	0.62	0.80	0.27	0.58
오스트리아	0.38	0.54	0.57	0.29	0.25	0.71	0.70	0.32	0.50
벨기에	0.11	0.20	0.15	0.30	0.14	0.38	0.54	0.18	0.37
캐나다	0.09	0.34	0.40	0.48	0.12	0.77	0.83	0.21	0.56
크로아티아	0.00	0.33	0.24	0.46	0.24	0.54	0.77	0.31	0.78
덴마크	0.72	0.52	0.25	0.94	0.18	0.63	0.79	0.57	0.69
핀란드	0.64	0.43	0.38	0.84	0.08	0.70	0.71	0.74	0.60
홍콩	0.14	0.28	0.04	0.12	0.09	0.66	0.61	0.18	0.43
헝가리	0.26	0.24	0.07	0.30	0.23	0.48	0.71	0.32	0.50
아일랜드	0.07	0.39	0.11	0.52	0.11	0.63	0.72	0.17	0.53
이탈리아	0.13	0.28	0.24	0.37	0.22	0.55	0.60	0.36	0.51
한국	0.07	0.38	0.13	0.46	0.26	0.89	0.81	0.21	0.47
라트비아	0.21	0.35	0.35	0.19	0.25	0.72	0.80	0.30	0.70
룩셈부르크	0.37	0.43	0.24	0.44	0.18	0.51	0.69	0.23	0.56
마카오	0.25	0.18	0.09	0.17	0.14	0.59	0.51	0.09	0.37
뉴질랜드	0.24	0.34	0.41	0.48	0.16	0.61	0.74	0.18	0.43
포르투갈	0.05	0.46	0.33	0.45	0.46	0.75	0.72	0.37	0.55
세르비아	0.38	0.26	0.19	0.22	0.19	0.48	0.60	0.16	0.41
상하이	0.11	0.24	0.03	0.12	0.08	0.64	0.42	0.29	0.63
싱가폴	0.14	0.19	0.20	0.23	0.17	0.69	0.72	0.37	0.58
슬로바키아	0.30	0.42	0.31	0.29	0.20	0.49	0.63	0.57	0.60
슬로베니아	0.24	0.33	0.31	0.53	0.29	0.66	0.73	0.73	0.67
평균	0.25	0.34	0.25	0.40	0.19	0.62	0.69	0.32	0.55

※ 출처: Sweet, R., et al. (2014).

표 III - 23 직업역량 문항응답 비율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력서나 자격증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취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학생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호주	0.92	0.91	0.88	0.81	0.81	0.52
오스트리아	0.89	0.88	0.94	0.87	0.79	0.45
벨기에	0.81	0.6	0.44	0.34	0.56	0.3
캐나다	0.94	0.9	0.89	0.8	0.8	0.61
크로아티아	0.92	0.82	0.8	0.68	0.92	0.69
덴마크	0.93	0.8	0.35	0.5	0.85	0.41
핀란드	0.93	0.91	0.74	0.87	0.91	0.74
홍콩	0.76	0.53	0.53	0.36	0.55	0.33
헝가리	0.79	0.72	0.78	0.57	0.71	0.51
아일랜드	0.85	0.77	0.66	0.51	0.71	0.39
이탈리아	0.8	0.73	0.54	0.45	0.73	0.56
한국	0.83	0.83	0.47	0.42	0.72	0.4
라트비아	0.95	0.89	0.89	0.77	0.88	0.71
룩셈부르크	0.87	0.74	0.71	0.62	0.74	0.53
마카오	0.76	0.62	0.5	0.44	0.57	0.41
뉴질랜드	0.88	0.84	0.67	0.55	0.65	0.47
포르투갈	0.81	0.72	0.61	0.55	0.79	0.58
세르비아	0.85	0.72	0.64	0.57	0.63	0.58
상하이	0.65	0.23	0.32	0.18	0.63	0.17
싱가폴	0.83	0.68	0.51	0.52	0.74	0.46
슬로바키아	0.7	0.57	0.72	0.49	0.68	0.46
슬로베니아	0.93	0.83	0.87	0.69	0.87	0.73
평균	0.84	0.74	0.66	0.57	0.74	0.5

※ 출처: Sweet, R., et al. (2014).

표 III-24 진로 관련 척도의 국가 간 상관계수

	진로체험활동 참여	직업 역량		
		전체	교내 습득	교외 습득
국가 경제 지표				
GDP	-0.052	-0.087	0.143	-0.273
교육비	0.199	0.076	0.215	-0.110
국가 사회경제적 지표				
사회경제적 지위	0.631	0.443	0.561	0.070
취약계층 청소년 비율	-0.583	-0.428	-0.519	-0.059
부모학력	0.382	0.417	0.482	0.095
이민 여부	-0.324	-0.102	-0.019	-0.059
부모취업상태	0.404	0.117	0.284	-0.118
가족 구성	-0.089	-0.137	-0.102	-0.210
Equity(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설명되는 수학점수의 변량)	0.144	-0.052	-0.176	0.142
국가 교육제도 구조 지표				
학교 크기	-0.385	-0.403	-0.189	-0.482
지역 규모 (농산어촌~대도시)	-0.519	-0.497	-0.250	-0.536
사립학교 학생 비율	-0.484	-0.475	-0.292	-0.382
학생을 위한 학교 간 대회	-0.444	-0.389	-0.354	-0.136
학교 간 수평적 계층화(Horizontal stratification)	-0.369	-0.098	-0.363	0.189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	-0.093	0.124	-0.175	0.341
학교 자원 지표				
교사 부족	-0.280	-0.430	-0.190	-0.475
학생-교사 비율	-0.247	-0.202	0.025	-0.335
교육 자원	-0.152	-0.091	0.117	-0.289
교사 질	0.150	-0.060	0.181	-0.296
교사-학생 관계	-0.094	-0.230	-0.049	-0.262
학교 분위기 지표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자율성	-0.191	-0.311	-0.117	-0.358
학교에 대한 부모기대	0.020	-0.146	0.045	-0.281
특별교육(extracurricular) 활동	-0.353	-0.066	0.044	-0.127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	-0.296	-0.358	-0.401	-0.181
학교에 대한 소속감	0.291	0.441	0.285	0.386
훈육(Disciplinary) 분위기	-0.456	-0.562	-0.400	-0.484
학부모 참여	-0.156	-0.258	-0.353	-0.017
개인특성 지표				
PISA 수학	-0.295	-0.537	-0.148	-0.730
PISA 문제해결	-0.211	-0.348	0.048	-0.683
인내심	-0.072	0.126	0.161	-0.003
문제해결 개방성	0.143	0.271	0.125	0.290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결과	0.526	0.647	0.582	0.351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활동	0.447	0.538	0.526	0.317

※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셀은 음영으로 표시함.

※ 출처: Sweet, R., et al. (2014).

표 III-25 진로 관련 척도의 국가 내 상관계수의 평균

	진로개발활동 참여	직업 역량		
		전체	교내 습득	교외 습득
학교 관련 특성				
학교 위치	-0.01	0.00	-0.04	0.04
공립/사립	0.00	-0.02	0.00	-0.01
학생의 경쟁적 선발	0.00	0.00	-0.01	0.01
부모 기대 학력	-0.01	-0.01	-0.03	0.01
특별교육(extracurricular) 활동	-0.02	-0.02	-0.01	0.00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중요도	0.01	0.01	0.02	-0.01
교사 질	-0.03	-0.02	-0.03	0.02
학교 사회경제적 지위(SES)	-0.01	-0.03	-0.06	0.04
학교 수학 점수	-0.03	-0.06	-0.06	0.02
학교 문제해결 점수	-0.03	-0.03	-0.03	-0.03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결과	0.02	0.01	0.05	-0.03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활동	0.02	0.01	0.02	-0.01
학교에 대한 소속감	0.01	0.00	0.03	-0.01
훈육(Disciplinary) 분위기	-0.03	-0.03	-0.02	-0.02
교사-학생관계	0.04	0.03	0.06	-0.03
학교 크기	0.00	0.00	0.00	-0.01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자율성	0.01	0.00	0.01	0.02
교사 부족	0.01	0.02	0.02	0.02
학생-교사 비율	0.02	-0.01	-0.02	0.00
교육 자원	-0.01	-0.01	-0.01	-0.01
학부모 참여	0.00	-0.01	0.00	-0.01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	0.06	0.06	0.08	-0.01
교내 이민자 %	0.01	0.01	0.01	0.00
인내심 (학교 평균)	0.04	0.04	0.04	0.00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 평균)	0.03	0.02	0.00	0.04
학생 및 가족관련 특성				
수학 점수	0.01	-0.03	-0.02	0.02
문제 해결 점수	0.00	-0.02	-0.02	0.01
인내심	0.14	0.14	0.09	0.09
문제해결 개방성	0.18	0.18	0.11	0.11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결과	0.11	0.08	0.16	-0.04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활동	0.11	0.08	0.13	-0.01
사회경제적 지원(SES)	0.09	0.04	-0.01	0.08
이민 여부	0.01	0.02	0.00	0.01
부모 학력	0.06	-0.01	-0.02	0.06
가족 구성	0.01	0.00	0.02	-0.01
부모취업상태	0.03	0.01	-0.01	0.02
탄력성	-0.03	-0.03	0.00	-0.03
성별	-0.02	0.05	-0.01	0.04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0.07	0.07	0.09	-0.01

※ 출처: Sweet, R., et al. (2014).

[표 III-23]은 진로체험 활동참여의 양과 인식된 직업역량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별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납득할만한 내용도 있고, 해석이 곤란하거나 유보해야 할 내용도 있다.

첫째, 몇몇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기존에 알려진 그대로이다. 졸업후의 삶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갖게 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의 청소년일수록, 학생들은 졸업 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졸업 후의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게 된다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국가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이 적은 국가의 청소년일수록 진로체험활동참여와 인식된 직업역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

둘째, 진로관련 측정영역과 국가적 특성 그리고 다른 변수가 결합된 상관관계의 반영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상관관계는 유의미하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일부는 국가의 교육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PISA의 성취도 점수와 직업역량 습득 간에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성취도와 직업역량의 습득 간에 임의의 연관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부국가의 경우, 진로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보다 학업을 일찍 종료하고 이른 나이에 취업에 집중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훈육태도에 대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교실 내의 훈육이 강하고, 학업적 성취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교실 내 훈육과 직업적 결과가 학문적 성공에 대한 강조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직업적 선택 및 직업적 만족을 기회비용으로 하여 좋은 시험 성적을 위한 부모의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진로관련 측정영역, 국가별 특성,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목해야 할 상관관계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평균적인 크기가 작은 나라들에서 높은 참여나 높은 역량이 나타나거나 교사 인원부족이 심한 나라에서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 진로관련 측정영역과 학교의 크기, 지리적 위치 간의 현저한 역(逆)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다.

모든 상관관계를 의미있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학교 자원과 학교 분위기 지표 같은 많은 지표에서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원이 많거나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가진 국가들이 더 높은 직업역량의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도 그렇다. 국가 간의 차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각 국가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6) 종합적 논의

분명 2012년 PISA 조사의 진로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적 특성 및 학교와 학교제도의 어떤 구조적 특성이 직업역량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학교와 학교 외의 기관이 직업역량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하다. 각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주고, 직업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학교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5세 학생들이 진로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학생들이 스스로 습득된 직업 관련 역량을 인식하는 정도, 학교 안 밖에서 습득하는 진로관련역량의 정도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폭 넓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측정값의 국가별 편차가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어려운 가정환경의 학생비율도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졸업 후의 삶의 연관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국가 내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진로체험활동참여와 직업역량 수준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리한 조건이 적을수록,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미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수록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역동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상관관계만으로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은 진로체험활동참여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는 더 많은 참여가 긍정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점수 모두 상위인 그룹이 중간그룹 보다 진로개발 측정영역에서 점수가 더 높고, 중간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점수가 더 높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간그룹이 상위 및 하위그룹보다 점수가 높은 일관성 없는 패턴도 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2)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비교

이 절에서는 PISA 2012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간의 비교에서 유럽국가인 핀란드를 포함시킨 것은 첫째, 서구국가와의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서이다. 둘째, 스위트 등(Sweet et al, 2014)이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핀란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만한 비교대상국으로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를 포함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폴은 PISA 조사결과 학업성취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도 비교하는데 강점이 될 수 있다.

(1) 분석 방법

① 분석대상 및 변수설명

가.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학생들의 PISA 2012 진로관련 조사결과이다. 각국의 표집 학생 수는 핀란드 8,829명, 한국 5,033명, 홍콩 4,670명, 상하이 5,177명, 그리고 싱가포르 5,546명이다. PISA의 최종 학생 가중치 변수(w_fstuwt)¹⁹⁾를 사용한 결과, 모집단 학생 수는 핀란드 60,047명, 한국 603,632명, 홍콩 70,636명, 상하이 84,965명, 싱가포르 51,088명으로 산출되었다(표 III-26).

19) PISA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할 경우에는, 각 국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즉, 실제 평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결측값을 고려함으로써 최종 모집단 수를 산출해야 한다(OECD, 2009, pp. 36~39; 구자옥 외, 2015, p. 77).

표 III-26 표본의 설명(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구분	표집 학생 수			모집단 학생 수 (가중치 부여)
	남자	여자	전체	
핀란드	4,459	4,370	8,829	60,047
한국	2,691	2,342	5,033	603,632
홍콩	2,509	2,161	4,670	70,636
상하이	2,540	2,637	5,177	84,965
싱가폴	2,794	2,752	5,546	51,088

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직업역량(인식된 직업역량)이며, 독립변수로는 성별, 사회경제문화 지위 등 인구학적 변인과 진로체험활동 참여 정도 그리고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간의 관계 등이다.

분석에 사용된 사회경제문화 지위,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생-교사 간의 관계, 진로체험활동 참여, 직업역량 변수는 각각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한 지표로 설정되며, 이 지표는 OECD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하는 IRT²⁰⁾ 척도점수이다(OECD, 2014: 314; 구자옥 외, 2015: 72). 각 지표의 부호는 OECD 평균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표의 부호가 양수이면 해당 요인의 특성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이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송미영 외, 2014: 163; 구자옥, 2015: 72).

다음은 변인에 대한 설명이다.

- 성별

성별은 남학생이 0, 여학생이 1인 이분변인의 형태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0) IRT(Item Response Theory, 문항반응이론)는 잠재변수가 단일치 연속선상에서 정의되고, 이 연속선상에 피험자의 위치와 문항의 위치 간 차이를 확률적으로 설명한 이론으로, 개인의 측정된 반응과 측정된 구인을 반영하는 문항 간 잠재변수 내 위치관계를 확률로 표현한 모형이다(윤지영, 이윤선, 2016).

- 사회경제문화 지위(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ESCS)

사회경제문화 지위(ESCS) 변인은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보유 자산 변수를 표준화(OECD 평균 0, 표준편차 1)하여 하나의 복합지표로 산출된 것이다.

- 방과후 공부시간

방과후 공부시간은 학생들이 숙제, 과외, 사설학원 등(ST57Q01~ST57Q06)에 할애하는 시간이 1주일에 평균 몇 시간인지 물어보는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값으로, 항목별로 응답한 시간을 모두 더한 변수(OUTHOURS)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수학점수

수학점수는 유사변수(plausible variables)로 설정된 5개 변수(PV1MATH, PV2MATH, PV3MATH, PV4MATH, PV5MATH)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문제해결 개방성

문제해결 개방성은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는 변수로 하위 5개 문항(ST94Q05, ST94Q06, ST94Q09, ST94Q10, ST94Q14)으로 구성된다. ‘나와 매우 많이 비슷하다’, ‘나와 많이 비슷하다’, ‘나와 조금 비슷하다’, ‘나와 별로 비슷하지 않다’,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의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OECD 평균0, 표준편차1)하여 산출된 값(OPENPS)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측정한 문항으로, 하위 9개 문항(ST87Q01~ST86Q09)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문항 중 ST87Q01, ST87Q04 그리고 ST87Q06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OECD 평균0, 표준편차1)하여 산출된 값(BELONG)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교사-학생 관계

교사-학생 관계는 학생의 수행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학생들이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하위 5개 문항(ST86Q01~ST86Q05)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항목은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OECD 평균0, 표준편차1)하여 산출된 값(STUDREL)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개 문항 모두 역코딩되었다.

- 진로체험활동 참여

진로체험활동참여는 진로개발 활동(EC03Q01~EC03Q09)을 9가지 하위 문항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예’, ‘아니오(No, Never)’로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응답값을 표준화(OECD 평균0, 표준편차1)하여 산출된 값(INFOCAR)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직업역량

직업역량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는지 등 하위 6가지 문항들에 대해 ‘예, 학교에서’, ‘예, 학교 밖에서’, ‘아니오(No, Never)’의 3가지 범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PISA 국제본부에서 산출하여 제공한 표준화된 값(INFOJOB1, INFOJOB2)을 사용하였다. INFOJOB1은 기존 변수에서 ‘예, 학교에서’ 응답값을 1로, ‘아니오’ 응답값을 0으로 재코딩한 후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이며, INFOJOB2은 ‘예, 학교밖에서’ 응답값을 1로, ‘아니오’ 응답값을 0으로 재코딩한 후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역량 변수로 INFOJOB1과 INFOJOB2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III-27>과 같다.

해당 변수	변수명	문항번호	설문 문항
성별	-	ST04Q01	Q.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사회경제문화 지위	ESCS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HISEI), 부모의 교육 수준 지표(PARED), 가정의 보유자산 지표(HOMEPOS)로 구성
방과 후 공부시간	OUTHOURS	ST57Q01	Q.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생각해 볼 때, 다음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말 시간 포함) 1) 선생님이 내준 숙제 또는 과제물 2) 학교 또는 다른 곳에서 '1)' 에 사용한 시간 중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함께 숙제를 한 시간 3) 개인 과외 교사와 함께 공부(유료/무료과외 수업 모두 포함) 4) 사설 학원 수업 참여(부모님이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5)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공부 6) 컴퓨터로 학교 수업 내용을 복습 및 연습 (예: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단어학습)
		ST57Q02	
		ST57Q03	
		ST57Q04	
		ST57Q05	
		ST57Q06	
수학점수	PV1MATH	-	* 수학소양에 대한 5개 유사변수(plausible variables)
	PV2MATH		
	PV3MATH		
	PV4MATH		
	PV5MATH		
문제해결 개방성	OPENPS	ST94Q05	Q. 다음 각 내용은 본인을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나와 매우 많이 비슷하다/나와 많이 비슷하다/나와 조금 비슷하다/나와 비슷하지 않다/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1) 나는 많은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다. 2) 나는 빨리 이해한다. 3) 나는 사물, 상황, 사건 등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찾는다. 4) 나는 사실들을 쉽게 연관 짓는다. 5) 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ST94Q06	
		ST94Q09	
		ST94Q10	
		ST94Q14	

해당 변수	변수명	문항번호	설문 문항
학교에 대한 소속감	BELONG	ST87Q01	Q. 여러분의 학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음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교에서 외톨이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2) 나는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3) 나는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 4) 학교에 있으면 어색한 느낌이 들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5) 다른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6) 학교에 있으면 외롭다. 7) 학교에 있으면 행복하다. 8) 우리 학교는 이상적이다. 9) 나는 우리 학교에 만족한다.
		ST87Q02	
		ST87Q03	
		ST87Q04	
		ST87Q05	
		ST87Q06	
		ST87Q07	
		ST87Q08	
		ST87Q09	
교사-학생 간의 관계	STUDREL	ST86Q01	Q.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음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2)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지내는지에 관심이 많으신 편이다. 3)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신다. 4) 내가 추가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선생님들은 도와 주실 것이다. 5)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하신다.
		ST86Q02	
		ST86Q03	
		ST86Q04	
		ST86Q05	
진로체험 활동 참여	INFOCAR	EC03Q01	Q. 다음 중 장래의 학업 또는 직업의 유형(types of work)을 알기 위해 다음의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1) 나는 인턴십에 참여하였다. 2) 나는 직업체험(job Shadowing)이나 일터 방문에 참여하였다. 3) 나는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였다. 4) 나는 학교에서 진로상담교사와 대화하였다. 5) 나는 학교 밖에서 진로상담사와 대화하였다.
		EC03Q02	
		EC03Q03	
		EC03Q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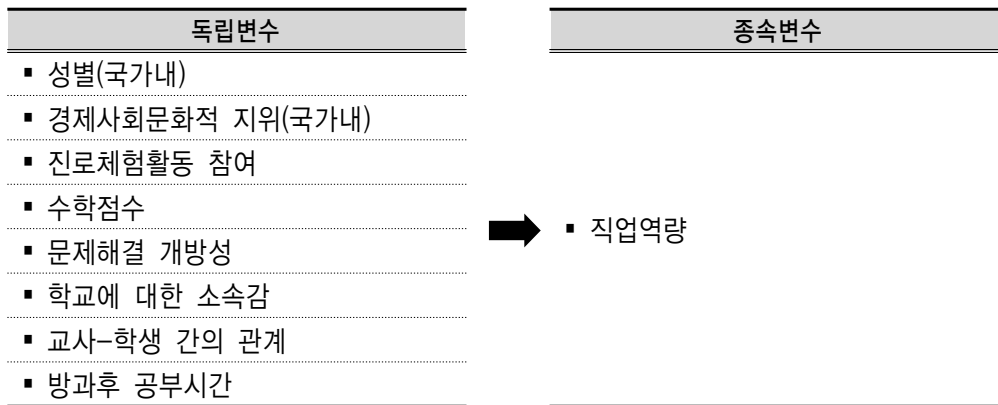
해당 변수	변수명	문항번호	설문 문항
직업역량 습득 경로		EC03Q05	6) 나는 흥미와 능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7) 나는 진로 관련 정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8) 나는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 3-5(후기 중등교육 단계 이상) 교육기관의 조직화된 투어에 참여하였다. ²¹⁾ 9) 나는 ISCED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하였다.
		EC03Q06	
		EC03Q07	
		EC03Q08	
		EC03Q09	
	INFOJOB1	EC04Q01at	Q. 다음과 같은 기술 중 어느 것을 습득하였습니까? (예, 교내에서 습득/예, 교외에서 습득/ 아니오, 전혀 습득하지 않음)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2)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3) 나의 이력서나 자격증 요약본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4) 취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5) 내가 관심 있는 ISCED 3-5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6) 학생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EC04Q02at	
		EC04Q03at	
		EC04Q04at	
		EC04Q05at	
		EC04Q06at	
	INFOJOB2	EC04Q01out	
		EC04Q02out	
		EC04Q03out	
		EC04Q04out	
		EC04Q05out	
		EC04Q06out	

* 출처: OECD (2014), PISA 2012 Technical report;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PISA 2012 본검사 시행 보고서에서 재구성.

21) 학생들에게 진학 정보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조직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함(이지연, 2015: 241).

② 분석틀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직업역량과의 관계에서 각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 참여 이외에 직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예측변수로 성별,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들과 직업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성별과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는 국가 내 비교에서만 예측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III-9】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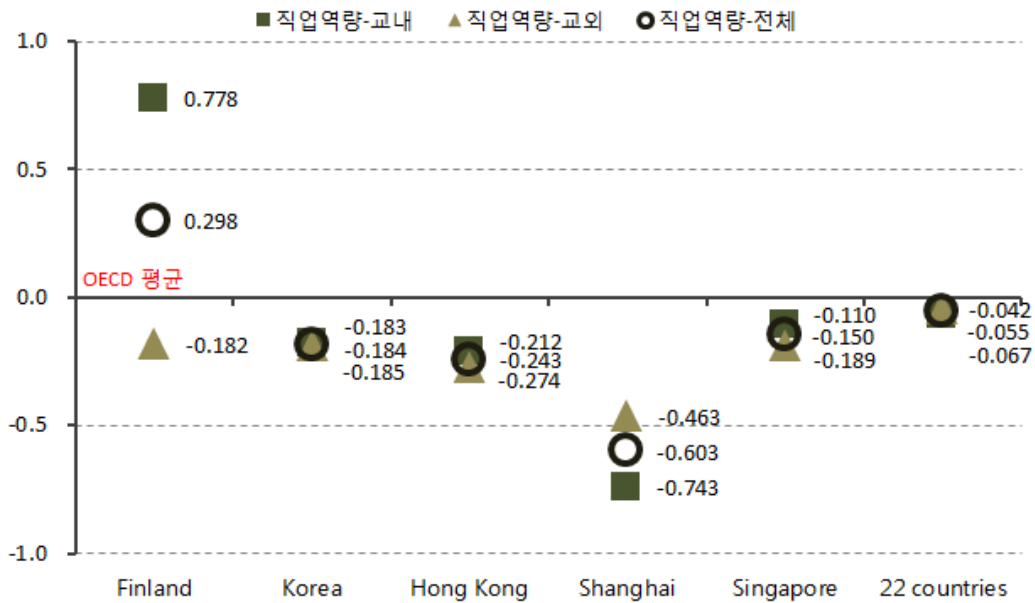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가. 국가 간 비교 기초분석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III-28>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I-10]이다. [그림 III-10]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지역들은 핀란드와 달리 학교와 학교 밖에서 각각 습득한 것으로 인식된 직업역량 값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핀란드는 학교 밖 진로체험을 통해 습득한 직업역량은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인식된 직업역량 점수와 직업역량 전체의 값은 아시아 국가/지역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아시아 국가/지역들 중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수준은 비슷한 반면, 상하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III-28 직업역량의 국가 간 평균 비교

구분		직업역량-교내	직업역량-교외	직업역량-전체
핀란드	평균	0.778	-0.182	0.298
	표준편차	1.067	1.033	1.050
한국	평균	-0.183	-0.185	-0.184
	표준편차	0.951	1.078	1.014
홍콩	평균	-0.212	-0.274	-0.243
	표준편차	0.832	0.891	0.862
상하이	평균	-0.743	-0.463	-0.603
	표준편차	0.658	0.826	0.742
싱가폴	평균	-0.110	-0.189	-0.150
	표준편차	0.998	1.029	1.014
22개국 ²²⁾ 전체	평균	-0.067	-0.042	-0.055
	표준편차	0.994	1.001	0.998



【그림 III-10】 직업역량(전체/교내/교외) 평균

22) 진로개발활동 참여 및 직업역량 문항은 PISA 설문조사 도구 중 교육 경력 설문(Educational Career Questionnaire)에 포함된 문항으로, 교육 경력 설문조사는 국제 선택사항임. PISA 2012 교육 경력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가는 총 22개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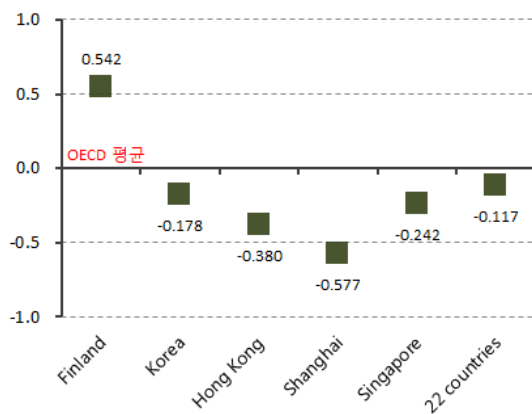
성별과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제외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III-29>과 같으며, [그림 III-11]은 독립변수별로 국가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핀란드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다.²³⁾ 방과후 공부시간과 수학점수에 있어서 만큼은 아시아 국가들이 핀란드보다 높다.²⁴⁾ 그런데 5개국을 비교해보면, 문제해결개방성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핀란드, 한국, 홍콩이 OECD평균보다 낮으며, 상하이와 싱가포르의 OECD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교사-학생관계가 OECD평균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표 III-29 독립변수 별 국가 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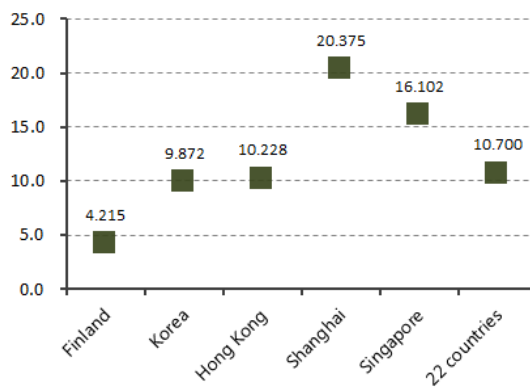
구분		진로체험 활동참여	방과 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핀란드	평균	0.542	4.215	518.750	-0.106	-0.032	0.026
	표준편차	0.913	4.078	82.389	0.979	0.855	0.881
한국	평균	-0.178	9.872	553.767	-0.371	-0.131	-0.035
	표준편차	0.853	8.410	96.299	0.852	0.851	0.925
홍콩	평균	-0.380	10.228	561.241	-0.251	-0.135	0.067
	표준편차	0.807	8.836	93.366	0.937	0.785	0.834
상하이	평균	-0.577	20.375	612.676	0.066	0.191	0.625
	표준편차	0.882	13.224	97.792	0.990	0.827	0.940
싱가포르	평균	-0.242	16.102	573.468	0.009	0.031	0.274
	표준편차	0.955	11.413	102.670	0.875	0.868	0.874
22개국 전체	평균	-0.117	10.700	515.930	-0.093	-0.040	0.038
	표준편차	0.943	9.866	98.166	0.952	0.916	0.957

23) 최근 한국에서의 진로교육정책의 확산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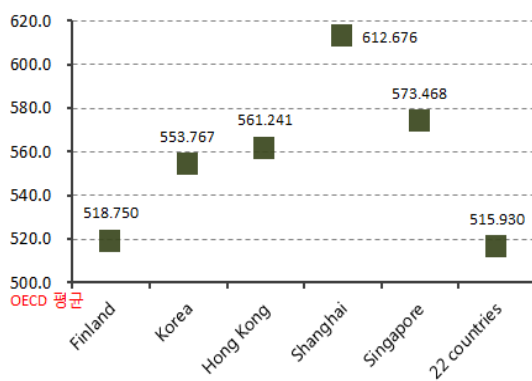
24) 핀란드는 방과후 공부시간을 줄이고 학교수업에 충실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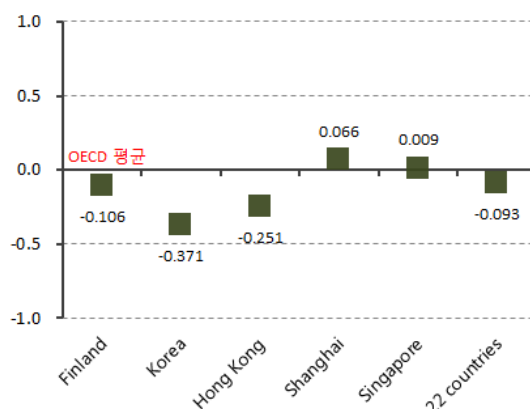
진로체험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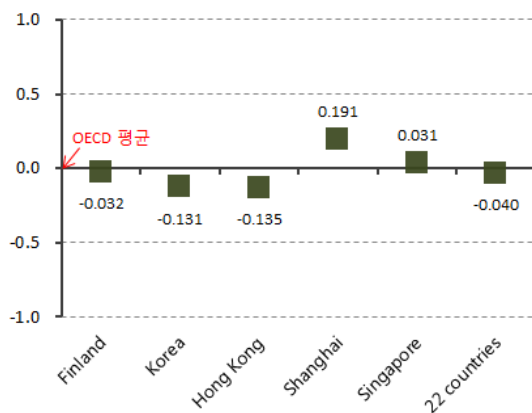
방과 후 공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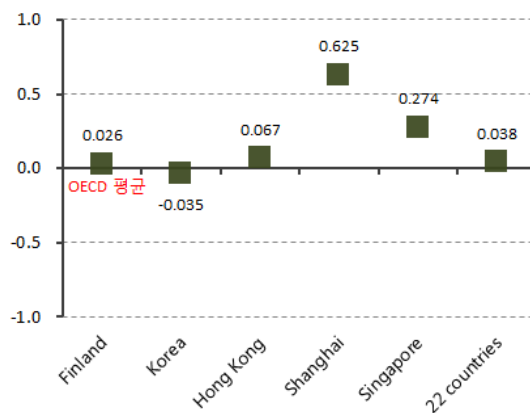
수학점수



문제해결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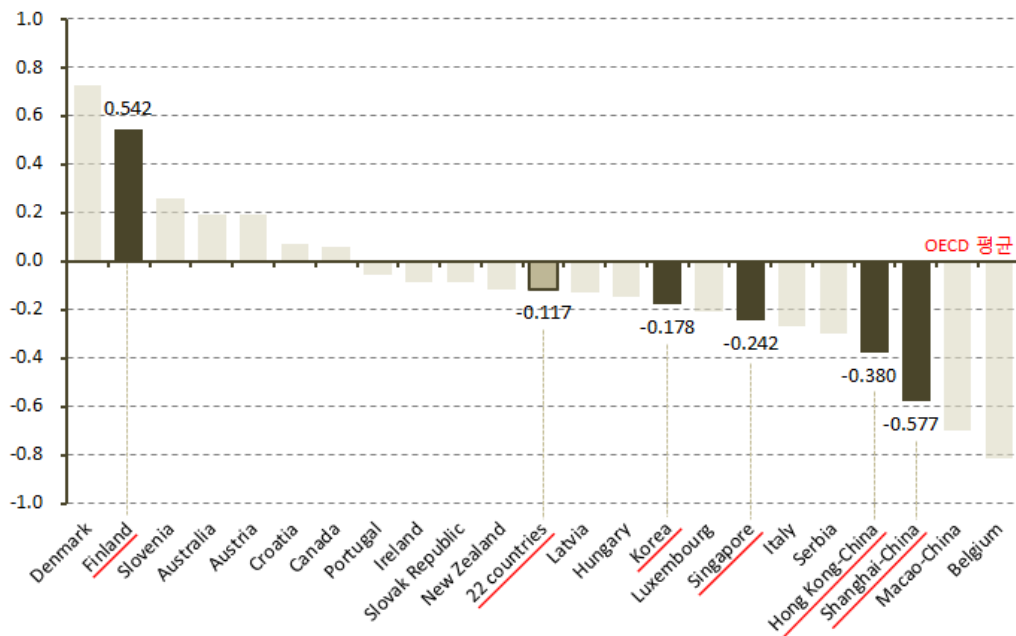


교사-학생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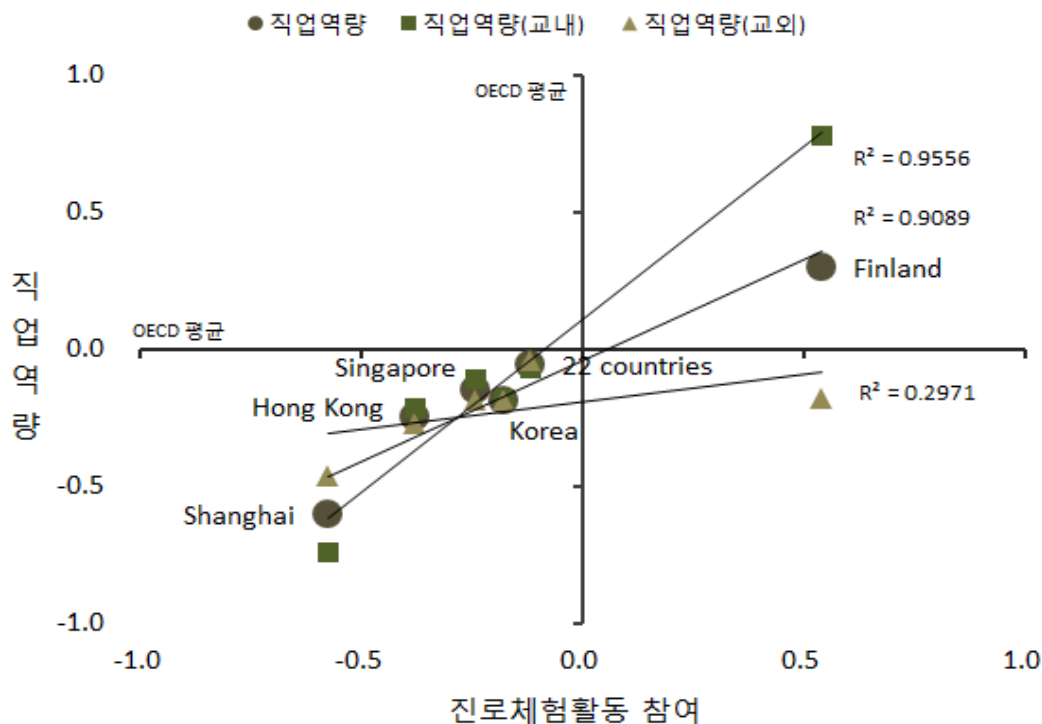
【그림 III-11】 독립변수 별 국가 간 평균 비교

나. 진로체험활동과 직업역량의 관계: 국가 간 비교

[그림 III-12]는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22개국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평균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III-29>과 [그림 III-11]에 나타나듯이 한국,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은 OECD 평균과 22개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는 덴마크를 포함하여 최상위 그룹이다. 이미 스위트 등(Sweet et al., 2014) 등이 제시한 [그림 III-8](진로체험활동 내용별 국가 간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체험활동은 질적인 면에서 다른 비교대상국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의 정도는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림 III-13]은 진로체험활동참여와 직업역량간의 회귀분석결과이다. 이 결과도 스위트 등(Sweet et al., 2014) 등이 제시한 22개국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직업역량 인식간의 관계(그림 III-4)에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를 포함한 5개국 비교에서도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직업역량 인식 간에는 정적인 선형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교내활동과 관련해서 더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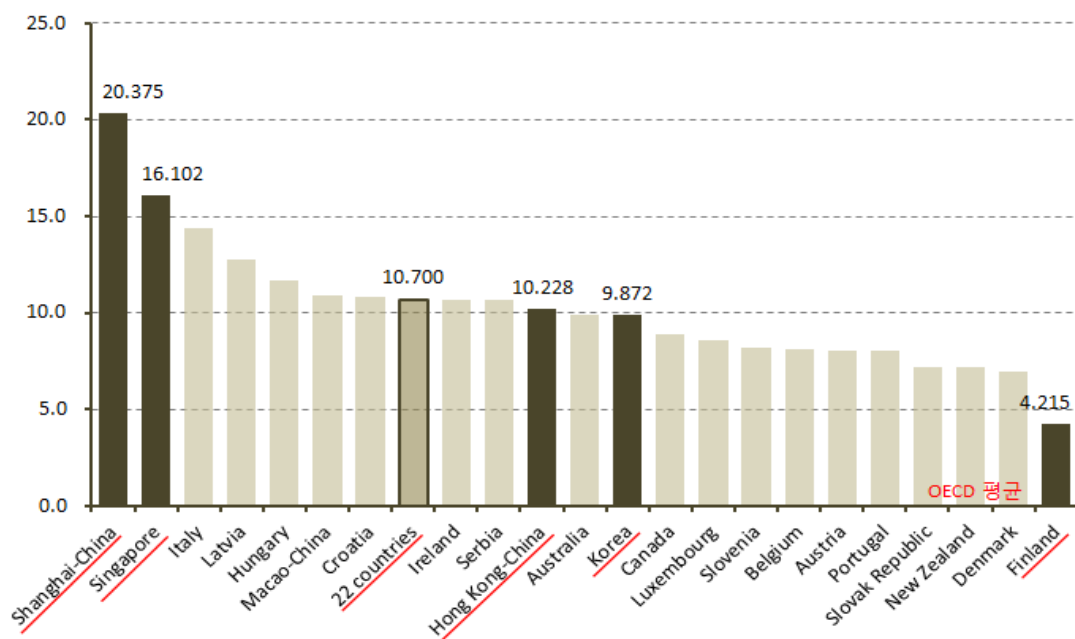
【그림 III-12】 진로체험활동 참여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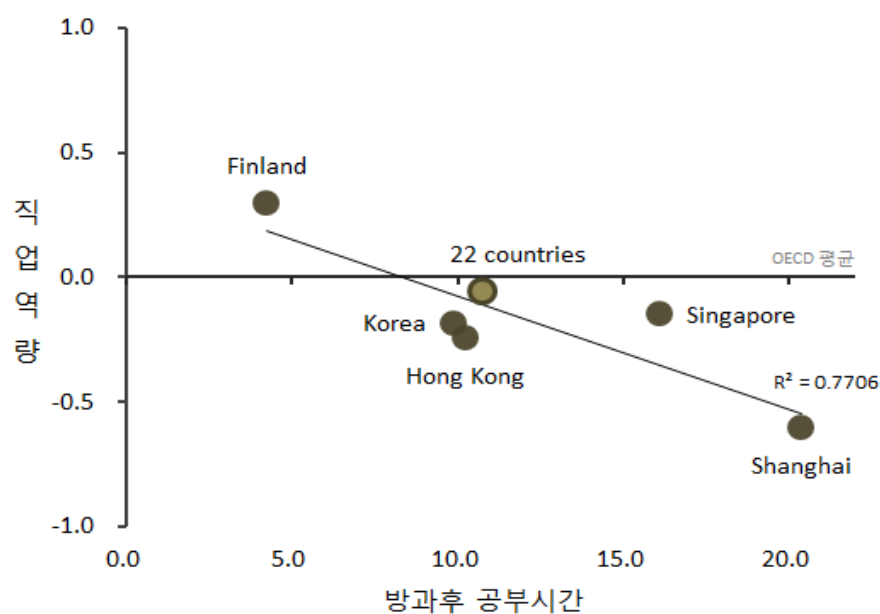
【그림 III-13】 진로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역량(전체/교내/교외)

다. 방과후 공부시간과 직업역량의 관계: 국가 간 비교

[그림 III-14]는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22개국의 방과후 공부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상하이와 싱가폴은 방과후 공부시간이 가장 길고, 홍콩과 한국은 중간그룹이지만, 22개국 평균보다는 낮다. 반면 핀란드는 방과후 공부시간이 가장 짧다. 방과후 시간과 직업역량간의 회귀분석결과(그림 III-15)를 보면, 방과후 공부시간과 직업역량 간에는 부적인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싱가폴은 다른 나라와 달리 방과후 공부시간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직업역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방과후 공부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업역량은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서 학업에 대한 압박이 많을수록 직업역량을 습득할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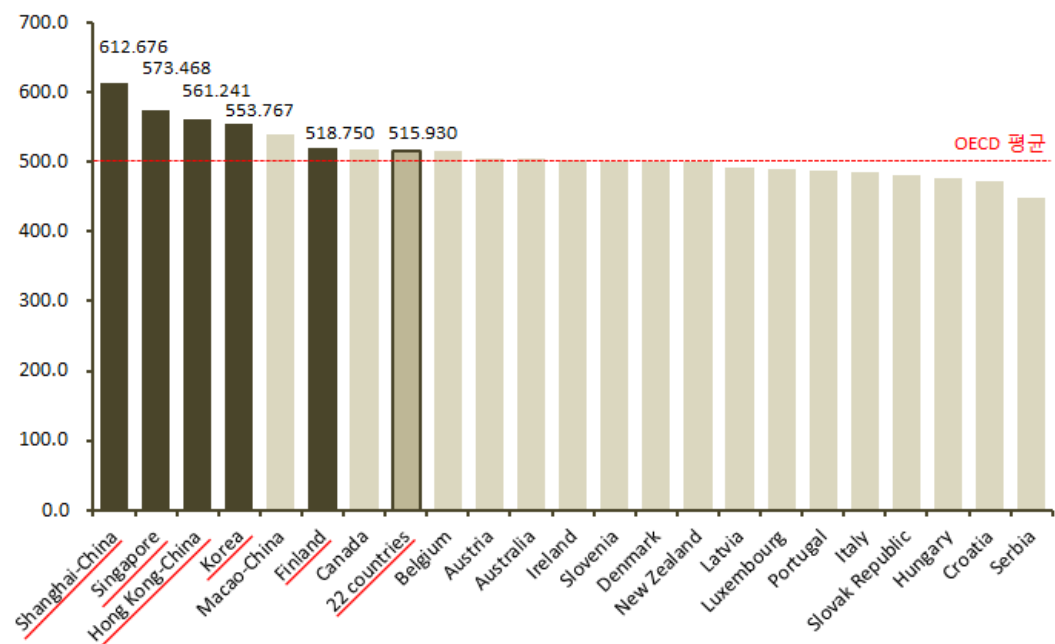
【그림 III-14】 방과후 공부시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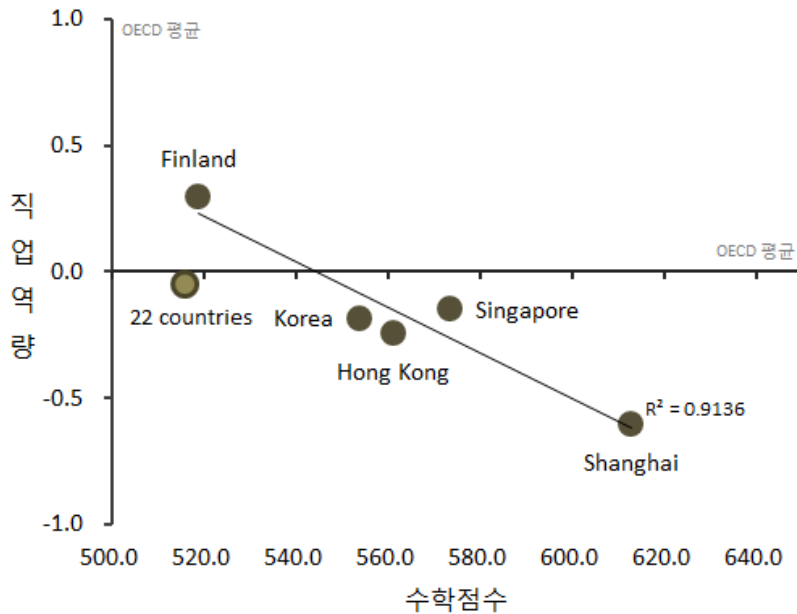
【그림 III-15】 방과후 공부시간에 따른 직업역량

라. 수학점수와 직업역량의 관계: 국가 간 비교

[그림 III-16]는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22개국의 수학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모두 22개국 평균과 OECD평균을 넘으며, 모두 수학점수는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따라서 수학점수와 직업역량간의 회귀분석결과(그림 III-17)는 수학점수 최상위 그룹 안에서 비교이기는 하지만, 수학점수와 직업역량 간에는 부적인 선형관계가 나타난다. 즉, 수학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업역량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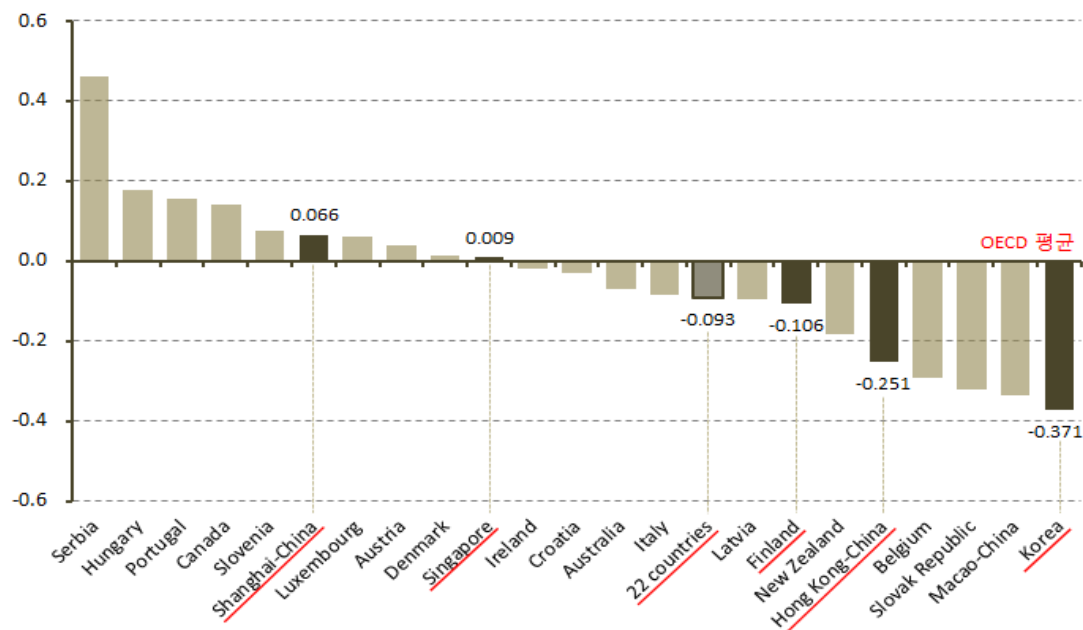
【그림 III-16】 수학점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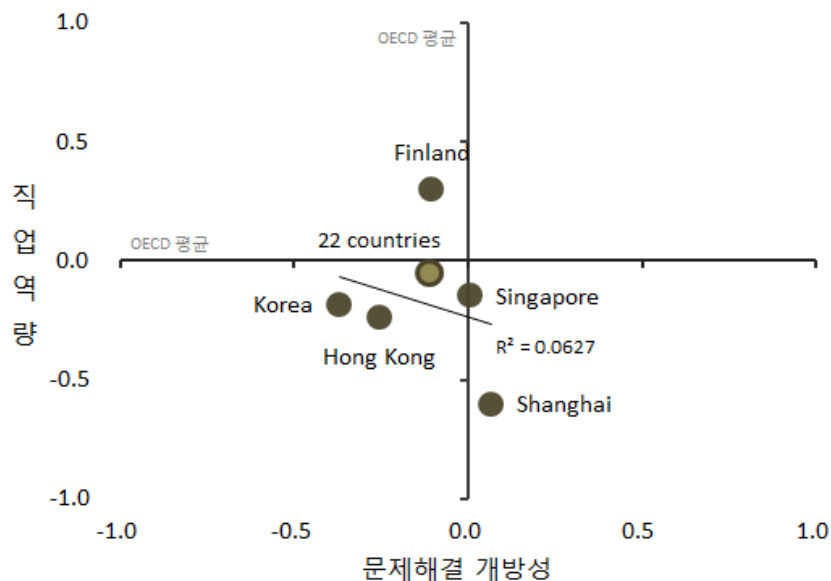
【그림 III-17】 수학평균점수에 따른 진로개발활동 참여

마. 문제해결 개방성과 직업역량의 관계: 국가 간 비교

[그림 III-18]은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22개국의 문제해결 개방성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상하이와 싱가포르가 22개국 평균과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핀란드, 한국, 홍콩은 22개국 평균과 OECD평균보다 낮다. 문제해결 개방성의 국가 간 차이는 다른 변수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문제해결 개방성과 직업역량간의 회귀분석결과(그림 III-19)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해결 개방성과 직업역량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장에서 다룬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을 비추어 보건대 진로의사결정 합리성 등 과 관련이 있을 법한 문제해결 개방성이 직업역량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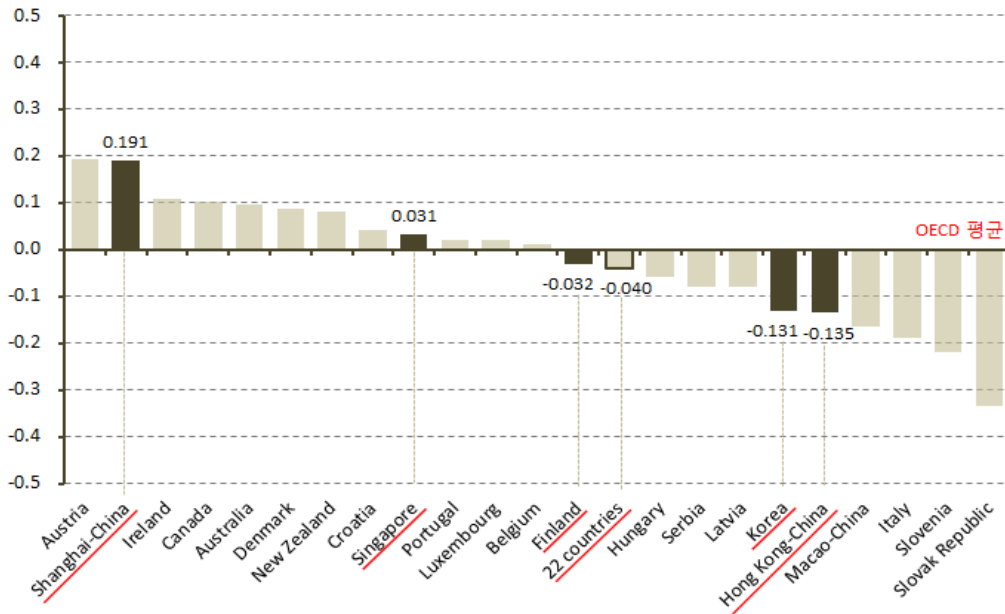
【그림 Ⅲ-18】 문제해결 개방성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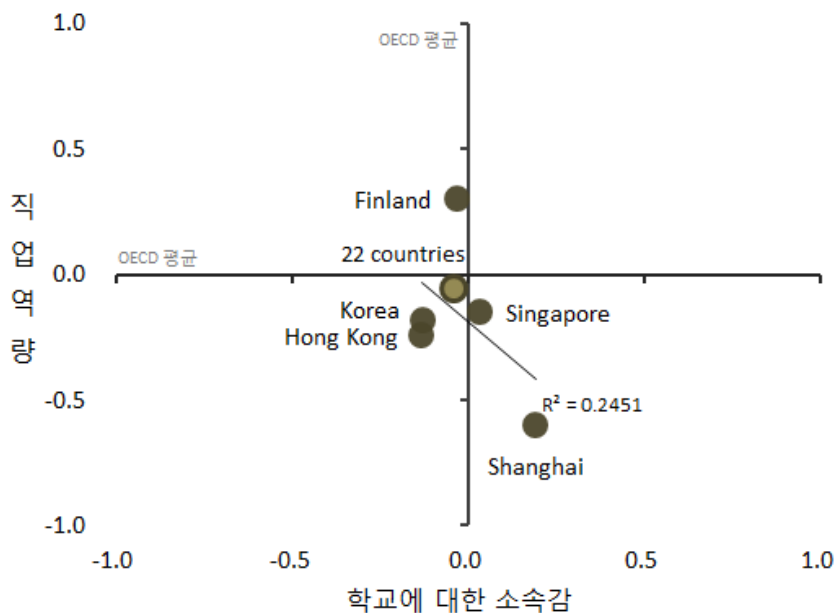
【그림 Ⅲ-19】 문제해결력에 대한 개방성에 따른 직업역량

바.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직업역량의 관계: 국가 간 비교

[그림 III-20]은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22개국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비교한 것이다. 상하이와 싱가포르가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핀란드, 한국, 홍콩은 OECD평균보다 낮아 문제해결 개방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직업역량간의 회귀분석결과(그림 III-21), 문제해결 개방성과 직업역량 간에도 뚜렷한 선형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핀란드가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나 학교 내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핀란드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점수가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일단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직업역량은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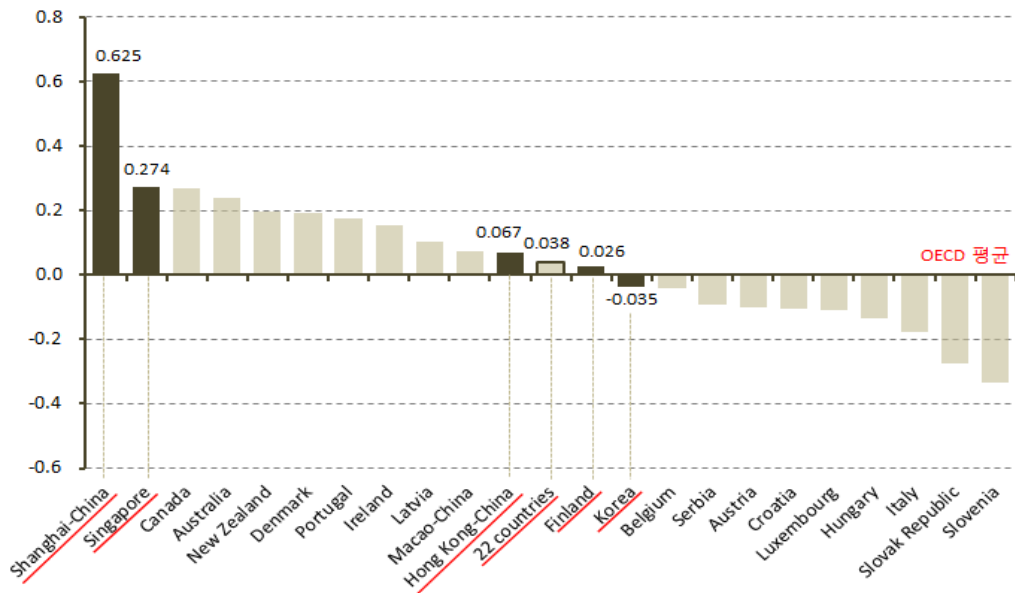
【그림 III-20】 학교에 대한 소속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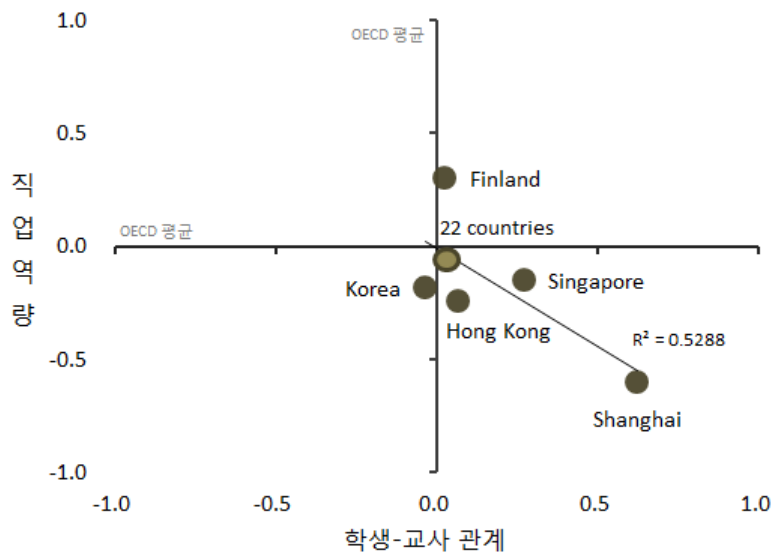
【그림 III -21】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사. 교사-학생관계와 직업역량의 관계: 국가 간 비교

[그림 III-22]는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22개국의 교사-학생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만이 OECD평균보다 낮고, 나머지 국가들은 OECD평균보다 높지만, 경향성은 문제해결 개방성이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유사하다. 교사-학생관계와 직업역량간의 회귀분석 결과 아시아 국가/지역들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부적인 관계로 교사-학생 관계가 나쁠수록 직업역량은 높아진다.



【그림 III-22】 학생-교사 관계 평균



【그림 III-23】 학생-교사 관계에 따른 직업역량

아. 국가 간 비교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국가 내 비교

[그림 III-13]에서 직업역량은 진로체험활동참여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교내의 진로체험 활동이 직업역량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만, [그림 III-13]은 5개 국가에 한정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로 핀란드가 특이한 점수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직업역량과 진로체험활동참여수준의 관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방과후 공부시간과 수학점수는 직업역량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그림 III-15, 그림 III-17), 문제해결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생-교사관계는 직업역량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지만(그림 III-19, 그림 III-21, 그림 III-23), [그림 III-13]에서 핀란드의 높은 직업역량이 양적 상관을 과장하였듯이, 상하이의 낮은 값이 강한 부적인 상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5개 국가 평균을 이용한 직업역량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 소속감, 교사-학생관계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직업역량(특히 학교 내 활동을 통한 역량)의 국가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가 국제비교, 특히 아시아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5개 국가에 제한된 분석이라는 점과 진로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이 각 국가 내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국가 수준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국가 내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27>에서 모든 독립변수(성별 제외)는 직업역량(종속변수)과 양의 상관을 갖는다. 다만, 상하이는 학교소속감과 교사-학생 간의 관계 점수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표 III-28>에 제시된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상하이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양의 회귀계수 값으로 나타난다.

<표 III-27>로부터 각 독립변수와 직업역량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자. 사회경제문화 지위와의 관계는 상하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 $r=.166$ 으로 가장 높았다. 방과후 공부시간 역시 모든 국가에서 양의 상관을 보이며, 한국이 $r=.163$ 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수학점수에 있어서는 모두 양의 상관을 보이지만, 핀란드와 한국이 각각 $r=.178$ 과 $r=.153$ 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문제해결 개방성은 국가 간 비교에서와 달리 국가 내 비교에서는 직업역량과 양의 상관($r=.150$ 이상)이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교사-학생 간의 관계는 모든 나라에서 양의 상관을 보인다.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국가 내 비교에서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직업역량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350$ 이상). 다른 변수들에 경우에는 국가 간 분석결과와 국가 내 분석결과가 대조적이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개방성, 학교 소속감, 교사-학생관계가 직업역량과 부적 관계를 보였지만, 국가 내 분석에서는 양의 상관과 양의 회귀계수로 나타난다. 자료의 수준(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 따라서 상호배치되는 통계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석단위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지만, 각 국가별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환경요인이 매우 다른 것을 감안하면, 국가 내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즉,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진로체험과 직업역량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내 분석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진로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5개 국가/지역의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진로체험활동과 직업역량 간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표 III-30 국가별 상관관계 분석

핀 란 드	경제사회 문화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 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진로개발 활동참여	직업 역량
더미성별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1							
방과후 공부시간	.061	1						
수학점수	.317	-.114	1					
문제해결 개방성	.256	.067	.504	1				
학교에 대한 소속감	.104	.045	.171	.074	1			
교사-학생관계	.087	.064	.199	.128	.760	1		
진로개발활동 참여	.104	.074	.148	.158	.052	.067	1	
직업역량	.093	.022	.178	.154	.068	.076	.358	1
한 국	경제사회 문화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 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진로개발 활동참여	직업 역량
더미성별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1							
방과후 공부시간	.328	1						
수학점수	.327	.299	1					
문제해결 개방성	.259	.255	.425	1				
학교에 대한 소속감	.054	.094	.151	.146	1			
교사-학생관계	.029	.041	.145	.132	.687	1		
진로개발활동 참여	.218	.233	.190	.275	.096	.097	1	
직업역량	.166	.163	.153	.267	.066	.078	.424	1
홍 콩	경제사회 문화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 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진로개발 활동참여	직업 역량
더미성별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1							
방과후 공부시간	.189	1						
수학점수	.283	.218	1					
문제해결 개방성	.198	.048	.294	1				
학교에 대한 소속감	.077	.079	.168	.083	1			
교사-학생관계	.028	.077	.145	.080	.729	1		
진로개발활동 참여	.156	.163	.106	.161	.062	.069	1	
직업역량	.131	.130	.057	.170	.076	.060	.499	1

상 하 이	경제사회 문화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 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진로개발 활동참여	직업 역량
더미성별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1							
방과후 공부시간	.212	1						
수학점수	.401	.282	1					
문제해결 개방성	.269	.130	.301	1				
학교에 대한 소속감	.076	.084	.149	.110	1			
교사-학생관계	.128	.142	.242	.109	.719	1		
진로개발활동 참여	.175	.041	.009	.252	.012	.026	1	
직업역량	.141	.011	.004	.243	-.010	-.015	.489	1
싱 가 폴	경제사회 문화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 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진로개발 활동참여	직업 역량
더미성별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1							
방과후 공부시간	.183	1						
수학점수	.390	.227	1					
문제해결 개방성	.207	.076	.212	1				
학교에 대한 소속감	.108	.056	.218	.079	1			
교사-학생관계	.102	.063	.238	.074	.779	1		
진로개발활동 참여	.096	.093	-.023	.194	.013	.020	1	
직업역량	.065	.066	.015	.180	.023	.013	.420	1

* 변인 간 상관계수는 모두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III -31 직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폴	
		β	t	β	t	β	t	β	t	β	t
직업 역량	더미성별 (남자0,여자1)	0.087	21.197 ***	0.013	10.161 ***	0.060	15.692 ***	-0.002	-0.442 ***	-0.051	-11.471 ***
	경제사회 문화적 지위	0.093	22.615 ***	0.166	130.984 ***	0.131	34.353 ***	0.141	41.426 ***	0.065	14.615 ***
	방과후 공부시간	0.022	4.386 ***	0.163	104.162 ***	0.130	27.827 ***	0.011	2.696 **	0.066	12.185 ***
	수학점수	0.178	43.950 ***	0.153	120.161 ***	0.057	14.930 ***	0.004	1.047 ***	0.015	3.496 ***
	문제해결 개방성	0.154	30.793 ***	0.267	175.801 ***	0.170	36.679 ***	0.243	59.518 ***	0.180	33.711 ***
	학교에 대한 소속감	0.068	13.315	0.066	41.506 ***	0.076	16.029 ***	-0.010	-2.476 ***	0.023	4.239 ***
	교사-학생 관계	0.076	14.963 ***	0.078	49.409 ***	0.060	12.644 ***	-0.015	-3.610 ***	0.013	2.451 ***
	진로개발활동 참여	0.358	91.906 ***	0.424	363.448 ***	0.499	149.386 ***	0.489	162.867 ***	0.420	103.441 ***

*p<.05, **p<.01, ***p<.001

3. 소결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회환경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구성을 비롯한 경제와 노동환경, 교육과 문화 환경, 생활환경과 같은 사회환경들이다. 향후 공동으로 비교연구에 참여하게 될 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고, 특히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더욱 자료가 희소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국제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인도는 경제성장잠재력이 높고, 교육에 대한 열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각국의 사회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청년취업이나 교육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폴은 흥미로운 비교대상국이다. 그렇지만, 이들 세 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교육과 노동시장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표면적인 비교 이상의 진전을 이루기는 힘든 상황이다.

진로교육과 관련한 보다 면밀한 비교를 위해 2010 PISA조사에서 부가적으로 실시한 진로교육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그나마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고, 또 매우 유용한 자료이지만,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홍콩, 마카오)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각국의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각국의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진로체험활동의 양은 직업역량과 비례한다. 물론 여기서의 직업역량은 본인들이 참여한 진로체험활동으로부터 습득되었다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점수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나라 청소년들이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습득된 직업역량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다. 각국의 청소년과 진로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10 PISA 자료 중 아시아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보았다. 단, 유럽국가 중 핀란드만을 이 비교에 포함시켜 아시아국가의 현황에 판단하는 데 참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진로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관계 등의 변인과 직업역량과의 관계도 함께 비교하였다.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는 진로체험활동 이외의 변인은 직업역량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각 국가내 비교에서는 상하이를 제외하곤 모든 변인들이 직업역량과 양의 상관을 보였다. 물론 그 이상의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직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IV 장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 실태

1. 설문조사의 개요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사례조사 결과
5. 소결

제 IV 장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 실태

1. 설문조사의 개요

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목적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하여 진로발달의 경향을 살펴보고 동시에 성별, 나이,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진로체험활동 참여 및 그 효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진로체험 실태 및 그와 관련된 환경, 그리고 진로체험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 결과는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다.

(2)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2016년 6월~8월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집방식은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및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유형별(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년별에 따라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변형비례배분방식을 사용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이 적용되었다(표 IV-1).

표 IV-1 설문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표본 크기	• 총 6,000명 - 중학생 1~3학년 3,000명 - 고등학생 1~3학년 3,000명
표집 방식	• 층화다단계집락표집 - 지역(16개 광역시·도별) 및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유형별(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학년별에 따라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한 변형비례배분방식
조사 기간	2016년 6월 ~ 8월

(3) 표본설계의 개요²⁵⁾

①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모집단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IV-2>와 <표 IV-3>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3,349,650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중학생 1,573,960명(47.0%), 고등학생 1,775,690명(53.0%)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 일반고 중 일반·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 가사·공업·농림업·상업·수산·실업·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 과학·국제·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는 <표 IV-3> ~ <표 IV-9>에 정리되어 있다.

25)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추진하는 통합조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 IV-2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6,575	85,997	99,237	384	384	384
경기	120,138	134,725	151,815	613	613	612
인천	25,942	29,551	33,123	134	132	132
강원	14,124	15,872	17,700	162	162	162
충북	14,656	16,869	18,661	128	128	128
충남	20,826	23,641	25,991	205	205	205
대전	15,234	17,093	19,402	88	88	88
경북	22,129	25,596	29,227	287	286	287
경남	31,267	35,964	40,632	272	272	272
부산	27,130	31,546	35,662	171	171	170
대구	23,023	26,886	30,605	124	124	123
울산	10,903	13,021	14,837	62	62	61
전북	18,179	20,654	23,204	209	209	208
전남	16,818	19,368	22,017	246	250	252
광주	16,122	18,697	21,370	89	88	88
제주	6,470	7,333	8,128	45	44	44
합계	459,536	522,813	591,611	3,219	3,218	3,216

표 IV-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4,164	67,478	72,003	14,211	13,148	13,712	18,885	18,310	18,139	2,157	2,191	2,181
경기	118,967	118,930	120,442	3,839	4,111	4,137	20,378	20,562	21,821	2,597	2,543	2,636
인천	21,725	22,175	23,461	1,989	1,747	1,828	7,646	7,565	7,680	761	782	638
강원	14,012	14,405	14,596	157	157	141	3,393	3,516	3,535	214	190	155
충북	11,025	11,300	11,770	1,550	1,589	1,543	5,332	5,469	5,466	247	232	166
충남	17,632	17,236	17,382	2,221	2,221	1,873	6,114	6,203	6,189	447	341	289
대전	11,972	12,468	12,714	2,891	2,857	2,776	3,611	3,727	3,787	434	437	488
경북	19,905	19,307	20,493	2,576	2,627	2,645	7,115	7,051	7,214	233	219	139
경남	30,131	30,512	31,140	2,770	2,747	2,839	5,720	5,859	6,079	562	535	363
부산	21,346	22,383	23,956	3,510	3,596	3,739	9,151	8,893	8,891	1,210	1,239	1,080
대구	18,278	18,533	19,829	5,586	5,723	5,956	6,689	6,446	6,747	328	311	246
울산	10,437	10,688	11,480	1,049	937	979	3,064	3,293	3,242	262	248	182
전북	16,677	17,121	17,346	997	959	908	5,443	5,534	5,554	219	216	174
전남	13,496	13,600	13,723	2,224	2,251	2,318	6,433	6,445	6,791	213	203	131
광주	15,157	15,503	15,995	1,138	1,105	1,050	4,262	4,379	4,771	94	94	12
제주	5,022	4,949	5,091	229	226	222	2,247	2,187	2,281	143	134	106
합계	409,946	416,588	431,421	46,937	46,001	46,666	115,483	115,439	118,187	10,121	9,915	8,986

표 IV-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4	184	184	43	43	43	81	81	81	10	10	10
경기	352	344	338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79	79	79	8	7	7	31	31	31	5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7	27	2	2	2
충북	46	46	45	6	6	6	29	29	29	2	2	2
충남	76	72	70	10	10	9	39	39	39	4	3	3
대전	37	37	37	8	8	8	14	14	14	3	3	3
경북	119	117	117	11	11	11	60	60	60	3	3	3
경남	137	136	136	10	10	10	40	40	40	4	4	4
부산	81	80	80	14	14	14	42	42	43	7	7	7
대구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6	35	35	4	4	4	13	13	12	2	2	2
전북	92	91	91	3	3	3	36	36	36	2	2	2
전남	80	80	82	8	8	8	53	53	53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합계	1,518	1,500	1,493	161	160	159	596	595	595	65	64	64

표 IV-5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남학생 수			여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9,846	44,740	51,877	36,729	41,257	47,360
경기	62,406	69,903	78,975	57,732	64,822	72,840
인천	13,416	15,231	17,112	12,526	14,320	16,011
강원	7,383	8,313	9,364	6,741	7,559	8,336
충북	7,694	8,757	9,748	6,962	8,112	8,913
충남	10,883	12,127	13,486	9,943	11,514	12,505
대전	7,954	8,950	10,079	7,280	8,143	9,323
경북	11,750	13,489	15,559	10,379	12,107	13,668
경남	16,488	19,016	21,606	14,779	16,948	19,026
부산	14,147	16,459	18,773	12,983	15,087	16,889
대구	12,362	14,163	16,243	10,661	12,723	14,362
울산	5,729	6,927	7,853	5,174	6,094	6,984
전북	9,594	10,567	12,029	8,585	10,087	11,175
전남	8,744	10,125	11,574	8,074	9,243	10,443
광주	8,395	9,669	11,143	7,727	9,028	10,227
제주	3,495	3,874	4,176	2,975	3,459	3,952
합계	240,286	272,310	309,597	219,250	250,503	282,014

표 IV-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789	33,895	36,071	9,850	9,009	9,440	8,766	8,345	8,057	821	808	752
경기	61,451	61,496	62,214	1,800	2,011	2,077	11,146	10,981	11,257	843	922	927
인천	11,324	11,524	11,981	1,218	1,045	1,101	3,995	3,911	3,904	335	347	267
강원	6,919	7,159	7,117	86	88	83	2,224	2,305	2,287	104	95	65
충북	5,498	5,622	5,853	896	931	906	3,018	3,077	2,903	91	100	57
충남	8,966	8,703	8,741	1,296	1,250	1,080	3,593	3,578	3,508	187	123	75
대전	5,775	5,970	6,076	1,908	1,861	1,824	2,025	2,154	2,148	188	204	187
경북	9,902	9,488	10,147	1,667	1,717	1,721	4,377	4,239	4,213	121	122	39
경남	14,582	14,686	15,100	2,223	2,231	2,281	3,542	3,645	3,667	223	221	111
부산	10,580	11,366	12,131	1,931	2,033	2,119	5,658	5,420	5,097	524	551	407
대구	8,758	9,293	9,740	3,041	3,204	3,322	4,254	3,978	4,110	170	184	120
울산	5,242	5,556	5,847	567	480	521	1,925	1,989	1,913	106	109	49
전북	8,056	8,343	8,607	863	830	785	3,161	3,204	3,130	84	74	60
전남	6,286	6,220	6,268	1,656	1,663	1,707	3,735	3,710	3,820	91	92	48
광주	7,512	7,802	7,964	689	663	663	2,314	2,312	2,560	81	73	10
제주	2,643	2,631	2,779	0	0	0	1,271	1,193	1,224	59	62	34
합계	205,283	209,754	216,636	29,691	29,016	29,630	65,004	64,041	63,798	4,028	4,087	3,208

표 IV-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75	33,583	35,932	4,361	4,139	4,272	10,119	9,965	10,082	1,336	1,383	1,429
경기	57,516	57,434	58,228	2,039	2,100	2,060	9,232	9,581	10,564	1,754	1,621	1,709
인천	10,401	10,651	11,480	771	702	727	3,651	3,654	3,776	426	435	371
강원	7,093	7,246	7,479	71	69	58	1,169	1,211	1,248	110	95	90
충북	5,527	5,678	5,917	654	658	637	2,314	2,392	2,563	156	132	109
충남	8,666	8,533	8,641	925	971	793	2,521	2,625	2,681	260	218	214
대전	6,197	6,498	6,638	983	996	952	1,586	1,573	1,639	246	233	301
경북	10,003	9,819	10,346	909	910	924	2,738	2,812	3,001	112	97	100
경남	15,549	15,826	16,040	547	516	558	2,178	2,214	2,412	339	314	252
부산	10,766	11,017	11,825	1,579	1,563	1,620	3,493	3,473	3,794	686	688	673
대구	9,520	9,240	10,089	2,545	2,519	2,634	2,435	2,468	2,637	158	127	126
울산	5,195	5,132	5,633	482	457	458	1,139	1,304	1,329	156	139	133
전북	8,621	8,778	8,739	134	129	123	2,282	2,330	2,424	135	142	114
전남	7,210	7,380	7,455	568	588	611	2,698	2,735	2,971	122	111	83
광주	7,645	7,701	8,031	449	442	387	1,948	2,067	2,211	13	21	2
제주	2,379	2,318	2,312	229	226	222	976	994	1,057	84	72	72
합계	204,663	206,834	214,785	17,246	16,985	17,036	50,479	51,398	54,389	6,093	5,828	5,778

표 IV-8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7.0	28.6	30.6
경기	29.2	30.9	31.3
인천	26.3	29.5	31.9
강원	19.5	20.8	23.4
충북	22.4	24.1	26.0
충남	23.4	24.3	25.0
대전	28.7	29.6	31.9
경북	18.9	19.7	20.8
경남	24.1	25.5	27.0
부산	25.6	28.3	30.4
대구	25.2	28.6	31.4
울산	26.7	27.8	30.8
전북	21.0	22.3	23.1
전남	20.5	21.9	22.1
광주	27.1	30.6	32.8
제주	25.9	27.7	28.9
합계	24.6	26.3	27.7

표 IV-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0	32.0	33.4	31.4	29.9	30.3	26.8	25.7	25.4	25.1	24.7	23.1
경기	31.7	31.9	33.2	29.7	30.4	30.4	28.2	28.4	29.3	25.0	24.4	24.7
인천	28.1	28.3	30.1	29.3	29.7	30.5	28.6	27.7	28.1	23.2	23.4	16.3
강원	26.9	27.8	27.8	14.3	14.3	12.8	21.4	22.4	22.7	25.5	23.1	17.2
충북	31.1	32.1	33.1	29.0	30.1	29.1	27.2	27.9	27.8	21.1	20.0	12.1
충남	29.8	30.7	31.5	29.6	29.5	28.5	25.5	25.5	25.7	20.0	20.8	17.1
대전	32.1	33.5	34.5	33.7	33.5	32.4	29.0	28.7	28.6	19.3	19.6	18.6
경북	26.5	26.5	28.0	29.9	30.4	30.8	24.1	24.0	24.7	22.4	21.2	10.3
경남	29.5	30.0	30.4	31.0	30.2	31.1	23.3	23.3	23.6	24.4	23.4	15.8
부산	29.1	29.8	31.3	28.7	29.5	30.3	25.9	24.6	23.9	21.4	21.8	19.1
대구	31.9	32.2	34.4	32.2	32.7	33.4	28.7	27.0	27.7	20.5	19.4	14.3
울산	32.2	32.2	34.6	32.6	29.2	30.5	27.6	28.7	28.8	23.2	22.1	16.0
전북	25.4	27.2	27.4	33.2	31.7	29.8	24.2	24.9	24.7	20.0	19.5	13.0
전남	27.2	27.3	27.6	31.6	31.8	32.8	22.2	21.6	22.0	23.3	22.3	13.3
광주	35.8	35.4	36.5	35.6	34.5	33.8	30.1	30.2	30.8	15.7	15.7	6.0
제주	34.2	34.0	35.0	32.7	32.3	31.7	29.8	29.0	30.1	22.9	21.6	15.9
합계	29.9	30.4	31.5	30.9	30.6	30.8	25.9	25.7	25.9	23.0	22.5	18.6

② 표본설계

가.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6,000(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3,000명)명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3\%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나.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단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5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충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충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충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V-10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중학교	중학교	1	459,536	1,573,960 (47.0%)		3,000 (50.0%)		3,042 (50.3%)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09,946	1,257,955 (37.6%)	1,775,690 (53.0%)	2,125 (35.4%)	3,534 (50.0%)	1,860 (30.8%)	3,003 (49.7%)
		2	416,588						
		3	431,421						
	유형 2 (자율고)	1	46,937	139,604 (4.2%)		236 (3.9%)	465 (7.7%)		
		2	46,001						
		3	46,666						
	유형 3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10.4%)		590 (9.8%)	546 (9.0%)		
		2	115,439						
		3	118,187						
	유형 4 (특수 목적고)	1	10,121	29,022 (0.9%)		49 (0.8%)	132 (2.2%)		
		2	9,915						
		3	8,986						
합계				3,349,650 (100.0%)		6,000 (100.0%)		6,045 (100.0%)	

표 IV-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99	344	37	174	49
경기	775	605	58	75	
인천	169	114			
강원	91	73	38	84	
충북	96	58			
충남	134	88			
대전	99	63			
경북	147	101	65	200	
경남	206	155			
부산	180	114			
대구	153	96			
울산	74	55	38	58	
전북	118	86			
전남	111	69			
광주	107	79			
제주	42	25			
합계	3,000	2,125	236	590	49

* 총계: 6,000명

표 IV-12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9.2	11.1	1.2	6.7	2.2
경기	29.8	19.5	1.9	2.9	
인천	6.5	3.7			
강원	3.5	2.3	1.2	3.2	
충북	3.7	1.9			
충남	5.2	2.8			
대전	3.8	2.0			
경북	5.6	3.3	2.1	7.7	
경남	7.9	5.0			
부산	6.9	3.7			
대구	5.9	3.1			
울산	2.8	1.8	1.2	2.2	
전북	4.5	2.8			
전남	4.3	2.2			
광주	4.1	2.5			
제주	1.6	0.8			
합계	115.4	68.5	7.6	22.7	2.2

* 총계: 216.5개

표 IV-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6(2)	3(1)	6(2)	6(2)
경기	30(10)	12(4)	3(1)	3(1)	
인천	6(2)	3(1)			
강원	3(1)	3(1)	3(1)	3(1)	
충북	3(1)	3(1)			
충남	6(2)	3(1)			
대전	3(1)	3(1)			
경북	6(2)	3(1)	3(1)	6(2)	
경남	9(3)	3(1)			
부산	6(2)	3(1)			
대구	6(2)	3(1)			
울산	3(1)	3(1)			
전북	6(2)	3(1)	3(1)	3(1)	
전남	3(1)	3(1)			
광주	3(1)	3(1)			
제주	3(1)	3(1)			
합계	117(39)	60(20)	15(5)	21(7)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219(73)개

표 IV-1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546	186	93	156	132
경기	780	372	93	78	
인천	156	93			
강원	78	93	93	78	
충북	78	93			
충남	156	93			
대전	78	93			
경북	156	93	93	156	
경남	234	93			
부산	156	93			
대구	156	93			
울산	78	93			
전북	156	93	93	78	
전남	78	93			
광주	78	93			
제주	78	93			
합계	3,042	1,860	465	546	132

* 총계: 6,045명

다.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V-11>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V-12>와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이에 총 115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38명(학년 당 약 13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 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3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V-10>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3,000명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1명, 자율고(유형 2) 31명, 특성화고(유형 3)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IV-13>, <표 IV-14>와 같다.

라.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V-13>에 제시된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층 안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 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마.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③ 가중치와 모수추정

가.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나. 모수추정

○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bullet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 \text{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bullet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 분산의 추정

$$\bullet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text{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n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 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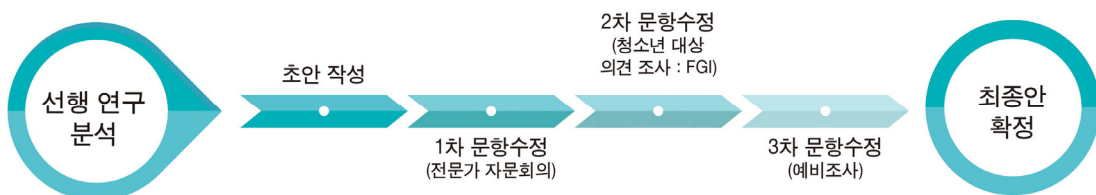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4) 설문지 개발절차

연구진이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FGI를 통한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 중 의견조사(FGI)에는 학교급별로 각 4명씩 총 8명이 참석하였으며, 예비조사에는 중학교 79명(1~3학년 각 학년 당 한 학급 씩), 고등학교 59명(1, 2학년 각 학년 당 한 학급 씩), 총 138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청소년용 설문지 개발 절차

(5) 설문지 주요 내용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진로 및 아르바이트 체험과 그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일 년 간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진로체험 활동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도움 정도, 진로체험을 통한 효과성, 공동체 의식,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에 따른 효과성, 진로성숙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경험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응답자의 성별 및 나이, 가족구성형태, 부모님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정도, 가정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문항도 포함되었다. 주요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학기제 경험 및 진학 계획(문1~문3)

문1에서 문3은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및 진학 계획에 대한 질문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첫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정책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진학문제는 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졸업 후 진학 여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② 진로체험활동의 정도와 그에 따른 도움 정도(문4)

이 문항은 최근 일 년 간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체험활동의 정도와 그에 따른 도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송창용, 장현진, 감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 2014)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또한 문4의 하위 문항(문 4-1, 문4-2)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로체험, 즉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진로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분야의 항목(문4-1)은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체험분야들을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만족도 관련 항목(문4-2)은 연구진이 회의를 통해 자체 개발하였다.

③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문5)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로교육관련 조사는 진로체험활동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에 주목해 왔지만, 진로체험활동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관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문지에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경준, 김성수(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측정 도구 중 청소년들이 응답하기에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두 가지 하위 영역, 즉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영역(총 4문항)과 '정서적 친밀감' 영역(총 3문항)의 문항을 일부분 수정한 것이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문항

하위 영역	주요 내용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1.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2. 내가 사는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3. 내가 사는 지역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내가 노력하면 내가 사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친밀감	5. 내가 사는 지역에는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7.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④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에 따른 효과 정도(문6)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아르바이트는 임금노동으로서 자발적인 진로체험활동의 한 유형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은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최근 일 년 간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기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및 아르바이트 효과를 질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아르바이트 효과 문항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아르바이트 효과 문항

문항
1.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2.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
3.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졌다
4.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졌다
5.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6.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7.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8.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9.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졌다
10. 책임감이 높아졌다

⑤ 진로성숙도(문7) 및 직업지식(문8)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성숙도 및 직업지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진로성숙도 및 직업지식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진로성숙도란 진로탐색 및 결정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며 직업지식의 부족은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김아영, 유성경, 김봉환, 2006) 중 일부 문항이다. 즉 진로발달 검사는 크게 두 가지 하위 영역, '진로성숙도'영역과 '진로미결정'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영역은 진로성숙도 영역 전부와 진로미결정 영역 중 하나의 하위요소인 '직업지식부족'만을 사용하였으며 원 검사에서는 6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영역은 계획성(5문항), 독립성(5문항), 태도(5문항), 자신지식(6문항), 진로행동(6문항)을 하위 요인으로 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 영역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진로성숙도 문항

영역		영역 별 문항 및 해당 번호, 역코딩 정보
진로성숙	계획성	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27.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	10.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 할 것이다. (11).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5).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20. 진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24.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태도	(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일뿐이다. (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1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1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22.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지식	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2.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17.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2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진로행동	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1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23. 내가 알고 있는 진로 지식이 정확한 지 알아본 적이 있다. 26.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 ()는 역코딩 문항임.

한편 진로미결정 영역은 6개의 하위요인, 즉 동기, 결단성, 직업지식부족, 자신지식부족, 직업갈등, 외적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진로체험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지식부족’의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직업지식 관련 문항은 <표 IV-18>에 제시하였다.

표 IV-18 **직업지식 문항**

문항
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5. 내가 진학하기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7. 내가 진학하기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⑥ 인구통계학적 변인(배경문항 1~7)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는 총 7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 나이(태어난 연도),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 교사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학교정보를 수집하고, 학교별 진로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사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교사대상 조사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환경적 요인일 분석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또 얼마나 협력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2) 설문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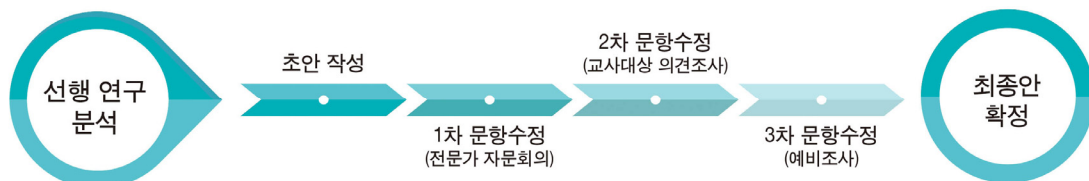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2016년 6월~8월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조사의 학교표본에 근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담당교사 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중학교 교사는 111명, 고등학교 교사는 107명이다.

(3) 교사용 설문지 개발절차

연구진이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고,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진로상담교사 대상 의견조사와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에는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각 1명씩, 총 2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IV-2]와 같다.

표 IV-19 교사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담당교사	
표집틀	2015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17명,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02명	
표집방법	청소년조사 학교표본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담당교사	
조사시기	2016년 6월~8월	
조사진행방법	본원 통합조사(본원에서 수행하는 복수의 연구과제가 통합하여 조사실시)로 조사의 규모와 질을 확보함.	



【그림 IV-2】 교사용 설문지 개발 절차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²⁶⁾

1)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앞서 제시한 연구설계에 따라 참여한 청소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의 수는 6,754명으로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52.1%)이 여학생(47.9%)보다, 고등학생(53%)이 중학생(47%)보다 다소 많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7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18.8%), 특목고/자율고(9.5%), 예술고/체육고(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볼 때에는 중도소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8.1%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41.5%) 거주 청소년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0.5%로 가장 적었다.

한편 이들의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86.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11.7%, 기타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2%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상, 최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5.1%, 중(중하, 중, 중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9.9%, 하(하, 최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1%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중류층의 생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각각 44.6%와 39.8%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각각 26.4%와 32.3%, 중졸 이하가 2.7%와 2%로 나타났다.

이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상(상, 최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7.8%, 중(중하, 중, 중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5.1%, 하(하, 최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6.4%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표 IV-2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절에서 제시하였다.

26) 이 절에서 제시되는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다.

표 IV-20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계			6754	100.0
성별	남학생		3521	52.1
	여학생		3233	47.9
학교급	중학교		3174	47.0
	고등학교	계	3580	53.0 (100.0)
		일반고	2536	(70.8)
		특목고/자율고	340	(9.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72	(18.8)
		예술고/체육고	32	(0.9)
지역규모	대도시		2802	41.5
	중소도시		3246	48.1
	농산어촌		706	10.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5814	86.1
	한부모가정		791	11.7
	기타보호자		98	1.4
	보호자없음		18	0.3
	기타		23	0.3
	모름/무응답		10	0.2
가정 경제수준	상		1023	15.1
	중		5399	79.9
	하		279	4.1
	모름/무응답		54	0.8
아버지 학력	학교에 안다님		8	0.1
	초등학교 졸업		45	0.7
	중학교 졸업		128	1.9
	고등학교 졸업		1782	26.4
	2~3년제 대학 졸업		405	6.0
	4년제 대학 졸업		2136	31.6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474	7.0
	잘 모르겠음		1653	24.5
	해당 없음		84	1.3
	모름/무응답		39	0.6
어머니 학력	학교에 안다님		10	0.1
	초등학교 졸업		28	0.4
	중학교 졸업		102	1.5
	고등학교 졸업		2180	32.3
	2~3년제 대학 졸업		490	7.2
	4년제 대학 졸업		1975	29.2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231	3.4
	잘 모르겠음		1576	23.3
	해당 없음		100	1.5
	모름/무응답		62	0.9
학업성적	상		1201	17.8
	중		4399	65.1
	하		1105	16.4
	모름/무응답		49	0.7

2) 진로체험활동 실태

(1) 자유학기제 경험

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중학생들의 자유학기 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한 청소년 중 36.1%가 과거에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경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 성별로 보면 여학생(35.3%) 보다는 남학생(37%)에게서 경험률이 다소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험률(40.4%)이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각 34.8%, 32.6%)의 경험률보다 다소 높았다. 이들의 자유학기제 참여 시기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77.5%, 1학년 1학기가 21.8%로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경험하였다(표 IV-22).

표 IV-21 자유학기제 참여 경험

빈도(%)

구분		과거에 있다	현재 참여중이다	없다	모름/ 무응답	계
성별	남학생	573 (34.6)	39 (2.4)	1,018 (61.4)	28 (1.7)	1,658 (100.0/52.2)
	여학생	480 (31.7)	54 (3.6)	954 (62.9)	28 (1.8)	1,516 (100.0/47.8)
지역규모	대도시	456 (34.3)	81 (6.1)	768 (57.8)	23 (1.7)	1,328 (100.0/41.8)
	중소 도시	493 (32.1)	8 (0.5)	1,002 (65.2)	33 (2.1)	1,536 (100.0/48.4)
	농산 어촌	104 (33.5)	4 (1.3)	201 (64.8)	1 (0.3)	310 (100.0/9.8)
계		1,053 (33.2)	93 (2.9)	1,971 (62.1)	57 (1.8)	3,174 (100.0/100.0)

표 IV-22 자유학기제 경험 시기

빈도(%)

구분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계
성별	남학생	130 (21.2)	477 (77.9)	4 (0.7)	1 (0.2)	612 (100.0/53.4)
	여학생	120 (22.5)	411 (77.0)	2 (0.4)	1 (0.2)	534 (100.0/46.6)
지역규모	대도시	197 (36.7)	336 (62.6)	3 (0.6)	1 (0.2)	537 (100.0/46.9)
	중소 도시	47 (9.4)	451 (90.0)	3 (0.6)	0 (0.0)	501 (100.0/43.7)
	농산 여촌	6 (5.6)	101 (93.5)	0 (0.0)	1 (0.9)	108 (100.0/9.4)
계		250 (21.8)	888 (77.5)	6 (0.5)	2 (0.2)	1,146 (100.0/100.0)

(2) 진로체험활동 경험

① 진로심리검사

청소년들의 76.4%는 최근 일 년 동안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73.1%)보다는 여학생(80%)에게서, 그리고 고등학생(73.5%)보다는 중학생(79.7%)에게서 검사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예술/체육고 청소년들(88.2%)에게서 심리검사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고(74.9%), 특목고/자율고(72.1%), 특성화고(68.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그 외 가정의 청소년보다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양부모 및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기타 조손 가정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심리검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업성적에 따른 구분에서 자신의 성적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심리검사를 받아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심리검사는 대부분 학교활동을 통해 받았으나 학교 밖에서의 경험(학교 밖 활동 또는 학교 및 학교 밖 둘 다를 통해서 경험)은 약 10명 중 한 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진로심리검사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b		936 (26.6)	2,246 (63.8)	75 (2.1)	207 (5.9)	2,573 (73.1)	131 (5.1)	581 (22.6)	1,454 (56.5)	291 (11.3)	2.77 (0.720)
	여학생 ^a		634 (19.6)	2,253 (69.7)	67 (2.1)	242 (7.5)	2,588 (80.0)	48 (1.9)	498 (19.2)	1,608 (62.1)	356 (13.8)	2.90 (0.639)
지역 규모	대도시 ^a		590 (21.1)	1,928 (68.8)	52 (1.9)	184 (6.6)	2,200 (78.5)	87 (4.0)	432 (19.6)	1,291 (58.7)	308 (14.0)	2.86 (0.703)
	중소도시 ^a		829 (25.5)	2,111 (65.0)	64 (2.0)	205 (6.3)	2,406 (74.1)	78 (3.2)	498 (20.7)	1,443 (60.0)	290 (12.1)	2.84 (0.673)
	농산어촌 ^b		151 (21.4)	461 (65.2)	26 (3.7)	60 (8.5)	556 (78.6)	14 (2.5)	150 (27.0)	328 (59.0)	48 (8.6)	2.76 (0.643)
학교 유형	중학교 ^a		635 (20.0)	2,186 (68.9)	72 (2.2)	228 (7.2)	2,530 (79.7)	79 (3.1)	494 (19.5)	1,482 (58.6)	379 (15.0)	2.89 (0.690)
	고등학교	전체 ^b	935 (26.1)	2,313 (64.6)	70 (2.0)	220 (6.2)	2,631 (73.5)	100 (3.8)	586 (22.3)	1,579 (60.0)	267 (10.2)	2.79 (0.673)
		일반고	624 (24.6)	1,671 (65.9)	47 (1.9)	167 (6.6)	1,899 (74.9)	68 (3.6)	414 (21.8)	1,158 (60.9)	186 (9.8)	2.80 (0.662)
		특목고/ 자율고	93 (27.4)	217 (64.1)	9 (2.7)	15 (4.4)	245 (72.1)	10 (4.1)	53 (21.6)	151 (61.6)	28 (11.4)	2.81 (0.686)
		특성화/ 마이스터고	214 (31.8)	396 (59.0)	14 (2.1)	38 (5.7)	458 (68.2)	22 (4.8)	114 (24.9)	249 (54.4)	52 (11.4)	2.76 (0.723)
		예술고/ 체육고	4 (12.5)	28 (87.5)	0 (0.0)	0 (0.0)	28 (87.5)	0 (0.0)	5 (17.9)	21 (75.0)	1 (3.6)	2.85 (0.452)
		학업 성적	상 ^a	229 (19.1)	817 (68.0)	26 (2.2)	115 (9.5)	971 (80.8)	33 (3.4)	172 (17.7)	587 (60.5)	153 (15.8)
	중	994 (22.6)	2,982 (67.8)	95 (2.2)	270 (6.2)	3,392 (77.1)	99 (2.9)	701 (20.7)	2,061 (60.7)	402 (11.8)	2.85 (0.660)	
하 ^b	330 (29.8)	672 (60.8)	21 (1.9)	64 (5.8)	770 (69.6)	47 (6.1)	201 (26.1)	399 (51.9)	86 (11.2)	2.71 (0.755)		
모름/ 무응답	17 (34.0)	29 (58.0)	0 (0.0)	0 (0.0)	29 (58.0)	1 (3.3)	5 (16.7)	16 (53.3)	5 (16.7)	2.95 (0.699)		
경제 수준	상 ^a		235 (22.9)	670 (65.5)	33 (3.2)	70 (6.8)	787 (76.9)	34 (4.3)	132 (16.8)	445 (56.6)	141 (17.9)	2.92 (0.734)
	중		1,237 (22.9)	3,643 (67.5)	98 (1.8)	352 (6.5)	4,145 (76.8)	132 (3.2)	897 (21.6)	2,494 (60.2)	476 (11.5)	2.83 (0.668)
	하 ^b		82 (29.5)	156 (56.1)	8 (2.9)	25 (9.0)	194 (69.8)	12 (6.2)	45 (23.1)	103 (52.8)	24 (12.3)	2.76 (0.758)
	모름/ 무응답		16 (29.1)	30 (54.5)	3 (5.5)	2 (3.6)	35 (63.6)	2 (5.7)	5 (14.3)	20 (57.1)	5 (14.3)	2.88 (0.739)
계			1,569 (23.2)	4,499 (66.6)	142 (2.1)	449 (6.6)	5,161 (76.4)	179 (2.7)	1,079 (16.0)	3,062 (45.3)	646 (9.6)	2.84 (0.683)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진로심리검사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 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24.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1.8%)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²⁷⁾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4869) = -6.735, p < .001$).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청소년 만족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2, 4963) = 4.518, p < .05$) 사후검증(Scheffe)에 따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4944) = 4.805, p < .001$) 중학생의 만족도가 고등학생의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상 집단)이 낮은 집단(하 집단)에 비해($F(2, 4937) = 8.242, p < .001$),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상 집단)이 낮은 집단(하 집단)에 비해($F(2, 4931) = 7.313, p < .001$)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② 진로상담

진로상담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 년 동안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49.5%)이 진로상담경험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진로상담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46.8%)보다는 고등학생의 경험률(51.9%)이 다소 높았다. 고등학생 중에는 특목고/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58.8%)이 다른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험비율(50.7~54.6%)보다 높았다.

진로상담을 경험한 경로를 보면 진로상담 경험자의 약 82%는 학교에서만 상담을 하였으나 약 15%는 학교 밖에서도 진로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 밖에서의 상담경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또한 진로상담의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t-검증이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t(3190) = -2.367, p < .05$), 성적이 상인 집단이 중이나 하인 집단에 비해($F(2, 3158) = 10.202, p < .001$) 긍정응답률이 높았다.

27) 이하 집단 간 비교(검증 및 분산분석)에서는 ‘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고교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체육고/예술고에 속한 이들이 적어 이 집단을 제외한 세 집단, 즉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만을 비교하였다. 또한 리커트 척도의 단일문항에 대해 모수검증(t검증, F검증)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리커트 척도를 등간격척도로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Traylor, 1983; Goldstein & Hersen, 1984, 김현철, 최승경, 최동호, 2016 재인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척도간의 간격이 등간격인 구간척도로 가정하여 모수검증을 하였다.

표 IV-24 진로상담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b	1,764 (50.1)	1,433 (40.7)	146 (4.2)	120 (3.4)	1,746 (49.6)	58 (3.3)	278 (15.9)	1,001 (57.3)	319 (18.3)	2.96 (0.706)	
	여학생 ^a	1,624 (50.2)	1,307 (40.5)	118 (3.7)	136 (4.2)	1,596 (49.4)	37 (2.3)	240 (15.0)	925 (58.0)	335 (21.0)	3.01 (0.686)	
지역 규모	대도시	1,338 (47.8)	1,200 (42.8)	103 (3.7)	114 (4.1)	1,456 (52.0)	51 (3.5)	217 (14.9)	818 (56.2)	307 (21.1)	2.99 (0.724)	
	중소도시	1,673 (51.5)	1,288 (39.6)	129 (4.0)	104 (3.2)	1,559 (48.0)	34 (2.2)	254 (16.3)	904 (58.0)	287 (18.4)	2.98 (0.677)	
	농산어촌	377 (53.5)	252 (35.6)	32 (4.5)	39 (5.5)	327 (46.4)	9 (2.8)	47 (14.4)	204 (62.4)	60 (18.3)	2.98 (0.673)	
학교 유형	중학교	1,675 (52.8)	1,225 (38.6)	124 (3.9)	90 (2.9)	1,485 (46.8)	44 (3.0)	243 (16.4)	798 (53.7)	333 (22.4)	3.00 (0.729)	
	고 등 학 교	전체	1,713 (47.8)	1,515 (42.4)	140 (3.9)	166 (4.6)	1,857 (51.9)	50 (2.7)	275 (14.8)	1,128 (60.7)	321 (17.3)	2.97 (0.670)
		일반고	1,228 (48.4)	1,029 (40.6)	118 (4.7)	126 (5.0)	1,299 (51.2)	42 (3.2)	186 (14.3)	797 (61.3)	217 (16.7)	2.96 (0.677)
		특목고/ 자율고	139 (40.9)	180 (52.9)	9 (2.6)	10 (2.9)	200 (58.8)	4 (2.0)	38 (19.0)	120 (60.0)	35 (17.5)	2.94 (0.670)
		특성화/ 마이스터고	331 (49.3)	292 (43.6)	11 (1.6)	28 (4.2)	340 (50.7)	5 (1.5)	51 (15.0)	196 (57.6)	66 (19.4)	3.02 (0.654)
		예술고/ 체육고	15 (45.5)	14 (42.4)	2 (6.0)	2 (6.0)	18 (54.5)	0 (0.0)	0 (0.0)	15 (83.3)	3 (16.7)	3.17 (0.387)
		상 ^a	564 (47.0)	497 (41.5)	62 (5.2)	56 (4.7)	636 (53.0)	21 (3.3)	90 (14.2)	354 (55.7)	154 (24.2)	3.03 (0.729)
학 업 성 적	중 ^b	2,227 (50.6)	1,789 (40.7)	163 (3.7)	159 (3.6)	2,159 (49.1)	53 (2.5)	320 (14.8)	1,256 (58.2)	422 (19.5)	3.00 (0.682)	
	하 ^b	580 (52.5)	427 (38.7)	36 (3.3)	40 (3.6)	516 (46.7)	20 (3.9)	104 (20.1)	294 (56.9)	74 (14.3)	2.86 (0.711)	
	모름/ 무응답	17 (34.7)	27 (55.1)	2 (4.1)	1 (2.0)	30 (61.2)	0 (0.0)	5 (16.1)	22 (71.0)	4 (12.9)	2.98 (0.534)	
경 제 수 준	상	458 (44.8)	433 (42.3)	61 (6.0)	48 (4.7)	562 (54.9)	19 (3.4)	69 (12.3)	297 (52.9)	143 (25.5)	3.07 (0.737)	
	중	2,784 (51.6)	2,155 (39.9)	191 (3.6)	192 (3.6)	2,598 (48.1)	69 (2.7)	420 (16.2)	1,528 (58.8)	473 (18.2)	2.97 (0.685)	
	하	121 (43.5)	129 (46.4)	12 (4.3)	13 (4.7)	157 (56.5)	6 (3.8)	25 (16.0)	83 (53.2)	33 (21.2)	2.96 (0.755)	
	모름/ 무응답	26 (48.1)	23 (44.3)	0 (0.0)	2 (3.8)	26 (48.1)	0 (0.0)	4 (15.4)	17 (65.4)	5 (19.2)	3.05 (0.579)	
전체		3,389 (50.2)	2,740 (40.6)	264 (3.9)	256 (3.8)	3,342 (49.5)	95 (1.4)	518 (7.7)	1,925 (28.5)	654 (9.7)	2.98 (0.697)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③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수집

청소년의 42.5%는 최근 일 년 동안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진로 관련 정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25). 특히 남학생(37.8%)보다는 여학생(47.5%)의 경험률이 높았고, 중학생(37.7%)보다는 고등학생(46.7%)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험률(33.5%)은 다른 고등학생집단(49~7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정보를 접해 본 경험률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경험률(44.4%)이 중(40.9%)이나 하(40.3%)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높았다.

정보수집의 경로를 보면 교내활동을 한 비율(15.5%)과 교외활동으로 한 비율(15%)이 비슷하였으며 교내외 활동으로 하였다는 응답도 10.7%로 교내 및 교외 활동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집단별로 보면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서는 교내활동 보다는 학교 밖 활동으로 정보수집을 더 많이 하였으나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학교 밖 활동보다는 교내활동으로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정보수집의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t-검증이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성별($t(2544) = -3.005, p < .05$), 고교유형($F(2, 1561) = 5.235, p < .01$), 학업성적($F(2, 2694) = 11.680, p < .001$)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F(2, 2690) = 6.381, p < .01$)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는 일반고와 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학업성적은 높을수록(상>중>하),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상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가정(하 집단)의 청소년보다 도움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IV-25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 수집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b	2,163 (61.4)	490 (13.9)	481 (13.6)	309 (8.8)	1,331 (37.8)	29 (2.2)	211 (15.9)	778 (58.5)	224 (16.8)	2.96 (0.666)	
	여학생 ^a	1,674 (51.8)	557 (17.2)	533 (16.5)	413 (12.8)	1,536 (47.5)	18 (1.2)	194 (12.6)	980 (63.8)	284 (18.5)	3.04 (0.609)	
지역 규모	대도시	1,494 (53.3)	500 (17.9)	438 (15.7)	309 (11.1)	1,290 (46.1)	27 (2.1)	181 (14.0)	788 (61.1)	228 (17.7)	2.99 (0.650)	
	중소도시	1,984 (61.1)	438 (13.5)	445 (13.7)	315 (9.7)	1,232 (38.0)	18 (1.5)	181 (14.7)	759 (61.6)	208 (16.9)	2.99 (0.630)	
	농산어촌	359 (50.8)	109 (15.4)	131 (18.5)	98 (13.8)	345 (48.9)	2 (0.6)	44 (12.7)	211 (61.0)	73 (21.1)	3.08 (0.606)	
학교 유형	중학교	1,951 (61.5)	493 (15.5)	405 (12.8)	256 (8.1)	1,195 (37.7)	23 (1.9)	207 (17.3)	673 (56.3)	228 (19.1)	2.98 (0.682)	
	고등학교	전체	1,886 (52.7)	554 (15.5)	609 (17.0)	466 (13.0)	1,672 (46.7)	24 (1.4)	199 (11.9)	1,085 (64.9)	280 (16.7)	3.02 (0.602)
		일반고 ^a	1,273 (50.2)	394 (15.5)	477 (18.8)	343 (13.5)	1,242 (49.0)	14 (1.1)	144 (11.6)	812 (65.4)	211 (17.0)	3.03 (0.590)
		특목고/ 자율고 ^a	156 (45.9)	61 (17.9)	55 (16.2)	63 (18.5)	183 (53.8)	3 (1.6)	21 (11.5)	119 (65.0)	37 (20.2)	3.06 (0.616)
		특성화/ 마이스터고 ^b	447 (66.5)	94 (14.0)	70 (10.4)	51 (7.6)	225 (33.5)	7 (3.1)	34 (15.1)	137 (60.9)	26 (11.6)	2.89 (0.653)
		예술고/ 체육고 ^b	9 (28.1)	5 (15.6)	7 (21.9)	8 (25.0)	23 (71.9)	0 (0.0)	0 (0.0)	17 (73.9)	6 (26.1)	3.26 (0.450)
		학업 성적	상 ^a	567 (47.2)	188 (15.6)	247 (20.6)	174 (14.5)	626 (52.1)	9 (1.4)	81 (12.9)	365 (58.3)	155 (24.8)
중 ^b	2,479 (56.4)	695 (15.8)	653 (14.9)	480 (10.9)	1,890 (43.0)	22 (1.2)	271 (14.3)	1,180 (62.4)	307 (16.2)	3.00 (0.611)		
하 ^c	766 (69.3)	153 (13.8)	110 (9.9)	62 (5.6)	330 (29.9)	16 (4.8)	51 (15.4)	197 (59.5)	45 (13.6)	2.88 (0.709)		
모름/ 무응답	26 (52.0)	11 (23.1)	4 (8.4)	6 (12.6)	22 (44.0)	0 (0.0)	3 (13.6)	16 (72.7)	2 (9.1)	2.92 (0.476)		
경제 수준	상 ^a	574 (56.1)	159 (15.5)	159 (15.5)	111 (10.8)	442 (43.2)	6 (1.4)	53 (12.0)	257 (58.1)	102 (23.1)	3.09 (0.646)	
	중 ^b	3,064 (56.8)	831 (15.4)	814 (15.1)	584 (10.8)	2,294 (42.5)	37 (1.6)	328 (14.3)	1,428 (62.2)	389 (17.0)	2.99 (0.630)	
	하 ^c	173 (62.2)	43 (15.5)	36 (13.0)	19 (6.8)	105 (37.8)	4 (3.8)	21 (20.0)	52 (49.5)	16 (15.2)	2.86 (0.741)	
	모름/ 무응답	26 (48.1)	14 (26.9)	4 (7.7)	7 (13.5)	26 (48.1)	0 (0.0)	3 (11.5)	20 (76.9)	2 (7.7)	2.93 (0.453)	
전체		3,837 (56.8)	1,047 (15.5)	1,014 (15.0)	722 (10.7)	2,867 (42.5)	47 (0.7)	405 (6.0)	1,758 (26.0)	509 (7.5)	3.00 (0.637)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④ 인터넷 활용

최근 일 년 동안 정보 검색이나 동영상 보기 등 진로체험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68.1%로 나타났다(표 IV-26). 이 역시 남학생(63.7%)보다는 여학생(72.8%)에게서, 중학생(65.1%)보다는 고등학생(70.7%)에게서 경험률이 높았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성화고 청소년의 경험률(61.5%)이 다른 유형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73.6~82%)보다 다소 낮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험률(70%)이 중간이하 청소년들의 경험률(66.2%~67.5%)보다 높았다.

인터넷 활용 경로를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활동과 달리 교내활동보다는 학교 밖 활동을 통한 인터넷 활용도가 높았다. 인터넷 활용의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학업성적($F(2, 4317) = 6.135, p < .01$)과 가정경제수준($F(2, 4318) = 9.558, p < .01$)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하<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하인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하, 중<상) 인터넷 활용을 통한 도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IV-26

인터넷 활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1,263 (35.9)	621 (17.6)	1,051 (29.9)	492 (14.0)	2,242 (63.7)	45 (2.0)	266 (11.9)	1,254 (55.9)	543 (24.2)	3.09 (0.679)	
	여학생	863 (26.7)	622 (19.2)	1,079 (33.3)	574 (17.8)	2,355 (72.8)	20 (0.8)	281 (11.9)	1,384 (58.8)	560 (23.8)	3.11 (0.633)	
지역규모	대도시	847 (30.2)	518 (18.5)	917 (32.7)	427 (15.2)	1,943 (69.3)	32 (1.6)	238 (12.2)	1,076 (55.3)	490 (25.2)	3.10 (0.674)	
	중소도시	1,080 (33.3)	580 (17.9)	1,004 (30.9)	505 (15.6)	2,151 (66.2)	30 (1.4)	251 (11.7)	1,268 (58.9)	488 (22.7)	3.09 (0.644)	
	농산어촌	200 (28.3)	145 (20.5)	209 (29.5)	135 (19.1)	503 (71.2)	4 (0.8)	58 (11.6)	293 (58.4)	125 (24.9)	3.12 (0.632)	
학교유형	중학교	1,088 (34.3)	708 (22.3)	812 (25.6)	470 (14.8)	2,067 (65.1)	37 (1.8)	284 (13.7)	1,084 (52.4)	542 (26.2)	3.09 (0.701)	
	고등학교	전체	1,038 (29.0)	535 (15.0)	1,317 (36.8)	597 (16.7)	2,530 (70.7)	28 (1.1)	263 (10.4)	1,553 (61.4)	561 (22.2)	3.10 (0.616)
		일반고	686 (27.1)	362 (14.3)	1,003 (39.6)	426 (16.8)	1,840 (72.6)	17 (0.9)	180 (9.8)	1,152 (62.6)	401 (21.8)	3.11 (0.600)
		특목고/ 자율고	90 (26.5)	51 (14.9)	131 (38.4)	64 (18.7)	249 (73.2)	4 (1.6)	28 (11.2)	153 (61.4)	60 (24.1)	3.10 (0.644)
		특성화/ 마이스터고	257 (38.2)	119 (17.7)	176 (26.1)	93 (13.8)	413 (61.5)	7 (1.7)	56 (13.6)	234 (56.7)	88 (21.3)	3.05 (0.666)
		예술고/ 체육고	6 (18.8)	4 (12.0)	8 (24.1)	14 (42.2)	26 (81.3)	0 (0.0)	0 (0.0)	14 (51.9)	12 (44.4)	3.46 (0.509)
		학업성적	상 ^a	319 (26.6)	219 (18.3)	418 (34.9)	219 (18.3)	877 (73.1)	13 (1.5)	97 (11.1)	486 (55.5)	254 (29.0)
중	1,364 (31.0)	827 (18.8)	1,389 (31.6)	694 (15.8)	3,016 (68.6)	37 (1.2)	353 (11.7)	1,748 (57.9)	704 (23.3)	3.10 (0.644)		
하 ^b	431 (39.0)	186 (16.8)	312 (28.3)	142 (12.9)	668 (60.5)	14 (2.1)	91 (13.6)	384 (57.4)	140 (20.9)	3.03 (0.675)		
모름/ 무응답	12 (24.5)	11 (22.4)	11 (22.4)	11 (22.4)	35 (71.4)	1 (2.8)	7 (19.4)	20 (55.6)	5 (13.9)	2.90 (0.670)		
경제수준	상 ^a	312 (30.5)	204 (19.9)	308 (30.1)	167 (16.4)	706 (69.0)	11 (1.6)	65 (9.2)	366 (51.8)	221 (31.3)	3.20 (0.677)	
	중 ^b	1,700 (31.5)	988 (18.3)	1,728 (32.0)	835 (15.5)	3,675 (68.1)	50 (1.4)	452 (12.3)	2,153 (58.6)	835 (22.7)	3.08 (0.648)	
	하 ^b	97 (34.9)	38 (13.6)	85 (30.4)	52 (18.6)	181 (65.1)	2 (1.1)	25 (13.8)	100 (55.2)	42 (23.2)	3.07 (0.664)	
	모름/ 무응답	18 (33.3)	13 (24.8)	8 (15.2)	12 (22.9)	34 (63.0)	2 (5.7)	5 (14.3)	19 (54.3)	6 (17.1)	2.91 (0.761)	
전체		2,127 (31.5)	1,243 (18.4)	2,130 (31.5)	1,067 (15.8)	4,597 (68.1)	65 (1.0)	547 (8.1)	2,638 (39.1)	1,103 (16.3)	3.10 (0.655)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⑤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및 대화나누기

청소년의 52%는 최근 일 년 동안 전문직업인 초청강연에 참석하거나 대화나누기를 경험하였다(표 IV-27). 이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비율도 앞의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남학생(49.8%)보다는 여학생(54.4%)에게서, 중학생(46.2%)보다는 고등학생(57.2%)에게서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험률(53.4%)이 중간 이하 청소년들의 경험률(49.3%~51.5%)보다 다소 높았다.

초청강연 및 대화나누기의 경로를 보면 경험자의 77%가 교내활동만을 통해 경험하였으며 경험자 10명 중 2명 정도는 학교 밖 활동으로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활동의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t-검증이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학교급($t(3345) = 2.154, p < .05$), 교교유형($F(2, 1930) = 5.976, p < .01$), 학업성적($F(2, 3318) = 4.759, p < .01$), 가정의 경제적 수준($F(2, 3316) = 11.190, p < .001$)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특성화/마이스터고 집단이 일반고 집단에 비해,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상>하),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인 집단(상>중하)에 비해 도움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높았다.

표 IV-27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이나 대화 나누기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1751 (49.7)	1359 (38.5)	178 (5.0)	169 (4.8)	1755 (49.8)	65 (3.7)	326 (18.6)	895 (51.0)	370 (21.1)	2.95 (0.758)
	여학생	1462 (45.2)	1366 (42.2)	188 (5.8)	167 (5.2)	1759 (54.4)	56 (3.2)	317 (18.0)	920 (52.3)	399 (22.7)	2.98 (0.745)
지역규모	대도시	1283 (45.8)	1154 (41.2)	163 (5.8)	144 (5.1)	1508 (53.8)	48 (3.2)	273 (18.1)	742 (49.2)	370 (24.5)	3.00 (0.764)
	중소도시	1653 (50.9)	1222 (37.6)	173 (5.3)	149 (4.6)	1579 (48.6)	54 (3.4)	287 (18.2)	850 (53.8)	311 (19.7)	2.94 (0.734)
	농산어촌	278 (39.4)	350 (49.5)	30 (4.2)	43 (6.1)	427 (60.5)	19 (4.4)	83 (19.4)	222 (51.9)	88 (20.6)	2.92 (0.768)
학교유형	중학교 ^a	1692 (53.3)	1094 (34.5)	195 (6.1)	138 (4.3)	1465 (46.2)	48 (3.3)	261 (17.8)	736 (50.2)	354 (24.2)	3.00 (0.759)
	전체 ^b	1521 (42.5)	1632 (45.5)	171 (4.7)	197 (5.5)	2049 (57.2)	73 (3.6)	382 (18.6)	1079 (52.6)	415 (20.2)	2.94 (0.745)
	일반고 ^b	1096 (43.2)	1126 (44.4)	127 (5.0)	142 (5.6)	1431 (56.4)	54 (3.8)	296 (20.7)	732 (51.2)	276 (19.3)	2.91 (0.756)
	특목고/ 자율고	108 (31.8)	184 (53.8)	20 (5.8)	25 (7.3)	231 (67.9)	8 (3.5)	42 (18.2)	128 (55.4)	49 (21.2)	2.96 (0.736)
	특성화/ 마이스터고 ^a	300 (44.6)	315 (46.9)	19 (2.8)	28 (4.2)	372 (55.4)	11 (3.0)	43 (11.6)	207 (55.6)	86 (23.1)	3.06 (0.706)
	예술고/ 체육고	17 (53.1)	7 (21.9)	5 (15.6)	3 (9.4)	15 (46.9)	0 (0.0)	1 (6.7)	11 (73.3)	3 (20.0)	3.13 (0.519)
학업성적	상 ^a	452 (37.6)	554 (46.2)	89 (7.4)	93 (7.7)	747 (62.2)	26 (3.5)	137 (18.3)	360 (48.2)	201 (26.9)	3.02 (0.782)
	중	2089 (47.5)	1812 (41.2)	219 (5.0)	202 (4.6)	2297 (52.2)	69 (3.0)	421 (18.3)	1206 (52.5)	480 (20.9)	2.96 (0.734)
	하 ^b	653 (59.1)	336 (30.5)	57 (5.2)	37 (3.4)	443 (40.1)	26 (5.9)	84 (19.0)	229 (51.7)	83 (18.7)	2.87 (0.793)
	모름/ 무응답	19 (38.8)	23 (46.9)	1 (2.0)	3 (6.1)	27 (55.1)	0 (0.0)	1 (3.6)	20 (71.4)	5 (17.9)	3.16 (0.439)
경제수준	상 ^a	478 (46.7)	382 (37.3)	76 (7.4)	70 (6.9)	540 (52.8)	19 (3.5)	72 (13.3)	260 (48.1)	163 (30.2)	3.10 (0.774)
	중 ^b	2577 (47.7)	2212 (41.0)	276 (5.1)	250 (4.6)	2807 (52.0)	93 (3.3)	538 (19.2)	1472 (52.4)	571 (20.3)	2.94 (0.742)
	하 ^b	134 (48.0)	110 (39.5)	13 (4.7)	12 (4.3)	140 (50.2)	8 (5.8)	31 (22.3)	63 (45.3)	29 (20.9)	2.85 (0.835)
	모름/ 무응답	24 (44.4)	22 (42.3)	1 (1.9)	3 (5.8)	27 (50.0)	0 (0.0)	1 (3.8)	20 (76.9)	5 (19.2)	3.15 (0.489)
전체		3213 (47.6)	2725 (40.4)	366 (5.4)	336 (4.9)	3514 (52.0)	121 (1.8)	642 (9.5)	1815 (26.9)	769 (11.4)	2.97 (0.752)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⑥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최근 일 년 동안 화상통화를 통하여 직업인으로부터 멘토링 서비스를 받는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을 경험한 청소년은 5.6%에 불과하였다(표 IV-28). 이러한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의 경험률은 다른 진로체험 항목과 달리 특성화고(10.6%)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서, 그리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10.5%)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산어촌 진로교육 지원사업인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의 도움정도에 대한 전체 응답의 평균은 3.77로 다른 유형의 체험활동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를 보면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8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3,314 (94.1)	108 (3.1)	40 (1.1)	20 (0.6)	197 (5.6)	16 (8.2)	32 (16.3)	72 (36.7)	42 (21.4)	2.86 (0.916)	
	여학생	3,041 (94.1)	122 (3.7)	28 (0.9)	12 (0.4)	179 (5.5)	5 (2.8)	33 (18.3)	88 (48.9)	34 (18.9)	2.95 (0.731)	
지역 규모	대도시	2,664 (95.1)	63 (2.2)	31 (1.1)	16 (0.6)	130 (4.6)	4 (3.1)	23 (17.7)	53 (40.8)	29 (22.3)	2.98 (0.788)	
	중소도시	3,059 (94.2)	115 (3.5)	26 (0.8)	11 (0.3)	173 (5.3)	12 (6.9)	17 (9.8)	87 (50.3)	32 (18.5)	2.94 (0.811)	
	농산어촌	632 (89.5)	52 (7.5)	11 (1.6)	4 (0.6)	74 (10.5)	5 (6.8)	25 (33.8)	21 (28.4)	16 (21.6)	2.71 (0.916)	
학교 유형	중학교	2,942 (92.7)	130 (4.1)	53 (1.7)	13 (0.4)	222 (7.0)	12 (5.4)	39 (17.5)	90 (40.4)	48 (21.5)	2.92 (0.839)	
	고등학교	전체	3,414 (95.4)	99 (2.8)	15 (0.4)	18 (0.5)	154 (4.3)	9 (5.8)	26 (16.9)	71 (46.1)	28 (18.2)	2.88 (0.818)
		일반고	2,455 (96.8)	37 (1.5)	13 (0.5)	8 (0.3)	70 (2.8)	2 (2.9)	11 (15.7)	27 (38.6)	16 (22.9)	3.00 (0.816)
		특목고/ 자율고	327 (96.2)	7 (1.9)	1 (0.3)	2 (0.5)	12 (3.5)	1 (8.3)	2 (16.7)	7 (58.3)	1 (8.3)	2.80 (0.765)
		특성화/ 마이스터고	600 (89.4)	56 (8.4)	0 (0.0)	8 (1.2)	71 (10.6)	6 (8.5)	13 (18.3)	36 (50.7)	11 (15.5)	2.79 (0.834)
		예술고/ 체육고	31 (96.9)	0 (0.0)	1 (3.1)	0 (0.0)	1 (3.1)	0 (0.0)	0 (0.0)	1 (100.0)	0 (0.0)	3.00 (0.000)
		학업 성적	상	1,130 (94.1)	42 (3.5)	10 (0.8)	9 (0.8)	68 (5.7)	7 (10.3)	9 (13.2)	26 (38.2)	17 (25.0)
중	4,144 (94.2)		148 (3.4)	46 (1.1)	16 (0.4)	245 (5.6)	11 (4.5)	43 (17.6)	106 (43.4)	46 (18.9)	2.91 (0.801)	
하	1,041 (94.1)		36 (3.3)	11 (1.0)	6 (0.5)	58 (5.2)	3 (5.2)	11 (19.0)	28 (48.3)	11 (19.0)	2.90 (0.795)	
모름/ 무응답	41 (83.7)		4 (7.0)	0 (0.0)	1 (1.7)	6 (12.2)	0 (0.0)	2 (28.6)	1 (14.3)	2 (28.6)	3.08 (1.039)	
경제 수준	상	945 (92.4)	41 (4.0)	20 (2.0)	8 (0.8)	77 (7.5)	4 (5.1)	15 (19.2)	25 (32.1)	24 (30.8)	3.03 (0.895)	
	중	5,103 (94.5)	174 (3.2)	45 (0.8)	22 (0.4)	276 (5.1)	14 (5.1)	45 (16.3)	127 (46.0)	50 (18.1)	2.90 (0.797)	
	하	261 (93.5)	14 (5.1)	2 (0.7)	1 (0.4)	18 (6.5)	3 (17.6)	3 (17.6)	7 (41.2)	2 (11.8)	2.57 (0.992)	
	모름/ 무응답	46 (86.8)	2 (3.1)	1 (1.6)	1 (1.6)	5 (9.4)	0 (0.0)	2 (40.0)	1 (20.0)	0 (0.0)	2.38 (0.570)	
전체		6,355 (94.1)	230 (3.4)	68 (1.0)	32 (0.5)	376 (5.6)	21 (0.3)	65 (1.0)	160 (2.4)	76 (1.1)	2.91 (0.829)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⑦ 상급학교 입학설명회 및 탐방 견학

최근 일 년 동안의 상급학교 입학설명회 및 탐방 견학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의 약 36.6%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V-29). 이 역시 남학생(31.4%)보다는 여학생(42.4%)에게서, 중학생(24.4%)보다는 고등학생(47.5%)에게서 경험률이 높았는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험률(25.6%)은 다른 고등학생(51.4%~60.8%)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학업성적에 따른 경험률의 차이(상·중·하 각각 44.4%, 34.8%, 28.8%)도 다른 유형의 체험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상급학교 입학설명회 및 탐방 견학 경로를 보면 교내활동만을 통해 경험을 한 청소년은 전체 유경험자의 약 58%이며 학교 밖 활동을 통해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유경험자의 약 39%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이 활동을 학교 밖 활동으로도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산어촌보다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거나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 활동을 학교 밖 활동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상급학교 입학설명회 및 탐방 견학에 대한 만족도 여부 응답의 평균을 t-검증 또는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만족도 ($t(1352) = 4.398,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중>하)($F(2, 2299) = 38.689, p < .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이상일수록(상, 중>하)($F(2, 2295) = 9.921, p < .001$)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9 상급학교 입학설명회 참석 또는 학교 탐방 견학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2,409 (68.4)	598 (17.0)	304 (8.6)	153 (4.3)	1,105 (31.4)	56 (5.1)	150 (13.6)	526 (47.6)	277 (25.1)	3.02 (0.803)	
	여학생	1,852 (57.3)	833 (25.8)	342 (10.6)	153 (4.7)	1,370 (42.4)	52 (3.8)	211 (15.4)	721 (52.6)	318 (23.2)	3.00 (0.752)	
지역 규모	대도시	1,765 (63.0)	572 (20.4)	293 (10.4)	123 (4.4)	1,029 (36.7)	42 (4.1)	140 (13.6)	498 (48.3)	272 (26.4)	3.05 (0.779)	
	중소도시	2,096 (64.6)	669 (20.6)	299 (9.2)	132 (4.1)	1,140 (35.1)	50 (4.4)	182 (16.0)	593 (52.1)	239 (21.0)	2.96 (0.764)	
	농산어촌	400 (56.7)	190 (26.9)	54 (7.6)	52 (7.3)	305 (43.2)	15 (4.9)	40 (13.1)	156 (51.1)	84 (27.5)	3.04 (0.792)	
학교 유형	중학교 ^a		2,388 (75.3)	335 (10.6)	326 (10.3)	79 (2.5)	774 (24.4)	29 (3.7)	91 (11.8)	361 (46.6)	230 (29.7)	3.11 (0.776)
	고교	전체 ^b	1,872 (52.3)	1,097 (30.6)	320 (8.9)	227 (6.3)	1,701 (47.5)	78 (4.6)	271 (15.9)	886 (52.1)	365 (21.5)	2.96 (0.769)
		일반고	1,225 (48.3)	838 (33.1)	250 (9.9)	174 (6.8)	1,304 (51.4)	59 (4.5)	212 (16.3)	670 (51.4)	284 (21.8)	2.96 (0.773)
		특목고/ 자율고	135 (39.6)	130 (38.3)	38 (11.2)	31 (9.1)	205 (60.1)	5 (2.5)	31 (15.2)	122 (59.8)	40 (19.6)	2.99 (0.681)
		특성화/ 마이스터고	500 (74.4)	114 (16.9)	30 (4.4)	19 (2.8)	172 (25.6)	13 (7.6)	26 (15.1)	83 (48.3)	36 (20.9)	2.90 (0.844)
		예술고/ 체육고	13 (39.4)	15 (45.5)	2 (6.1)	3 (9.1)	20 (60.6)	1 (5.0)	2 (10.0)	12 (60.0)	5 (25.0)	3.05 (0.766)
		학업 성적	상 ^a	604 (50.3)	267 (22.2)	201 (16.7)	113 (9.4)	596 (49.6)	15 (2.5)	73 (12.2)	262 (44.0)	220 (36.9)
중	2,829 (64.3)	952 (21.6)	365 (8.3)	170 (3.9)	1,558 (35.4)	63 (4.0)	221 (14.2)	840 (53.9)	323 (20.7)	2.98 (0.742)		
하 ^b	792 (71.7)	206 (18.6)	77 (6.9)	23 (2.1)	309 (28.0)	29 (9.4)	68 (22.0)	139 (45.0)	50 (16.2)	2.73 (0.866)		
모름/ 무응답	35 (71.4)	6 (11.3)	4 (7.5)	1 (1.9)	12 (24.5)	0 (0.0)	0 (0.0)	6 (50.0)	3 (25.0)	3.29 (0.482)		
경제 수준	상 ^a		611 (59.7)	206 (20.1)	129 (12.5)	66 (6.4)	412 (40.2)	18 (4.4)	48 (11.7)	182 (44.3)	136 (33.1)	3.13 (0.807)
	중 ^a		3,450 (63.9)	1,137 (21.1)	495 (9.2)	230 (4.3)	1,934 (35.8)	72 (3.7)	302 (15.6)	1,003 (51.9)	435 (22.5)	2.99 (0.752)
	하 ^b		165 (59.4)	80 (28.8)	18 (6.5)	10 (93.6)	112 (40.3)	18 (15.9)	11 (9.7)	51 (45.1)	23 (20.4)	2.78 (0.989)
	모름/ 무응답		35 (64.8)	10 (18.5)	4 (7.4)	1 (1.9)	17 (31.5)	0 (0.0)	1 (5.9)	11 (64.7)	2 (11.8)	3.08 (0.423)
전체		4,261 (63.1)	1,432 (21.2)	646 (9.6)	306 (4.5)	2,475 (36.6)	107 (1.6)	362 (5.4)	1,247 (18.5)	595 (8.8)	3.01 (0.775)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⑧ 직업 및 진로 체험시설 방문

최근 일 년 동안 청소년 중 직업 및 진로 체험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8%였다(표 IV-30).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험률(47.1%)이 고등학생의 경험률(3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중에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험률(39.9%)이 다른 고등학생(24.2%~29.7%)에 비해 높았다. 이는 직업교육을 보다 중시하는 특성화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체험시설 방문의 경로를 보면 학교활동만을 통한 방문이 18.8%(유경험자의 약 48%), 학교 밖 활동만을 통한 방문은 13.2%(유경험자의 약 34%)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이나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활동만을 통한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체험시설 방문에 대한 도움 여부 응답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성별($t(2414) = -3.696, p < .001$) 및 학교급($t(2167) = 6.088, p < .001$)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정도가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F(2, 2398) = 4.294, p < .05$)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F(2, 2394) = 3.471, p < .05$)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사후검증(Scheffe)에 따르면 성적이 낮은 집단보다는 중간 이상의 집단(하<중, 상)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하<상)에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정도가 더 높았다.

표 IV-30

직업 및 진로 체험시설 방문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b	2,124 (60.3)	682 (19.4)	446 (12.7)	189 (5.4)	1,387 (39.4)	76 (5.5)	257 (18.5)	648 (46.7)	289 (20.8)	2.91 (0.812)	
	여학생 ^a	1,995 (61.7)	591 (18.3)	448 (13.9)	159 (4.9)	1,234 (38.2)	36 (2.9)	198 (16.1)	616 (50.0)	297 (24.1)	3.02 (0.747)	
지역 규모	대도시	1,729 (61.7)	474 (16.9)	374 (13.4)	159 (5.7)	1,064 (38.0)	35 (3.3)	176 (16.6)	508 (47.8)	251 (23.6)	3.00 (0.766)	
	중소도시	1,937 (59.7)	686 (21.1)	428 (13.2)	154 (4.7)	1,304 (40.2)	64 (4.9)	232 (17.8)	632 (48.5)	276 (21.2)	2.93 (0.794)	
	농산어촌	452 (64.0)	113 (16.0)	92 (13.0)	35 (4.9)	253 (35.8)	12 (4.8)	47 (18.7)	124 (49.2)	58 (23.0)	2.95 (0.799)	
학교 유형	중학교 ^a		1,671 (52.6)	641 (20.2)	575 (18.1)	228 (7.2)	1,494 (47.1)	53 (3.5)	217 (14.5)	732 (49.0)	385 (25.8)	3.05 (0.765)
	고 교	전체 ^b	2,447 (68.4)	632 (17.7)	319 (8.9)	121 (3.4)	1,127 (31.5)	59 (5.2)	238 (21.1)	532 (47.2)	201 (17.8)	2.85 (0.796)
		일반고	1,779 (70.1)	404 (15.9)	236 (9.3)	80 (3.1)	754 (29.7)	36 (4.8)	165 (21.9)	371 (49.2)	116 (15.4)	2.82 (0.767)
		특목고/ 자율고	241 (70.7)	46 (13.5)	31 (9.1)	13 (3.8)	97 (28.4)	6 (6.3)	23 (24.0)	38 (39.6)	23 (24.0)	2.85 (0.881)
		특성화/ 마이스터고	404 (60.1)	179 (26.7)	51 (7.6)	26 (3.9)	268 (39.9)	16 (6.0)	49 (18.4)	119 (44.6)	59 (22.1)	2.91 (0.840)
		예술고/ 체육고	24 (75.0)	3 (9.4)	1 (3.1)	2 (6.3)	8 (25.0)	0 (0.0)	0 (0.0)	4 (50.0)	3 (37.5)	3.41 (0.533)
		학업 성적	상 ^a	663 (55.2)	242 (20.1)	188 (15.6)	89 (7.4)	537 (44.7)	17 (3.2)	95 (17.7)	263 (49.1)	129 (24.1)
중 ^a	2,722 (61.9)	816 (18.6)	560 (12.7)	224 (5.1)	1,667 (37.9)	75 (4.5)	271 (16.3)	813 (48.8)	380 (22.8)	2.97 (0.786)		
하 ^b	708 (64.1)	210 (19.0)	135 (12.2)	34 (3.1)	395 (35.7)	19 (4.8)	88 (22.3)	177 (44.8)	73 (18.5)	2.85 (0.804)		
모름/ 무응답	26 (52.0)	5 (10.5)	10 (20.9)	2 (4.2)	22 (44.0)	0 (0.0)	1 (4.5)	11 (50.0)	3 (13.6)	3.12 (0.542)		
경제 수준	상 ^a	555 (54.3)	200 (19.6)	175 (17.1)	74 (7.3)	466 (45.6)	22 (4.7)	73 (15.7)	210 (45.1)	131 (28.1)	3.03 (0.821)	
	중	3,373 (62.5)	1,004 (18.6)	672 (12.4)	260 (4.8)	2,015 (37.3)	78 (3.9)	356 (17.7)	994 (49.3)	428 (21.2)	2.96 (0.767)	
	하 ^b	165 (59.4)	63 (22.7)	33 (11.9)	11 (3.9)	113 (40.6)	10 (8.8)	23 (20.2)	50 (43.9)	23 (20.2)	2.82 (0.883)	
	모름/ 무응답	26 (48.1)	6 (11.1)	14 (25.9)	3 (5.5)	26 (48.1)	2 (7.7)	3 (11.5)	10 (38.5)	4 (15.4)	2.84 (0.892)	
전체		4,118 (61.0)	1,273 (18.9)	894 (13.2)	349 (5.2)	2,621 (38.8)	112 (1.7)	455 (6.7)	1,264 (18.7)	586 (8.7)	2.96 (0.784)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⑨ 직업현장 체험

청소년의 31.5%는 최근 일 년 동안 직업현장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31). 이러한 응답률은 중학생(36.9%)과 특성화고등학생(37.2%)에게서 상대적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경우는 자유학기제나 진로탐색집중학기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현장을 체험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밖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장체험의 도움 여부 응답을 바탕으로 t-검증 또는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를 보면 거주지역 규모($F(2, 1592) = 6.670, p < .01$), 학교급($t(1835) = 2.363, p < .05$), 학업성적($F(2, 1939) = 3.1550, p < .05$), 가정의 경제적 수준($F(2, 1939) = 5.951, p < .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농산어촌에 사는 청소년 집단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사는 청소년 집단에서(농산어촌<중소도시, 대도시), 고등학생 집단보다는 중학생 집단에서, 학업성적인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상>하),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상>하)에서 평균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직업현장 체험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2,350 (66.7)	607 (17.2)	356 (10.1)	136 (3.9)	1,162 (33.0)	45 (3.9)	203 (17.5)	558 (48.0)	252 (21.7)	2.96 (0.774)	
	여학생	2,259 (69.9)	540 (16.7)	299 (9.3)	93 (2.9)	965 (29.9)	26 (2.7)	159 (16.5)	488 (50.5)	225 (23.3)	3.02 (0.736)	
지역규모	대도시 ^a	1,873 (66.8)	491 (17.5)	277 (9.9)	107 (3.8)	922 (32.9)	31 (3.4)	141 (15.3)	443 (48.0)	220 (23.9)	3.02 (0.762)	
	중소도시 ^a	2,256 (69.5)	529 (16.3)	308 (9.5)	105 (3.2)	981 (30.2)	25 (2.5)	176 (17.9)	484 (49.3)	222 (22.6)	3.00 (0.741)	
	농산어촌 ^b	480 (68.0)	127 (18.0)	69 (9.8)	16 (2.3)	224 (31.7)	14 (6.3)	45 (20.2)	119 (53.4)	34 (15.2)	2.81 (0.782)	
학교유형	중학교 ^a	1,994 (62.8)	578 (18.2)	401 (12.6)	140 (4.4)	1,171 (36.9)	30 (2.6)	184 (15.7)	586 (50.0)	270 (23.0)	3.02 (0.733)	
	고등학교	전체 ^b	2,614 (73.0)	569 (15.9)	254 (7.1)	89 (2.5)	956 (26.7)	40 (4.2)	179 (18.7)	460 (48.1)	207 (21.6)	2.94 (0.783)
		일반고	1,928 (76.0)	336 (13.2)	175 (6.9)	64 (2.5)	602 (23.7)	26 (4.3)	123 (20.4)	299 (49.6)	108 (17.9)	2.88 (0.768)
		특목고/ 자율고	237 (69.7)	60 (17.5)	27 (7.8)	8 (2.3)	100 (29.4)	3 (3.0)	18 (18.0)	50 (50.0)	24 (24.0)	3.01 (0.751)
		특성화/ 마이스터고	422 (62.8)	173 (25.6)	51 (7.6)	15 (2.2)	250 (37.2)	11 (4.4)	37 (14.8)	110 (44.0)	73 (29.2)	3.06 (0.815)
		예술고/ 체육고	27 (84.4)	1 (3.1)	1 (3.1)	2 (6.3)	4 (12.5)	0 (0.0)	0 (0.0)	1 (25.0)	2 (50.0)	3.67 (0.578)
		학업성적	상 ^a	751 (62.5)	242 (20.2)	128 (10.7)	61 (5.1)	449 (37.4)	12 (2.7)	77 (17.2)	203 (45.3)	123 (27.5)
중	3,040 (69.1)	721 (16.4)	425 (9.7)	134 (3.1)	1,346 (30.6)	48 (3.6)	214 (15.9)	690 (51.2)	289 (21.5)	2.98 (0.748)		
하 ^b	786 (71.1)	179 (16.2)	98 (8.9)	29 (2.6)	317 (28.7)	10 (3.2)	68 (21.5)	146 (46.2)	61 (19.3)	2.90 (0.767)		
모름/ 무응답	32 (65.3)	5 (9.6)	4 (7.7)	4 (7.7)	15 (30.6)	0 (0.0)	3 (20.0)	7 (46.7)	3 (20.0)	3.00 (0.715)		
경제수준	상 ^a	632 (61.8)	182 (17.8)	139 (13.6)	49 (4.8)	390 (38.1)	9 (2.3)	57 (14.7)	172 (44.2)	115 (29.6)	3.11 (0.763)	
	중	3,732 (69.1)	915 (17.0)	491 (9.1)	172 (3.2)	1,652 (30.6)	55 (3.3)	294 (17.8)	828 (50.2)	347 (21.0)	2.96 (0.751)	
	하 ^b	208 (74.6)	44 (15.7)	20 (7.2)	5 (1.8)	71 (25.4)	6 (8.5)	8 (11.3)	38 (53.5)	12 (16.9)	2.90 (0.810)	
	모름/ 무응답	36 (67.9)	6 (10.6)	5 (8.9)	3 (5.3)	15 (28.3)	0 (0.0)	3 (21.4)	7 (50.0)	2 (14.3)	2.91 (0.676)	
전체		4,609 (68.2)	1,147 (17.0)	655 (9.7)	229 (3.4)	2,128 (31.5)	70 (1.0)	362 (5.4)	1046 (15.5)	477 (7.1)	2.99 (0.757)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⑩ 직업현장 실무체험

마지막으로 최근 일 년 동안 인턴이나 도제식 수업 등을 통한 직업현장 실무 체험을 한 청소년은 13.6%였다(표 IV-32). 이러한 응답률은 중학생(18.4%)과 특성화고등학생(12.2%)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중학생의 경우는 자유학기제나 진로탐색집중학기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체험의 경로를 보면 학교활동을 통해서만 경험한 청소년이 6.4%(유경험자의 47.1%), 학교 밖 활동을 통해서만 경험한 청소년이 4.7%(유경험자의 34.6%)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자들이 인식하는 도움정도에 대한 전체 응답의 평균은 3.77로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에 이어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무체험의 도움 여부 응답을 바탕으로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를 보면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2, 813) = 3.597, p < .05$) 농산어촌에 사는 청소년 집단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사는 청소년 집단의(농산어촌<중소도시, 대도시) 평균이 더 높았다.

표 IV-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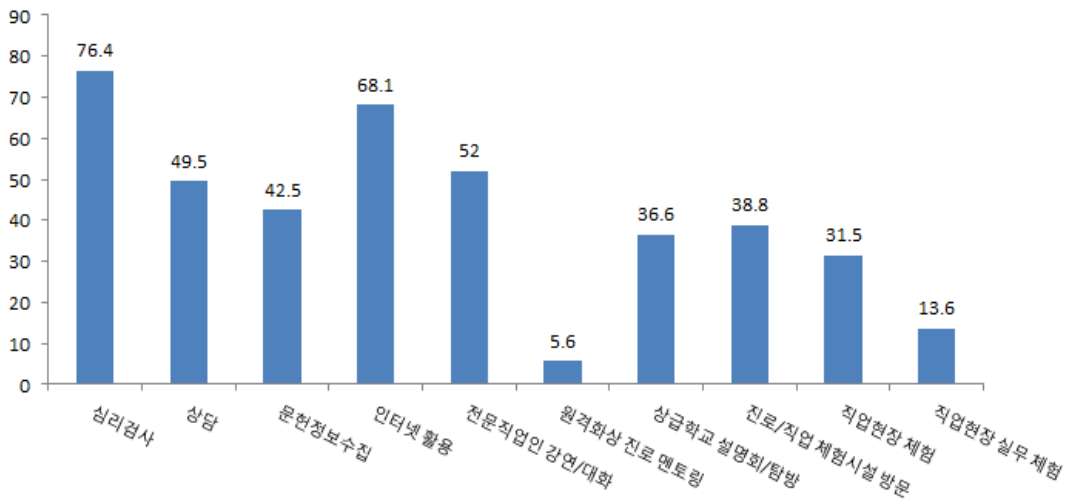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빈도(%)

구분		활동 참여여부					도움정도					
		없다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교내	교외	둘 다	계						
성별	남학생	3,021 (85.8)	211 (6.0)	175 (5.0)	57 (1.6)	490 (13.9)	15 (3.1)	63 (12.9)	221 (45.1)	126 (25.7)	3.08 (0.760)	
	여학생	2,794 (86.4)	219 (6.8)	142 (4.4)	37 (1.1)	429 (13.3)	10 (2.3)	62 (14.5)	197 (45.9)	123 (28.7)	3.10 (0.753)	
지역규모	대도시 ^a	2,368 (84.5)	205 (7.3)	136 (4.8)	49 (1.7)	427 (15.2)	15 (3.5)	53 (12.4)	184 (43.2)	128 (30.0)	3.12 (0.791)	
	중소도시 ^a	2,842 (87.6)	177 (5.4)	147 (4.5)	34 (1.1)	393 (12.1)	6 (1.5)	51 (12.9)	185 (47.0)	103 (26.1)	3.11 (0.713)	
	농산어촌 ^b	606 (85.8)	48 (6.9)	33 (4.7)	11 (1.6)	99 (14.0)	3 (3.0)	21 (21.0)	50 (50.0)	18 (18.0)	2.89 (0.749)	
학교유형	중학교	2,578 (81.2)	272 (8.6)	206 (6.5)	59 (1.9)	585 (18.4)	18 (3.1)	73 (12.5)	282 (48.2)	149 (25.5)	3.08 (0.747)	
	고등학교	전체	3,238 (90.4)	158 (4.4)	111 (3.1)	34 (1.0)	335 (9.4)	7 (2.1)	51 (15.3)	136 (40.7)	100 (29.9)	3.12 (0.774)
		일반고	2,313 (91.2)	99 (3.9)	83 (3.3)	21 (0.8)	219 (8.6)	2 (0.9)	38 (17.4)	91 (41.6)	59 (26.9)	3.09 (0.741)
		특목고/ 자율고	308 (90.9)	8 (2.4)	12 (3.6)	3 (0.9)	29 (8.6)	1 (3.4)	6 (20.7)	11 (37.9)	7 (24.1)	2.97 (0.842)
		특성화/ 마이스터고	587 (87.4)	49 (7.3)	16 (2.4)	10 (1.5)	85 (12.6)	4 (4.7)	7 (8.2)	34 (40.0)	34 (40.0)	3.23 (0.823)
		예술고/ 체육고	30 (93.8)	1 (3.1)	0 (0.0)	0 (0.0)	1 (3.1)	0 (0.0)	0 (0.0)	0 (0.0)	0 (0.0)	0 (0.000)
		학업성적	상	1,015 (84.5)	88 (7.3)	62 (5.2)	23 (1.9)	184 (15.3)	5 (2.7)	19 (10.3)	79 (42.9)	58 (31.5)
중	3,796 (86.3)	273 (6.2)	200 (4.5)	60 (1.4)	589 (13.4)	16 (2.7)	81 (13.8)	277 (47.0)	154 (26.1)	3.08 (0.751)		
하	966 (87.4)	67 (6.1)	51 (4.7)	10 (0.9)	137 (12.4)	4 (2.9)	24 (17.5)	56 (40.9)	35 (25.5)	3.02 (0.797)		
모름/ 무응답	38 (76.0)	3 (5.5)	4 (7.3)	1 (1.8)	10 (20.0)	0 (0.0)	0 (0.0)	6 (60.0)	2 (20.0)	3.19 (0.419)		
경제수준	상	833 (81.4)	75 (7.3)	68 (6.7)	29 (2.8)	188 (18.4)	7 (3.7)	21 (11.2)	75 (39.9)	63 (33.5)	3.17 (0.807)	
	중	4,691 (86.9)	332 (6.1)	238 (4.4)	64 (1.2)	692 (12.8)	16 (2.3)	101 (14.6)	322 (46.5)	178 (25.7)	3.07 (0.744)	
	하	247 (88.5)	21 (7.5)	8 (2.9)	0 (0.0)	32 (11.5)	2 (6.3)	2 (6.3)	16 (50.0)	8 (25.0)	3.06 (0.799)	
	모름/ 무응답	44 (81.5)	2 (3.7)	3 (5.6)	1 (1.9)	8 (14.8)	0 (0.0)	0 (0.0)	5 (62.5)	1 (12.5)	3.11 (0.346)	
전체		5,815 (86.1)	430 (6.4)	317 (4.7)	94 (1.4)	919 (13.6)	25 (0.4)	124 (1.8)	418 (6.2)	249 (3.7)	3.09 (0.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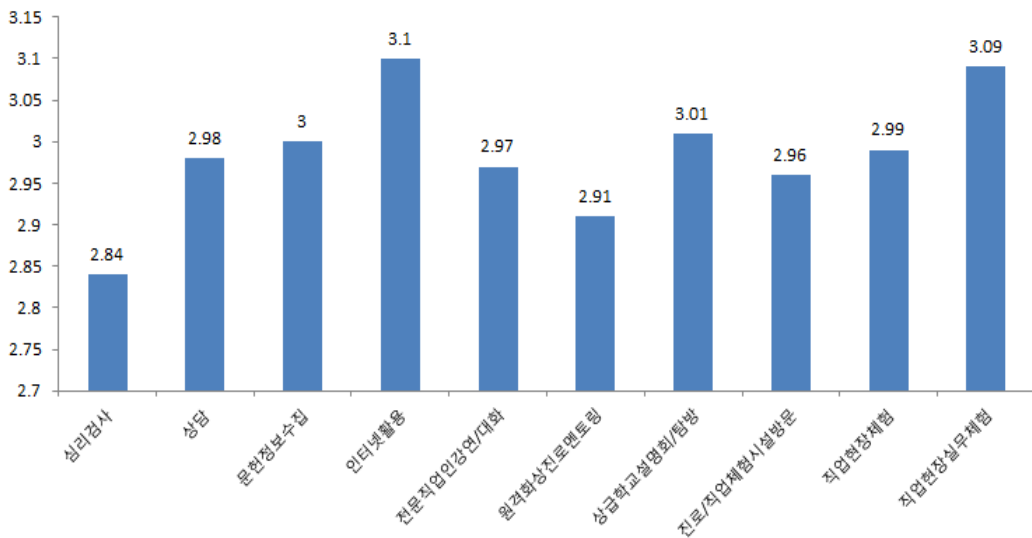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사후검정 결과를 a, b, c로 표기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해보면 청소년들은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심리검사를 받아 본 경우(76.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및 체험(68.1%),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참석 및 대화나누기(52%), 진로상담(49.5%) 순으로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경험률을 보인 유형은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5.6%)이었다(그림 IV-3). 이들 청소년이 경험한 진로체험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을 활용한 체험은 학교 밖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성별이나 학교급, 성적 등 청소년이 속한 하위 집단에 따라 진로체험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직업현장 체험에서는 남학생의 경험률이, 진로심리검사,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활용,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참석 및 대화나누기, 상급학교 설명회 참석 및 탐방에서는 여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 집단보다 중학생 집단에서 심리검사와 체험시설 방문, 현장체험 경험률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자유학기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경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3】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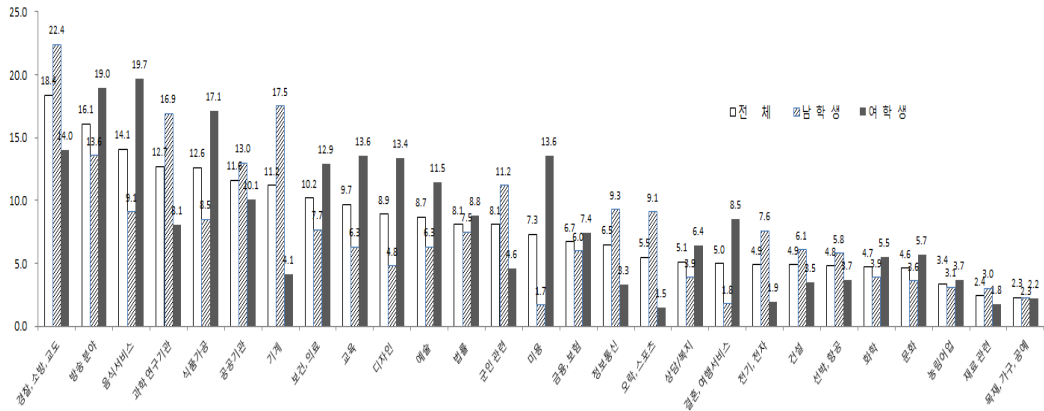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도움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4점 척도에서 최저 2.84점에서 최고 3.1점 사이에 위치하여 대체적으로 개인의 진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그림 IV-4). 특히 인터넷 활용(3.1점)과 직업현장 실무체험(3.09점)은 다른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대를 보였다. 하위집단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심리검사,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 직업/진로체험시설 방문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중소도시와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검사,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 상급학교 입학설명회/탐방, 직업현장체험, 직업현장실무체험에서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농산어촌과 도시간의 체험활동에 질적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4】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심리검사, 전문직업인 강연/대화, 상급학교 입학설명회/탐방, 직업현장체험, 직업현장실무체험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고 및 자율/특목고 학생들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비해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전문직업인 초청강연/대화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원격화상진로멘토링과 직업현장실무체험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업무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찰/소방/교도 분야의 체험(18.4%)이 가장 많았고 방송분야(16.1%), 식음료서비스 분야(14.1%)가 그 뒤를 이었다(그림 IV-5). 또한 체험 분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관습적으로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직업분야와 거의 일치하였다. 학교 유형별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특성화고와 일반/자율/특목고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기계관련 분야나 금융 분야 등 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서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중학교나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험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V-5】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업무환경에서의 체험 분야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업무환경에서의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표 IV-33, 표 IV-34),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한 진로체험을 한 경우는 66.1%,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4%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7명은 평소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 진로체험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농산어촌<중소도시, 대도시) ($F(2, 3247) = 6.636, p < .01$),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t(3066) = 5.424, p < .001$),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상>하) ($F(2, 3223) = 5.651, p < .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이하인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상>중, 하) ($F(2, 3220) = 19.016, p < .001$)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의 진로체험 경험률이 낮았다.

한편 체험활동의 흥미도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80.8%)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t(3234) = -7.205$, $p < .001$),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는 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F(2, 1451) = 5.792$, $p < .01$),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상>하)($F(2, 3223) = 5.651$, $p < .01$) 진로체험을 보다 흥미롭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흥미도는 전반적으로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서 체험을 한 집단의 경우(927%) 더욱 높아졌으며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흥미도(64.2%)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진로체험활동에 참여수준에서는 84.8%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하위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농산어촌<중소도시, 대도시)($F(2, 3247) = 5.763$, $p < .01$),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t(3249) = 2.531$, $p < .05$),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중>하)($F(2, 3223) = 13.847$, $p < .001$) 진로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역시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서 체험을 한 집단의 경우(95.1%) 더욱 높아졌으며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적극도(72.4%)는 이보다 낮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진로체험을 한 청소년 81%는 경험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하위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이($t(3239) = -5.166$, $p < .001$),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t(3249) = 2.531$, $p < .05$),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상>하)($F(2, 3223) = 13.847$, $p < .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상>하)($F(2, 3219) = 11.742$, $p < .001$) 진로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역시 앞 항목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서 체험을 한 집단의 경우(92.1%)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66.7%)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이로써 부분적으로 성별이나 거주지역의 규모, 학교급, 학교유형,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평소에 흥미가 있는 분야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업체험일수록 그 효과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표 IV-33

직업체험 결과 (1)

빈도(%)

구분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진로체험을 하였다					진로체험활동은 재미있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50 (2.8)	207 (11.6)	809 (45.4)	640 (35.9)	2.79 (0.905)	66 (3.7)	235 (13.2)	918 (51.5)	486 (27.3)	3.08 ^b (0.794)	
	여학생	18 (1.1)	118 (7.4)	652 (41.0)	758 (47.7)	2.94 (0.921)	29 (1.8)	189 (11.9)	763 (48.0)	563 (35.5)	3.28 ^a (0.769)	
지역 규모	대도시	28 (2.0)	122 (8.8)	582 (42.1)	610 (44.1)	2.91 ^a (0.916)	36 (2.6)	166 (12.0)	685 (49.5)	455 (32.9)	3.23 (0.776)	
	중소도시	35 (2.1)	156 (9.6)	707 (43.3)	673 (41.2)	2.85 ^a (0.902)	47 (2.9)	220 (13.5)	822 (50.3)	481 (29.5)	3.14 (0.803)	
	농산어촌	6 (1.7)	46 (13.0)	171 (48.3)	115 (32.5)	2.71 ^b (0.958)	12 (3.4)	38 (10.7)	175 (49.4)	113 (31.9)	3.14 (0.759)	
학교 유형	중학교	26 (1.4)	172 (9.3)	797 (43.1)	792 (42.9)	2.83 ^b (0.928)	46 (2.5)	212 (11.5)	933 (50.5)	595 (32.2)	3.24 (0.769)	
	고 등학교	전체	42 (2.8)	152 (10.0)	663 (43.6)	606 (39.8)	2.90 ^a (0.899)	49 (3.2)	212 (13.9)	748 (49.2)	454 (29.8)	3.09 (0.804)
		일반고	32 (3.2)	103 (10.2)	429 (42.7)	399 (39.7)	2.88 (0.923)	35 (3.5)	137 (13.6)	501 (49.9)	290 (28.9)	3.04 (0.825)
		특목고/ 자율고	0 (0.0)	13 (9.0)	57 (39.3)	68 (46.9)	3.05 (0.859)	2 (1.4)	22 (15.1)	63 (43.2)	52 (35.6)	3.25 ^a (0.724)
		특성화/ 마이스터고	10 (2.8)	36 (9.9)	172 (47.5)	136 (37.6)	2.87 (0.844)	12 (3.3)	53 (14.7)	178 (49.3)	110 (30.5)	3.16 ^b (0.766)
		예술고/ 체육고	0 (0.0)	0 (0.0)	6 (60.0)	3 (30.0)	3.34 (0.713)	0 (0.0)	0 (0.0)	7 (70.0)	2 (20.0)	3.43 (0.526)
		학업 성적	상	7 (1.0)	66 (9.5)	266 (38.2)	340 (48.9)	2.94 ^a (0.947)	14 (2.0)	83 (11.9)	335 (48.2)	246 (35.4)
중	37 (1.7)	206 (9.6)	955 (44.4)	878 (40.8)	2.86 (0.893)	55 (2.6)	269 (12.5)	1,096 (51.0)	657 (30.5)	3.19 (0.774)		
하	24 (4.8)	50 (10.1)	226 (45.5)	171 (34.4)	2.75 ^b (0.965)	26 (5.2)	70 (14.1)	232 (46.6)	143 (28.7)	3.02 ^b (0.859)		
모름/ 무응답	1 (3.7)	2 (7.4)	13 (48.1)	9 (33.3)	2.84 (0.767)	0 (0.0)	3 (11.5)	18 (69.2)	3 (11.5)	3.15 (0.779)		
경제 수준	상	11 (1.9)	45 (7.8)	212 (36.8)	295 (51.2)	3.07 ^a (0.908)	18 (3.1)	58 (10.1)	247 (42.8)	241 (41.8)	3.29 (0.774)	
	중	53 (2.0)	266 (10.1)	1,180 (44.8)	1,038 (39.5)	2.82 ^b (0.913)	72 (2.7)	341 (13.0)	1,352 (51.4)	772 (29.3)	3.15 (0.789)	
	하	3 (2.3)	11 (8.4)	52 (39.7)	56 (42.7)	2.73 ^b (0.898)	6 (4.6)	23 (17.6)	60 (45.8)	33 (25.2)	3.21 (0.816)	
	모름/ 무응답	1 (3.3)	2 (6.7)	16 (53.3)	9 (30.0)	2.75 (0.727)	0 (0.0)	3 (10.3)	21 (72.4)	3 (10.3)	3.06 (0.733)	
전체		297 (8.8)	727 (21.6)	1,357 (40.3)	870 (25.8)	2.86 (0.915)	123 (3.6)	405 (12.0)	1,499 (44.5)	1,224 (36.3)	3.18 (0.788)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

표 IV-34 직업체험 결과 (2)

빈도(%)

구분		진로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진로체험을 통해 그 분야의 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50 (2.8)	207 (11.6)	809 (45.4)	640 (35.9)	3.20 (0.759)	66 (3.7)	235 (13.2)	918 (51.5)	486 (27.3)	3.07 ^b (0.757)	
	여학생	18 (1.1)	118 (7.4)	652 (41.0)	758 (47.7)	3.39 (0.680)	29 (1.8)	189 (11.9)	763 (48.0)	563 (35.5)	3.20 ^a (0.722)	
지역 규모	대도시	28 (2.0)	122 (8.8)	582 (42.1)	610 (44.1)	3.32 ^a (0.725)	36 (2.6)	166 (12.0)	685 (49.5)	455 (32.9)	3.16 (0.738)	
	중소도시	35 (2.1)	156 (9.6)	707 (43.3)	673 (41.2)	3.28 ^a (0.732)	47 (2.9)	220 (13.5)	822 (50.3)	481 (29.5)	3.11 (0.745)	
	농산어촌	6 (1.7)	46 (13.0)	171 (48.3)	115 (32.5)	3.17 ^b (0.720)	12 (3.4)	38 (10.7)	175 (49.4)	113 (31.9)	3.15 (0.753)	
학교 유형	중학교	26 (1.4)	172 (9.3)	797 (43.1)	792 (42.9)	3.32 ^a (0.705)	46 (2.5)	212 (11.5)	933 (50.5)	595 (32.2)	3.16 ^a (0.728)	
	고등학교	전체	42 (2.8)	152 (10.0)	663 (43.6)	606 (39.8)	3.25 ^b (0.755)	49 (3.2)	212 (13.9)	748 (49.2)	454 (29.8)	3.10 ^b (0.761)
		일반고	32 (3.2)	103 (10.2)	429 (42.7)	399 (39.7)	3.24 (0.773)	35 (3.5)	137 (13.6)	501 (49.9)	290 (28.9)	3.09 (0.764)
		특목고/ 자율고	0 (0.0)	13 (9.0)	57 (39.3)	68 (46.9)	3.39 (0.667)	2 (1.4)	22 (15.1)	63 (43.2)	52 (35.6)	3.20 (0.739)
		특성화/ 마이스터고	10 (2.8)	36 (9.9)	172 (47.5)	136 (37.6)	3.23 (0.738)	12 (3.3)	53 (14.7)	178 (49.3)	110 (30.5)	3.09 (0.767)
		예술고/ 체육고	0 (0.0)	0 (0.0)	6 (60.0)	3 (30.0)	3.34 (0.503)	0 (0.0)	0 (0.0)	7 (70.0)	2 (20.0)	3.23 (0.445)
	학업성적	상	7 (1.0)	66 (9.5)	266 (38.2)	340 (48.9)	3.38 ^a (0.700)	14 (2.0)	83 (11.9)	335 (48.2)	246 (35.4)	3.20 ^a (0.728)
중	37 (1.7)	206 (9.6)	955 (44.4)	878 (40.8)	3.29 ^b (0.715)	55 (2.6)	269 (12.5)	1,096 (51.0)	657 (30.5)	3.13 (0.730)		
하	24 (4.8)	50 (10.1)	226 (45.5)	171 (34.4)	3.16 (0.806)	26 (5.2)	70 (14.1)	232 (46.6)	143 (28.7)	3.04 ^b (0.821)		
경제 수준	모름/ 무응답	1 (3.7)	2 (7.4)	13 (48.1)	9 (33.3)	3.21 ^c (0.720)	0 (0.0)	3 (11.5)	18 (69.2)	3 (11.5)	3.02 (0.506)	
	상	11 (1.9)	45 (7.8)	212 (36.8)	295 (51.2)	3.41 (0.720)	18 (3.1)	58 (10.1)	247 (42.8)	241 (41.8)	3.26 ^a (0.766)	
	중	53 (2.0)	266 (10.1)	1,180 (44.8)	1,038 (39.5)	3.26 (0.728)	72 (2.7)	341 (13.0)	1,352 (51.4)	772 (29.3)	3.11 (0.734)	
	하	3 (2.3)	11 (8.4)	52 (39.7)	56 (42.7)	3.32 (0.748)	6 (4.6)	23 (17.6)	60 (45.8)	33 (25.2)	2.99 (0.806)	
경제 수준	모름/ 무응답	1 (3.3)	2 (6.7)	16 (53.3)	9 (30.0)	3.19 (0.686)	0 (0.0)	3 (10.3)	21 (72.4)	3 (10.3)	3.02 ^b (0.482)	
	전체	68 (2.0)	324 (9.6)	1,460 (43.3)	1,398 (41.5)	3.29 (0.728)	95 (2.8)	424 (12.6)	1,681 (49.9)	1,049 (31.1)	3.13 (0.744)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 ** 음영은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에 흥미가 없는 분야에서의 체험이라 하더라도 경험자의 64~73%의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에서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혔다는 응답은 체험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IV-35).

이와 더불어 진로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해당분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90.1%)한 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 해당분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41.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업체험은 청소년들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기회로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35 평소 흥미도에 따른 기타 진로체험 태도 빈도(%)

구분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진로체험을 하였다		계	$\chi^2(df)$
			예	아니오		
진로체험활동은 재미있었다	예	빈도	2066	657	2723	422.09*
		%	63.55	20.21	83.76	
	아니오	빈도	161	367	528	
		%	4.95	11.29	16.24	
	계	빈도	2227	1024	3251	
		%	68.50	31.50	100.0	
진로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	빈도	2116	742	2858	377.67*
		%	65.11	22.83	87.94	
	아니오	빈도	110	282	392	
		%	3.39	8.68	12.06	
	계	빈도	2226	1024	3250	
		%	68.49	31.51	100.0	
진로체험을 통해 그 분야의 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예	빈도	2049	682	2731	338.48*
		%	63.05	20.99	84.03	
	아니오	빈도	177	342	519	
		%	5.45	10.52	15.97	
	계	빈도	2226	1024	3250	
		%	68.49	31.51	100.0	

* $p < .001$

(3)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의 최근 일 년간 아르바이트 체험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12.1%에 불과하였다. 이들 중 특히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험률(41.5%)은 중학생(4%)이나 일반/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8.6%~15%)의 경험률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는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수준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IV-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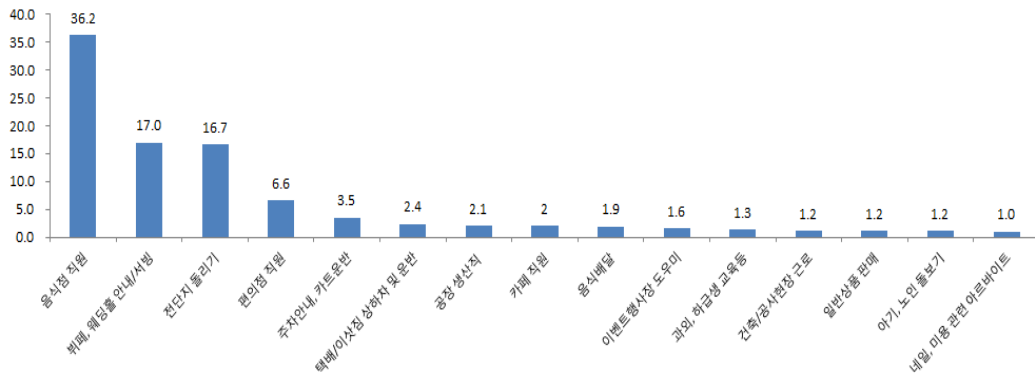
표 IV-3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아르바이트 기간 빈도(%)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있다						
			1주일 미만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성별	남학생	3,054 (86.7)	114 (3.3)	80 (2.3)	73 (2.1)	66 (1.9)	84 (2.4)	421 (12.0)	
	여학생	2,801 (86.6)	122 (3.8)	63 (1.9)	65 (2.0)	75 (2.3)	70 (2.2)	395 (12.2)	
지역 규모	대도시	2,484 (88.7)	98 (3.5)	51 (1.8)	40 (1.4)	53 (1.9)	32 (1.1)	274 (9.8)	
	중소도시	2,751 (84.8)	107 (3.3)	74 (2.3)	85 (2.6)	83 (2.6)	105 (3.2)	458 (14.1)	
	농산어촌	620 (87.7)	31 (4.4)	19 (2.7)	13 (1.9)	5 (0.7)	16 (2.3)	85 (12.0)	
학교 유형	중학교	3,006 (94.7)	56 (1.8)	32) (1.0)	19 (0.6)	8 (0.3)	9 (0.3)	126 (4.0)	
	고 등 학 교	전체	2,850 (79.6)	181 (5.1)	111 (3.1)	119 (3.3)	132 (3.7)	145 (4.1)	690 (19.3)
		일반고	2,125 (83.8)	119 (4.7)	64 (2.5)	64 (2.5)	61 (2.4)	72 (2.8)	380 (15.0)
		특목고/ 자율고	307 (90.6)	9 (2.6)	10 (2.9)	5 (1.4)	3 (0.9)	3 (0.9)	30 (8.6)
		특성화/ 마이스터고	387 (57.6)	53 (7.9)	35 (5.2)	49 (7.3)	69 (10.3)	70 (10.5)	279 (41.5)
		예술고/ 체육고	29 (90.6)	0 (0.0)	2 (6.3)	1 (3.1)	0 (0.0)	0 (0.0)	3 (9.4)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있다					
			1주일 미만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학업 성적	상	1112 (92.7)	23 (2.0)	16 (1.4)	24 (2.0)	7 (0.6)	3 (0.3)	74 (6.2)
	중	3876 (88.1)	152 (3.5)	80 (1.8)	74 (1.7)	85 (1.9)	81 (1.8)	475 (10.8)
	하	830 (75.1)	59 (5.3)	47 (4.3)	38 (3.4)	46 (4.2)	65 (5.9)	256 (23.2)
	모름/ 무응답	36 (72.0)	2 (4.4)	1 (2.2)	1 (2.2)	1 (2.2)	5 (11.0)	11 (22.0)
경제 수준	상	915 (89.4)	28 (2.7)	16 (1.5)	27 (2.6)	16 (1.5)	9 (0.9)	97 (9.5)
	중	4,688 (86.8)	193 (3.6)	119 (2.2)	100 (1.9)	110 (2.0)	123 (2.3)	647 (12.0)
	하	209 (75.2)	13 (4.7)	9 (3.2)	11 (4.0)	15 (5.4)	16 (5.8)	64 (23.0)
	모름/ 무응답	43 (79.6)	2 (3.7)	0 (0.0)	0 (0.0)	1 (1.9)	5 (9.3)	8 (14.8)
전체		5,855 (86.7)	237 (3.5)	144 (2.1)	138 (2.0)	140 (2.1)	154 (2.3)	816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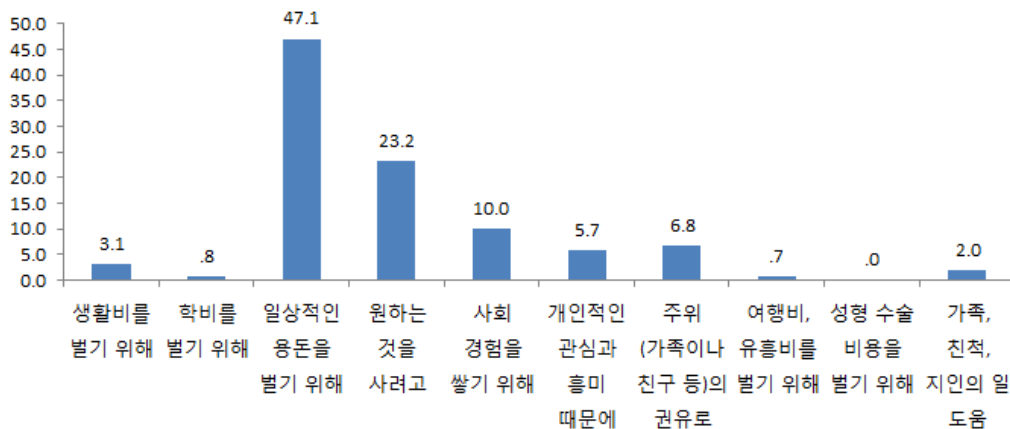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청소년들이 가장 오래 한 아르바이트는 음식적 직원(36.2%)이었으며 뷔페/웨딩홀 안내 및 서빙(17%), 전단지 배부(16.7%), 편의점 직원(6.6%)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IV-6]에 제시된 분야 이외에도 세차, 마트 계산원, 놀이공원도우미, 자전거 정비, 촬영 아르바이트, 주유소 직원 등 다양한 분야가 언급되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76.5%가 요식업 및 편의점 직원, 전단지 배부 등에 몰려 있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분야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아르바이트 체험 분야

아르바이트 기간은 유경험자 중 1개월 미만이 46.6%였고 6개월 이상 했다는 응답은 18.9%였다.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짧은 반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표 IV-36).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이유로는 주로 일상적인 용돈을 벌기위해서(47.1%)나 원하는 것을 사기위해서(23.2%)였고 사회경험을 쌓거나(10%),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5.7%)이라는 응답률은 그리 높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목적이 청소년의 진로체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IV-7).



【그림 IV-7】 아르바이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청소년들의 태도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 숙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표 IV-3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경험은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작용하거나 향후 직업을 갖는 데 경력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각각 26%, 36.4%)은 많지 않았으나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돈이나 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각각 79.4%, 81.9%), 사회생활 및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응답(각각 76.4%, 70%)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87.2%, 적응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75.5%와 67.9%, 그리고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과 사회경제 생활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향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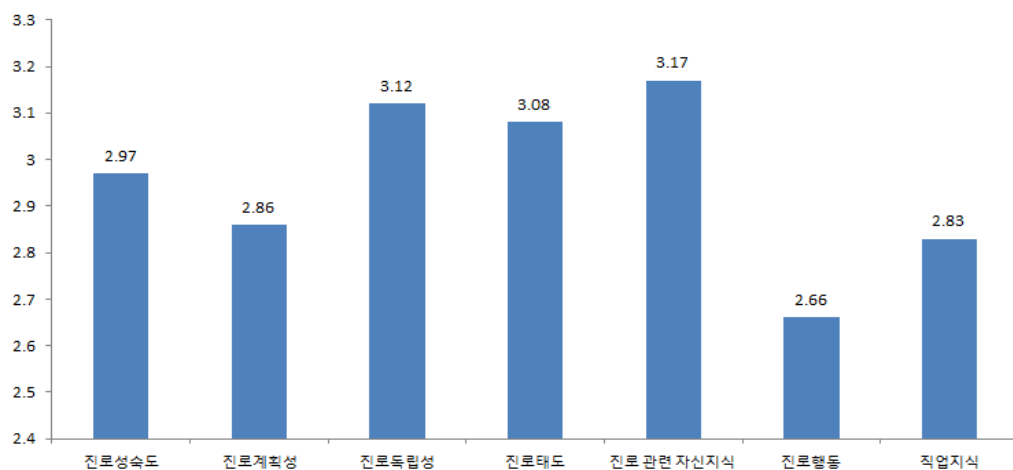
표 IV-37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태도 빈도(%)

항목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태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1)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308 (37.8)	292 (35.8)	153 (18.8)	59 (7.2)	1.95 (0.93)
(2)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	253 (31.0)	262 (32.1)	227 (27.8)	70 (8.6)	2.14 (0.96)
(3)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졌다	52 (6.4)	91 (11.1)	419 (51.4)	249 (30.5)	3.07 (0.82)
(4)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졌다	60 (7.4)	103 (12.7)	413 (50.6)	235 (28.8)	3.01 (0.85)
(5)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55 (6.7)	131 (16.1)	395 (48.4)	228 (28.0)	2.99 (0.85)
(6)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72 (8.8)	168 (20.6)	391 (47.9)	181 (22.1)	2.84 (0.87)
(7)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36 (4.4)	64 (7.9)	352 (43.2)	359 (44.0)	3.28 (0.79)
(8)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56 (6.9)	139 (17.1)	389 (47.6)	227 (27.9)	2.97 (0.85)
(9)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졌다	78 (9.6)	180 (22.0)	405 (49.6)	149 (18.3)	2.77 (0.86)
(10) 책임감이 높아졌다	59 (7.3)	138 (17.0)	393 (48.1)	222 (27.2)	2.96 (0.86)

* 모름/무응답은 이 표에서 표기하지 않음.

(4) 진로성숙도 및 직업지식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및 직업지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진로성숙도는 다섯 가지 하위 영역, 즉 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지식, 진로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 전체 평균점수 및 각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 그리고 직업지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는 [그림 IV-8]과 같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과 진로 독립성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진로행동의 평균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성숙도에서 실질적인 진로행동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덜 발달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진로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성숙도를 전체 및 각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각 하위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8】 (하위영역별) 진로성숙도 및 직업지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① 진로성숙도: 전체

진로 성숙도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은 2.97점(점수 분포 1점~4점)이며 평균값은 하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보다는 일반고 및 특목고/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이하인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진로성숙도의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38).

표 IV-38 하위 집단별 진로 성숙도의 정도

구분		진로 성숙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df)$ (Sheffe)
성별	남	3,516	2.95	0.445	-4.665(6732.79)***
	여	3,231	3.00	0.426	
학교급	중학교	3,172	2.95	0.445	-3.968(6580.70)***
	고등학교	3,575	2.99	0.42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35	3.00	0.427	15.217(2, 3539)*** (특목/자율)일반, 특성/마이스터)
	특목고/자율고	340	3.04	0.4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7	2.91	0.431	
학업성적	상	1,201	3.13	0.425	136.653(2, 6694)*** (상)중)하)
	중	4,395	2.96	0.413	
	하	1,102	2.84	0.489	
가정경제 수준	상	1,023	3.12	0.429	78.658(2, 6689)*** (상)중, 하)
	중	5,391	2.94	0.429	
	하	279	2.89	0.501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11	2.97	0.482	-.346(995.29)
	없음	5,854	2.97	0.428	
계		6,747	2.97	0.437	-

*** $p < 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39).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하고도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 정도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체험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진로체험활동을 통제하고도 그 체험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량은 각각 5%와 4%이다.

표 IV-39 진로 성숙도(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2	Adjusted R^2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057	4.564***	.069	.068	.069
	더미학교유형a	.080	6.109***			
	더미학교유형b	.046	3.630***			
	더미학교유형c	-.004	-.306			
	학업 성적	.168	13.160***			
	가정 경제 수준	.148	11.463***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239	19.588***	.124	.123	.055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342	17.445***	.166	.165	.042

* $p < .05$, ** $p < .01$, *** $p < .001$

†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② 진로성숙도: 진로 계획성

진로 계획성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은 2.86점(점수 분포 1점~4점)이지만 평균값은 하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보다는 특목고/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계획성의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40).

표 IV-40 하위 집단별 진로 계획성의 정도

구분		진로 계획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df)$ (Scheffe)
성별	남	3,493	2.85	0.634	-.392(6691.060)
	여	3,213	2.86	0.610	
학교급	중학교	3,150	2.82	0.645	-4.526(6463.776)***
	고등학교	3,556	2.89	0.600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16	2.89	0.598	5.595(2, 3520)** (특목/자율)특성/마이스터)
	특목고/자율고	339	2.95	0.58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7	2.83	0.612	
학업성적	상	1,198	3.12	0.599	164.515(2, 6653)*** (상)중)하)
	중	4,368	2.84	0.587	
	하	1,090	2.65	0.694	
가정경제 수준	상	1,018	3.10	0.619	95.865(2, 6649)*** (상)중)하)
	중	5,359	2.82	0.610	
	하	275	2.71	0.672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06	2.86	0.674	.318(999.507)
	없음	5,820	2.86	0.614	
계		6,706	2.86	0.623	-

*** $p < 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성과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41).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하고도 진로체험

활동 및 도움 정도와 진로계획성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41 진로 계획성(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 ²	Adjusted R ²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015	1.203	.076	.075	.076
	더미학교유형a†	.083	6.339***			
	더미학교유형b†	.050	3.930***			
	더미학교유형c†	.029	2.257*			
	학업 성적	.184	14.450***			
	가정 경제 수준	.156	12.106***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210	17.118***	.118	.117	.043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307	15.509***	.152	.151	.034

* $p < .05$, ** $p < .01$, *** $p < .001$

†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즉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체험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배경변인과 진로체험을 통제하고도 그 체험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진로체험과 도움정도에 따른 설명량은 각각 4%와 3%이다.

③ 진로성숙도: 진로 독립성

진로 독립성에 대한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는 3.12점(점수 분포 1점~4점)이며 평균값은 하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났다. 즉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보다는 특목고/자율고 또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에서 진로계획성의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42). 상식선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성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2 하위 집단별 진로 독립성의 정도

구분		진로 독립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df)$ (Scheffe)
성별	남	3,490	3.12	0.535	-1.201(6710)
	여	3,222	3.13	0.519	
학교급	중학교	3,149	3.12	0.527	-1.428(6710)
	고등학교	3,563	3.13	0.52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28	3.15	0.532	8.720(2, 3527)*** (특목/자율, 일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목고/자율고	337	3.19	0.50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6	3.06	0.523	
학업성적	상	1,195	3.23	0.525	37.815(2, 6659)*** (상)중)하)
	중	4,374	3.12	0.517	
	하	1,093	3.05	0.558	
가정경제 수준	상	1,016	3.20	0.534	10.865(2, 6656)*** (상)하)
	중	5,368	3.11	0.523	
	하	274	3.12	0.573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06	3.08	0.542	-2.328(6631)*
	없음	5,827	3.13	0.525	
계		6,712	3.12	0.528	-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독립성과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43).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하고도 진로체험 활동 및 도움 정도는 청소년들의 진로독립성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43 진로 독립성(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2	Adjusted R^2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004	.306	.017	.016	.017
	더미학교유형a †	.032	2.362*			
	더미학교유형b †	.026	1.978*			
	더미학교유형c †	-.021	-1.538			
	학업 성적	.099	7.535***			
	가정 경제 수준	.051	3.808***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067	5.203***	.021	.020	.004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138	6.512***	.028	.027	.007

* $p < .05$, ** $p < .01$, *** $p < .001$

†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즉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체험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배경변인과 진로체험정도를 통제하고도 그 체험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진로독립성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량은 각각 1%도 채 안 되는 매우 적은 설명량에 불과하여 진로체험활동 정도나 그에 따른 도움 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독립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④ 진로성숙도: 진로태도

전체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점수 평균은 3.08점(점수 분포 1점~4점)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하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 집단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보다는 일반고 또는 특목고/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에서 진로태도의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44).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진로 태도의 점수가 낮은 것은 진로독립성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성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4 하위 집단별 진로 태도의 정도

구분		진로 태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df)(Scheffe)
성별	남	3,492	3.02	0.527	-10.965(6682.987)***
	여	3,217	3.15	0.457	
학교급	중학교	3,149	3.11	0.506	3.796(6553.336)***
	고등학교	3,560	3.06	0.491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25	3.09	0.485	26.174(2, 3524)*** (특목/자율, 일반) 특성/마이스터)
	특목고/자율고	338	3.07	0.499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5	2.94	0.492	
학업성적	상	1,194	3.19	0.499	62.550(2, 6657)*** (상>중>하)
	중	4,370	3.08	0.488	
	하	1,096	2.96	0.518	
가정경제 수준	상	1,016	3.13	0.535	7.678(2, 6653)*** (상>하)
	중	5,363	3.08	0.490	
	하	279	3.02	0.533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08	2.99	0.512	-5.611(6627)***
	없음	5,821	3.09	0.496	
계		6,709	3.08	0.499	-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와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45).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하고도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 정도는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와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변화된 설명량을 살펴 볼 때,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정도의 설명량은 매우 적어 진로체험활동 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단, 진로체험활동의 도움 정도는 약 3%의 변화된 설명량을 보여줌으로써 배경변인 및 체험활동 정도를 통제한 후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진로태도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V-45 진로 태도(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2	Adjusted R^2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120	9.497***	.047	.046	.047
	더미학교유형a	-.009	-.684			
	더미학교유형b	-.012	-.946			
	더미학교유형c	-.093	-7.073***			
	학업 성적	.135	10.405***			
	가정 경제 수준	.049	3.713***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075	5.911***	.053	.052	.005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309	15.030***	.087	.086	.034

* $p < .05$, ** $p < .01$, *** $p < .001$

†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⑤ 진로성숙도: 진로 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 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은 3.17점(점수 분포 1점~4점)이며 평균값은 하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즉,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집단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나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보다는 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이하인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진로계획성의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46).

표 IV-46 하위 집단별 진로 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의 정도

구분		진로 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df)$ (Scheffe)
성별	남	3,498	3.18	0.544	1.336(6710)
	여	3,214	3.16	0.540	
학교급	중학교	3,143	3.21	0.554	5.902(6512.209)***
	고등학교	3,569	3.13	0.52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33	3.13	0.523	5.030(2, 3533)** (특목/자율 > 일반, 특성/마이스터)
	특목고/자율고	339	3.20	0.51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5	3.09	0.553	
학업성적	상	1,195	3.32	0.512	75.944(2, 6660)*** (상>중>하)
	중	4,373	3.15	0.522	
	하	1,096	3.06	0.61098	
가정경제 수준	상	1,016	3.37	0.504	87.096(2, 6657)*** (상>중, 하)
	중	5,369	3.13	0.535	
	하	276	3.08	0.635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09	3.14	0.580	-1.338(1008.146)
	없음	5,824	3.17	0.535	
계		6,712	3.17	0.542	-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과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47).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한 후의 진로체험활동, 그리고 배경변인 및 진로체험활동을 통제한 후의 도움 정도는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지식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정도 및 도움정도의 변화된 설명량은 각각 2% 정도로 그쳤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47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2	Adjusted R^2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015	-1.204	.047	.046	.047
	더미학교유형a	-.055	-4.099***			
	더미학교유형b	-.008	-.585			
	더미학교유형c	-.043	-3.221**			
	학업 성적	.100	7.755***			
	가정 경제 수준	.148	11.319***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141	11.149***	.066	.065	.019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239	11.579***	.086	.085	.020

* $p < .05$, ** $p < .01$, *** $p < .001$

†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⑥ 진로성숙도: 진로행동

진로 행동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은 2.66점(점수 분포 1점~4점)이며 평균값은 하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집단보다는 특목고/자율고 또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행동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48).

표 IV-48 하위 집단별 진로 행동의 정도

구분		진로 행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i>t</i> 또는 $F(df)$ (Sheffe)
성별	남	3,480	2.61	0.672	-6.606(6683.282)***
	여	3,214	2.72	0.644	
학교급	중학교	3,142	2.55	0.682	-13.726(6406.717)***
	고등학교	3,552	2.77	0.624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16	2.78	0.609	13.138(2, 3517)*** (특목/자율, 일반 > 특성/마이스터)
	특목고/자율고	338	2.81	0.6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6	2.65	0.669	
학업성적	상	1,181	2.83	0.676	68.824(2, 6642)*** (상)중)하)
	중	4,370	2.65	0.630	
	하	1,094	2.51	0.722	
가정경제 수준	상	1,014	2.85	0.670	52.643(2, 6638)*** (상)중, 하)
	중	5,350	2.63	0.648	
	하	277	2.59	0.744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07	2.77	0.728	4.473(992.387)***
	없음	5,810	2.65	0.649	
계		6,694	2.66	0.661	-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과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49).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하고도 진로체험활동, 그리고 배경변인과 진로활동 정도를 통제한 후의 도움 정도는 청소년들의 진로행동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량은 각각 약 11%와 3%이다. 특히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와의 설명량은 볼 때 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IV-49 진로 행동(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2	Adjusted R^2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086	6.933***	.074	.073	.074
	더미학교유형a	.193	14.685***			
	더미학교유형b	.091	7.138***			
	더미학교유형c	.065	4.985***			
	학업 성적	.120	9.360***			
	가정 경제 수준	.133	10.259***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332	28.086***	.181	.180	.107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281	14.713***	.209	.208	.028

* $p < .05$, ** $p < .01$, *** $p < .001$

f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⑦ 직업지식

마지막으로 직업지식에 대한 전체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는 2.83점(점수 분포 1점~4점)이며 이 역시 하위 집단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보다는 특목/자율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서,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업지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았다(표 IV-50).

표 IV-50 하위 집단별 직업 지식의 정도

구분		진로 지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df)$ (Scheffe)
성별	남	3,477	2.83	0.636	.100(6680.227)
	여	3,209	2.83	0.602	
학교급	중학교	3,132	2.81	0.646	-2.492(6408.561)*
	고등학교	3,554	2.85	0.595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2,514	2.86	0.594	5.228(2, 3519)** (특목/자율)특성/마이스터)
	특목고/자율고	339	2.90	0.59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69	2.78	0.598	
학업성적	상	1,192	3.07	0.612	179.943(2, 6634)*** (상)중)하)
	중	4,358	2.82	0.579	
	하	1,087	2.59	0.690	
가정경제 수준	상	1,009	3.08	0.645	107.822(2, 6631)*** (상)중)하)
	중	5,351	2.79	0.601	
	하	275	2.62	0.667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807	2.84	0.666	.409(1004.078)
	없음	5,802	2.83	0.612	
계		6,687	2.83	0.620	-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및 유형,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직업지식과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51). 그 결과, 배경변인을 통제한 후의 진로체험활동 및 배경변인과 진로체험활동을 통제한 후의 도움 정도는 청소년들의 직업지식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량은 각각 약 6%와 3%이다.

표 IV-51 진로 지식(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β	t	R^2	Adjusted R^2	ΔR^2
통제변인	더미성별	.008	.678	.078	.077	.078
	더미학교유형a	.053	4.006***			
	더미학교유형b	.029	2.318*			
	더미학교유형c	.015	1.177			
	학업 성적	.182	14.222***			
	가정 경제 수준	.170	13.157***			
모형1	진로체험활동 경험정도	.245	20.208***	.136	.135	.058
모형2	진로체험활동 도움정도	.290	14.731***	.166	.165	.030

* $p < .05$, ** $p < .01$, *** $p < .001$

† 더미학교유형 abc: 중학교, 일반고, 특목/자율고,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나눈 것임.

⑧ 소결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평균 2.97로 중앙값인 2.5점보다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신의 진로성숙정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과 진로 독립성에서 특히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이에 비해 진로행동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하위 영역별 하위집단 간 차이를 보면 진로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경우보다는 일반고, 그리고 특히 특목고/자율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진로성숙도 전체의 점수와 일부 하위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역시 직업성숙도 및 직업 지식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는 하위영역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태도나 진로관련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는 중학생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진로계획성, 행동, 직업지식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중학생은 관념이나 태도의 측면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적극성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의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체험활동 및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진로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향상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행동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조사의 학교표본에 근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담당교사로서 중학교 교사는 111명, 고등학교 교사는 107명으로 총 218명이다. 이 중 남성은 94명(43.1%), 여성은 121명(55.5%)으로 여자교사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들의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23세에서 최대 60세까지 넓게 분포해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52세이다. 이들의 교직경력 역시 올해 처음 교사생활을 시작한 경우부터 약 38년까지 다양하며 평균 교직기간은 약 28년이다. 진로진학상담(진로담당) 교사로 일한 경력은 평균 3.78년이나 올해 처음 담당 교사로 시작한 경우부터 최대 21년의 경력을 가진 경우까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이전 담당교과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였다. 그 중 사회계열(지리, 윤리, 일반사회 등)과 영어가 1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타 14.2%, 국어 12.8%, 수학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상담교사가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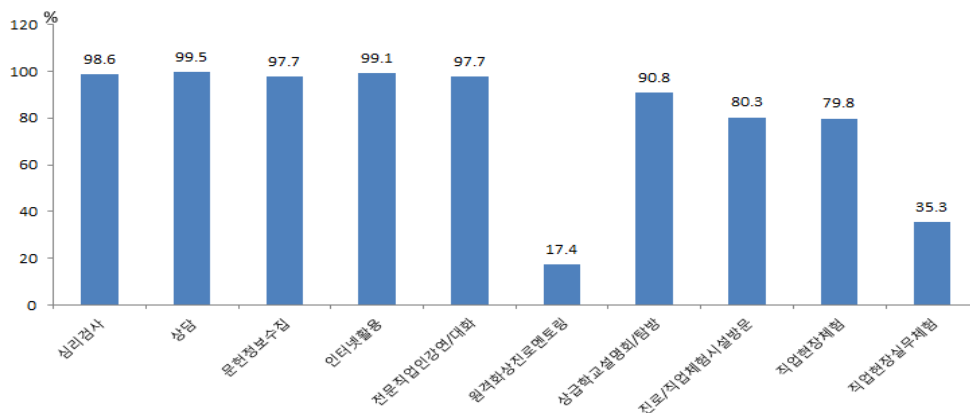
표 IV-52 설문조사 참여 교사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계			218	100.0
학교급	중학교		111	50.9
	고등학교	계	107	49.1 (100.0)
		일반고	63	(58.9)
		특목고/자율고	21	(19.6)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2	(20.6)
		예술고/체육고	1	(0.9)
성별	남성		94	43.1
	여성		121	55.5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연령		23	60	52
교사 경력		0	21	28
진로진학상담 경력		0	21	3.78

2) 학교 별 진로체험활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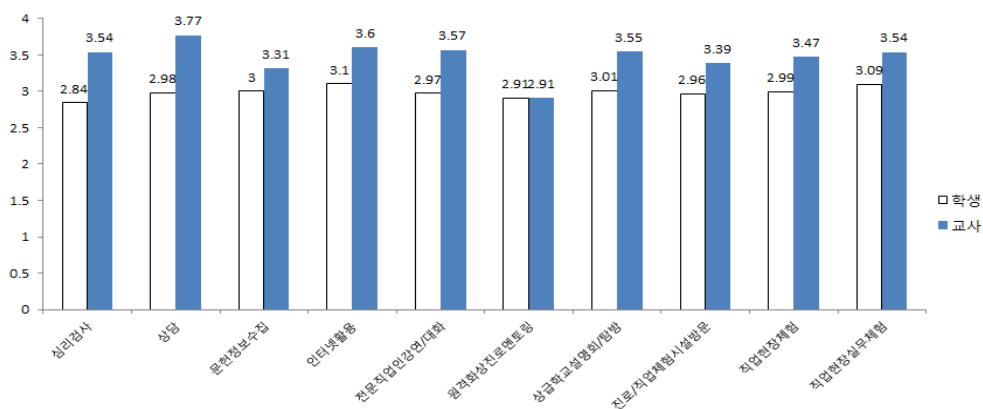
(1) 학교 별 진로체험활동 실시 및 도움 정도

학교 별 진로체험활동의 실시 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IV-9]와 같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진로상담이나 검사,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 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 상급학교 설명회 및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진로 및 직업 체험시설 방문이나 직업현장 체험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다소 떨어졌으며 직업현장실무체험이나 원격화상진로멘토링을 실시하는 학교는 적은 편에 속하였다.



【그림 IV-9】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별 실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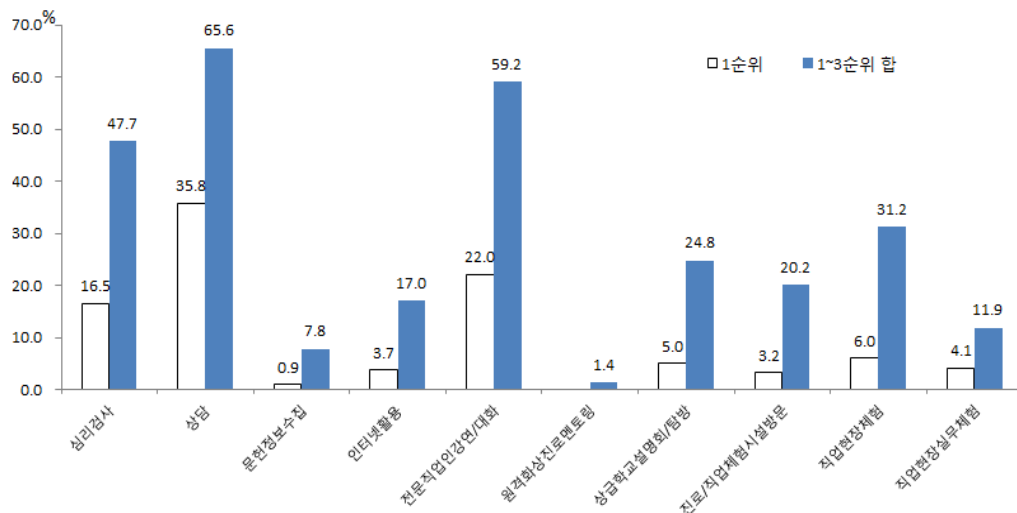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체험활동의 도움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도움정도를 앞서 제시한 학생들의 인식정도와 비교하여 보면(그림 IV-10),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의 인식은 모든 체험활동에서 보다 긍정적이다. 특히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 인식의 간극이 넓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이나 인터넷 활용, 상급학교 설명회 및 탐방, 직업현장실무체험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서 평균 3점 이상 받았으며 원격화상진로멘토링, 진로 및 직업 체험시설 방문이나 직업현장 체험, 직업현장실무체험 등에서는 도움정도에 대한 교사-학생 간 의견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그림 IV-10】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학생-교사 비교)

또한 t-검증 또는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해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를 보면 진로체험활동의 도움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있어서 지역규모, 학교급, 고등학교 유형 등에 따른 하위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진로검사에서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교사(평균 3.67점)가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사(평균 3.41점)에 비해($F(2, 207) = 5.952$, $p < .001$), 특목고/자율고에 근무하는 교사(평균 3.68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교사(평균 3.33점)에 비해($F(2, 99) = 3.751$, $p < .05$)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고, 원격화상 진로멘토링($t(33) = 3.106$, $p < .01$)과 진로 및 직업체험시설 방문($t(168) = 3.137$, $p < .01$)에서 중학교 교사(각각 평균 3.18점, 3.53점)가 고등학교 교사(각각 평균 2.46점, 3.25점)에 비해 도움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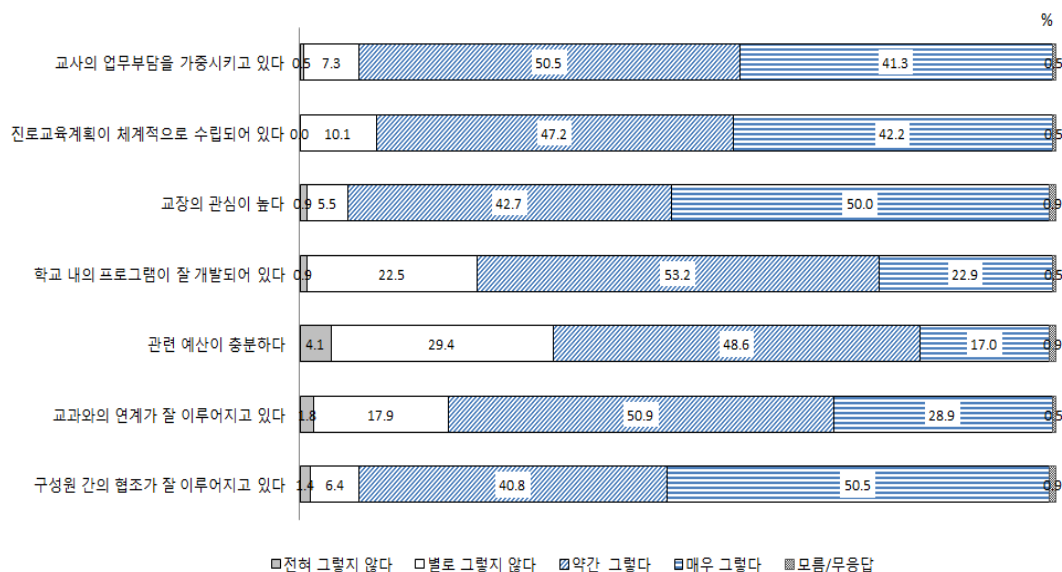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진로교육으로는 1순위에서는 진로상담(35.8%),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이나 대화나누기(22%), 진로심리검사(16.5%) 순으로 나타났으며, 1~3순위까지 모두 합한 경우에서도 진로상담(65.6%),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이나 대화나누기(59.2%), 진로심리검사(47.7%), 직업현장체험(31.2%), 상급학교 설명회 및 탐방(24.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11). 이러한 활동들은 앞서 교사들이 도움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직업체험활동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과 역점을 두어 제공하는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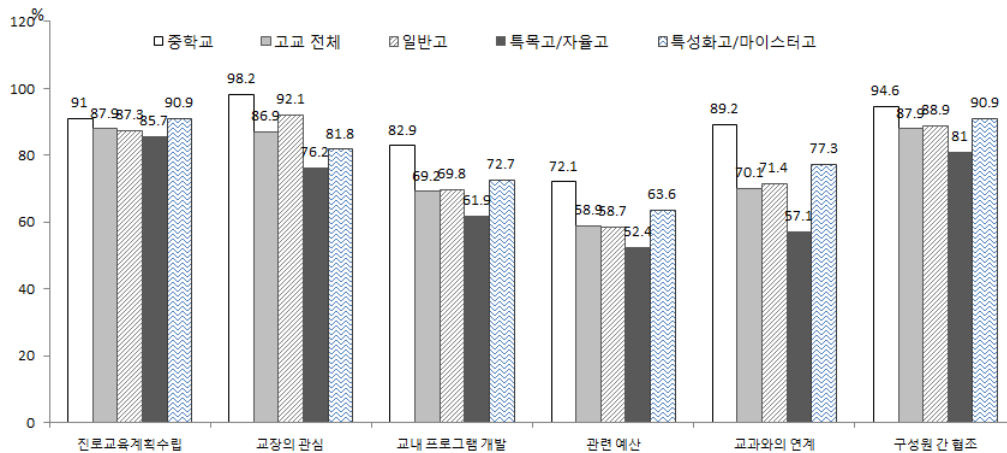
【그림 IV-11】 학교8에서 역점을 두는 진로체험활동

(2)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학교 환경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학교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정도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그림 IV-12), [그림 IV-13]. 특히 중학교 교장의 관심도는 고등학교 교장의 관심도에 비해 높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t(188) = 2.918$, $p < .01$), 이는 아마도 최근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긍정응답률로 볼 때 특목고/자율고는 일반고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비교해 볼 때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t-검증 또는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ANOVA, Scheffe)을 통한 평균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의 교사들이 농산어촌의 교사들에 비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는 큰 반면($F(2, 214) = 3.060$, $p < .05$),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는 작았다($F(2, 107) = 3.315$, $p < .05$).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2】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학교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그림 IV-13】 학교유형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학교 환경에 대한 교사의 긍정응답률

우선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성원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은 전체 응답자의 91.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로 나타났다. 구성원간 협조는 고등학교(87.9%)보다는 중학교(94.6%)에서, 특목고/자율고(81%) 보다는 일반고(88.9%)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90.9%)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IV-53).

표 IV-53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1) 빈도(%)

구분		(1)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성원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과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지 역 구 분	대도시	1 (1.1)	10 (10.5)	33 (34.7)	51 (53.7)	3.41 (0.722)	1 (1.1)	19 (20.0)	46 (48.4)	29 (30.5)	3.08 (0.739)	
	중소도시	1 (1.1)	4 (4.3)	42 (45.2)	46 (49.5)	3.43 (0.632)	1 (1.1)	18 (19.1)	49 (52.1)	26 (27.7)	3.06 (0.716)	
	농산어촌	1 (3.6)	0 (0.0)	14 (50.0)	13 (46.4)	3.39 (0.685)	2 (7.1)	2 (7.1)	16 (57.1)	8 (28.6)	3.07 (0.813)	
학 교 구 분	중학교	0 (0.0)	5 (4.5)	42 (38.2)	63 (57.3)	3.53 (0.586)	1 (0.9)	10 (9.1)	55 (50.0)	44 (40.0)	3.29 (0.668)	
	고 등 학 교	전체	3 (2.8)	9 (8.5)	47 (44.3)	47 (44.3)	3.30 (0.745)	3 (2.8)	29 (27.1)	56 (52.3)	19 (17.8)	2.85 (0.737)
		일반고	0 (0.0)	6 (9.7)	30 (48.4)	26 (41.9)	3.32 (0.647)	0 (0.0)	18 (28.6)	35 (55.6)	10 (15.9)	2.87 (0.660)
		특목고/ 자율고	2 (9.5)	2 (9.5)	7 (33.3)	10 (47.6)	3.19 (0.981)	3 (14.3)	6 (28.6)	8 (38.1)	4 (19.0)	2.62 (0.973)
		특성화/ 마이스터고	1 (4.5)	1 (4.5)	10 (45.5)	10 (45.5)	3.32 (0.780)	0 (0.0)	5 (22.7)	13 (59.1)	4 (18.2)	2.95 (0.653)
	전체	3 (1.4)	14 (6.5)	89 (41.2)	110 (50.9)	3.42 (0.677)	4 (1.8)	39 (18.0)	111 (51.2)	63 (29.0)	3.07 (0.735)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과 간의 연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9.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 역시 고등학교(70.1%)보다는 중학교(89.2%)에서, 특목고/자율고(57.1%) 보다는 일반고(71.4%)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77.3%)에서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IV-53).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약 65.6%로 나타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33.5%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등학교에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41.1%)가 중학교(26.1%)보다 많았으며,

특목고/자율고(47.6%)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V-54).

표 IV-54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2) 빈도(%)

구분			(3)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4)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의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3 (3.2)	23 (24.5)	52 (55.3)	16 (17.0)	2.86 (0.727)	2 (2.1)	15 (15.8)	50 (52.6)	28 (29.5)	3.09 (0.730)
	중소도시		3 (3.2)	31 (33.0)	42 (44.7)	18 (19.1)	2.80 (0.784)	0 (0.0)	25 (26.6)	53 (56.4)	16 (17.0)	2.90 (0.657)
	농산어촌		3 (10.7)	10 (35.7)	12 (42.9)	3 (10.7)	2.54 (0.838)	0 (0.0)	9 (32.1)	13 (46.4)	6 (21.4)	2.89 (0.737)
학교 구분	중학교		1 (0.9)	28 (25.7)	58 (53.2)	22 (20.2)	2.93 (0.703)	0 (0.0)	18 (16.4)	64 (58.2)	28 (25.5)	3.09 (0.643)
	고 등 학 교	전체	8 (7.5)	36 (33.6)	48 (44.9)	15 (14.0)	2.65 (0.814)	2 (1.9)	31 (29.0)	52 (48.6)	22 (20.6)	2.88 (0.749)
		일반고	2 (3.2)	24 (38.1)	28 (44.4)	9 (14.3)	2.70 (0.754)	0 (0.0)	19 (30.2)	33 (52.4)	11 (17.5)	2.87 (0.684)
		특목고/ 자율고	4 (19.0)	6 (28.6)	9 (42.9)	2 (9.5)	2.43 (0.926)	2 (9.5)	6 (28.6)	7 (33.3)	6 (28.6)	2.81 (0.981)
		특성화/ 마이스터고	2 (9.1)	6 (27.3)	10 (45.5)	4 (18.2)	2.73 (0.883)	0 (0.0)	6 (27.3)	12 (54.5)	4 (18.2)	2.91 (0.684)
전체			9 (4.2)	64 (29.6)	106 (49.1)	37 (17.1)	2.79 (0.770)	2 (0.9)	49 (22.6)	116 (53.5)	50 (23.0)	2.99 (0.704)

전체 응답자의 76.1%는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의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사(69.2%)보다는 중학교 교사(82.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특목고/자율고의 교사(61.9%)보다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교사(72.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IV-54).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장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92.7%)이었는데, 중학교의 경우 98.2%로 고등학교의 경우(86.9%)보다 교장의 관심도가 더 높았으며,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일반고(92.1%), 마이스터고/특성화고(81.8%), 특목고/자율고(76.2%) 순으로 교장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V-55).

표 IV-55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3) 빈도(%)

구분			(5)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장의 관심이 높다					(6) 학교진로교육 성취기준에 따른 진로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1 (1.1)	7 (7.4)	37 (38.9)	50 (52.6)	3.43 (0.679)	0 (0.0)	9 (9.5)	43 (45.3)	43 (45.3)	3.36 (0.651)
	중소도시		0 (0.0)	2 (2.2)	46 (49.5)	45 (48.4)	3.46 (0.543)	0 (0.0)	9 (9.6)	48 (51.1)	37 (39.4)	3.30 (0.636)
	농산어촌		1 (3.6)	3 (10.7)	10 (35.7)	14 (50.0)	3.32 (0.819)	0 (0.0)	4 (14.3)	12 (42.9)	12 (42.9)	3.29 (0.713)
학교 구분	중학교		0 (0.0)	1 (0.9)	47 (42.7)	62 (56.4)	3.55 (0.517)	0 (0.0)	9 (8.2)	46 (41.8)	55 (50.0)	3.42 (0.641)
	고 등 학 교	전체	2 (1.9)	11 (10.4)	46 (43.4)	47 (44.3)	3.30 (0.733)	0 (0.0)	13 (12.1)	57 (53.3)	37 (34.6)	3.22 (0.649)
		일반고	0 (0.0)	5 (7.9)	29 (46.0)	29 (46.0)	3.38 (0.633)	0 (0.0)	8 (12.7)	37 (58.7)	18 (28.6)	3.16 (0.627)
		특목고/ 자율고	1 (4.8)	4 (19.0)	8 (38.1)	8 (38.1)	3.10 (0.889)	0 (0.0)	3 (14.3)	7 (33.3)	11 (52.4)	3.38 (0.740)
		특성화/ 마이스터고	1 (4.8)	2 (9.5)	9 (42.9)	9 (42.9)	3.24 (0.831)	0 (0.0)	2 (9.1)	13 (59.1)	7 (31.8)	3.23 (0.612)
전체			2 (0.9)	12 (5.6)	93 (43.1)	109 (50.5)	3.43 (0.643)	0 (0.0)	22 (10.1)	103 (47.5)	92 (42.4)	3.32 (0.651)

학교진로교육 성취기준에 따른 진로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9.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위 집단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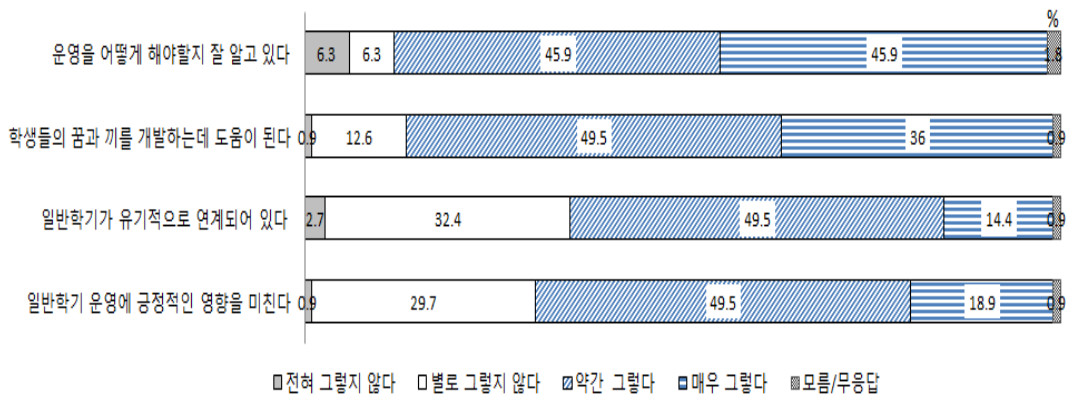
중학교 교사의 91%, 고등학교 교사의 8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사의 90.9%, 일반고 교사의 87.3%, 특목고/자율고 교사의 8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IV-55).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관련 교사의 업무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7%가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하였다. 업무부담에 대한 응답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다른 응답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내에서는 특목고/자율고 교사가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6).

표 IV-56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4) 빈도(%)

구분			(7)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1 (1.1)	9 (9.5)	42 (44.2)	43 (45.3)	3.34 (0.694)
	중소도시		0 (0.0)	5 (5.3)	46 (48.9)	43 (45.7)	3.40 (0.592)
	농산어촌		0 (0.0)	2 (7.1)	22 (78.6)	4 (14.3)	3.07 (0.466)
학교 구분	중학교		0 (0.0)	7 (6.4)	50 (45.5)	53 (48.2)	3.42 (0.612)
	고 등 학 교	전체	1 (0.9)	9 (8.4)	60 (56.1)	37 (34.6)	3.24 (0.642)
		일반고	1 (1.6)	6 (9.5)	36 (57.1)	20 (31.7)	3.19 (0.669)
		특목고/ 자율고	0 (0.0)	2 (9.5)	10 (47.6)	9 (42.9)	3.33 (0.658)
		특성화/ 마이스터고	0 (0.0)	1 (4.5)	13 (59.1)	8 (36.4)	3.32 (0.568)
전체			1 (0.5)	16 (7.4)	110 (50.7)	90 (41.5)	3.33 (0.631)

한편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중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IV-14), 자유학기제가 일반학기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68.5%,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응답은 64%,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5.6%, 자유학기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91.9%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영도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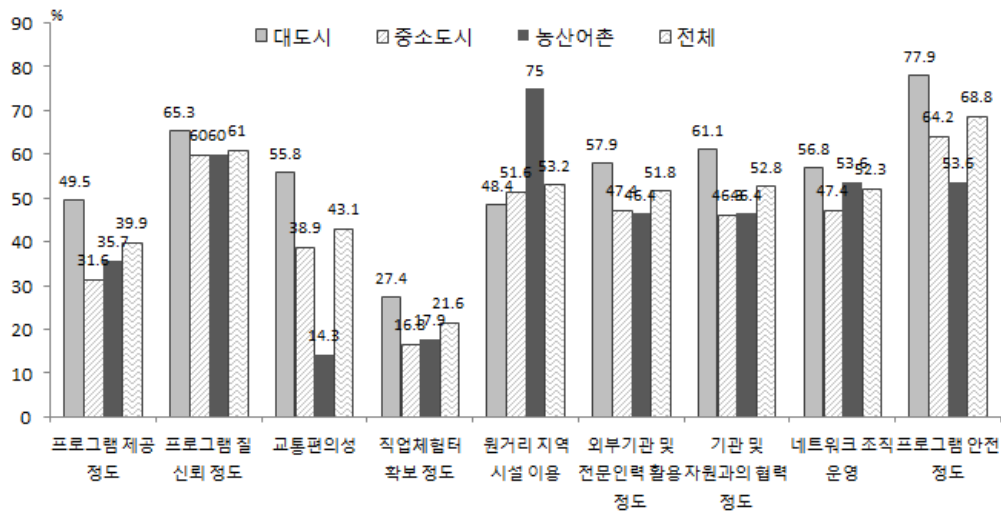


【그림 IV-14】 자유학기제 관련 중학교 교사의 인식

(3)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지역사회 환경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60.1%는 지역사회 내에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내 지역에 가용한 직업체험터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 있어서 78.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따라 근거리 지역보다는 원거리 지역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53.2%)가 다소 높았다(그림 IV-15).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서 원거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F(2, 215) = 4.176, p < .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규모가 작을수록 그 어려움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때 이용하는 교통편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43.1%로 용이하지 못하다는 응답(56.9%)이 더 많았다. 특히 농산어촌에서 교통편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F(2, 215) = 10.340, p < .001$), 이는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거리의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 역시 불편한 경우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V-15】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 관련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비록 지역사회 내에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61%로 10명 중 6명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68.8%였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10명 중 4명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으며, 10명 중 3명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의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여($F(2, 215) = 6.9280, p < .001$)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직업체험터 발굴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도와주는 외부기관이나 외부전문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1.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들과

협력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52.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네트워크 조직의 운영 여부에 있어서는 52.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만이 지역 사회 내 외부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외부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들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을 80%에 가까웠으며 네트워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을 70% 이상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 가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이 있는 경우 연계와 협력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 IV-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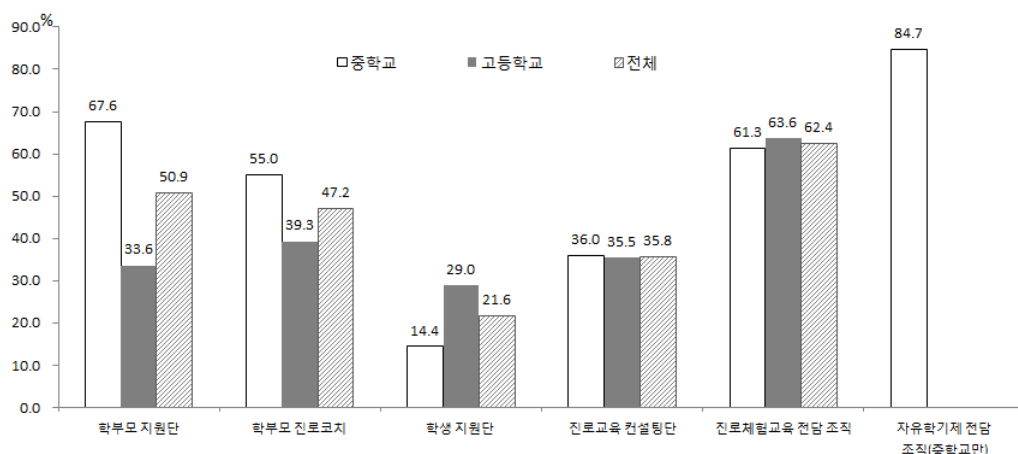
표 IV-57 지역사회 내 외부기관 및 전문 인력 여부에 따른 협력 정도 및 네트워크 운영 정도

구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도와주는 외부기관이나 외부전문인력이 있다		계	$\chi^2(df)$
			예	아니오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예	빈도	90	25	115	68.08(1)*
		%	41.3	11.5	52.8	
	아니오	빈도	23	80	103	
		%	10.5	36.7	47.2	
	계	빈도	103	115	218	
		%	51.8	48.2	100.0	
진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협의회 등 네트워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예	빈도	84	30	114	45.69(1)*
		%	38.5	13.8	52.3	
	아니오	빈도	29	75	104	
		%	13.3	34.4	47.7	
	계	빈도	113	105	218	
		%	51.8	48.2	100.0	

* $p < .001$

(4) 자원 인력 활용 정도 및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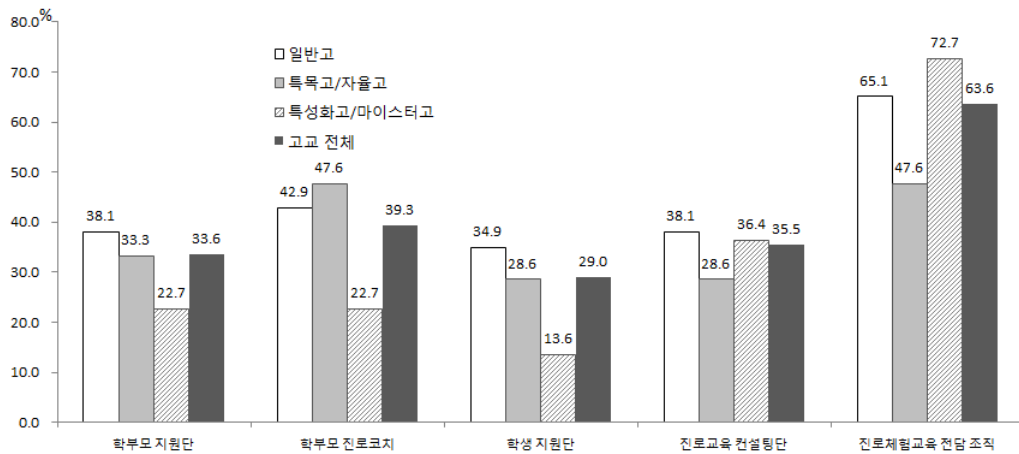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인력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84.7%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에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력조직으로는 진로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전담조직으로 전체 학교의 62.4%가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 지원단(50.9%), 학부모진로코치(47.2%), 진로교육컨설팅단(35.8%), 학생지원단(21.6%) 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급에 따라 운영조직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학부모를 활용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많았던 반면, 학생을 활용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많았다(그림 IV-16).



【그림 IV-16】 중고등학교 자원 인력 활용 정도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 유형 간 비교를 해 보면(그림 IV-17), 일반고와 특목고/자율고는 특성화/마이스터고에 비해 학부모 지원단이나 학부모 진로코치, 학생지원단을 많이 운영하였다. 또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는 다른 조직보다 진로체험교육 전담 조직과 진로교육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에서는 학부모 진로코치와 진로체험교육 전담조직을 다른 조직보다 많이 운영하였다. 이처럼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인력조직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 내 인력자원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특성화/마이스터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가 많은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에서는 학부모를 활용한 조직이 많았다.



【그림 IV-17】 고등학교 유형별 자원 인력 활용 정도

한편 자원인력 운영이 진로교육에 주는 도움정도에 대해 살펴보면(표 IV-58), 평균적으로 진로체험교육 전담조직(3.29점)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전담조직(3.25점), 진로교육 컨설팅단(3.07점), 학생지원단(3.0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진로코치(2.71점)의 도움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으나 중앙값(2.5점)보다 높은 점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전반적으로 자원 인력 활용의 도움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규모나 학교급 등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58

자원 인력 활용의 도움 정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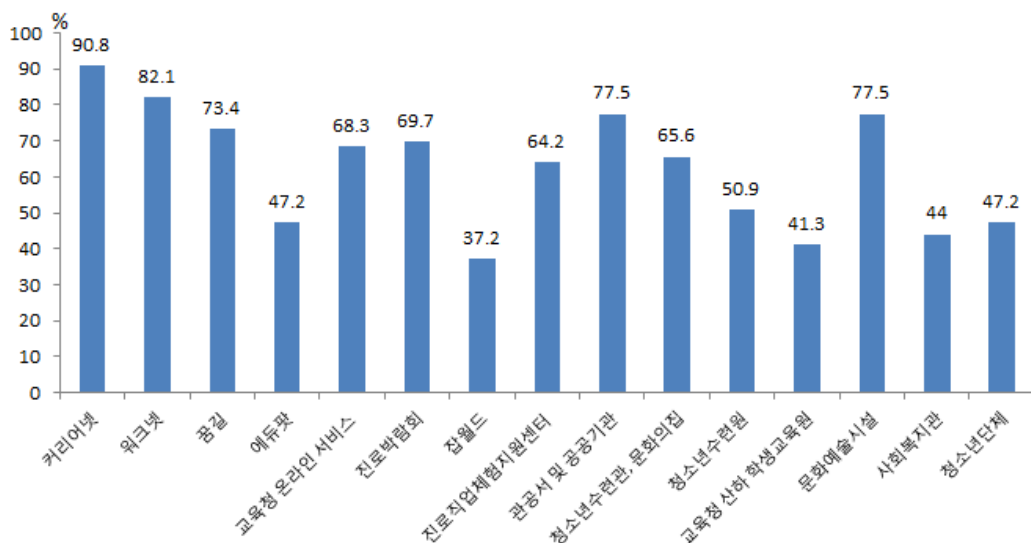
구분	도움정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학부모지원단	2 (1.8)	28 (25.5)	59 (53.6)	21 (19.1)	2.90 (0.716)
학부모진로코치	4 (4.0)	37 (37.4)	42 (42.4)	16 (16.2)	2.71 (0.786)
학생지원단	0 (0.0)	8 (18.6)	26 (60.5)	9 (20.9)	3.02 (0.636)
진로교육 컨설팅단	2 (2.7)	8 (11.0)	46 (63.0)	17 (23.3)	3.07 (0.673)
진로체험교육 전담조직	1 (0.8)	7 (5.6)	72 (57.1)	46 (36.5)	3.29 (0.608)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전담조직	1 (1.1)	9 (10.1)	46 (51.7)	33 (37.1)	3.25 (0.679)

* 예술고/체육고(1개교)를 제외한 값임.

(5)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정도 및 도움 정도

각 학교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정도와 그에 따른 도움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및 시설은 커리어넷으로 전체 응답학교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워크넷(82.1%), 관공서 및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시설(박물관, 공연장 등)(각 77.5%), 꿈길(7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일 적게 이용하는 시설로는 잡월드(37.2%),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41.3%), 사회복지관(44%), 청소년단체와 에듀팍(각 47.2%)으로 절반 이하의 학교에서만 이들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그림 IV-18). 학교급별 및 고등학교 학교유형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 및 시설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워크넷,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청소년단체를 많이 이용하였고,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꿈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공서 및 공공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고등학교의 이용률이 중학교에 비해 낮았으나, 특성화/마이스터

고의 이용률은 중학교의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를 끌었다. 특목고/자율고의 경우는 청소년단체를 제외하고 외부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이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 진로체험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8】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정도

한편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정도가 진로교육에 주는 도움정도에 대해 살펴보면(표 IV-59), 평균적으로 진로체험교육 커리어넷(3.48점)의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워크넷(3.40점), 청소년 수련관/문화의 집(3.23점), 진로박람회(3.20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듀팟(2.41점)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중앙값(2.5점)보다 높은 점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전반적으로 담당 교사들은 외부 서비스 및 시설은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규모나 고등학교 유형별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는 일부 항목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잡월드($t(77) = 3.904, p < .001$),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t(134) = 2.308, p < .05$),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t(138) = 3.252, p < .001$),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t(87) = 2.628, p < .01$), 문화예술시설($t(152) = 2.985, p < .01$)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59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도움 정도

빈도(%)

구분		도움정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커리어넷	중학교	1 (1.0)	5 (5.0)	41 (40.6)	54 (53.5)	3.47 (0.641)
	고등학교	0 (0.0)	3 (3.2)	42 (44.2)	50 (52.6)	3.49 (0.563)
	계	1 (0.5)	8 (4.1)	83 (42.3)	104 (53.1)	3.48 (0.603)
워크넷	중학교	0 (0.0)	6 (6.9)	47 (54.0)	34 (39.1)	3.32 (0.600)
	고등학교	0 (0.0)	2 (2.2)	43 (47.8)	45 (50.0)	3.48 (0.545)
	계	0 (0.0)	8 (4.5)	90 (50.8)	79 (44.6)	3.40 (0.577)
꿈길	중학교	8 (8.1)	27 (27.3)	39 (39.4)	25 (25.3)	2.82 (0.908)
	고등학교	4 (6.9)	21 (36.2)	27 (46.6)	6 (10.3)	2.60 (0.771)
	계	12 (7.6)	48 (30.6)	66 (42.0)	31 (19.7)	2.74 (0.863)
에듀팟	중학교	5 (9.4)	22 (41.5)	22 (41.5)	4 (7.5)	2.47 (0.775)
	고등학교	6 (12.2)	25 (51.0)	13 (26.5)	5 (10.2)	2.35 (0.830)
	계	11 (10.8)	47 (46.1)	35 (34.3)	9 (8.8)	2.41 (0.800)
지역교육청 진로정보센터 운영 온라인 서비스	중학교	0 (0.0)	16 (22.5)	40 (56.3)	15 (21.1)	2.99 (0.665)
	고등학교	1 (1.3)	10 (13.3)	53 (70.7)	11 (14.7)	2.99 (0.581)
	계	1 (0.7)	26 (17.8)	93 (63.7)	26 (17.8)	2.99 (0.621)

구분		도움정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진로박람회	중학교	0 (0.0)	4 (5.6)	44 (61.1)	24 (33.3)	3.28 (0.562)
	고등학교	0 (0.0)	9 (11.8)	48 (63.2)	19 (25.0)	3.13 (0.596)
	계	0 (0.0)	13 (8.8)	92 (62.2)	43 (29.1)	3.20 (0.583)
잡월드***	중학교	0 (0.0)	1 (2.4)	21 (51.2)	19 (46.3)	3.44 (0.550)
	고등학교	1 (2.6)	10 (26.3)	20 (52.6)	7 (18.4)	2.87 (0.741)
	계	0 (0.0)	1 (1.3)	11 (13.9)	41 (51.9)	3.16 (0.706)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중학교	1 (1.2)	9 (11.1)	41 (50.6)	30 (37.0)	3.23 (0.694)
	고등학교	0 (0.0)	12 (21.8)	33 (60.0)	10 (18.2)	2.96 (0.637)
	계	1 (0.7)	21 (15.4)	74 (54.4)	40 (29.4)	3.13 (0.682)
관공서 및 공공기관	중학교	0 (0.0)	8 (8.4)	67 (70.5)	20 (21.1)	3.13 (0.531)
	고등학교	0 (0.0)	12 (17.4)	44 (63.8)	13 (18.8)	3.01 (0.606)
	계	0 (0.0)	20 (12.2)	111 (67.7)	33 (20.1)	3.08 (0.565)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중학교	0 (0.0)	1 (1.4)	43 (59.7)	28 (38.9)	3.38 (0.516)
	고등학교	1 (1.4)	4 (5.8)	52 (75.4)	12 (17.4)	3.09 (0.535)
	계	1 (0.7)	5 (3.5)	95 (67.4)	40 (28.4)	3.23 (0.543)

구분		도움정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수련원	중학교	0 (0.0)	6 (10.7)	40 (71.4)	10 (17.9)	3.07 (0.535)
	고등학교	1 (1.9)	6 (11.3)	34 (64.2)	12 (22.6)	3.08 (0.646)
	계	1 (0.9)	12 (11.0)	74 (67.9)	22 (20.2)	3.07 (0.589)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중학교	0 (0.0)	1 (2.8)	22 (61.1)	13 (36.1)	3.33 (0.535)
	고등학교	1 (1.9)	7 (13.2)	36 (67.9)	9 (17.0)	3.00 (0.620)
	계	1 (1.1)	8 (9.0)	58 (65.2)	22 (24.7)	3.13 (0.607)
문화예술시설 **	중학교	0 (0.0)	5 (5.2)	60 (62.5)	31 (32.3)	3.27 (0.552)
	고등학교	1 (1.4)	7 (9.9)	53 (74.6)	10 (14.1)	3.01 (0.548)
	계	1 (0.6)	12 (7.2)	113 (67.7)	41 (24.6)	3.16 (0.563)
사회복지관	중학교	1 (2.0)	1 (2.0)	37 (75.5)	10 (20.4)	3.14 (0.540)
	고등학교	2 (4.4)	6 (13.3)	29 (64.4)	8 (17.8)	2.96 (0.706)
	계	3 (3.2)	7 (7.4)	66 (70.2)	18 (19.1)	3.05 (0.628)
청소년단체	중학교	1 (2.4)	5 (11.9)	28 (66.7)	8 (19.0)	3.02 (0.643)
	고등학교	2 (3.4)	12 (20.3)	40 (67.8)	5 (8.5)	2.81 (0.629)
	계	3 (3.0)	17 (16.8)	68 (67.3)	13 (12.9)	2.90 (0.640)

※ 예술고/체육고(1개교)를 제외한 값임.

* $p < .05$ ** $p < .01$ *** $p < .001$

외부 서비스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상설직업체험시설(52.3%)을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직업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8.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체험터-학교 간 연결)과 지역사회 전담 기관 및 전문 인력 배치(각 6%) 순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상설로 운영되는 직업체험시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어떤 직업체험터의 발굴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활용한 체험터가 필요하다는 응답(18.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IT·과학 분야(15.6%), 박람회·잡월드·캠프 등(11.5%), 접근성이 좋고 지속적인 직업 체험터(10.6%) 순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이러한 언급은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분야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체험 분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험터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소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로상담이나 검사,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 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 상급학교 설명회 및 견학 등을 진로체험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반면 진로 및 직업 체험시설 방문이나 직업현장 체험, 직업현장실무체험, 원격화상진로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학교는 적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모든 체험활동을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은 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정도가 높은 만큼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진로교육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정도는 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높지 않아 교사-학생간 도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이나 인터넷 활용, 상급학교 설명회 및 탐방, 직업현장실무체험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도움의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고등학교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중학교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영도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정도

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규모가 작을수록 그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교사 10명 중 4명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으며, 10명 중 3명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역의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 학교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 서비스 및 시설은 커리어넷이며 그 다음으로 워크넷, 관공서 및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시설, 꿈길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간에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 및 시설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목고/자율고는 청소년단체를 제외하고 외부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이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 진로체험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담당 교사들은 외부 서비스 및 시설은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잡월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문화예술시설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상설직업체험시설을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으로 언급하였으며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활용한 체험터, IT·과학 분야, 박람회·잡월드·캠프, 접근성이 좋고 지속적인 직업 체험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일선에서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이러한 언급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분야 뿐 아니라 향후 직업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체험 분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험터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사례조사 결과

1) 사례조사의 목적과 방법

사례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대상은 학교와 지역사회이다. 학교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역사회 사례는 전국에 203개가 설치되어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산어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조사방법은 현장방문을 통한 참여관찰과 인터뷰조사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컨설팅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나 컨설팅과정에서 교사 또는 관련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기간은 2016년 4월에서 10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일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자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및 자문을 통하여 습득된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정보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비교하였으나 일본 등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교는 2017년에 실시될 예정으로 일본과의 비교는 각주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일본의 교사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2016년 9월에 한국진로교육 일본방문단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 일본 해외출장시 제38회 일본진로교육학 대회에 참석한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방문 및 인터뷰대상 일람은 다음과 같다.

표 IV-60 현장방문 기관 및 인터뷰 대상자 일람

기관		K중학교, Y중학교, M중학교, D중학교, S진로체험센터, N진로체험센터, C진로체험센터, W진로체험센터, K진로체험센터, H청소년수련원
인터뷰 대상자	한국	K교육청 장학사, D교육지원청 장학사, Y중학교 교장, K중학교 교감, K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H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D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Y진로체험센터장, W진로체험센터장, N진로체험센터장, N진로체험센터 직원, H청소년수련원 지도자
	일본	S고등학교 진로교사, T고등학교 진로교사, M공업고등학교 교사, O대안고등학교 교사

2) 사례조사 결과

(1)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체험활동 운영: 가능성과 한계

2016년 전국의 3,186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진로체험활동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방문한 중학교, 그리고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렇지만, 방문을 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이 대체로 자유학기제를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반응은 다소간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활동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모두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에 국한된 반응을 추출할 수 없지만, 자유학기제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진로체험활동이고, 설사 진로체험활동이 아니더라도, 이론적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진로발달의 효과가 반드시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발현될 수도 있다는 점과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넓게는 진로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학기제 운영의 효과를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로 대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은 시미즈(清水, 2014)가 주장하는 대로 학교 전체 교육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실제 Y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자유학기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첫째,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잘 적응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듬활동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변화를 보인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워졌어요.” (K중학교 교감, K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A지역 아이들과 B지역 아이들은 서로 잘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모듬활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처럼 아이들끼리 반목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Y중학교 교장)

둘째, 학교와 교사들의 변화이다.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지고, 상호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유학기 담당은 1학년부장 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1학년 부장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협업이 중요하다. 자유학기제가 잘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두 교사의 협업은 물론 다른 교사들과의 협업도 잘 이루어진다. 체험처나 강사를 섭외하거나, 학교 밖 체험활동을 나갈 때는 1학년 담임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목표인 수업개선은 모든 학년 교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협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서 교사들 간의 협업도 잘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물론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지만, 자유학기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교사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반응도 처음과는 다르다는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교사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점점 교사들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수업들을 해보게 되면서, 스스로들 새로운 수업에 만족하고...아이들의 변하니까...” (K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요, 지금은 만족해 하세요.” (Y중학교 교장)

물론 모든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현장을 방문한 학교들과 자유학기 운영에 만족해하는 교사들이 재직하는 학교들은 2016년에 처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2~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3년의 시범사업운영을 거치는 동안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은 듯하다. 반면, 2016년에 처음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학교들은 경험이 있는 학교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음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K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이 쪽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저희 하고는 좀 달라요.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희는 경험이 있지만, 그 쪽들은 이제 막 시작해서... ” (K중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사)

그러나 반드시 자유학기제 운영경험만이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김현철, 윤혜순(2012)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연구를 보면,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장의 리더십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중학생 직업체험활동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리더십은 중요하다(清水, 2014). 심지어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경우에도 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김현철, 2013).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장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점을 인정한다.

“사실, 저희 학교교장 선생님이 매우 오픈 마인드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도 있어요. 거꾸로 다른 학교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그 부분이죠. 한국 학교에서는 아직은 그래요.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K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분명히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즐거워진 듯하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로체험활동은 보다 포괄적인 목표 아래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로체험활동은 즐거운 활동이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 2장에서 다룬 이론과 실천의 관계 또는 콜브(Kolb) 등이 제안한 경험학습이론은 체험활동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교과와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즉, 진로체험활동을 그저 오후시간에 운영하는 자율활동이 아니라 교과전체와 연계함으로써, 교과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진로체험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清水, 2014).

다양한 시도들과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진로체험활동이 오후시간에 하는 자율활동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교과와의 연계는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경향도 보인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내부자원이 없고, 지역사회 자원도 부족해서 원거리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원격화상진로멘토링이나 진로체험버스 등 진로교육을 위한 농산어촌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농산어촌의 자원은 여전히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농산어촌의 교사들이 도시의 교사들보다 지역사회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자유학기제 지원예산의 경우를 보면, 예산지원이 50명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인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가용예산이 대규모 학교보다 많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지출의 목적도 있고 해서 외부자원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원거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자연스럽게 외부자원의존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정작 근거리 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소규모 시설보다는 대도시지역의 대규모 시설 같은 곳을 방문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동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도 벌어진다.

“이 근처의 농촌 학교는 소인수 학교인데, 학교예산에 여유가 있다보니, 저희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먼 곳까지 버스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와 연계하기가 힘들 어요.” (H 청소년수련원지도자)

“사실 우리 학교는 아이들 하나 당 예산이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이죠. 이 예산 쓰 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기부도 많다보니, 예산쓰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Y중학교 교장)

자유학기제와 함께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진로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교사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에서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진로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5년과 2016년에 교육대학원에 진로교육전공을 신설해서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잖아요? 진로진학상담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 말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H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저희 스스로도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교육대학원

출신의 석사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바람직하게 생각해
요.” (H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일본의 중학생 직업체험활동은 전반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진학교)와 기타 일반학교(진학다양교)의 구분이 명확히 되고 있어서 진학교의
경우에는 진학다양교에 비해 진로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간에는 탐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진로교육을 꾸려왔지만,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 일본고등학교 진로교사)

“무엇보다 일반교과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내 할 일 아니다는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T 일본고등학교 진로교사)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마을사업으로의 진화

진로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자유학기제가 도입(2016년)되
고, 진로교육법(2015년)이 시행되었으며,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공공기관의 경험부족과 학교와의 연계경험부족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저기 공공기관에서 최근(9월)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문이 날아와요.
그런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쓸모없을 때가 많아요. 학교는 이미 2월이면 계획
다 짜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공문 보내주면, 사실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내기 힘든 프로그램들도 많구요.” (D교육지원청 장학
사)

아직은 공공기관과 학교가 연계한 경험이 적다보니, 서로 간의 필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전국 203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매칭의 역할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관내 지역의 학교들, 특히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이 비교적 많지만, 전반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지역연계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많이 호소한다. 역할 정체성의 문제도 호소한다.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대부분 예산이 거의 최저수준(2천만원을 약간 넘는 정도)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직 직원 한 명이 지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도맡는 경우 많기 때문에 특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많은 센터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 한 명이 다 맡아하고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죠. 자원발굴해야죠. 진로멘토 관리해야죠. 꿈길 등록에...최근에는 체험터 인증업무까지...정말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고용도 불안하고...” (N진로체험센터 직원)

“사실 센터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건지...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Y진로체험센터장)

그렇지만, 몇몇 센터들은 지역사회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센터들은 대부분 예산은 다른 센터들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센터직원들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의 관심이 많아야 한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센터들은 이런 조건들 중에 최소한 하나의 조건을 갖춘 곳들이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최선의 조건이 된다. 양자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의 역할은 더욱 힘들어진다.

“저희 지역은 교육청 장학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력이 정말 잘 이루어져요.” (W진로체험센터 팀장)

“지자체, 교육지원청, 저희는 시어머니가 둘 있는 셈이에요. 양쪽이 너무 손발이 안맞으니까...힘들죠.” (N진로체험센터장)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센터들의 공통된 특징은 마을연계사업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또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을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운영방식은 분명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사업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둘째, 지역사회자원 확보에 유리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연계되고, 사업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자원 발굴에 있어서 눈덩이효과가 발생한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사회연계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지역은 원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하거든요.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이런 농촌 지역에서도 자원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W진로체험센터팀장)

“네트워크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마을의 많은 전문인력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지역에만 900개가 넘는 체험터를 발굴했으니까요. 앞으로 천개까지 발굴하는게 목표예요. 이 정도는 되야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Y진로체험센터장)

지역마다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애초부터 해당지역의 지역네트워크가 강한 이점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역네트워크가 강한 곳이란 없다.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센터가 단순히 자원발굴과 매칭이라는 사업구상에만 치중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당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사회연계사업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역사회자원은 반드시 발굴의 대상만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 이를 테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은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다. 진로체험활동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만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직업체험터의 봉사자들, 이른바 진로멘토들은 청소년들을 다루는 데는 미숙하다. 대부분의 진로멘토들은 청소년들을 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곳곳의 센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 분들이 아이들 다루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기들 자신도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도 해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Y진로체험센터장)

아무리 지역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도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발굴하고, 매칭하는 일 때문에 센터와 학교 그리고 직업체험터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센터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교사나 센터의 직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업체험터 발굴을 청소년들이 직접 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청소년들이 3~5명의 소인수로 직업체험터에서 견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만큼 많은 체험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체험터 발굴 자체가 센터나 학교 입장에서는 큰 짐이 된다. 그러나 자신들이 체험할 체험터를 학생들 스스로 발굴하는 작업을 한다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험터를 발굴하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체험활동이 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체험터를 직접 발굴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물론 실패하거나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를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직업체험터를 발굴하니까 더 많은 체험터를 발굴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더 좋은 거예요.” (K교육청 장학사)

5. 소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진로체험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성숙정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배경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험한 진로체험활동의 내용을 보면, 진로심리검사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및 체험이 많고, 상대적으로 진로상담이나 직업체험활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더 많은 진로상담의 기회나 직업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PISA 2012자료를 통한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진로상담이나 직업체험활동의 기회가 적게 나왔고, 가설적인 수준이지만, 이것이 낮은 직업역량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이 평소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분야의 직업체험일지라도 70% 안팎의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직업체험활동 기회의 확대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업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평소에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활동의 경우에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방법론적으로는 가급적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춘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교의 유형이나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지역규모 등에 따라서 기회의 편차가 있으며, 결과변인인 진로성숙도 등에서도 같은 편차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진로체험활동의 기회에 있어서도 평등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끝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노동과 사회경제 생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매우 낮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향후의 정책적인 숙제로 남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과는 달리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 진로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포함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난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볼 때 학교는 여전히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단순히 진로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의 활성화가 아닌 지역사회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7년도에 아시아진로개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국을 먼저 선정하여야 하나, 최종적인 비교대상국은 2017년도 아시아진로개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진로교육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할 국가로 한정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아직 참여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교대상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국제회의에 참가가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PISA 2012의 진로교육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참여국 중 아시아 국가/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도 국제회의에서 제출하고, 보고할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교사, 장학사,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ISA 2012 조사에서 나타나는 진로체험활동 경험의 양과 직업역량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에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의 양이 적고, 직업역량의 수준도 낮다는 사실로부터 ‘진로체험활동 경험은 직업의 역량을 향상시키는가?’라는 질문을 기본적인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진로체험활동 관련 진로이론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체험활동은 직업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도 연구를 통해서 국가비교 및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같은 가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어떤 조건, 특히 정책적이거나 환경적인 조건들이 배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밝히고자 한다.

2. 정책제언

지금까지 논의한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에 대한 탐색,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비교,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교사 및 현장전문가, 진로교육 관련 장학사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 2016년에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국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은 2017년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비교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1) 학교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선 및 진로담당교사의 역량강화

①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제안의 배경

- 청소년 진로체험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진로체험은 심리검사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인 반면, 진로상담이나 직업체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사하게 PISA 2012 진로교육조사결과를 이용한 국제비교조사결과에서도 한국은 심리검사나 인터넷활용 등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은 많은 반면, 진로상담이나 인턴십, 직업체험활동 같은 진로체험활동 경험은 적었다.
- 또한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검토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직업체험활동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온 만큼 학교에서 직업체험활동의 기회를 늘려야 하지만, 청소년 진로체험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직업체험이라도 평소 흥미를 가진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더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직업체험활동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진로교육 전문가들과의 상담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진로교사와의 상담기회를 늘리고, 진로담당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역량개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정책제언

- 홀랜드 검사 등 진로심리검사는 단순검사에 그치지 않고, 진로검사를 통해 자기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맥락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 진로심리검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

- 진로심리검사결과를 절대적인 척도로 이해시키기 보다는 검사결과를 통해서 자기자신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이이해 프로그램과 직업의 이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모듈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에서는 물론 진로박람회, 잡월드 등 여러 진로체험활동 참여시 진로검사가 너무 빈번히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심리검사를 활용하더라도 다른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제공터나 기관을 발굴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체험터를 발굴해야 하지만, 체험터 발굴에 한계가 있고, 발굴하더라도 학생들의 흥미 요소에 맞춰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소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하고, 동아리나 모둠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체험터를 발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4장 사례조사 참조).

- 학생들이 진로체험터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 희망조사 후, 발굴된 체험터의 범위 안에서 매칭시키는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체험터 발굴과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상담교사들의 진로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상담교사의 진로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수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들 간의 자조모임 또는 교사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사연수를 대체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집체교육방식보다는 자발적인 워크숍 또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진로담당교사들은 물론 일반교사들도 다른 교사들이 하는 사례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교육학회 등 진로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교사들의 사례발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참고로, 일본진로교육학회에서는 매년 연차대회에서 진로담당교사들이 발표하는 세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제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진로담당교사 간에 교류하는 세션을 구성하여 교사들에게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 2017년부터 교과교사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나, 이 경우, 지정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여 석사학위 취득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문적인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2)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① 주요 연구결과 정책제안의 배경

-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0~40%의 교사가 지역사회자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안전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사례조사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의 경험이 부족하여 상호연계하기 힘든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가 용이해 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점이 학교의 요구시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학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같은 센터의 기능은 특히 지역사회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② 정책제언

- 교사들이 지역사회자원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지역사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터 인증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현재 교육부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체험터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현재 인력 및 예산구조를 어려움이 있어, 다른 대안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더욱이 계속해서 체험터가 증가할 경우, 인증시스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지원서비스가 부실해 질 우려도 있다.
 -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은 오히려 학교가 끊임없이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높여가는 방법이다. 이 같은 조치는 결국 학교에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나, 임장지도의 원칙을 포함하여 학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신뢰와

안전의 문제를 외부에 의지하는 방식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는 매년 연계한 기관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결과를 축적해 가야 한다. 즉, 학교내부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시스템 등 너무 과도한 외부시스템 구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입장지도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학교의 저항이 따르고, 이것이 오히려 진로체험활동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부모지원단 등 외부인력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학부모지원단이나 외부인력에 대한 연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에도 소정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적정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하거나,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이 학교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는 2월까지 해당기관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의 교육기부 담당자나 진로멘토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제공되더라도 결국은 강사나 공공기관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각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교육청의 교원연수원에서 공공기관 교육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각 지역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공공기관 교육기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자원 연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하고,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므로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현재는 고양시 등 일부 지역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전국 203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예산은 최저 800만원에서 12억까지 그 편차가 매우 심한데, 예산의 많고 적음은 지자체의 관심여하에 달려 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교육청예산이나 교육부특교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3,0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는 지자체가 출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이외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협조도 절대적이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로 인하여 지자체와도 정치적인 코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단위에서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문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협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통일의 필요성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논의의 장은 마련되어야 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① 주요 연구결과 정책제안의 배경

- 교사대상 설문조사결과, 농산어촌의 학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지역사회자원이 부족하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정착 이들 시설들이 어떻게 진로교육에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전국 203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64개의 센터를 청소년수련시설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지 교육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② 정책제언

- 농산어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역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각 지역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해당지역 학교의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이미지를 각인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떻게 지역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에 기여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 최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 진로교육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에서 어떻게 진로교육을 추진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용 진로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 매뉴얼에서는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기존의 청소년활동 사업을 진로교육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청소년활동이 진로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주어야 한다.
- 특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센터가 단순히 체험터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기능이 아닌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중심이 되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타기관 위탁운영의 경우보다 장점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설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교육과학기술부 (2013).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 및 교육청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6).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구자옥, 김성숙, 임해미, 박해영, 한정아 (2015).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상위국 성취특성 및 교육맥락변인 영향력 비교분석(연구보고 RRE 2015-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경준, 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232.
- 김기현, 유성렬 (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병숙, 전종남 (2004).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유형 및 직업정보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17(1), 20-38.
- 김소라, 황영준 (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 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71-93.
- 김아영, 유성경, 김봉환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 한국고용정보원.
- 김우영 (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자료.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김정은 (2015). 예비 특성화 고등학생의 강점기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3), 233-253.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주섭 (2003). 재학 중 일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선 (2016). 진로발달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 자료집, 16-S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효선, 양승호 (2012).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특성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진로교육연구, 31(1), 57-74.
- 김현철 (2013).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정책의 방향모색: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NYPI 기획세미나.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사례와 방향성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최승경, 최동호(2016). 모의실험에 의한 리커트형 설문분석 방법의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2), 373-380.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혜진 (2002).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46.
- 박가열 (2008).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15-130.
- 박가열, 남기성, 오민홍, 임영식, 정철영, 김성환 외 (200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 추적조사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송미영, 김성숙, 구자옥, 임해미, 박혜영, 한정아, 손수경 (2014).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컴퓨터 기반 평가 결과 분석(연구보고 RRE 2014-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병국, 박정배 (2006). 청소년의 활동경험과 진로선택준비도와와의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 19(2), 33-50.
- 송지혜, 이상원 (2016, 3, 2).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 시사인, Retrived from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1>.
- 송창용, 장현진, 감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 (2014). 2014년도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교육부,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현순, 정성봉 (1998). 進路成熟 關聯 變因에 대한 메타 分析. 한국실과교육, 4(1), 95-104.
- 신선영, 송명자, 이현림 (2009).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2(1), 145-170.
- 신혜정 (2016, 6, 18). 퇴사하려는 신입사원, 꼭 붙잡으려는 회사들. 한국일보, Retrived from <http://hankookilbo.com/v/2ffd636dfc0d47b3a235da28535aaa0c>
-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 (2009). 특성요인이론에 따른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45-64.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조혜영, 박민경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3-R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14-R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어윤경 (2015). 진로체험 중심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연구, 30(1), 27-49.
- 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윤지영, 이운선 (2016). 문항반응이론 가정검증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모수추정모형 비교연구: PISA 2009 읽기검사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9(1), 25-49.
- 이경상, 유성렬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 김현희, 박현수, 조주연 (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연구보고 05-R1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혁 (2016).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홀랜드이론 및 진로정보처리이론.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 자료집, 16-S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연 (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129-150.

- 이지연 (2015). 학생의 꿈과 끼를 맞추는 진로교육: 한국의 학교 진로상담(지도) 종합 지원체제. 2015년 제4회 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화, 김현숙 (2012).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급단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91-217.
-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 이현림, 손향숙 (2006).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2), 101-116.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253-276.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애경 (2016).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사회학습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 자료집, 16-S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은숙 (2011).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191-208.
- 조지민 (2012).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PISA 2012 본검사 시행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효정, 황매향 (2014). 직업체험중심 진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5(4), pp.285-312.
- 진미석 (2013). 왜 진로체험활동인가. 제3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윤정 (2012).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의한 진로교육 개입 유형 탐색 및 유형별 성과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21-41.
- 최윤정, 김지은 (2012).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 태도와의 관계: 다수준 분석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13(2), 81-106.
- 최창욱, 한도희 (2015).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22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근 (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4), 19-36.
- 황매향 (2016).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 자료집, 16-S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이미영, 안시영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5-R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ulmani, G. (2015). A Livelihoods Approach to Career Guidance in Asia. IAEVG International Conference, 66.
- Beard, Colin, Wilson, John P. (2006). Experiential Learning. Kogan Page Ltd.
- EUROSTAT.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Population_and_social_conditions에서 2014년 9월 인출.
- Gysbers, N., & Henderson, P. (1988). Developing and managing your school guidance program.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Gysbers, N. (1990). Comprehensive guidance programs that work. Ann Arbor, MI: ERIC Counseling and Personnel Services Clearinghouse.
- Gysbers, N.C., Hepper, M.J., & Johnston, J.A. (2003). Career counseling - Processes, issues and techniques(2nd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ILO. ILOSTAT Database. <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에서 2014년 10월 인출.
- ILO. LABORSTA Internet. <http://laborsta.ilo.org/>에서 2014년 10월 인출.
- IRF (2013). World Road Statistics 50th Anniversary.
- ITU (2013). Yearbook of Statistics: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2003-2012.
- ITU. ICT Statistics Home Page.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default.aspx>에서 2015년 1월 인출.

- Kolb, David A.(2015).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 Hall.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373–4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55–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 OECD (2009). *PISA Data Analysis Manual: SPSS*,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 OECD (2011). *Educational Career Questionnaire for PISA 2012*. OECD Publishing.
- OECD (2014). *PISA 2012 Technical report*. OECD Publishing.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Peterson, G. W., Sampson, J. P., and Reardon, R. C. (1991).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 Said, E. W., 박홍규 역 (1995).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4.
- Simon, H., 배진아 역 (2014). *히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 서울: 흐름출판.
- Smith, E., Green, A., & Brennan, R. (2001). A foot in both camps: School students and workplaces. In *Research to Reality: Putting VET Research to Work*. Proceedings of the 4th Austral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Association (AVETRA) Conference. Adelaide, Australia.
- Sweet, R., Nissinen, K. & Vuorinen, R. (2014). An analysis of the career development items in PISA 2012 and of their relationship to the characteristics

- of countries, schools, students and families. The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Research Paper No. 1.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14년 9월 인출.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14년 9월 인출.
- Thompson, M. N., & Dahling, J. J. (2012). Perceived social status and learning experiences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351–361.
- UN (1987). *Demographic Yearboo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 (1990). *Demographic Yearboo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 (1995). *Demographic Yearboo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 (2009).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
- UN (2012). *Demographic Yearbook system*, *Demographic Yearbook 2011*.
- UN (2013). *Demographic Yearbook system*, *Demographic Yearbook 2012*.
- UN (2014). *Demographic Yearbook system*, *Demographic Yearbook 2013*.
- UN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 UN. *Demographic Yearbook system*, *Demographic Yearbook*, *Tabulations on Households' Characteristics*.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yb_Household/dyb_household.htm에서 2014년 12월 인출.
-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에서 2015년 1월 인출.
-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 UNESCO. *Statistics: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에서 2014년 10월 인출.
- Whiston, S. C., Brecheisen, B. K., & Stephens, J. (2003). Does treatment modality affect career counseling effec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390-410.

White House (2016). Women in STEM. Retrieved from the White House website
<https://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ostp/women> (July 1, 2016).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www.who.int/gho/en/>에서 2014년 9월
 인출.

日本ILO協会 (2004). 主要国の労働時間制度. 世界の労働 54(10), 54-61.

日本総務庁統計局 (1960, 2000). 国勢調査結果.

清水隆彦 (2014). キャリア教育で変える学校経営論. 東京: 実業之日本社.

今野浩一郎 (2005). アジア諸国の若年層向け職業訓政策. JILPT. Business Labor
 Trend. 2005. 11.

井出和貴子 (2014), “ASEANにおける教育の充実と経済成長:中等教育以上の人材育成
 がカギ”, 「新興国経済」, 大和総研.

総務省統計局 (2015). 世界の統計. 東京: 総務省.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4). 人口統計資料集.

井出和貴子 (2014), “ASEANにおける教育の充実と経済成長:中等教育以上の人材育成
 がカギ”, 「新興国経済」, 大和総研.

【SkillsFuture】

<http://www.moe.gov.sg/skillsfuture/>

【교육과 진로 지도】

[http://www.moe.gov.sg/education/programmes/social-emotional-learning/ed
 ucation-career-guidance/](http://www.moe.gov.sg/education/programmes/social-emotional-learning/education-career-guidance/)

부 록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1) 학생용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22

Gallup 2016-163-006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1. 서울 7. 울산 13. 전북	2. 부산 8. 세종 14. 전남	3. 대구 9. 경기 15. 경북	4. 인천 10. 강원 16. 경남	5. 광주 11. 충북 17. 제주	6. 대전 12. 충남
학 교 구 분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고등학교 구분 * 고등학교만 기입	1. 일반 2. 자율(자사고, 자공고) 3. 마이스터고 4. 특성화고 5.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6. 예술고, 체육고					
학 교 유 형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학 년 / 반	()학년 ()반					
반 유 형	1. 남학생 반 2. 여학생 반 3. 남녀 합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명 남 ()명 여 ()명				
	조사 완료	전체 ()명 남 ()명 여 ()명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박선경 선임연구원 || ☎ 02-3702-2115

★ 중학생은 문1부터, 고등학생은 문3부터 응답해 주세요.

문1. (중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과거에 있다
☐ ② 현재 참여중이다
☐ ③ 없다 → '문2'로 가세요
☐

문1-1. 자유학기제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1학기 ③ 중학교 2학년 1학기 ⑤ 중학교 3학년 1학기
 ② 중학교 1학년 2학기 ④ 중학교 2학년 2학기 ⑥ 중학교 3학년 2학기

문2. (중학생만 응답해 주세요)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일반고 진학 ⑤ 해외 유학 또는 이주
 ②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진학 ⑥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③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 ⑦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④ 예술고, 체육고 진학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문대 진학(2~3년제) ⑤ 군 입대
 ② 4년제 대학교 진학 ⑥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③ 해외 유학 또는 이주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취업 또는 창업

문4. **최근 일 년 동안(2015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진로 체험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학교 활동으로 했습니까, 학교 밖 활동으로 했습니까? 또한, **각 활동은 내 진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학교 밖 활동이란, 학교 이외에 가정이나 사회단체 등(예: 청소년활동단체, 종교단체, 학교 밖 동아리, 학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활동을 의미합니다.
☞ 단, 사회단체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통해서 연결되어 진행되었다면, 이는 학교 활동에 포함됩니다.
(예: 학교를 통해 잡월드 방문)

항 목	참여 여부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 유형			참여한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없다	있다	학교 활동	학교 밖 활동	학교 및 학교 밖 활동 둘 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진로심리검사(스트롱(STRONG) 검사, 홀랜드(HOLLAND) 검사, 흥미검사, 적성검사, 자능검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진로 상담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자와 일대일 또는 집단 상담에 참여한 경우)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3)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 수집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4) 인터넷 활용 (정보 검색, 동영상 보기 등)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5)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이나 대화 나누기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6)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화상통화를 통하여 직업인 멘토로부터 멘토링 서비스 받기)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7)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설명회 참석 또는 학교 탐방 견학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8) 직업 및 진로 체험시설 (잡월드, 엑스포 등) 방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9) 직업현장 체험(기업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 견학 및 기업 설명회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0)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예: 인턴, 도제식 수업 등)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1)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문 4-1로 가세요

문4-1. (‘문4’ 의 (8), (9), (10)번에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 업무 환경에서 체험을 한 분야를 최대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번호로 기입)

(1) (2) (3)

- ① 공공기관 견학 및 업무 체험(시청, 구청 등)
- ② 경찰, 소방, 교도 분야 기관 견학 및 업무 체험
- ③ 군인 관련 기관 견학 및 업무 체험(군부대, 사관학교, 군의관, 군무원 등)
- ④ 금융, 보험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은행, 보험회사 등)
- ⑤ 법률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검사, 판사, 변호사 등)
- ⑥ 교육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유치원, 학원, 대학 등)
- ⑦ 상담·복지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심리 상담사, 그림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⑧ 보건, 의료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의사, 약사, 간호사 등)
- ⑨ 방송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감독, 배우, 아나운서, PD, 촬영기사, 기자 등)
- ⑩ 문화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작가, 카피라이터, 번역, 통역, 학예사, 사서 등)
- ⑪ 예술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화가, 만화가, 사진작가, 작곡가, 무용가 등)
- ⑫ 디자인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패션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등)
- ⑬ 미용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애완동물미용사 등)
- ⑭ 오락, 스포츠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카지노딜러, 골프장캐디, 경기감독, 심판, 레크레이션강사 등)
- ⑮ 결혼, 여행서비스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승무원, 웨딩플래너, 여행가이드 등)
- ⑯ 음식서비스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바리스타, 요리사, 바텐더, 웨이터 등)
- ⑰ 식품가공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제과, 제빵, 떡, 식품가공 등)
- ⑱ 과학 분야 연구기관 등 견학 및 업무 체험(로봇, 화학, 생물 등)
- ⑲ 정보통신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웹개발자, PC/모바일게임 기획자, IT컨설턴트 등)
- ⑳ 건설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건축가, 토목공학, 인테리어 등)
- ㉑ 기계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자동차, 선박, 철도, 엘리베이터 등 제조)
- ㉒ 선박, 항공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조종사, 관제사, 항해사 등)
- ㉓ 재료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등)
- ㉔ 화학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화장품 제조, 비누 제조, 타이어/고무/농약/가스/플라스틱 제조 등)
- ㉕ 섬유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섬유, 직물, 염색, 한복제조, 모피, 가죽, 양장, 신발 등)
- ㉖ 전기, 전자 관련 견학 및 업무 체험(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 등)
- ㉗ 목재, 가구, 공예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가구제조, 악기제조, 귀금속/보석제조 등)
- ㉘ 농림어업 분야 견학 및 업무 체험(작물재배, 가축사육, 동물조련사, 산림관리, 양식업, 어부, 해녀 등)
- ㉙ 기타(적을 것 : _____)

문4-2. ('문4' 의 (8), (9), (10)번에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4-1' 에서 응답한 체험시설, 직업현장 및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체험과** 관련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합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진로체험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2) 진로체험 활동은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3) 진로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4) 진로체험을 통해 그 분야의 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5**부터는 모든 학생이 응답합니다.

문5.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합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란 내가 일상생활 및 활동을 하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노력하면 내가 사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에는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6. **최근 일 년 동안(2015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7'로 가세요

문6-1.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란, 최근 일 년 동안(2015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일한 (누적)시간이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를 말합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붙이기) | ⑨ 택배/이삿짐 상하차 및 운반 |
| ② 치킨/피자 등 음식 배달 | ⑩ 공장 생산직 직원 |
| ③ 주유소 직원 | ⑪ 건축/공사현장 근로 |
| ④ 편의점 직원 | ⑫ 사무업무 보조 |
| ⑤ 카페 직원 | ⑬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 ⑥ 음식점/레스토랑/패스트푸드점 직원 | ⑭ 아기, 노인 돌보기 |
| ⑦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 ⑮ 놀이공원 도우미 |
| ⑧ 일반상품(옷, 장신구 등) 판매 | ⑯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2.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는 얼마동안 계속했습니까?

- | | |
|-----------------|-----------------|
| ① 1주일 미만 |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②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 ⑤ 6개월 이상 |
|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

문6-3.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의 일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시간씩, 일주일에 일

문6-4.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 | 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
| ② 학비를 벌기 위해 | ⑥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
| ③ 일상적인 용돈을 벌기 위해 | ⑦ 주위(가족이나 친구 등)의 권유로 |
| ④ 원하는 것을 사려고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5.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합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3)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졌다	①	②	③	④
(4)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졌다	①	②	③	④
(5)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6)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7)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8) 새로운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9)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10) 책임감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문7.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합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내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1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15)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7)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20)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22)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알고 있는 진로지식이 정확한지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26) 내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내 도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8.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약간 안다	매우 잘 안다
(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진학하기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진학하기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자료 분류용 질문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태어난 해는 몇 년도입니까?

--	--	--	--

 년

배경문항 3. 자신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1)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4. 현재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와 함께 산다

② 한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과 산다

③ 부모님 없이 다른 보호자(조부모, 친척 등)와 산다

④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조부모, 친척 등) 없이 형제·자매끼리만 산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배경문항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과 비교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하		←		중	→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니니, 졸업한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고등학교 "중퇴"는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학교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잘 모르겠음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배경문항 7. 학생의 성적은 학교 전체에서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하		←		중	→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교사용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23

Gallup 2016-163-006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진로체험활동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국가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학 교 구 분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고등학교 구분	1. 일반	2. 자율(자사고, 자공고)	3. 마이스터고			
* 고등학교만 기입	4. 특성화고	5.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6. 예술고, 체육고			
학 교 유 형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 (중학교만 기입)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 대하여 연도별(2013~2016)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집중학년제(학기제) 운영 현황을 선택해주시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 사립학교, 연구학교, 희망학교로 실시한 경우도 운영한 것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연 도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유형 (중복 선택 가능)	학년	학기			해당없음
			1학기	2학기	1,2학기 모두	
2013년	1. 자유학기	()학년	①	②	③	98. □
	2. 진로탐색집중학기제(학년제)	()학년	①	②		
2014년	1. 자유학기	()학년	①	②	③	98. □
	2. 진로탐색집중학기제(학년제)	()학년	①	②		
2015년	1. 자유학기	()학년	①	②	③	98. □
	2. 진로탐색집중학기제(학년제)	()학년	①	②		
2016년	1. 자유학기	()학년	①	②	③	98. □
	2. 진로탐색집중학기제(학년제)	()학년	①	②		

발 주 기 관

조 사 기 관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Gallup KOREA**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박선경 선임연구원 || ☎ 02-3702-2115

문1. 현재 귀 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진로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실시하고 있지 않음	실시하고 있음	실시하고 있다면, 진로 교육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진로심리검사(스트롱(STRONG) 검사, 홀랜드(HOLLAND) 검사, 흥미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2) 진로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3) 책이나 홍보물을 통한 정보 수집	①	②	①	②	③	④
(4) 인터넷 활용 (정보 검색, 동영상 보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5)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이나 대화 나누기	①	②	①	②	③	④
(6)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화상통화를 통하여 직업인 멘토로 부터 멘토링 서비스 제공)	①	②	①	②	③	④
(7)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설명회 참석 또는 학교 탐방 견학	①	②	①	②	③	④
(8) 직업 및 진로 체험시설 (잡월드, 엑스포 등) 방문	①	②	①	②	③	④
(9) 직업현장 체험(기업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 견학 및 기업 설명회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④
(10) 직업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체험 (예: 인턴, 도제식 수업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1) 기타(적을 것: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문1-1. ('문1' 에서 2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귀 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중('문1' 에서 응답하신 (1)~(11)항목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최대 세 가지만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① ()

② ()

③ ()

문2.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부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귀 교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응답해 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구성원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내의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5)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장의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6) 학교진로교육 성취기준에 따른 진로교육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7)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자유학기제는 일반학기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중학교만 기입	①	②	③	④
(9)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중학교만 기입	①	②	③	④
(10)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중학교만 기입	①	②	③	④
(11) 자유학기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알고 있다 * 중학교만 기입	①	②	③	④

문3.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교가 속한 지역의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응답해 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때 교통편 이용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4) 관내 지역에 가용한 직업체험터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5) 근거리 지역보다는 원거리 지역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직업체험터 발굴 등)하기 위해 도와주는 외부기관이나 외부전문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8) 진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협의회 등 네트워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① 예 ② 아니오

문4. 현재 귀 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을 위한 아래와 같은 자원이력인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다면, 진로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항 목	운영하고 있지 않음	운영하고 있음	운영하고 있다면, 진로교육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학부모 지원단	①	②	①	②	③	④
(2) 학부모 진로코치	①	②	①	②	③	④
(3) 학생 지원단	①	②	①	②	③	④
(4) 진로교육 컨설팅단	①	②	①	②	③	④
(5) 진로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전담조직	①	②	①	②	③	④
(6)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전담조직 * 중학교만 기입	①	②	①	②	③	④
(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문5. 현재 재고는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시설/기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신다면, 진로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항 목	이용하고 있지 않음	이용하고 있음	이용하고 있다면, 진로교육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커리어넷	①	②	①	②	③	④
(2) 워크넷	①	②	①	②	③	④
(3) 꿈길	①	②	①	②	③	④
(4) 에듀넷	①	②	①	②	③	④
(5) 지역교육청 진로정보센터 운영 온라인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6) 진로박람회	①	②	①	②	③	④
(7) 잡월드	①	②	①	②	③	④
(8)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9) 관공서 및 공공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주로 도심이나 생활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	①	②	①	②	③	④
(11) 청소년수련원(주로 도심 밖에 위치하며,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로 수련회 등 학교단체 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시설)	①	②	①	②	③	④
(12)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①	②	①	②	③	④
(13) 문화예술시설(박물관, 공연장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4) 사회복지관	①	②	①	②	③	④
(15) 청소년단체(RCY, 보이·걸스카우트, 누리·한별단,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우주소녀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1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문6.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자원을 위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문7. 향후 어떤 직업체험터의 발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자료 분류용 질문

배경문항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선생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9		
---	---	--	--

년

배경문항 3. 선생님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	--	--	--

년

--	--

월

배경문항 4.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일한 총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배경문항 5.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이전의 담당교과는 무엇입니까? 직접 적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배경문항 6. 귀 교 학생들의 평균 가정 형편(경제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과 비교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이다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7. 귀 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우리나라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전체에서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한다		← 보통이다 →			매우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direction for Korea's career education policy through a comparison of youth career-based activities in Asian countri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career education research in Asian countries through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youth career education that will be hosted in 2017.

According to relevant theories on career-based activities, the impact of career-based activities can be enhanced through intervention of experts, job-based experience activiti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by the youth. Based on the results of PISA 2012 career education survey, in nations with youth who manage a significant amount of career-based activities, they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er youth work competencies, and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ies in Asia. However, in order to reveal the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ffect of career-based activities, a more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soci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in each country is necessary.

In a survey conducted o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large number of youth believed that career-based activities would be helpful to their careers, and in cases where the field was intriguing or the youth actively participated in these activities, the positive effects were manifested to a greater extent, and the more they felt that various career-based activities were beneficial to them, the greater they were developed in career maturi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roportion of youth who had part-time job experience was low, and they rarely participated part-time jobs for the purpose of career development. However, it was found that having experience with part-time jobs provided the youth with opportunities to contemplate on socio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based on a survey conducted on middle and high school counselors in Korea, whereas they hold a generally positive sentiment towards career-based activities and relevant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by community agencies, they feel difficulty with regards to career-based activities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show negative response towards the quality of such programs and safety issues.

When looking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youth career-based activities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there has been a quantitative expansion in career-based activities. Although several issues have surfaced in terms of operations, the number of success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along with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local communities were involved. As measures to revitalize youth career-based activities, improving school career-based activity programs, strengthening career counselor's competences, revitalizing career-based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and boosting career-based activities in youth centers were proposed.

Key words : cross-national comparison in Asia, youth career-based activities, youth part-time job, effect of career-based activitie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9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37-0(93330)